

한영  
대역

# 수궁가

## 바디별전집2

정응민 바디 · 강도근 바디

Jeong Eung-min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Jeong Gweon-jin)  
Gang Do-geun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Gang Do-geun)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수궁가바디별전집 2

2010년 11월 25일 인쇄

2010년 12월 1일 펴냄

지은이 || 채록·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Philip Owen

발 행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02) 3704-9114

전라북도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063) 280-211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1층

☎ (063) 232-8398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 - 04810

978-89-5925- - (전4권)



수궁가  
바디별전집2

##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네 번째 결과물이다. 2007년에는 〈춘향가〉, 2008년에는 〈심청가〉, 2009년에는 〈홍보가〉를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수궁가〉 여덟 바탕을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수궁가 바디별 전집》(1-4)을 내게 되었다.

이 성과물은 총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연수 바디 오정숙 창 수궁가〉와 〈유성준 바디 박복남 창 수궁가〉, 2권은 〈정웅민 바디 정권진 창 수궁가〉와 〈강도근 바디 강도근 창 수궁가〉, 3권은 〈박봉술 바디 송순섭 창 수궁가〉와 〈박초월 바디 최난수 창 수궁가〉, 4권은 〈정광수 바디 정광수 창 수궁가〉와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수궁가〉이다. 이만하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수궁가〉 바디를 망라하고, 같은 바디인데도 창자에 따라 다른 것까지 포괄하여 자막으로 사용할 때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12권의 책과 석 장의 CD를 내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분

에 넘치는 칭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동시에 받았다. 칭찬을 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질책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다 이 작업의 소중함을 먼저 인식하고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울 뿐이다.

판소리 사설의 번역 작업은 다른 번역 작업에 비해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각종 고사와 지명, 인명에다가 우리 민속, 그리고 한시들과 지극히 한국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번역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의 예술성을 살려서 번역해야 한다는 명제에 수긍은 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였다. 번역자들의 능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번역은 ‘자막 제작’이라고 하는 매우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다. 자막은 공연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위해 제공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판소리를 부르는 시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에 상관 없이 원문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게 번역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 사설의 예술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데 대한 질책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판소리 사설의 영어 번역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열망 때문에 분에 넘치는 일을 벌였다는 점을 해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번역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이 번역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다 좋은 번역을 내놓기를 바란다. 이 번역이 훗날의 더 좋은 번역을 위한 작은 디딤돌 노릇이라도 온전히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명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예쁜 디자인을 맡아주신 여태명문자조형연구소의 여태명 선생과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다시 가을이 깊다. 이 작업을 시작한 후 네 번째 맞는 가을이다. 깊어가는 가을을 따라 우리의 삶도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0년 깊어가는 가을

최동현 · 박승배 씀

## 차 례

■ 책머리에 • 4

■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11

### ★ 정응민 바디 수궁가(정권진 창)

1. 용왕 득병 .....	14
2. 도사 문병 .....	14
3. 약성가 .....	16
4. 토끼 간 처방 .....	22
5. 어전 회의 1. ....	26
6. 어전 회의 2. ....	30
7. 별주부 상소 .....	34
8. 토끼 화상 .....	38
9. 별주부 아내와 작별 .....	40
10. 고고천변 .....	44
11. 날짐승 상좌 다툼 .....	48
12. 길짐승 상좌다툼 .....	52
13. 호랑이 등장 .....	58
14. 별주부 호랑이를 부름 .....	60
15.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	62
16. 별주부 호랑이 축송 .....	66
17. 별주부 산신제 .....	72

18. 별주부 토끼 상면 .....	74
19. 토끼 흥미 자랑 .....	78
20. 토끼의 팔난 .....	84
21. 수궁 흥미 .....	88
22. 여우 만류 .....	92
23. 별주부 토끼 유인 .....	94
24. 범피중류 .....	100
25. 토끼 잡아들임 .....	106
26. 토끼의 피 .....	110
27. 수궁 풍류 .....	120
28. 토끼 방정 .....	124
29. 별주부 애원 .....	126
30. 토끼 생환 .....	128
31. 토끼 별주부 조롱 .....	132
32. 토끼 그물에 걸림 .....	138
33. 초동목수 신세 타령 .....	142
34. 토끼 살아남 .....	144
35.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	148
36-A. 정권진 후일담 .....	156
36-B. 정회석 후일담 .....	160



★ 강도근 바디 수궁가(강도근 창)

1. 용왕 득병 .....	230
2. 어전 회의 .....	230
3. 거북 천거 .....	234
4. 물메기, 방개, 조개 천거 .....	236
5. 별주부 자원 .....	238
6. 별주부 모친 만류 .....	242
7. 별주부 부인 작별 .....	244
8. 고고천변 .....	248
9. 봉황새 상좌다툼 .....	252
10. 까마귀와 부엉이의 상좌 다툼 .....	254
11. 길짐승 상좌 다툼 .....	258
12. 노루, 너구리의 상좌 다툼 .....	258
13. 멧돼지 등장 .....	260
14. 토끼 등장 .....	262
15. 호랑이 등장 .....	264
16.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	272
17. 별주부 목 내력 .....	276
18. 산신제 .....	282
19. 별주부 토끼 상면 .....	282
20. 녹수청산 .....	290
21. 토끼의 험난한 생활 .....	292
22. 수궁 흥미 .....	298
23. 토끼와 별주부 강가 당도 .....	306
24. 범피중류 .....	308

25. 토끼 잡아들임 .....	314
26. 토끼의 피 .....	320
27. 수궁 풍류 .....	330
28. 별주부 애원 .....	334
29. 토끼 생환 .....	340
30. 토끼 별주부 조롱 .....	342
31. 토끼 그물에 걸림 .....	344
32. 초동목수 신세타령 .....	348
33. 토끼 살아남 .....	350
34.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	354
35. 후일담 .....	362

##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정응민 바디 수궁가(정권진 창)

Jeong Eung-min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Jeong Gweon-jin)

## 1. (용왕 득병) 남해 용왕이 병을 얻어 나을 가망이 없자, 홀로 탄식을 한다.

[아니리] 갑신년 중하월<sup>1)</sup>에 남해 광리왕<sup>2)</sup>이 영덕전<sup>3)</sup> 높이 짓고,  
삼해 용왕<sup>4)</sup>을 청하실 제  
군신빈객<sup>5)</sup>이 천승만기<sup>6)</sup>요,  
강한지장<sup>7)</sup>과 천택지군<sup>8)</sup>이 일시에 모여들 제,  
주악<sup>9)</sup>이 뽕진<sup>10)</sup>하고 평주교착<sup>11)</sup>이라.  
이삼일 노니더니,<sup>12)</sup>  
남해 용왕이 영해천열풍<sup>13)</sup>을 과히<sup>14)</sup> 썩어 졸연득병<sup>15)</sup>하여,  
약방<sup>16)</sup> 도제조<sup>17)</sup>를 불러 주야로 약을 쓰되  
만무회춘지망<sup>18)</sup>이라,  
용왕이 탄식을 하시는디,  
[진양조] 영덕전<sup>19)</sup> 높은 집에 벗 없이 홀로 누워 애통하여 우는 말이,  
“천무열풍<sup>20)</sup> 좋은 시절 해불양파<sup>21)</sup> 태평헌디,  
괴이한 병을 얻어 신음중에<sup>22)</sup> 누웠으니,  
살려줄 이 뉘 있으며, 구하여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냐?”  
애통<sup>23)</sup>하여 울음을 운다.

## 2. (도사 문병) 도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왕의 병세를 살 핀다.

[엇모리] 하루는 현운<sup>24)</sup> 흑무,<sup>25)</sup> 하루는 현운 흑무 공중을 뒤덮고,  
표풍세우<sup>26)</sup>가 사면으로 내리더니,

**1. (The Dragon King Gets Ill)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gets ill. He is not likely to recover, so he despairs.**

[Aniri] In May of a certain year,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builds a new palace.

He invites three dragon kings of three seas.

There are numerous kings and officials with their carriages and horses.

Soldier fishes from rivers, streams, and ponds gather simultaneously.

The part is magnificent with music and wine.

They have a good time for a few days.

Overexposed to the hot wind of the wide sea,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suddenly gets ill.

Government doctors try medicines on the king day and night.

There is no hope he will get well.

He laments over his fate.

[Jinyangjo] The king lies in a high building of the sea palace alone and wails sadly.

“The people enjoy peace and prosperity now.

But I got a strange disease, and I am in distress.

Who can help me? Who can save me?”

The dragon king weeps sadly.

**2. (A God Visits) A god comes down from heaven and diagnoses the dragon king.**

[Eonmori] One day, dark clouds and mist cover the sky.

A whirlwind blows and a drizzle comes down everywhere.

어떠한 청의도사<sup>27)</sup> 몸에는 마포장삼,<sup>28)</sup> 손에는 옥<sup>29)</sup>을 쥐고, 궁중으로 내려와 재배이진왈,<sup>30)</sup>  
 “약수삼천리<sup>31)</sup>의 해당화 구경과 백운 요지연<sup>32)</sup>의 천년벽도<sup>33)</sup>를 얻으려고 지하<sup>34)</sup>에 왔삽더니,  
 풍편<sup>35)</sup>에 듣사온즉 대왕의 병세가 만만위중타허옵기로<sup>36)</sup> 뵈옵고 저<sup>37)</sup> 왔나이다.”

### 3. (약성가) 도사가 온갖 약과 침법을 다 써도 용왕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는다.

[아니리] 용왕이 왈,<sup>38)</sup>

“도사 이리 오시기는 하늘의 도움이라.

원컨대 도사는 황황한<sup>39)</sup> 나의 병세를 자세히 짐작하사<sup>40)</sup> 선약<sup>41)</sup>을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 왈, “우선 맥<sup>42)</sup>을 보사이다.”

[자진모리]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 맥<sup>43)</sup>을 볼 제,

“심소장<sup>44)</sup>은 화<sup>45)</sup>요,

간담<sup>46)</sup>은 목<sup>47)</sup>이요,

폐대장<sup>48)</sup>은 금<sup>49)</sup>이요,

신방광<sup>50)</sup> 수<sup>51)</sup>요,

비위<sup>52)</sup>는 토라.

간목<sup>53)</sup>이 태과<sup>54)</sup>하야

목극토<sup>55)</sup>허였으니 비위가 상하옵고,<sup>56)</sup>

담경<sup>57)</sup>이 심허니<sup>58)</sup> 신경<sup>59)</sup>이 미약허고,

폐대장이 왕성허니 간담경<sup>60)</sup> 자진<sup>61)</sup>이라.



A god wearing blue clothing and a hemp coat, and holding a jade scepter in his hand comes down to the sea palace, bows twice, and speaks.

“I have come to the earth to see wild roses and a long river and to pick divine peaches by a legendary pond.

I heard Your Majesty had a serious illness. I’m here to see you.”

### **3. (Medicine Song) The god tries all sorts of medicines and needles, but the dragon king does not get better.**

[Aniri] The dragon king says,

“You have come here. Heaven must be helping me.

I am seriously ill. I wish you to diagnose me carefully and show me an efficacious medicine.”

The god says, “Let me check your pulse.”

[Jajinmori] The king holds out his hand, and the god checks his pulse.

“The heart and the small intestine are Fire.

The liver and the gall bladder are Wood.

The lungs and the large intestine are Gold.

The kidney and the bladder are Water.

The spleen and the stomach are Earth.

Your liver is too strong.

Wood defeats Earth, so your liver has injured your spleen and stomach.

Your gall bladder is so strong that your kidneys are weak.

Your lungs and large intestine overshadow your liver and gall bladder.

방서<sup>62)</sup>에 일렸으되, 비<sup>63)</sup>는 일신지조종<sup>64)</sup>이요,  
 담<sup>65)</sup>은 내일신지표본<sup>66)</sup>이라.  
 심정즉 만병이 식히고,<sup>67)</sup>  
 심동즉 만병이 생하오니,<sup>68)</sup>  
 심경<sup>69)</sup> 곧 상하오면 무슨 병이 아니 날까?  
 오로칠상<sup>70)</sup>이 급하오니  
 보중탕<sup>71)</sup>으로 잡수시오.”  
 숙지황<sup>72)</sup> 주중<sup>73)</sup> 닷 돈<sup>74)</sup>이요,  
 산사육<sup>75)</sup> 천문동<sup>76)</sup> 세신<sup>77)</sup>을 거토하고,<sup>78)</sup>  
 육정용<sup>79)</sup> 택사<sup>80)</sup> 앵속각<sup>81)</sup> 각 한 돈, 감초<sup>82)</sup> 칠 푼,  
 수일승전반연용<sup>83)</sup> 이십여 첩<sup>84)</sup>을 쓰되 효무동정<sup>85)</sup>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백출탕<sup>86)</sup>을 잡수시오.”  
 백출<sup>87)</sup>을 초구<sup>88)</sup>하야 서 돈이요,  
 사인<sup>89)</sup>을 초구하야 두 돈이요,  
 백복령<sup>90)</sup> 사향<sup>91)</sup> 오미자<sup>92)</sup> 회향<sup>93)</sup> 당귀<sup>94)</sup> 천궁<sup>95)</sup> 강활<sup>96)</sup> 녹각<sup>97)</sup>  
 각각 한 돈, 감초 칠 푼<sup>98)</sup>  
 수일승전반연용<sup>99)</sup> 삼십여 첩 쓰되 효무동정이라.  
 “양감<sup>100)</sup>이 급하오니 가미강활탕<sup>101)</sup>을 잡수시오.”  
 마황<sup>102)</sup> 두 돈, 진피<sup>103)</sup> 강활 방풍<sup>104)</sup> 백지<sup>105)</sup> 천궁 창출<sup>106)</sup> 승마<sup>107)</sup>  
 갈근<sup>108)</sup> 세신 각 한 돈, 감초 오 푼  
 수일승전반연용 사십여 첩을 쓰되 소무동정이라.  
 “신농씨<sup>109)</sup> 백초약<sup>110)</sup>을 갖가지로 다 쓰려다는<sup>111)</sup> 지레<sup>112)</sup> 먼저 죽  
 을 테니,  
 백초약을 한 데 모아 가마<sup>113)</sup>에 많이 댈여<sup>114)</sup> 한 번에 먹어 보자.”  
 약을 한 데 모을 적에,

A medical book says the spleen is the most important organ.  
The gall bladder is the indicator of the bodily condition.  
If you aren't anxious, all illnesses will disappear.  
If you have any anxiety, all illnesses will appear.  
If your heart is weak, all illnesses will appear.  
All your internal organs are weak.  
Please have some medicinal soup."  
The god prepares a steamed medicinal root.  
He shakes dust off medicinal fruit and a medicinal root.  
He also prepares medicinal plants, a root, a stem,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2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medicines above in vain.  
"You have serious diarrhea. Eat medicinal root soup."  
The god fries a medicinal root.  
He also roasts medicinal seeds.  
He prepares medicinal materials: a tuckahoe, a yam root, a schizandra, a fennel seed, an angelica root, an antler,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3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preceding medicines in vain.  
"Your positive energy is too strong. Take medicinal soup."  
He prepares medicinal materials: an ephedra stem, an old tangerine skin, a parsnip root, diverse roots, kudzu,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4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foregoing medicines in vain.  
"You might die before you take all of the herbal medicines one by one.  
Let's boil all of them together in an iron pot. Take them at once."  
The god puts all the medicines together.

인삼은 미감<sup>115</sup>)허니 대보원기<sup>116</sup>)허고, 지갈생진<sup>117</sup>)허며 조영양  
위<sup>118</sup>)로다.

백출은 감온<sup>119</sup>)허니 건비강위<sup>120</sup>)허고, 제사제습<sup>121</sup>)허고 겸치담  
비<sup>122</sup>)라.

감초는 감온허니 구즉온중<sup>123</sup>)허고 생직사화<sup>124</sup>)로다.

청심환<sup>125</sup>) 소합환<sup>126</sup>) 팔미환<sup>127</sup>) 육미환<sup>128</sup>)

경옥고<sup>129</sup>) 자음경옥고<sup>130</sup>)

백복령<sup>131</sup>) 적복령<sup>132</sup>)

대황<sup>133</sup>) 망초<sup>134</sup>) 창출, 백출, 승마, 갈근, 세신, 청피,<sup>135</sup>) 진피,  
반하,<sup>136</sup>) 육계,<sup>137</sup>)

천산갑,<sup>138</sup>) 단사,<sup>139</sup>) 연실,<sup>140</sup>)

회향,<sup>141</sup>) 당귀<sup>142</sup>) 천궁<sup>143</sup>) 강활,

목통,<sup>144</sup>) 오미자, 천문동, 맥문동,<sup>145</sup>)

호황련,<sup>146</sup>) 당황련,<sup>147</sup>)

가미육군자탕,<sup>148</sup>) 청서육화탕,<sup>149</sup>) 이원익기탕,<sup>150</sup>) 강활탕,<sup>151</sup>)

도인탕,<sup>152</sup>) 백사주,<sup>153</sup>) 위령탕,<sup>154</sup>)

두꺼비 오줌, 곰의 쓸개까지

신농씨 백초약을 갖가지로 다 먹어도 백약<sup>155</sup>)이 무효로구나.

참구<sup>156</sup>)로 다스리자.

동침<sup>157</sup>) 은침<sup>158</sup>) 빼어들고 혈을 잡아 침질혈 제,

천지지상경<sup>159</sup>)이니 유주<sup>160</sup>)로 주어보자.

갑일<sup>161</sup>) 갑술시에<sup>162</sup>) 담경<sup>163</sup>) 주유<sup>164</sup>)를 주고,

을일<sup>165</sup>) 유시<sup>166</sup>)에 대장경 상양<sup>167</sup>)을 주고, 영구<sup>168</sup>)로 주어 보자.

일 신맥,<sup>169</sup>) 이 조해,<sup>170</sup>) 삼 외관,<sup>171</sup>)

Ginseng is sweet, so it creates vigor, eases thirst, and strengthens the stomach.

A japonica root is warm and sweet, so it stops diarrhea and makes healthy the spleen, the stomach, and the gall bladder. A licorice root is warm and sweet too, but it is the best when it is fried and gives off heat in a raw state.

The doctor tries pills that clear one's heart and stomach, pills that restore vigor,

medicine for blood circulation, medicine for negative energy, white medicine, red medicine,

a rhubarb root, niter, roots, young and old tangerine skins,

a *Pinellia ternata* root, some cinnamon bark,

a dry bark, a medicinal mineral, lotus fruit,

herbal grass, an angelica root, a stem for alleviating pain,

a dry stem, schizandra, a medicinal root, a root increasing negative energy,

a medicinal root, a peptic root,

hematic soup, soup for the heart, soup for strengthening intestines, Apiaceae soup,

peach seed soup, white snake soup, soup for urination,

the urine of a toad, and the gall bladder of a bear.

All sorts of medicines of a famous ancient doctor do not work.

"Let's try acupuncture."

He takes out bronze and silver needles and applies them to the right spots.

He also chooses the right times for acupuncture.

He applies acupuncture on the gall bladder at the right time.

He applies acupuncture on the large intesti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oriental medical practice.

Needles are applied to the shinbones, the ankle bones, the wrists,

사 임읍,<sup>172)</sup> 육 공손,<sup>173)</sup>  
 칠 후계,<sup>174)</sup> 팔 내관,<sup>175)</sup> 구 열결,<sup>176)</sup>  
 삼기<sup>177)</sup>를 붙여 팔문<sup>178)</sup>과 좌맥<sup>179)</sup>을 풀어주되 효험이 없으니,  
 임맥<sup>180)</sup>과 독맥<sup>181)</sup>과 십이경맥<sup>182)</sup>을 주어 보자.  
 승장<sup>183)</sup> 염천<sup>184)</sup> 천돌<sup>185)</sup> 구미<sup>186)</sup>  
 거궤<sup>187)</sup> 상완<sup>188)</sup> 중완<sup>189)</sup> 하완<sup>190)</sup> 신궤<sup>191)</sup> 단전<sup>192)</sup>  
 곤륜<sup>193)</sup>을 주고, 족태음비경<sup>194)</sup> 삼음교<sup>195)</sup> 음릉천<sup>196)</sup>을 주어 보자.  
 아무리 약과 침구를 쓰되 병세<sup>197)</sup> 점점 위중<sup>198)</sup>하니,

#### 4. (토끼 간 처방) 도사가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니, 용왕은 토끼를 구하기 어렵다며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아니리] 용왕이 기가 막혀,  
 “도사께서 맥을 더 착실히 보아주옵고,  
 병명이나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가 다시 정신을 차려 용왕의 기색<sup>199)</sup>을 요만허고<sup>200)</sup> 살펴보니,  
 [중모리] 도사 맥을 다시 본다.  
 “맥이 경동맥<sup>201)</sup>이라  
 비위맥<sup>202)</sup>이 상하오니 복중<sup>203)</sup>에서 난 병이요,  
 복중이 절려<sup>204)</sup> 아프기는 화병<sup>205)</sup>으로 난 병인데, 음양풍병<sup>206)</sup>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동하여,<sup>207)</sup>  
 손기,<sup>208)</sup> 신기<sup>209)</sup>는 정음<sup>210)</sup>이요, 진경해미는<sup>211)</sup> 정양<sup>212)</sup>이라.

the top and bottom of the feet,  
fingers, palms, a part of the wrist,  
eight important parts of the king's body in vain.  
Needles are applied to twelve special parts of the king's body.  
They are the lower lip, the tongue bone, the chest bone, the  
space between ribs,  
upper parts of the navel, the navel, a lower part of the navel,  
an upper part of the ankle, and diverse parts of the feet.  
No matter how medicines and needles are tried, the king's illness  
gets worse.

**4. (Prescription of a Hare's Liver) The god says only  
a hare's liver can cure the king. The dragon king  
asks for a different prescription, saying it is hard  
to get a hare.**

[Aniri] The dragon king is speechless.

"God, please check my pulse carefully again,  
and tell me about the name of the disease."

The god collects himself and carefully checks the energy of the  
dragon king's face.

[Jungmori] The god checks the dragon king's pulse again.

"Your pulse moves in fear.

The veins in the spleen and stomach were damaged, so your  
illness occurred in the belly.

It stemmed from the mental disorder and the disharmony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energies.

Six energies were activated.

The strongest negative energy and the strongest positive energy  
coexisted.

음허화동<sup>213</sup>)에 황달<sup>214</sup>)을 겸하였사오니,  
진세산간<sup>215</sup>)의 천 년 토끼 간을 얻으면 차효<sup>216</sup>)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은 염라대왕이 동성<sup>217</sup>) 삼촌이요, 동박삭<sup>218</sup>)이가  
조상이 되어도 누루 황, 새암 천, 돌아갈 귀.”<sup>219</sup>)

**[아니레]** 용왕이 왈,

“신농씨<sup>220</sup>) 백초약은 어찌 약이 아니 되고, 조그만한 토끼 간이 약이  
되오리까?”

도사 왈, “대왕은 진이요, 토끼는 묘라.

묘을손은 음목이요,<sup>221</sup>)

간진술은 양토<sup>222</sup>)라.

갑인을묘대계수<sup>223</sup>)요,

진간사산원속목<sup>224</sup>)이라.

목극토<sup>225</sup>)하고

수생목<sup>226</sup>)하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진양조]** “연하다.<sup>227</sup>) 수연이나,<sup>228</sup>) 창망헌<sup>229</sup>) 진세간의<sup>230</sup>) 벽해<sup>231</sup>)

만경 밖의,<sup>232</sup>) 백운이 구만리요,<sup>233</sup>)

묘연한<sup>234</sup>) 수국중에<sup>235</sup>)

유사일로상<sup>236</sup>)의 약수삼천리<sup>237</sup>)라.

수국 진세<sup>238</sup>) 왕래간에<sup>239</sup>) 유현<sup>240</sup>)이 노수<sup>241</sup>)허니

어찌하여 얻으리까?

석자의<sup>242</sup>) 진시황은 만승천자<sup>243</sup>) 위엄<sup>244</sup>)으로

불사약<sup>245</sup>)을 구하려고 동남동녀<sup>246</sup>) 오백인을 허송삼산<sup>247</sup>)한 연후  
에<sup>248</sup>)

일발청산<sup>249</sup>)에 종적<sup>250</sup>)이 없었으니

못 구하고 죽었으며,



The negative energy shrunk, the positive energy rose, and jaundice followed.

A hare's liver from the mountain of the human world would work.

If you don't get a hare's liver, you will die even if the God of Death is your uncle, and even if your ancestor lived very long."

**[Aniri]** The dragon king speaks.

"How come a famous ancient doctor's medicines don't work, but a little hare's liver does?"

The god responds, "You are a dragon, and he is a hare.

Wood has negative energy.

Earth has positive energy.

Water is created.

A hare is Earth.

Wood overcomes Earth.

Earth and Wood create life together.

How can a hare's liver not be a medicine?"

**[Jinyangjo]** "That makes sense, but the human world is out of this blue sea, and far from her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vast sea country.

Sand moves by wind and water along a long river.

There is a big gulf between the sea country and the land.

How can I get a hare?

An ancient emperor, Qin Shi Huang(秦始皇) had enormous political power.

He sent five hundred boys and girls to a divine mountain to get the elixir of life.

They disappeared without a trace in the mountain.

The emperor failed to take the elixir of life and died.

만고영웅<sup>251</sup>) 한무제<sup>252</sup>) 승로반<sup>253</sup>)이 허사가 되어 육십삼 세 봉하시  
 니,<sup>254</sup>)  
 성쇠흥망<sup>255</sup>)이 때가 있고,  
 수명장단<sup>256</sup>) 재천<sup>257</sup>)이라.  
 여산 송백<sup>258</sup>) 울울창창<sup>259</sup>) 삼천고분<sup>260</sup>) 황제묘인데,  
 토끼라 허는 짐승은 해외<sup>261</sup>) 일월의 밝은 세상,<sup>262</sup>) 백운 청산 무정처  
 로<sup>263</sup>) 시비 없이<sup>264</sup>) 다니는 짐생을  
 내가 어찌 구하더란 말이오?  
 살길이 바이없네.  
 이제는 하릴없이 죽을밖에 수가 없네."

## 5. (어전 회의 1.) 용왕이 어전회의를 소집하니, 온갖 물고 기들이 들어온다

[아니리] 도사 이른 말이,  
 “태산지간에 유백규지사허고,<sup>265</sup>)  
 요순지군에 유고수지신이라.<sup>266</sup>)  
 대왕의 성덕<sup>267</sup>)으로 어찌 충의지신<sup>268</sup>)이 없으리까?  
 이제라도 수궁 만조제신<sup>269</sup>)을 불러 하교<sup>270</sup>)하여 보옵소서.”  
 말이 지자<sup>271</sup>) 인홀불견<sup>272</sup>) 간 곳이 없다.  
 용왕이 도사 말 옳이<sup>273</sup>) 듣고  
 수궁 만조백관<sup>274</sup>)을 일시에 불러들이는디,  
 이 세상 같으면 일품<sup>275</sup>) 재상님이 들어오실 터이로되,  
 수국이라 허는 곳은 맛진<sup>276</sup>) 고기가 지천<sup>277</sup>)이 되어  
 수궁 제신<sup>278</sup>)들이 들어오는데,

A hero for all ages, Han Wu Di(漢武帝), wanted to live forever  
but died at the age of sixty three.  
Heaven decides whether a country rise or fall.  
Heaven also determines the length of your life.  
There are thousands of imperial tombs in the mountain thick  
with pine trees and nut pine trees.  
A hare is an animal that wanders around in mountains and  
clouds under the sun and the moon in the bright outside world.  
How can I get one?  
There is no way to live.  
I am going to die for sure.”

## **5. (Royal Meeting 1.) The dragon king convenes a royal meeting. All sorts of fishes come.**

[Aniri] The god speaks to the king.  
“There is a scholar even in a mountain to become a government official.  
Even virtuous kings could have bad subjects.  
There is sure to be a loyal official because you are a virtuous king.  
Please call all the subjects of the sea palace and give an order to them.”  
After he finishes talking, the god suddenly disappears.  
The dragon thinks the god was right.  
He calls all the subjects of the sea palace.  
If this were the world of the land, the premier would come in first.  
In the sea country, delicious fishes are common.  
The subjects of the sea palace come in.

모다<sup>279)</sup> 물고기 등물들이<sup>280)</sup> 들어오겠다.

[자진모리] 승상<sup>281)</sup>은 거북,

승지<sup>282)</sup>는 도미,

판서 민어,

주서<sup>283)</sup> 오중어,<sup>284)</sup>

한림<sup>285)</sup> 박대,<sup>286)</sup>

대사성<sup>287)</sup> 도로목,<sup>288)</sup>

방첨사<sup>289)</sup> 조개,

해운궁<sup>290)</sup> 방개,<sup>291)</sup>

감옥관<sup>292)</sup> 수달,<sup>293)</sup>

유수<sup>294)</sup> 광어,<sup>295)</sup>

병사<sup>296)</sup> 청어,<sup>297)</sup>

군수 해구,<sup>298)</sup>

현감 홍어,

부서<sup>299)</sup> 찰방,<sup>300)</sup>

어사<sup>301)</sup> 송어,

대장 범치,<sup>302)</sup>

조부장<sup>303)</sup> 조구,<sup>304)</sup>

부변랑청<sup>305)</sup> 청달이,<sup>306)</sup>

가오리, 금군, 나줄,<sup>307)</sup> 순령수,<sup>308)</sup>

대원수<sup>309)</sup> 고래,

수피,<sup>310)</sup> 해구, 모조리,<sup>311)</sup>

원참군<sup>312)</sup> 남생이,<sup>313)</sup>

별주부<sup>314)</sup> 자라,

모래모자,<sup>315)</sup> 병어,

전어, 대구, 명태,

They are all fishes and aquatic animals.

[Jajinmori] A turtle is a minister.

A snapper is an advisor to the king.

A croaker is a minister.

An octopus is a recorder of history.

A shark is a minister of the government record.

A sandfish is a regulator.

A shellfish holds a military officer.

A diving beetle is a ship captain.

An otter is a prison official.

A flatfish is a provincial official.

A herring is a general.

A seal is a county administrator.

A skate is a provincial head.

A croaker is a provincial official.

A mullet is a royal inspector.

A goby is a general.

A yellow corbina is a military officer.

A blue ray is an inspecting official.

A ray is a soldier.

A whale is the chief of staff.

A seal is a gray mullet.

A tortoise is a military officer.

A terrapin is a low official.

A false minnow, a pomfret,

a shad, a cod, a pollack,

눈치,<sup>316)</sup> 준치, 삼치,  
 쫄치, 갈치, 물메기,<sup>317)</sup>  
 미끈덕 배암장어,<sup>318)</sup> 정언사령<sup>319)</sup> 짜가사리,<sup>320)</sup>  
 돌 밑에 껍지,<sup>321)</sup>  
 산 냇물에 중고기,<sup>322)</sup>  
 깊은 물에는 금잉어,  
 빛 좋은 피리,<sup>323)</sup> 망둥이,<sup>324)</sup>  
 짱둥이,<sup>325)</sup> 승통이,<sup>326)</sup>  
 올챙이, 개고리,<sup>327)</sup> 송사리,  
 논쟁이<sup>328)</sup>까지 그저 꾸역꾸역 들어와 용왕전에<sup>329)</sup> 복지청령<sup>330)</sup>하니,

## **6. (어전 회의 2.) 토끼 간을 구해 올 사람을 구하는데, 모두 적당하지 않다.**

[아니레] 용왕이 이만허고<sup>331)</sup> 보시더니,  
 “내가 용왕이 아니라, 팔월 대목장날 생선전<sup>332)</sup>의 도물주<sup>333)</sup>가 되었  
 구나.  
 병중에 입맛만 당기었제.  
 경네<sup>334)</sup> 중에 진세에 나가 토끼를 잡아 짐의 병을 쾌할 자<sup>335)</sup> 뉘<sup>336)</sup>  
 있는고?”  
 좌우의 신하들이 면면상고<sup>337)</sup>하고 묵묵부답<sup>338)</sup>이어늘,  
 [중모레] 용왕이 기가 막혀 탄식하여 우는 말이,  
 “할고사군<sup>339)</sup> 개자추<sup>340)</sup>와  
 광초망신 기신<sup>341)</sup>이는 죽을 임군<sup>342)</sup>을 살렸으니  
 군신유의<sup>343)</sup> 중할시고.<sup>344)</sup>  
 원통타, 우리 수궁 만어지중에<sup>345)</sup> 일충신<sup>346)</sup>이 없었으니,

a cornet fish, a herring, a mackerel,  
 a saury, a hairtail, a catfish,  
 a slippery eel, a small yellow catfish(a messenger),  
 a perch from under a stone,  
 a fish from a stream,  
 a golden carp from deep water,  
 a shiny minnow, a fish from a beach,  
 a fish with a big head, a fish,  
 a tadpole, a frog, and a minnow  
 come out continuously and kneel down in front of the dragon  
 king.

## 6. (Royal Meeting 2.) They seek an animal to get a hare. Nobody is appropriate.

[Aniri] The dragon king has been sitting back and watching his subjects.

“It looks like I am not a dragon king but a head merchant of the fish market before a big holiday.

You all stimulated my appetite when I am sick.

Who will go out to the world of the land and bring a hare to cure my disease?”

Subjects on the left and right are silent, looking at each other’s face.

[Jungmori] Struck dumb, the dragon king wails.

“Jie Zi Tui(介子推) saved his king by giving him his thigh to eat.

Ji Xian(紀信) saved his king by deceiving the enemy.

Subjects should be loyal to their king.

It is regrettable that I have a lot of fishes in the sea palace, but no one is loyal to me.

이 아니 원통허리?”

자탄<sup>347</sup>)을 마지않으니,

[아니레] 신자지도리<sup>348</sup>)로 저희들끼리 공론<sup>349</sup>)이 분분허되,<sup>350</sup>)

“숭어 너 어떠허뇨?”<sup>351</sup>)

“나는 세상에 나가고 싶되 횃감도 좋거니와 제찬<sup>352</sup>)으로 위주<sup>353</sup>)허니  
나갈 수 있나?”

“도미 너 어떠하뇨?”

“춘삼월<sup>354</sup>) 호시절<sup>355</sup>)에 풋고사리 맛난 판에 온통 찌개로 죽을 테니  
나갈 수 있나?”

뉘 아들놈이 앓어 죽지, 나가서 죽어야?”<sup>356</sup>)

저희들끼리 한참 이리 야단헐 제,

[중모레] 정언<sup>357</sup>)이 여짜오되,

“세상이라 허는 곳은 인심이 흉악하야

수궁 신하 얼른하면<sup>358</sup>) 잡아먹기 위주허니,

용맹 지혜가 없는 자 보내지를 못허리다.”

“수문장<sup>359</sup>) 물메기<sup>360</sup>)가 어떠헌고?”

“물메기는 장수구대<sup>361</sup>)하고 호풍신<sup>362</sup>) 수염 좋아

식량이 장히 넓어,<sup>363</sup>)

조그만헌 산천수<sup>364</sup>) 요기감<sup>365</sup>) 얻으려고 다니다가,

사립<sup>366</sup>) 쓴 저 어웅<sup>367</sup>) 세우사풍조불귀<sup>368</sup>)라,

입감<sup>369</sup>) 꿰어 던진 낚시 탐식<sup>370</sup>)하여 집어먹고 단불요대<sup>371</sup>) 죽거드면,

세상의 이질,<sup>372</sup>) 복질,<sup>373</sup>) 배아피,<sup>374</sup>) 술병<sup>375</sup>) 설사난 데 국 끓여 보  
위약<sup>376</sup>)만 되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군수 해구<sup>377</sup>)가 어떠헌고?”

“해구는 신경<sup>378</sup>)이 너무 좋아 호색<sup>379</sup>)을 허는 고로



How sad this is!"

The dragon king continues sighing.

**[Aniri]** The subjects discuss the matter as they should as subjects to the dragon king.

"How about you, the gray mullet?"

"I wish to go to the land, but humans eat me raw, and I am the best food during a ritual.

So I can't go there."

"How about you, the snapper?"

"I will die, being used for soup along with delicious young bracken in spring.

So I can't go there.

I would rather die here than there."

The subjects make a commotion as said above.

**[Jungmori]** The carp says,

"Humans on the land are cruel.

If a fish appears, they only try to eat it.

So we can't send one there who doesn't have wisdom and courage."

"How about the gatekeeper, the catfish?"

"The catfish looks good with a big mouth and long whiskers. But he eats a lot.

He will wander around in small streams, looking for food.

Old fishermen wearing bamboo hats will cast hooks.

The catfish will eat the baits on the hooks and die without fail.

He will be used in soup for dysentery, stomachache, a disease caused by alcohol, and diarrhea.

So we can't send him there."

"How about the seal, a country administrator?"

"Having too strong stamina, a seal is lascivious.

색필망신<sup>380</sup>)이라

보내지를 못허리라.”

“하낭청<sup>381</sup>) 새우가 어떠허뇨?”

“하낭청 새우는 용맹이 초등<sup>382</sup>)하여 뛰기는 잘하오나,

안정<sup>383</sup>)이 생긴 것이 단명지상<sup>384</sup>)이라

보내지 못하리라.”

해운공<sup>385</sup>) 방개<sup>386</sup>)가 썩 나서 살살 기어 복지주왈,<sup>387</sup>)

“신의 고향 세상이라. 신의 고향은 세상이라.

청림 벽계<sup>388</sup>) 산천수<sup>389</sup>) 가만히 잠신하야<sup>390</sup>) 수십 년을 사울 적에

월중토,<sup>391</sup>) 망월퇴<sup>392</sup>) 안면<sup>393</sup>)이 적실허니,<sup>394</sup>)

소신<sup>395</sup>)을 보내시면

소신의 엄지발<sup>396</sup>)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득<sup>397</sup>) 집어다가

대왕전<sup>398</sup>)에 바치리다.”

**[아니레]** 왕왈,<sup>399</sup>)

“너는 십각<sup>400</sup>)이 구존<sup>401</sup>)하여 걸음은 잘 걸으나,

인적<sup>402</sup>)이 얼른하면<sup>403</sup>) 뒷걸음질을 잘하기로

당대사<sup>404</sup>)를 믿지 못해 보내지를 못허리라.”

이렇듯 공론이 분분할 제,

## 7. (별주부 상소) 별주부가 자기가 가겠다고 상소를 올린다.

**[아니레]** 한참 이리 공론<sup>405</sup>)이 미결할 제,<sup>406</sup>)

**[진양조]** 영덕전<sup>407</sup>) 뒤로 한 신하 들어온다.

은목단죽<sup>408</sup>)이요, 장경오획<sup>409</sup>)로다.

호흥배<sup>410</sup>) 등에 방패<sup>411</sup>)를 지고 앙금앙금<sup>412</sup>) 기어 들어와

He will collapse due to women.  
 So we can't send him there."  
 "How about a shrimp, a low official?"  
 "A shrimp is courageous and capable of running fast.  
 But the way his eyes look indicates he will die young.  
 So we can't send him there."  
 A diving beetle, a ship captain, steps forward slowly, kneels  
 down, and speaks.  
 "The land is my hometown.  
 I lived in a blue stream in a green forest for decades.  
 I am familiar with hares in the mountain and on the moon.  
 Please send me there.  
 I will grab the hare's thin waist with my claw and bring him  
 to Your Majesty."  
**[Aniri]** The king speaks,  
 "You can walk well because you have ten legs.  
 But you run backward if you hear human sounds.  
 I can't give you an important mission and I can't send you  
 there."  
 They can't reach an agreement.

## **7. (Terrapin's Formal Letter) Terrapin turns in a formal letter, saying that he would go to the land.**

**[Aniri]** They can't reach an agreement as said above.  
**[Jinyangjo]** An official comes through the back gate of the palace.  
 He has small eyes, short legs, a long neck, and a curved mouth.  
 He wears a cloth on his hard shell and climbs up to the dragon  
 king slowly.

국궁재배<sup>413</sup>)를 허고, 상소<sup>414</sup>)를 올리거늘,  
**[아니리]** 상소 들어보니 별주부 자래였다.  
 상소에 허였으되  
 ‘항공복지<sup>415</sup>) 신<sup>416</sup>)은 주주상전하하노이다.’<sup>417</sup>)  
 신은 본시<sup>418</sup>) 수국 충신지후예<sup>419</sup>)로  
 추치낭중<sup>420</sup>)에 영탈이출<sup>421</sup>)하던 모수<sup>422</sup>)의 재조<sup>423</sup>)와,  
 탄탄위아하고<sup>424</sup>) 행걸어시허든<sup>425</sup>) 예양<sup>426</sup>)의 충성과,  
 육국<sup>427</sup>)을 함중<sup>428</sup>)허든 소진<sup>429</sup>)의 구변<sup>430</sup>)과  
 맹획<sup>431</sup>)을 칠중칠금<sup>432</sup>)허든 제갈량<sup>433</sup>)의 지모<sup>434</sup>) 없사오나,  
 당차국체미령지시하와<sup>435</sup>)  
 기감불충도보하오리까?<sup>436</sup>)  
 차의성상지위령과 무궁지조화로 광피사해하시니,<sup>437</sup>)  
 하왕불리며 하구부득으로  
 진세 일개토를 하난착래리까?<sup>438</sup>)  
 복원 성상은 파탈하생불인지덕하시고<sup>439</sup>)  
 즉령소신으로 사속출세케 하옵시며,<sup>440</sup>)  
 진세 일개토를 착지어정하여 국제평복하심을 신소원야로소이다.’<sup>441</sup>)  
 왕이 왈, “영준지신<sup>442</sup>)이요, 충직지언<sup>443</sup>)이라.  
 패공<sup>444</sup>)은 한신<sup>445</sup>)을 대장을 삼았으되  
 황후<sup>446</sup>)는 한신다려<sup>447</sup>) 도적이라 허였으니,  
 그 일이 어찌된 일이나? 미재로다.<sup>448</sup>) 미재라.  
 오늘날 주석지신<sup>449</sup>)을 보았구나.  
 그러나 여기 앉아 들으니,  
 세상 사람이 왕배탕<sup>450</sup>)이니, 자래탕이니 별미<sup>451</sup>)로만 안다 허니,  
 나가서 죽으면 그 아니 원통하뇨?”<sup>452</sup>)  
 별주부 항공대왕,<sup>453</sup>)

He bows twice to the king and gives a formal letter to him.  
**[Aniri]** He is Terrapin, a low official.  
 The formal letter says,  
 “I kneel down and speak to Your Majesty.  
 I am a descendent of a loyal subject in this sea country.  
 I am not as talented as an ancient man whose talent was  
 revealed automatically.  
 I am not as loyal to my king as an ancient man who was loyal  
 to his master.  
 I am not as eloquent as an ancient politician.  
 I am not as smart as an ancient military strategist.  
 But Your Majesty is sick.  
 How can I not do something for you?  
 Your dignity and virtue cover the whole world.  
 How can I fail to get what I want?  
 How can I fail to get a hare?  
 I wish you don’t mind that I am not virtuous.  
 Please give me an order to go to the land right away.  
 I hope that I will bring a hare here and you will get well.”  
 The king speaks, “He is a smart, talented, loyal, and honest  
 subject.  
 An ancient king appointed a man as a general.  
 But his queen took the general to be a rebel.  
 What are we to make of the story? We don’t know.  
 I met an important loyal subject today.  
 I heard a story here.  
 Humans in the land take terrapin soup as a delicacy.  
 Wouldn’t it be sad if you die on the land?”  
 Terrapin speaks in fear.

“신의 충성 유여허여<sup>454</sup> 목을 늘였다 오므렸다 진퇴<sup>455</sup>를 무수히 하고,  
 홍문연<sup>456</sup> 빈패<sup>457</sup> 쓰던 도리방패<sup>458</sup> 졌사옴고,<sup>459</sup>  
 강상에<sup>460</sup> 등실 높이 떠 망보기<sup>461</sup>를 잘하오니  
 인간 봉패<sup>462</sup>는 없사오나,  
 해중지소생<sup>463</sup>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sup>464</sup>이나 자세히 그려 주옵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 8. (토끼 화상) 용왕이 화공을 불러 별주부가 가지고 갈 토끼의 화상을 그리게 한다.

[중중모리] “화공<sup>465</sup>을 불러라.”

토끼 화상을 그린다.

연 소왕<sup>466</sup> 황금대<sup>467</sup> 미인 그리든 화공,  
 남국 천자 능허대<sup>468</sup> 일월 그리던 명화사.<sup>469</sup>  
 동정유리청홍연<sup>470</sup> 금수추파<sup>471</sup> 거북 연적<sup>472</sup> 오징어로 먹 갈아,  
 양두화필<sup>473</sup>을 덩벽<sup>474</sup> 풀어 단청 채색<sup>475</sup>을 두루 묻혀, 백룡연화간  
 지상<sup>476</sup>에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명산<sup>477</sup> 승지간의 경개<sup>478</sup> 보던 눈 그리고,  
 난초 지초<sup>479</sup> 원갖 행초<sup>480</sup> 꽃 따 먹든 입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 제<sup>481</sup>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봉래<sup>482</sup> 방장<sup>483</sup> 운무<sup>484</sup> 중의 내<sup>485</sup> 잘 말던 코 그리고,  
 만화방창화림중<sup>486</sup> 펄펄 뛰든 발 그리고,  
 대한<sup>487</sup> 엄동<sup>488</sup> 설한풍<sup>489</sup> 방풍<sup>490</sup>하던 털 그리고,

“I am loyal to you, and I can pull my neck in and out numerous times.

I am carrying a strong shield on my back.

I am good at seeing things on the surface of a river.

I will not fall into disaster.

Born here, I am not familiar with what a hare looks like.

Please draw a picture of a hare in detail for me.”

The king is persuaded by Terrapin.

## **8. (A Picture of a Hare) The dragon king calls an artist and has him draw a picture of a hare for Terrapin.**

[Jungjungmori] “Bring an artist here.”

The artist draws a picture of a hare.

He drew a picture of beautiful girls in a golden tower for his king.

He is the famous artist who drew the picture of a high tower.

He uses a colorful inkstone, a turtle-like bowl, and black ink from a squid.

He puts a two-sided brush on the ink of various colors and moves the brush around on white silk with flower patterns.

He draws the picture of the eyes which were gazing at the beautiful scenery,

the mouth which was eating fragrant grasses and flowers,

the ears which were listening to the songs of cuckoos and parrots,

the nose which was smelling everything in mountains covered with cloud and fog,

the legs which were moving fast through the green spring forest,

the fur which was protecting him from the cold wind and snow in winter,

신농씨<sup>491)</sup> 상백초<sup>492)</sup> 이슬 털던 꼬리 그려,  
 두 귀는 종긋,<sup>493)</sup>  
 두 눈은 도리도리,<sup>494)</sup>  
 허리 늘씬,<sup>495)</sup>  
 뽕지<sup>496)</sup> 묘뚝,<sup>497)</sup>  
 좌편은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라.<sup>498)</sup>  
 녹수청산<sup>499)</sup>의 애굽은<sup>500)</sup> 장송,<sup>501)</sup>  
 휘늪늘어진<sup>502)</sup> 양류지,<sup>503)</sup> 들랑날랑<sup>504)</sup> 오락가락  
 앙그주춤<sup>505)</sup> 섰는 양은<sup>506)</sup>  
 아미산월반륜추<sup>507)</sup>가 이에서<sup>508)</sup> 더할쏘냐?  
 “아나,<sup>509)</sup> 별주부야.  
 네 가지고 나가거라.”

## 9. (별주부 아내와 작별) 별주부가 아내와 작별한다.

[아니리] 토끼 화상 간수<sup>510)</sup>혈 제,  
 목을 늘어 뒷덜미에다 넣고 목을 딱 움츠려놓으니  
 물 한 점 젖을쏘냐?  
 용왕이 어주<sup>511)</sup>를 내리며 허시는 말씀,  
 “경<sup>512)</sup>이 세상에 나가 토끼 잡아 짐의 병을 쾌할진댄<sup>513)</sup> 수궁을 반  
 분<sup>514)</sup>한들 무슨 한이 있으리오?”  
 별주부 황공대왈,<sup>515)</sup>  
 “신의 충성 보옵소서.”  
 국궁재배<sup>516)</sup>허고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와서 처와 이별을 하는구나.



and the tail which moved back and forth to shake off dew from  
herbal grass.  
The ears are straight up.  
The eyes are round.  
The waist is slim.  
The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Tall pine trees hanging down are on the blue mountain and  
stream.  
A hare appears to move in and out of a willow drooping down.  
The hare appears to stand up hesitantly.  
He looks better than the one on a half moon over a mountain.  
“Here you are, Terrapin.  
Take this and go out.”

## **9.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Aniri] Terrapin keeps the picture as follows.  
He stretches his neck out, puts the picture on the back of his  
neck, and draws his neck in.  
The picture is free of water.  
Offering wine to Terrapin, the dragon king speaks,  
“If you go out to the land, bring a hare, and cure me of the  
disease, I will be happy to give you the half of this sea palace.”  
Terrapin responds,  
“You will see how loyal I am to you.”  
Terrapin bows twice to the king, goes to his home, and says  
goodbye to his wife.

[진양조] “여보소, 마누라.”

“에이?”

“나는 용왕 봉명사신<sup>517</sup>)으로 토끼 잡으러 세상을 나가되,  
마누라를 잊지 못하고 가오.

이웃집 남생이<sup>518</sup>)라 허는 놈이 생긴 것이 음골<sup>519</sup>)의 아들이라  
여자가 각근<sup>520</sup>)하면 색근낭패<sup>521</sup>) 어려우니 가까이 가지 말소.  
나 꼭 닮았고,

우명<sup>522</sup>)하기 말할 수가 없으니 가까이 하지 마소.”

별주부 암자라 거동<sup>523</sup>) 보아라.

물부리<sup>524</sup>)같은 콧궁기<sup>525</sup>)로 숨을 쉬고,

녹두같은 눈을 깜짝이며 책하여<sup>526</sup>) 허는 말이,

“나리님 체위<sup>527</sup>) 중허시고, 연기노중<sup>528</sup>)하시거늘  
소년경박자<sup>529</sup>)의 비루<sup>530</sup>)허신 말썸으로 못 잊고 간다 허니  
마음이 미안<sup>531</sup>)이오.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나가시며

조그마한 아녀자<sup>532</sup>)를 잊지 못하고 간단 말이 조정에 발론되면,<sup>533</sup>)

만조제신<sup>534</sup>)들의 웃음 될 줄 모르시고

노류장화<sup>535</sup>)로 말썸을 하시니까?”

[아니리] 별주부 대소허며,<sup>536</sup>)

“충신지자<sup>537</sup>)는 충신이요,

열녀지자<sup>538</sup>) 열녀로다.

가중<sup>539</sup>) 마음이 저러허니 토끼 잡기 무슨 걱정되리?

내 만사를 믿고 다녀오리다.”

별주부 마누라 문밖에까지 나와,

“창망한<sup>540</sup>) 진세간에<sup>541</sup>) 평안히 다녀오오.”

“그러나 부대<sup>542</sup>) 남생이를 조심허오.”

[Jinyangjol] “Hello, honey.”

“Hello.”

“At the dragon king’s order, I am going to the land to catch a hare.

I am worried about you.

The tortoise, our neighbor, is crazy about girls.

A lustful man ruins his life, so don’t get close to him.

He looks like me.

He is extremely wicked, so watch out for him.”

Behold Terrapin’s wife.

She breathes through long nostrils.

Blinking her small eyes, she scolds her husband.

“The king is in high status, and he is old.

It is immature of you to say that you are worried about me.

That is regrettable.

You are going to the land for the sake of the king.

If it is known to the government officials that you are worried about your little wife,

they will look down on you.

Don’t speak cheap words.”

[Aniri] Terrapin laughs happily.

“A loyal subject’s son is a loyal subject.

A faithful woman’s daughter is a faithful woman.

Since my family supports me, I don’t worry about catching a hare.

Let me go to the land without any worries.”

Terrapin’s wife sees Terrapin out through the gate.

“The sea is vast. Come back in one piece from the land.”

“Please look out for the tortoise.”

## 10. (고고천변) 별주부가 세상에 나가 보니 세상 경치가 아름답다.

[중중모리] 수정문<sup>543</sup> 밖 썩 나서니  
경개<sup>544</sup> 무궁 장히<sup>545</sup> 좋다.  
고고천변일륜홍<sup>546</sup> 부상<sup>547</sup>에 등실 높이 떠,  
양곡<sup>548</sup>의 잣인<sup>549</sup> 안개 월봉으로<sup>550</sup> 돌고,  
예장촌<sup>551</sup> 개 짓고,  
회안봉<sup>552</sup> 구름이 떴구나.  
노화<sup>553</sup>는 눈 되고,  
부평<sup>554</sup>은 물에 등실,  
어룡<sup>555</sup>은 잠자고,  
자고새<sup>556</sup>는 펄펄 날아든다.  
동정여천파시추<sup>557</sup> 금수추파<sup>558</sup>가 여기라.<sup>559</sup>  
앞발로 벽파<sup>560</sup>를 찍어당겨, 뒷발로 창랑<sup>561</sup>을 탕탕.  
이리 저리, 저리 요리,  
앙금 등실 높이 떠 사면을 살펴보니,  
지광<sup>562</sup>은 칠백 리,  
파광<sup>563</sup>은 천일색.<sup>564</sup>  
천외무산의 십이봉<sup>565</sup>은 구름 밖에 가 멀고,  
해외소상<sup>566</sup> 일천 리 안하<sup>567</sup>의 경개로다.  
오초는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였고,  
건곤은 어이하여 일야에 등실 떠,<sup>568</sup>  
남훈전<sup>569</sup> 달 밝은데 오현금<sup>570</sup>은 끊어지고,  
낙포<sup>571</sup>로 등등 가는 저 배,  
쫓각달 무관수의<sup>572</sup> 초 회왕<sup>573</sup>의 원혼<sup>574</sup>이요.

## 10. (Sunrise) Terrapin sees the beautiful scenery in the world of the land.

[Jungjungmori] Terrapin goes out through the crystal gate.  
The landscape is spectacular.  
The red sun rises high above the horizon.  
A thick fog in the sunny valley moves around the Moon Peak.  
A dog barks from a village.  
Clouds hang over a peak.  
Reed flowers fall down like snow.  
Duck weeds float on the pond.  
Fishes sleep in the water.  
A bird flies vigorously in the sky.  
The breeze and the waves of a wide and clear lake signify autumn.  
Terrapin pulls and pushes blue waves of water with his front and rear legs.  
He moves around.  
He gazes aroun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land is wide.  
The color of the wat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sky.  
Twelve peaks are above the clouds at a distance.  
A river stretches for thousands of miles in front of Terrapin's eyes.  
Wu(吳) and Chu(楚) countries were to the east and to the south.  
The sky and the earth are reflected on the lake day and night.  
The sound of a pentachord stopped in a palace under the bright moon.  
A boat goes to a port.  
It seems to be the revengeful spirit of an imprisoned king, King Huai(懷).

모래 속에 잠신하야<sup>575)</sup> 천봉만학<sup>576)</sup>을 바라보니,  
 만경대<sup>577)</sup> 구름 속에 학선<sup>578)</sup>이 울어 있고,  
 칠보산<sup>579)</sup> 비로봉<sup>580)</sup>은 허공에 솟아,  
 계산과무울차아<sup>581)</sup> 산은 층층 높고,  
 경수무풍야자과<sup>582)</sup> 물은 술렁<sup>583)</sup> 깊고,  
 만산<sup>584)</sup>은 울울,<sup>585)</sup>  
 국화는 점점, 낙화<sup>586)</sup>는 동동,<sup>587)</sup>  
 장송은 낙락,<sup>588)</sup> 늘어진 잡목,  
 평피진<sup>589)</sup> 떡갈잎, 다래몽둥,<sup>590)</sup>  
 칙년출,<sup>591)</sup> 머루, 다래,  
 으름년출,<sup>592)</sup> 능수버들, 빗남기,<sup>593)</sup>  
 오미자, 치자, 감자,<sup>594)</sup> 대추,  
 갯인<sup>595)</sup> 과목<sup>596)</sup> 얼크리지고 뒤틀어져 구부<sup>597)</sup> 칭칭 감겼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sup>598)</sup>  
 갈매기, 해오리,  
 목포리,<sup>599)</sup> 원앙새,  
 강상<sup>600)</sup> 두루미, 수많은 떼고니,<sup>601)</sup>  
 소호천자 기관허든<sup>602)</sup> 만수문전의<sup>603)</sup> 봉황새,  
 양양창과점점동<sup>604)</sup> 사랑허다<sup>605)</sup>고 원앙새,  
 칠월 칠석 은하수 다리 놓던 오작이,<sup>606)</sup>  
 목포리,<sup>607)</sup> 해오리,<sup>608)</sup> 너수,<sup>609)</sup> 징경새,<sup>610)</sup> 아옥 따옥 이리저리 날아  
 들 제,  
 또 한 경개<sup>611)</sup>를 바라봐.  
 치어다보니 만학천봉이요,<sup>612)</sup>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sup>613)</sup>로구나.

Terrapin hides himself in the sands and sees numerous mountains and valleys.  
A crane sings on a tower in clouds.  
A peak rises high into the sky.  
When the fog clears, the mountain looks even higher.  
Clear and deep water creates waves without wind.  
All the mountains are thick with trees.  
Mottled chrysanthemums, fallen leaves,  
drooping branches of a tall pine, stretching scrubs,  
wide oak trees, stumpy actinidia argutas,  
kudzu vines, actinidia argutas, wild grapes,  
clematises, weeping willows, cherry trees,  
schizandra, gardenias, fruit, jujubes,  
and all sorts of fruit trees are firmly intertwined with each other.  
A fishing boat comes back.  
Seagulls fly around.  
Seagulls, white herons,  
unknown birds, mandarin ducks,  
cranes on a river, numerous swans,  
a phoenix which used to work for the government at a gate,  
lovely mandarin ducks which drifted on the waves of the wide sea,  
crows and magpies which form a bridge in the Milky Way on July 7th,  
white herons, ospreys, and other birds come from different places.  
Terrapin beholds another place.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s are above.  
A white sandy plain is below.

에구부러진<sup>614</sup> 늙은 장송<sup>615</sup> 광풍<sup>616</sup>을 못 이기어 우줄우줄<sup>617</sup> 춤을  
춘다.

원산<sup>618</sup>은 암암,<sup>619</sup>

근산<sup>620</sup>은 중중,<sup>621</sup>

기암<sup>622</sup> 층층,<sup>623</sup>

메사니<sup>624</sup> 울어,

천리시내<sup>625</sup>는 청산으로 들고,

이 골 물이 쭈루루루루, 저 골 물이 쉼쉴,<sup>626</sup>

열의 열두 골<sup>627</sup> 물이 한 데로<sup>628</sup> 합수쳐,<sup>629</sup>

천방자 지방자 월터져 구부져,<sup>630</sup> 방울이 버름져,<sup>631</sup>

건너 평풍석<sup>632</sup>에다 마주 팡팡 마주 썰려,<sup>633</sup>

대해수중<sup>634</sup>으로 내려가느라고 버름<sup>635</sup>이 북적,<sup>636</sup>

물너울<sup>637</sup>이 뒤뚱,<sup>638</sup> 워르르르 뿔뿔 뒤등그러져<sup>639</sup> 산이 울렁거  
려<sup>640</sup> 떠나간다.

어디메로<sup>641</sup> 가잔 말?<sup>642</sup>

아마도 예로고나,<sup>643</sup>

이런 경계가 또 있나?

## 11. (날짐승 상좌 다툼) 별주부가 한 편을 바라보니 온갖 날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한다.

[아니리] 그 때에 별주부는 윤충경<sup>644</sup>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전후불견수목처<sup>645</sup>에 분간할 길이 전혀 없고,  
허다히<sup>646</sup> 기는 짐생 생면부지<sup>647</sup> 나의 눈에 토끼 얼굴을 어이 알리?  
자탄하고 앓았을 제,



The branches of old drooping pine trees dance in the wild wind.  
Distant mountains are dusky.  
Close mountains are deep.  
Bizarre rocks are steep.  
Echoes are heard.  
A long stream turns around a green mountain.  
Flowing water generates sounds in valleys.  
Water from different valleys is combined in one place.  
The water runs down wildly, making foam.  
It bumps head-on into large rocks.  
It heads to the middle of a wide sea while making foam.  
Large waves dance around, make loud sounds and shake a  
mountain as they go down.  
Where are they headed?  
This is the scenery.  
What a spectacle it is!

**11. (Birds Compete for a High Seat) Terrapin beholds  
a certain place. All sorts of birds compete for a  
high seat.**

[Aniri] Terrapin climbs up through clouds and looks around.  
Trees are so densely populated that he can't see other things.  
There are so many animals that Terrapin hasn't seen before that  
he can't see a hare.  
Terrapin despairs.

한 편을 년짓 살펴보니

날짐생들이 모여 상좌다툼<sup>(648)</sup>을 허고 놀것다.

봉황새 나았으며,

[중모레] “내의 말을 들어봐라.

순임금<sup>(649)</sup> 남훈전<sup>(650)</sup>에 오현금<sup>(651)</sup> 가지시고 소소귀성<sup>(652)</sup> 노래할 제,

기산<sup>(653)</sup> 높은 봉 아침 별에 내가 가서 울음을 울어

팔백 년 문물이 울울허여<sup>(654)</sup> 주문무<sup>(655)</sup> 나 겨시고,<sup>(656)</sup>

만고대성<sup>(657)</sup> 공부자<sup>(658)</sup>도 내 앞에서 탄생허고,

천 길<sup>(659)</sup>이나 높이 날아 기불탁속<sup>(660)</sup>허여 있고,

영주산<sup>(661)</sup> 높은 봉을 기엄기엄<sup>(662)</sup> 기어올라

소상반죽<sup>(663)</sup> 좋은 열매 내 양식을 삼았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아니레] 까마귀 나았으며,

“그 다음 내 앓을 일이 있소.”

부영이 꾸짖으며,

“전신에 흰빛 없고,

눈알창<sup>(664)</sup>까지 검은 늪이

어디를 앓는단 말이냐?”

가마귀 왈,

“그래, 대구리<sup>(665)</sup> 크고, 털 넘적허면 어른이냐?

내 이를게 들어보아라.”

[엇모레] “내 근본<sup>(666)</sup>을 들어라.

내 입이 길기는 월왕 구천<sup>(667)</sup>이 방불<sup>(668)</sup>허고,

이 몸이 검기는 산음<sup>(669)</sup>땅 지내다가 왕희지<sup>(670)</sup> 세연지<sup>(671)</sup>에 풍덩 빠

져 먹물 들어 이 몸이 검어 있고,

은하수 생긴 후에 그 물에 다리를 놓아 견우 직녀 건너주고,

He looks at a place.  
 Birds play the game of competing for a high seat.  
 A phoenix steps forward.  
**[Jungmori]** "Listen to me.  
 King Shun(舜) played a pentachord in a palace, making a dreary  
 sound.  
 I sang a song on a peak in the morning sun.  
 Two great kings were born when the nation prospered for eight  
 hundred years.  
 The greatest saint, Confucius, sighed because of me.  
 I flew high without eating food even if I was hungry.  
 I crawled up on a paulownia tree in a legendary mountain.  
 I fed on the good fruit of variegated bamboo on a river.  
 Aren't I your boss?"  
**[Aniri]** A crow moves forward.  
 "I am next to the phoenix."  
 An owl scolds the crow.  
 "There is no white color in your entire body.  
 Even your eyes are all black.  
 How dare you sit on the high seat?"  
 The crow says,  
 "Do you think you are our boss because your head is big and  
 your feathers are wide?  
 Listen to me."  
**[Eon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origin.  
 My beak is long because of an ancient king.  
 My body is black because I fell into a pond on which an ancient  
 calligrapher washed his ink stone, and was dyed with ink.  
 Ever since the galaxy was created, I served as a bridge between  
 Herdsman and Vega.

오는 길에 적벽강<sup>(672)</sup> 성희<sup>(673)</sup>혈 제,  
 남비<sup>(674)</sup> 둥둥 떠 삼국홍망<sup>(675)</sup>을 의론<sup>(676)</sup>허고,  
 천하에 반포은<sup>(677)</sup>을 내 홀로 알았으니,  
 세상의 비금주수<sup>(678)</sup> 효자는 나뿐이라.  
 아이고, 아이고, 설운지고. 설운지고.”

[자진모리] 부엌이 허허 웃고,  
 “네 암만 그런대도, 네 심성<sup>(679)</sup> 불측하야<sup>(680)</sup>  
 열두 가지 울음 울 제,  
 까옥까옥 또락또락 괴이한 음성으로 수절 과부<sup>(681)</sup> 유인허고,  
 네 소리 ‘꼭꼭’ 나면 세상 인간이 미워라 돌을 들어 날릴 제,  
 너 날자 배 떨어지니,<sup>(682)</sup>  
 세상에 미운 놈은 너밖에 또 있느냐?  
 빈 통이나 찾아가지,  
 이 좌석은 부당허다.”

## 12. (길짐승 상좌다툼) 또 한 편에서는 여러 길짐승들이 모여 상좌다툼을 한다.

[아니리] 가마귀 무색허여 한편으로 나았으며,  
 “내 죄상<sup>(683)</sup>은 그럴망정 만좌중<sup>(684)</sup>에 내 망신을 이다지 시킨단 말이냐?”  
 길짐승들이 이리 한참 노닐 적에  
 또 한편을 바라보니  
 원갓 길짐승들이 모여드는데 이런 야단이 없겠다.  
 [중모리] 공부자 작춘추<sup>(685)</sup> 절필<sup>(686)</sup>허던 기린이며,<sup>(687)</sup>  
 삼군삼영<sup>(688)</sup> 거동시<sup>(689)</sup> 천자 옥련<sup>(690)</sup>의 코끼리,

On my way back, stars were sparse above Chibi(赤壁) River.  
 Hovering in the south sky, I pondered the rise and fall of the  
 three countries of ancient China.  
 I take care of my old parents in an empty forest.  
 I am the only animal supporting its parents.  
 Alas, How sorrowful I am!"

**[Jajinmori]** The owl laughs loudly.  
 "Even so, you are born wicked.  
 You make twelve sounds.  
 With a weird voice, you entice a faithful widow to betray her  
 deceased husband.  
 If your unpleasant cry is heard, humans pick up stones in hatred  
 and drive you away.  
 If you fly, a pear falls down.  
 Who else is so detested?  
 Go and find an empty stump.  
 You are not entitled to this seat."

## **12. (Four-legged Animals Fight for the High Seat).** **Many four-legged animals compete for the high** **seat in another place.**

**[Aniri]** Embarrassed, the crow steps back.  
 "I know about my defects. But how can you make fun of me  
 in public?"

The birds play as said above.  
 Terrapin looks at another place.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gather, creating a commotion.  
**[Jungmori]** Confucius ended his book with a story of hunting  
 down a giraffe.  
 An elephant carried a wagon for an emperor.

옥경선관<sup>691)</sup> 승필<sup>692)</sup>허니 풍채 좋은 사자로다.  
 출입풍운<sup>693)</sup> 표범이요,  
 서백<sup>694)</sup>이 위수<sup>695)</sup> 사냥할 제 비웅비표<sup>696)</sup>의 곰이라.  
 복희씨<sup>697)</sup> 양희생<sup>698)</sup>의 길러내던 노양,<sup>699)</sup> 소양,<sup>700)</sup>  
 창해역사<sup>701)</sup> 박랑사중<sup>702)</sup> 저격허든<sup>703)</sup> 다람이,<sup>704)</sup>  
 강수동류원야성<sup>705)</sup> 슬피 우는 잔나비,<sup>706)</sup>  
 피 많은 여우, 뿔 좋은 사슴,  
 돈피,<sup>707)</sup> 사피,<sup>708)</sup> 사향노루,<sup>709)</sup>  
 날담부,<sup>710)</sup> 길담부,<sup>711)</sup> 날랜 토끼,  
 너구리, 오소리, 멧돌<sup>712)</sup>까지 내려온다.  
**[아니레]** 이놈들이 좌우로 앉더니마는,  
 “자, 우리가 연년이<sup>713)</sup> 노는 좌석에  
 석양쫄 되면 어른 존장<sup>714)</sup> 몰라보고,  
 서로 물고, 차고, 싸움판이 벌어져 수라장이 되니,  
 오늘은 연치<sup>715)</sup>를 따져 한 분은 상좌로 모시고,  
 즉차로<sup>716)</sup> 수상수하<sup>717)</sup>를 가려 좀 규모 있게 놀다 갈림<sup>718)</sup>이 어떠  
 하오?”  
 “그 말 잘 나왔소.  
 그러면 저기 계시는 장도감<sup>719)</sup> 언제 났소?”  
 노루가 나앉더니마는,  
**[중모레]** “나의 연세 들어보소.  
 기경선자<sup>720)</sup> 이태백이 날과<sup>721)</sup> 둘이 동접<sup>722)</sup>하야 광산<sup>723)</sup> 십년 글을  
 짓다,  
 태백은 인재로서 옥경<sup>724)</sup>으로 승천<sup>725)</sup>허고,  
 나는 미물<sup>726)</sup> 짐승으로 이리 미천<sup>727)</sup>허게 되었으나,  
 태백과 나와 연갑<sup>728)</sup>이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A god used to ride a large old lion in heaven.  
 A leopard creates a wind and a cloud.  
 A king came across a bear when he was hunting in a river.  
 An ancient king used old and young sheep as sacrifice during  
 the ritual.  
 A squirrel watched someone try to kill a king.  
 A river flowed constantly to the east, and a monkey wept sadly  
 at night.  
 A sly fox, a deer with good antlers,  
 a yellow marten, a musk deer,  
 a marten, a fast hare,  
 a raccoon, a badger, and a boar gather.  
**[Aniri]** The animals sit on the left and right.  
 “We have a party every year here.  
 We can’t recognize the elderly at and after sunset.  
 We bite and kick each other, creating chaos.  
 Let’s have a debate on our ages and select one as our boss.  
 Let’s find out who is older than who, establish an order, and  
 finish the party.”  
 “I like the idea.  
 Then, when were you born, Mr. Roe Deer?”  
 The roe deer speaks.  
**[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Li Bai(李白) read poems with me for ten years and flew up to  
 heaven, riding a whale.  
 He was such a talented man that he ascended to the capital city  
 of heaven.  
 Being an animal, I am worthless and humble here.  
 I am as old as the poet, so I deserve the high seat.”

[아니레] 달파총<sup>729</sup> 너구리가 썩 나았으며,  
“그렇다면 내 큰아들하고도 벗<sup>730</sup> 못하겠네.”  
“달파총은 언제 났소?”

[진양조] “이 내 나이 들어보소.  
동작대<sup>731</sup> 높은 집이 좌편은 옥룡각<sup>732</sup>이요, 우편은 금봉루<sup>733</sup>라.  
이교녀<sup>734</sup>에 뜻을 품고  
조자건<sup>735</sup>의 글을 빌어 동작대부<sup>736</sup> 운허던<sup>737</sup>  
조맹덕<sup>738</sup> 조부와 연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아니레] 멧돌<sup>739</sup>이 꺼시럭눈<sup>740</sup>을 끔적끔적,<sup>741</sup>  
나발<sup>742</sup>같은 주둥이를 이리저리 두르고,<sup>743</sup>  
입맛을 찹찹 다시며 나오더니마는,  
“자네 나이 들어보니 내 큰손자하고도 벗 못 하겠다.”  
아니 그럼 저낭청<sup>744</sup>은 언제 나셨소?”  
멧돌이 나았으며 하는 말이,

[중중모리] “이 내 나이 들어봐라. 이 내 나이 들어보소.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sup>745</sup>에 사신 갔다,  
위국충절 십구 년에 수발이 진백하여<sup>746</sup>  
고국산천 험한 길 허유허유<sup>747</sup> 돌아오던  
소중랑<sup>748</sup>과 연갑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토끼 듣고 나았으며,  
“저낭청도 내 아랫세.”

[자진모리] “한 광무<sup>749</sup> 시절에 간의대부<sup>750</sup>를 마다허고,  
부운<sup>751</sup>으로 차일<sup>752</sup> 삼고,  
동강의 칠리탄<sup>753</sup> 낚싯줄을 던져 놓고 고기 낚기 힘써 허든



[Aniri] A raccoon steps forward.

"If so, you can't even be a friend of my eldest son."

"When were you born, Mr. Raccoon?"

[Jinyangjo]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Cao Cao(曹操) built a pavilion on the left and a tower on the right.

The premier had two girls in his mind.

He told his son to write a poem and recite it on the pavilion.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Aniri] A boar blinks his thorny eyes.

He wields his mouth looking like a bugle.

He smacks his lips, as he comes out.

"You are so young that you can't be a friend of my eldest grandchild."

When were you born, Mr. Boar?"

The boar speaks.

[Jung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Su Zhong Lang(蘇中郎) visited an enemy country as a diplomat.

His life was hard but he remained loyal to his country for 19 years, and his hair became gray.

He made an arduous journey back to his country.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A hare jumps in.

"You are younger than I, Mr. Boar."

[Jajinmori] "Yan Zi Ling(嚴子陵) declined the offer of a government position in ancient times.

He instead took clouds as a parasol.

He dipped a fishing line in a river and engrossed himself in picking up fish.

엄자릉<sup>754</sup>)의 시조와<sup>755</sup>) 연갑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13. (호랑이 등장) 이 때 굶주린 호랑이가 등장하니, 여러  
짐승들이 두려워 떨며 호랑이를 상좌로 모신다.**

[아니리] 서로 연치<sup>756</sup>)를 찾아 상좌 앉을라고 야단인디,  
그때에 여러 날 굶은 호랑이가 먹을 것을 찾으랴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이놈들을 보고 어찌 반갑든지 쏜살 들어가듯 ‘으르르’ 하고 달려드니,  
좌우 짐승들이 똥오줌을 벌벌 싸며,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제 오시오?”  
“너 이놈들. 어찌 내 배를 이리 굶겼으며  
지금 무엇을 허고 노느냐?”  
“예, 상좌다툼을 허고 눕니다.”  
“너 이놈들. 차산중<sup>757</sup>)의 어른은 나 하나밖에 없는디,  
너희들끼리 상좌이니, 하좌이니 험단 말이냐?”  
토끼 허는 말이,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은 어제 나셨드라도 상좌로  
앉으시오.”  
토끼가 나서더니, “장군님, 상좌로 앉으십시오마는,  
속<sup>758</sup>)이나 알게, 언제 나셨소?”  
호랑이 이말 듣고 호령성<sup>759</sup>)으로 말을 허는디, “그래라.”  
[중모리] “이놈들 내 나이를 들어 봐라. 너희들 내 나이를 들어보아라.  
혼돈미분태극초<sup>760</sup>)에  
사정없이 너룬<sup>761</sup>) 하늘 한편 짝이 모자라서

The fishing man and I are of the same age.  
Isn't the high seat mine?"

**13. (A Tiger Shows Up.) A hungry tiger shows up.  
Startled, the animals serve the tiger on the high  
seat.**

[Aniri] The animals discuss their ages, competing for the high seat.

Just then, a tiger who hasn't eaten for several days has been prowling around.

He is so glad to see the animals that he runs at them like an arrow.

The animals all are so scared that they take a shit and a pee.

"General, where have you been?"

"You villains. Why didn't any of you come to my belly?"

What game are you playing?"

"We are quarreling about the high seat."

"You bastards. I am the only boss in these mountains.

Isn't it meaningless to decide the hierarchy without me?"

Hare says, "Oh, general! Please sit on the high seat no matter when you were born."

Hare speaks, "General, the high seat is yours.

But we are just curious. When were you born?"

Having heard Hare, the tiger speaks in a loud voice. "Listen to me."

[Jungmori] "You rats.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When the universe was created, things were in chaos.

The sky was vast, but the half of it was empty.

광석<sup>762</sup>) 다듬어 하늘을 때우시던 여왜씨<sup>763</sup>) 연갑이 되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으르으르어형.”  
허고 달려드니,  
좌우 짐승들이 깜짝 놀래어,  
“장군님, 상좌로 앉으시오.”

**14. (별주부 호랑이를 부름) 별주부가 토생원을 부른다는  
것이 발음을 잘못하여 호생원을 부르니, 호랑이가 듣  
고 좋아하며 내려온다.**

[아니래] 호랑이가 상좌로 앉고,  
살쥔 멧돌, 노루, 사슴, 너구리, 오소리 등을 요기감<sup>764</sup>)으로 내놓고  
웅골지개<sup>765</sup>) 노닐 판에,  
그때에 별주부는 한편에 은신<sup>766</sup>)하여 이 광경을 보고,  
‘저렇게 세상 짐승들이 많이 모였는디  
토끼가 없을쏘냐?  
불러볼밖에 수<sup>767</sup>) 없다.’  
자래가 토끼를 부를려고 혈 제,  
수로만리<sup>768</sup>) 거센 파도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뺏뺏하여  
불러놓은 것이, 토 자가 호 자로 살뵈<sup>769</sup>) 늘어져,  
“저기, 저기, 호생원 아니오?” 허고 불러노니,  
첩첩산중에 생원<sup>770</sup>) 말 듣기는 전후불건초문<sup>771</sup>)이요,  
상좌로 앉고 보니 생원으로 존칭이 되는지라,  
이 말이 반가워 내려오는디,  
거기 있는 짐생들 보고 허는 말이,  
“점잖은 손님이 나를 찾는 고로

I am as old as Nu Wa Shi(女媧氏) who fixed the sky with iron ore.

Aren't I your boss? Come here."

The tiger runs at the animals.

The animals on the left and right are astonished.

"General, please sit on the high seat."

**14. (Terrapin Calls the Tiger.) Terrapin mistakenly calls the tiger instead of Hare. Pleased, the tiger comes down from the high seat.**

[Aniri] The tiger sits on the high seat.

He has fun, playing with his prey : a plump boar, a roe deer, a deer, a raccoon, a badger.

Meanwhile, Terrapin has been watching the animals in secret.

He murmurs, "A lot of animals are gathered there.

There must be a hare.

Let me call a hare."

Terrapin intends to call a hare.

But his lower jaw is stiff because he pushed strong water with it on the long journey on the sea.

He mispronounces Hare's name.

He says, "Hi, there. Aren't you Mr. Tiger?"

This is the first time the tiger is addressed with such respect.

Since the tiger on the high seat, he is treated with such respect.

Pleased, he comes to Terrapin.

He says to the animals,

"A polite guest is looking for me.

그 손님을 만나고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망정이지,  
한 놈이라도 간 놈이 있으면 이 다음 모임 때에 사지를 찢어, 방<sup>772</sup>)을  
내걸고 팔죽<sup>773</sup>)을 멸하리라.”

이렇듯 호령하고,

[엇모레]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장림<sup>774</sup>) 깊은 골로 한 짐승 내려온다.

몸은 얼썩덜썩,<sup>775</sup>)

꼬리는 잔뜩 한 발<sup>776</sup>)이 넘고,

누에머리<sup>777</sup>)를 흔들며,

양 귀 찢어지고,

전동<sup>778</sup>)같은 앞다리,

동개<sup>779</sup>)같은 뒷다리로

엥금엥금 내려올 제,

쇠낫<sup>780</sup>)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sup>781</sup>)를 좌르르 좌르르 흘으며,

주홍 입 찹 벌리고 ‘홍앵홍앵’ 허는 소리

태산이 무너지는 듯 산천이 진동하니,

자라가 정신없이 목을 오므리고 가만히 었졌것다.<sup>782</sup>)

## 15.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호랑이가 내려와 별주부를 보 고 잡아먹으려 하자, 별주부가 영겁결에 자신의 이름 을 말한다.

[아니레] 호랑이 사면을 살펴보며,

‘거 뉘가 날 불렀나?’

방금 이 근처에서 불렀는디 어디 가고 없을까?

그래, 귀 밝은 것이 장히<sup>783</sup>) 우환<sup>784</sup>) 되든고.<sup>785</sup>)

Stay here until I go and meet him.

If any of you leaves here, I will tear your four limbs off, make a public announcement, and kill all of your relatives at the next meeting.”

The tiger shouts at the animals as said above.

**[Eonmori]** The tiger comes to Terrapin

A beast comes down through a deep valley with pine trees.

His body is mottled.

His tail is more than one meter long.

He shakes his sharp head.

His ears are torn apart.

His hind legs are robust.

His fore legs are strong.

He comes down slowly.

With his long claws, he disturbs the thick sand and the roots of the grass.

He opens his red mouth and roars.

It seems as if a mountain collapses and the whole world shakes.

Confused, Terrapin remains motionless with his head pulled in.

**15. (The Tiger and Terrapin Meet.) The tiger comes down, sees Terrapin, and tries to eat him. Terrapin gives his name without thinking.**

**[Aniri]** The tiger looks around.

He mumbles, ‘Who called me?’

Somebody called me a minute ago here. Where is he?

Yes, I might get into trouble because my ears are sensitive.’

잔말<sup>786</sup>)을 무수히 허고 발밑을 살피보니

꼭 쇠똥 말라진 것이 있겠다.

‘이것이 날 불렀나?’

아니다. 꼭 도리방석<sup>787</sup>)같이 삼켰구나.’<sup>788</sup>)

큰나큰 발로 자래 복판<sup>789</sup>)을 잔뜩이<sup>790</sup>) 눌러놓으니

자래가 못 전디어,<sup>791</sup>)

“아이고, 무거워 못 살것소.

게가<sup>792</sup>) 뉘라시오?”

호랑이 놀래어,

“나는 백수지장<sup>793</sup>) 호생원 맹호장군<sup>794</sup>)이로다. 너는 무엇이냐?”

자래 기가 막혀 속으로 하는 말이, ‘내가 불러놓고 자초재화<sup>795</sup>)로 잘 죽는구나.’

어찌 무섭고 겁이 나던지 바로 제 이름을 가르쳐주는데,

“소어<sup>796</sup>)는 명색<sup>797</sup>)이 수국 자래새끼요,”

호랑이가 자래란 말을 듣고 한바탕 재미있게 노는디,

**[중중모레]** “얼씨구나, 내 복이야.

내 평생 먹은 마음 왕배탕<sup>798</sup>)을 원했더니,

자래라니 먹어보자.”

자래가 먹자는 소리에 기겁하여,

“소어는 자래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먹고 죽는 철남생이<sup>799</sup>)요!”

“남생이<sup>800</sup>)라니 더욱 좋다.

습기<sup>801</sup>)에는 단약<sup>802</sup>)이요, 치담치습<sup>803</sup>)을 헨다 허니

약으로만 먹어보자.”

“아이고, 나 두꺼비요!”



After talking to himself, the tiger looks down.  
 There is something looking like dry cow dung.  
 He murmurs, 'Did this thing call me?'  
 No. It looks like a round mat.'  
 The tiger presses the middle of Terrapin with this large foot.  
 Not being able to bear the weight, Terrapin speaks,  
 "Ouch. You are so heavy. I might die.  
 Who are you?"  
 The tiger is surprised.  
 "I am the boss of all the animals, General Tiger. What are you?"  
 Struck dumb, Terrapin talks to himself, 'I've brought this trouble  
 upon myself.'  
 He is so scared that his name escapes his own mouth.  
 "I am Terrapin from the sea country, sir."  
 After hearing the word 'terrapin,' the tiger sings and dances.  
**[Jungjungmori]** "Hurrah! I am lucky today.  
 I've wanted to eat terrapin soup all my life.  
 Let me eat a terrapin."  
 Terrapin is petrified to hear the tiger.  
 "I am not a terrapin, sir!"  
 "Then, what are you?"  
 "I am a poisonous tortoise!"  
 "A tortoise is even better.  
 It is the best medicine for wet energy, removing phlegm.  
 Let me take this medicine."  
 "Alas. I am a toad!"

“두꺼비라니 더욱 좋다.

너를 산 채 불에다 살라<sup>804</sup> 술에 타서 먹고 보면 만병회춘<sup>805</sup> 명약<sup>806</sup>이라더라.

그저 먹어보자. 으르르르!”

[중모레] 자래 기가 맥혀 속으로 탄식할 제,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이제는 내가 못 살겠네.

나의 충성 부족튼가<sup>807</sup>

객사죽음<sup>808</sup> 웬일이며,

나 죽기는 싫잖으나

영덕전 병든 용왕을 어느 뉘가 살려주며,

북당<sup>809</sup>의 학발모친,<sup>810</sup> 홍안옥빈<sup>811</sup> 젊은 처자 뉘게다 의탁을 허잔 말이나?”

슬피 통곡 울음을 운다.

## 16. (별주부 호랑이 축송) 별주부가 목이 늘어난 내력을 말하고, 호랑이에게 겁을 주면서 불알을 짹 물자, 호랑이가 급히 도망한다.

[아니리] ‘아서라,<sup>812</sup> 기왕 죽을 바에는 패술<sup>813</sup>이나 마지막 써보리라.’

웁친<sup>814</sup> 목을 길게 빼어 고성<sup>815</sup>으로 허는 말이,

“네 이놈, 나의 성명을 가르쳐 줄 터이니 똑똑히 들어보아라.

나는 남생이도 아니요,

두꺼비도 아니요,

남해 용궁 공신<sup>816</sup> 자라 별나리<sup>817</sup>로다.”

호랑이 무식하여 자래 별 자 모르고,

“별나리? 별나리? 그것 조그만한 것이 직품<sup>818</sup>은 장히<sup>819</sup> 높구나.

“A toad is even better.  
If I roast you alive and eat you with wine, I will gain my health  
back.  
Let me take this medicine. Come here!”  
[Jungmori] Dumfounded, Terrapin murmurs,  
“I am dying now. I can’t live anymore.  
My loyalty to the king must be short.  
I can’t believe I am dying in a foreign land.  
I don’t mind my dying.  
But who will save my sick dragon king in the sea palace?  
Who can support my old mother and young beautiful wife.”  
Terrapin wails as said above.

**16. (Terrapin Expels the Tiger) Terrapin explains how  
his neck got long, threatens the tiger, and bites the  
tiger’s balls. The tiger runs away.**

[Aniri] Terrapin murmurs, ‘I am dying anyway. Let me play a  
trick on the tiger as a last resort.’  
He sticks out his long neck and shouts at the tiger.  
“You villain. Let me give you my name. Listen carefully.  
I am not a tortoise.  
I am not a toad.  
I am a meritorious official, Terrapin, from the sea palace of the  
South Sea.”  
Ignorant, the tiger doesn’t understand what Terrapin said.  
“Meritorious official? You are tiny, but your rank must be high.

그러면 별나리께서 무엇하러 왔으며,  
목은 왜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 방정맞게 삼졌는고?”<sup>820)</sup>  
“너 이놈, 내의 목 근본을 이를 테니 들어보아라.”

[자진모리] “우리 수궁 영덕전 퇴락<sup>821)</sup>하야  
중창<sup>822)</sup>을 하려하고 천여 간<sup>823)</sup> 되는 집을 나 혼자 기와 일 제,<sup>824)</sup>  
충설<sup>825)</sup> 끝 돌아가다 한 발 자칫 미끄러져 목으로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더니,  
명의다려<sup>826)</sup> 문의하니  
호랑이 쓸개를 열 보<sup>827)</sup>만 먹으면 즉효약<sup>828)</sup>이 된다기에,  
우리 수궁에서 호랑이 귀신을 칩떠<sup>829)</sup> 타고 함경도로 내려가 백두산  
호랑이 잡아먹고,  
서울로 칩떠 올라 삼각산<sup>830)</sup> 호랑이 잡아먹고,  
이 산중에 들어와 너를 보니 반가워라.  
호랑이귀신 게<sup>831)</sup> 있느냐?  
비수검<sup>832)</sup>으로 호랑이 배 바빠 가르고 쓸개 내오너라.  
식기 전에 맛을 보자.”  
이렇게 말을 허고 양금양금 기어 달려들어  
호랑이 불알을 꼭 물고 어찌 뽕뽕이<sup>833)</sup>를 쳐냈던지,  
호랑이가 못 견디어,  
“아이고, 조금만 놓으시오.  
제일 오장<sup>834)</sup> 당겨 못 살겠소.”  
아무리 때려고 허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무진<sup>835)</sup> 더 물고 앞발로 버티니,  
호랑이 하릴없이 그대로 엎드려져 별주부전에<sup>836)</sup> 비는디,  
[진양조]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별나리전에 비나  
이다.

What brought you here?

How come you can pull your neck in and out so repulsively?"

"You fool. Let me explain how I got this neck."

**[Jajinmori]** "Our sea palace once collapsed.

I lifted tiles up to the roof alone in order to rebuild a large palace.

I made a false step around the corner of the eaves and fell down with my neck first, and it became like this.

I consulted a famous doctor.

If I eat ten tigers' gall bladders, I will be cured immediately.

I rode a tiger-killer, went to Hamgyeong-do Province, ate a tiger of Baekdu Mountain,

came to Seoul, ate a tiger of Samgak Mountain,

came to this mountain, and found you with delight.

Is the tiger-killer there?

Cut this tiger's belly open with a sharp knife quickly and take out his gall bladder.

Let me eat it while it is warm."

After finishing, Terrapin runs at the tiger.

He bites the tiger's balls and turns around again and again.

The tiger can't bear the pain.

"Let go of me.

I can't stand this anymore."

The tiger tries to shake Terrapin off.

But Terrapin bites the tiger harder, using his fore legs.

The tiger cannot but back down, begging Terrapin.

**[Jinyangjo]** "I beg you. I beg you, Mr. Terrapin.

나는 오대독신이요.

사십이 넘어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sup>837)</sup> 일점 혈육<sup>838)</sup>이 없으니,

만일 요것을 뺏기고 보면 손세<sup>839)</sup>를 막게 되니

후회막급<sup>840)</sup> 절통<sup>841)</sup>허요.

차라리 여기 대신으로 내 원눈이나 하나 빼 잡수시오!”

“이놈, 안 될 말이다.

아생연후에 살타라니<sup>842)</sup>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놔!”

호랑이 기가 맥혀,

“아이고! 여기를 놔줘야 쓸개라도 드리지요.

제발 덕분에 살려주요.”

**[아니리]** 이만허면 이놈을 반이나 휘어놓았제.<sup>843)</sup>

더 질게<sup>844)</sup> 물고 있다 호랑이가 뒷발질 한 번 해서

툭 떨어지는 날이면 호랑이 뱃속으로 직행을 헐 판이니,

요것이 인심 쓴 체라고<sup>845)</sup> 이빨을 슬그머니 벌려 놓으니,

호랑이가 이 틈에 막 도망을 가는데,

**[휘모리]** 호랑이 몽구렀다<sup>846)</sup> 필쩍 뛰어 달아난다.

큰 싸움에 화살 단듯,<sup>847)</sup>

조총<sup>848)</sup>에서 철환<sup>849)</sup> 단듯,

초가성<sup>850)</sup>에 놀란 패왕<sup>851)</sup> 겨우 난출<sup>852)</sup>허는 격으로<sup>853)</sup> 태산을 넘

어, 강수<sup>854)</sup> 지내어

인흘불견<sup>855)</sup> 간 곳 없다.

I am the only child for five generations in my family.  
I went past forty and am approaching fifty, but I don't have a child.  
If I lose my balls, my family line will stop.  
That is regrettable and deplorable.  
Please take out my left eye and eat it instead of my balls!"  
"You scoundrel. No way.  
If I release you, you will kill me.  
Shut up and take out your gall bladder!"  
The tiger is stunned.  
"Gosh! Let go of my balls first. And I'll give you my gall bladder.  
Please release me."  
**[Aniri]** The tiger is submissive now to Terrapin.  
If Terrapin keeps biting the tiger, the tiger will kick Terrapin with his hind leg.  
Terrapin will fall down and go right into the tiger's belly.  
Terrapin pretends that he is generous to the tiger, slowly opening his mouth.  
Using the opportunity, the tiger runs away.  
**[Hwimori]** The tiger prepares to run and moves fast.  
He moves like an arrow in a war.  
He moves like a bullet from a rifle.  
He goes over a mountain and crosses a river as an ancient king fled from his enemy.  
He slowly disappears.

17. (별주부 산신제) 별주부가 산신제 준비를 하고 축문을  
지어 읽으며 토끼 만나기를 기원한다.

[아니리] 어찌 겁김에 뛰어 달아났던지 해남 관머리<sup>856</sup>)에서 의주 압록  
강변까지 뛰어  
숨을 내쉬고 한편을 살펴보니,  
철남생이<sup>857</sup>)란 놈이 목을 뽕쫂쫂<sup>858</sup>) 내놓고 다박다박<sup>859</sup>) 호랑이  
앞으로 걸어 들어오니,  
“그놈 그새<sup>860</sup>) 여기 온다!”  
또 거기서 뛰어논 것이  
저 함경도 쇠스랑고개<sup>861</sup>)에 덜름<sup>862</sup>) 얹어  
쫓겨온 놈이 장담<sup>863</sup>)을 허겼다.  
“내 용맹이나 된개<sup>864</sup>) 살아왔지,  
만일 내가 용맹이 없었으면 지금쯤 그놈 뱃속에 들어 굳었으려다.<sup>865</sup>)  
그러나 그놈 이빨 힘 대단허다.  
우수이<sup>866</sup>) 쪽쪽 애리네그려.”<sup>867</sup>)  
그때에 별주부는 간신히 범을 쫓고 곰곰이 생각허니,  
‘호랑이라 하는 짐승은 산중지영물<sup>868</sup>)이라,  
나의 충성과 지기<sup>869</sup>)를 보려하고 산심님이 변화<sup>870</sup>)하여 그런 줄 모르니,  
산신님을 위하여 산제<sup>871</sup>)나 착실히 모시리라.’  
벽계수<sup>872</sup>)에 목욕을 정히<sup>873</sup>) 허고,  
[중모리] 반송가지<sup>874</sup>) 꺾어내려  
광석암상<sup>875</sup>) 살살<sup>876</sup>) 끌고,  
추풍낙엽<sup>877</sup>)으로 자리 삼어 골라 펴고,  
떨어진 산과목실<sup>878</sup>) 삼색<sup>879</sup>)으로 주워다가



17. (Terrapin's Ritual to Mountain God). Terrapin  
prepares for a ritual to a mountain god, composes  
a written prayer, and recites it, praying that he  
meets a hare.

[Aniri] The tiger was so scared that he runs from the southernmost to the northernmost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He breathes and looks at a certain place.

A tortoise pushes out his head a little and walks slowly at the tiger.

"He followed me all the way here!"

The tiger runs fast from there.

He sits on a mountain pass in Hamgyeong-do Province.

Although he is a fugitive, he speaks with confidence.

"I escaped alive because I was brave.

If I had not been brave, I must be dead in his belly now.

By the way, his teeth are really strong.

My balls are hurt."

Meanwhile, Terrapin ponders after he managed to get rid of the tiger.

He murmurs, 'A tiger is a divine animal in mountains.

It might be that a mountain god appeared in the form of the tiger to test my will and courage.

Let me conscientiously hold a ritual to the mountain god.'

Terrapin takes a bath in the blue stream.

[Jungmori] Terrapin pulls off a small pine branch.

He brushes dirt off a rock with the branch

He spreads fallen leaves and uses them as a mat.

He picks up fallen fruit of diverse colors.

좌홍우백<sup>880)</sup> 갈라 괴고,<sup>881)</sup>

맑고 맑은 석간수<sup>882)</sup> 제주<sup>883)</sup> 삼어 부어놓고,

은어 단치<sup>884)</sup> 잡어다가 우양<sup>885)</sup>으로 대<sup>886)</sup>를 허고,

석하에<sup>887)</sup> 궤좌<sup>888)</sup>허여 분향재배<sup>889)</sup> 독축<sup>890)</sup>허는구나.

[축문] “갑신 팔월 계유 삭<sup>891)</sup> 초칠일,

남해신<sup>892)</sup> 별주부는 감소고우산신국수전하노니<sup>893)</sup>

남해 용왕이 우연득병하야<sup>894)</sup>

백약<sup>895)</sup>이 무효키로

명의에게 문의헌즉,<sup>896)</sup>

진세퇴간<sup>897)</sup>을 쓰면 비단신병지거근하고<sup>898)</sup> 겸차연년익수운운고  
로,<sup>899)</sup>

도월원해삼판리허여<sup>900)</sup> 신궁재도차산에<sup>901)</sup> 비금주수<sup>902)</sup>가 만산왕  
래<sup>903)</sup>허오나,

본시<sup>904)</sup> 해중지소생<sup>905)</sup>으로 난변퇴자<sup>906)</sup>허여

자감민박지정을 대강 앙고하오니,<sup>907)</sup>

복결신령은 하감주부지충하사<sup>908)</sup>

차산중일개퇴만<sup>909)</sup> 즉이지급하옵시기를<sup>910)</sup>

비무후간<sup>911)</sup>

근이청작<sup>912)</sup> 지천우신<sup>913)</sup>

복유<sup>914)</sup> 상사<sup>915)</sup> 상향.”<sup>916)</sup>

## 18. (별주부 토끼 상면) 별주부가 토끼를 발견하고 토생원 이냐고 물으니 토끼가 좋아하며 내려온다.

[아니리] 재배<sup>917)</sup> 후 좌우를 살펴보니,

He puts red fruit on the left and white fruit on the right.  
 He uses the clear water from rocks as an offering wine of the ritual.  
 He catches a fish and uses it instead of a cow and a sheep of the ritual.  
 He kneels down by rocks, burns incense, bows twice, and recites a ritual prayer.  
**[Ritual Prayer]** "This ritual prayer begins on Aug 7.  
 Terrapin from the sea palace prays to a mountain god.  
 The dragon king got sick suddenly.  
 All sorts of medicines didn't work.  
 We consulted a renowned doctor.  
 He said a hare's liver could not only cure the dragon king but also lengthen his life.  
 I took a long journey from the sea to this mountain and saw birds fly and other animals run.  
 Born in the sea, I can't identify a hare.  
 So I speak to you about my worry briefly.  
 Kneeling down, I pray that the mountain god is sympathetic to me.  
 Please grant me a hare from this mountain.  
 I wish everything goes well.  
 I respectfully offer this glass of clear wine to the god.  
 Please take these offerings."

**18. (Terrapin Meets Hare.) Terrapin spots a hare and asks him whether he is a hare. Hare happily comes to Terrapin.**

**[Aniri]** After the ritual, Terrapin looks around.

지성이면 감천이라<sup>918)</sup>

한 짐승이 내려오던가 보더라.

[중중모리] 그림청택요림중<sup>919)</sup> 한 짐승이 내려온다. 한 짐승이 내려온다.

정신이 씩씩하고

이목<sup>920)</sup>이 정직하여

월중토<sup>921)</sup> 기상이라.

자래 목 속의 화상 내어 토끼 보고 화상 보니,

월중토 망월토<sup>922)</sup> 안면이 적실허니,<sup>923)</sup>

‘옳다. 저것이 토끼다.

아까는 내가 잘못 불러 호랑이 만나 봉패<sup>924)</sup> 보았으나,

이번은 되게<sup>925)</sup> 붙여보리라.’<sup>926)</sup> 허고,

“퇴, 퇴, 퇴, 퇴생원!” 허고 불러놓으니,

토끼가 듣고서 좋아라, 토끼가 듣고서 반가라,<sup>927)</sup>

“거<sup>928)</sup> 뉘가 날 찾나? 거 뉘가 날 찾아?

날 찾을 이가<sup>929)</sup> 없건마는 거 누가 날 찾아?

기산<sup>930)</sup> 영수<sup>931)</sup> 소부<sup>932)</sup> 허유<sup>933)</sup> 지의허자고<sup>934)</sup> 날 찾아?

계명산<sup>935)</sup> 통소 불어<sup>936)</sup> 팔천병<sup>937)</sup>을 홀트릴<sup>938)</sup> 제 동의청병<sup>939)</sup>이  
날 찾아?

도화유수<sup>940)</sup> 무릉<sup>941)</sup> 가자 거주속객<sup>942)</sup>이 날 찾아?

상산사호<sup>943)</sup> 네 노인이 바둑을 두자고 날 찾아?

건년산 과부토끼가 연분<sup>944)</sup>을 맺자고 날 찾아?”

이리로 깡충, 저리로 깡충, 자우똥거리고<sup>945)</sup> 내려온다.

Heaven is moved by Terrapin's conscientious effort.  
 An animal comes to Terrapin.  
**[Jungjungmori]** An animal comes to Terrapin from a beautiful  
 forest of a blue mountain.  
 He looks energetic.  
 His ears and eyes look clear.  
 He looks like a hare on the moon.  
 Terrapin takes the picture out of the back of his neck and looks  
 at both the picture and the hare.  
 He realizes that the animal is a hare.  
 He mumbles, 'Yes, that is a hare.  
 A while ago I mispronounced a hare's name and got into trouble  
 with the tiger.  
 This time, I will pronounce his name correctly.'  
 He says, "Mr. Hare!"  
 Hare is pleased and delighted to hear Terrapin.  
 "Who is looking for me? Who are you?  
 I am not expecting anybody. Who is looking for me?  
 Are ancient hermits asking me to live a reclusive life with them?  
 The sound of a flute scattered eight thousand soldiers over a  
 mountain. Are they looking for me?  
 Is a person asking me to go to a paradise together and offering  
 wine to me?  
 Are four old men looking for me to play go with them?  
 Is the widow hare from the neighboring mountain proposing a  
 date?"  
 Hare jumps here and there, and comes unsteadily to Terrapin.

19. (토끼 흥미 자랑) 별주부가 토끼를 만나 흥미를 묻자  
토끼가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며 얘기한다.

[아니리] 이렇게 내려오다가 딱 반어놓은 것이,  
“아이고, 이마야!”  
“아이고, 코야!”  
“이 양반아, 초면<sup>946</sup>에 남의 이마는 왜 이렇게 반소?”  
“오비이락<sup>947</sup>이요.  
이녁<sup>948</sup> 이마 아픈 줄만 알제,  
남의 코 아픈 것은 모른단 말이요?  
그러나저러나 우리가 초면에 만났으니  
통성명<sup>949</sup>이나 험시다.  
계<sup>950</sup> 뉘라 허요?”  
“예, 나는 천상월궁<sup>951</sup>에서 이음양순사시<sup>952</sup>허고 대소월<sup>953</sup>을 갈음  
허며<sup>954</sup> 화초를 분별허든 예부상서<sup>955</sup> 월중퇴<sup>956</sup>러니,  
도약취중에<sup>957</sup> 장생약<sup>958</sup> 그릇 짓고  
상제전<sup>959</sup> 득죄하여<sup>960</sup> 차산중<sup>961</sup>에 적하<sup>962</sup>허니,  
세상에서 이르기를 그래도 명색이 토공선생이라 대접허오.”  
자래 퇴명<sup>963</sup> 반기<sup>964</sup> 듣고,  
“반가운 말씀이요.  
나는 남해 용궁의 별주부러니,  
즉문진세지성명하고 불원천리이래러니,<sup>965</sup>  
피차<sup>966</sup> 이리 만나기는 천만몽외<sup>967</sup>요,  
구앙성화<sup>968</sup>러니 하상견지내아들이요.”<sup>969</sup>  
토끼 듣더니, “나도 유식하지마는 별주부도 문장<sup>970</sup>인 것 같소.

**19. (Hare brags about his life.) After meeting Hare,  
Terrapin asks him about his life. Hare brags about  
his life.**

[Aniri] While coming to Terrapin, Hare collides with him.

“My forehead hurts.”

“My nose hurts!”

“Why did you bump into my forehead on the first time we met?”

“That was an accident.

You know your forehead hurts.

How come you don’t know my nose hurts?

By the way, we just met.

Let’s exchange names.

Who are you?”

“I am Hare on the moon. I was a ceremonial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mooth change of seasons, the phase of the moon, and the growth of flowers.

Drunk, I made an elixir incorrectly.

The king of gods punished me, expelling me to this mountain.

But I am treated with respect in this world, calling me Mr. Hare.”

Terrapin is pleased to hear the name ‘Hare.’

“I am glad to hear your words.

I am Terrapin from the sea palace of the South Sea.

I heard about this land and came from the sea palace far from here.

I didn’t expect I would meet you here.

I admired your fame for a long time.”

Hare responds, “I am knowledgeable, but you speak profound sentences too.

우리 두 문장이 만났으니, 문자지름<sup>971)</sup>이나 한번 험시다.”

“그럼시다.”

“피차 이리 만나기는

출가외인<sup>972)</sup>이요.”

“양상화매<sup>973)</sup>요.”

“법지불행은 장고통속이요.”<sup>974)</sup>

“우이독경<sup>975)</sup>이요.”

“막비왕토요.”<sup>976)</sup>

“여필중부<sup>977)</sup>요.”

“숙불환생<sup>978)</sup>이요.”

“여담절각<sup>979)</sup>이요.”

“세모방천<sup>980)</sup>이요.”

“아가사창<sup>981)</sup>이요.”

“어동육서<sup>982)</sup>

홍동백서<sup>983)</sup>

좌포우혜<sup>984)</sup>

분향재배<sup>985)</sup>요.”

“친사돈통가문<sup>986)</sup>이요.”

“일구이언허는 자는 삼천억부지자라.”<sup>987)</sup>

토끼 욕먹는 줄 모르고,

“거 나도 유식하지마는 참말로 별주부도 문장이요.”

“그런데 퇴선생 어찌 왔소?”

“아, 불렀기에 왔지.

별주부는 어찌 왔소?”

“세상이 좋다기로 구경차<sup>988)</sup>로 나왔으나,

당최<sup>989)</sup> 세상 흥미를 모르겠으니



Since we met, let's play the game of speaking profound sentences."

"That's a good idea."

"We just met each other.

Once a woman is married, she is no longer a member of her biological family."

"A seller and a buyer strike a deal."

"A violation of a law involves a noise."

"You can't teach a cow how to read."

"Any place is owned by the king."

"A wife should follow her husband."

"Once a food is cooked, it can't become raw."

"My ox's horn is broken because of your fence."

"A hair can prevent a leakage of water through a bank."

"Your criticism against me can be directed to you."

"Fish to the east, and meat to the west.

Red fruit to the east, and white fruit to the west.

Dried meat to the left, and a sweet rice drink to the right.

We burn incense and bow twice."

"There is an open gate between two families-in-law."

"Contradicting oneself is like having three hundred billion fathers."

Hare doesn't know he is looked down upon.

"I am knowledgeable, but you speak profound sentences too."

"By the way, what brought you here, Mr. Hare?"

"I am here because someone called me.

What brought you here, Mr. Terrapin?"

"I heard the land is beautiful. I am here for sightseeing.

I have no idea what is great about living here.

퇴선생이 알면 좀 일러주세요.”

토끼 요놈이 제 자량을 늘어놓는다,

[중모레] “이 내 몸이 한가하여,

일모황훈<sup>990)</sup> 잠이 들었다가 월출동령<sup>991)</sup> 잠을 깨어

진세간<sup>992)</sup>에 배회할 제,

임자 없는 녹수청산<sup>993)</sup> 내집 삼어 왕래하고,

값 없는 산과목실<sup>994)</sup> 양식 삼어 포식<sup>995)</sup>허니

신여부운무시비<sup>996)</sup>라 명산 찾어서 완월<sup>997)</sup>할 제,

여산<sup>998)</sup> 동남 오로봉<sup>999)</sup>과

진국명산<sup>1000)</sup> 만장봉<sup>1001)</sup>과

석교무산십이봉,<sup>1002)</sup> 봉래 · 방장 · 영주 삼산<sup>1003)</sup>이며,

태산 · 숭산 · 형산 · 화산<sup>1004)</sup>

만학천봉,<sup>1005)</sup>

천태산,<sup>1006)</sup> 아미산,<sup>1007)</sup> 수양산,<sup>1008)</sup>

동금강,<sup>1009)</sup> 서구월,<sup>1010)</sup> 남지리,<sup>1011)</sup>

북향산,<sup>1012)</sup> 가야산, 속리산을 편답<sup>1013)</sup>하고,

무산<sup>1014)</sup>의 낙조경<sup>1015)</sup>과 양곡<sup>1016)</sup>의 일출경<sup>1017)</sup>을 역력히<sup>1018)</sup> 보았

으나,

등태산소천하<sup>1019)</sup> 공부자<sup>1020)</sup>의 대관<sup>1021)</sup>인들 이에서 더할쏘냐?

안기생<sup>1022)</sup> 적송자<sup>1023)</sup>도 나의 제자 삼어두고 장생불로<sup>1024)</sup> 가르치

며,

이따금 심심하면 종아리를 땅땅 치니

이 내 호강<sup>1025)</sup>이 어떠는가?”

Please tell me about living here.”

Hare brags about his life.

**[Jungmori]** “I am free here.

I get up at twilight, when the moon rises over a peak in the east.

I wander around in the land.

I move around in unowned nature, taking it as my home.

I eat fruit for free until I become full.

I visit famous mountains leisurely because I am free.

I visited Wulau(五老) Peaks looking like old men,

a peak on which the future of a country depends, a high peak,  
twelve mountain peaks, Penlai(蓬萊) Mountain, Fangzhang(方丈)  
Mountain, Yingzhou(瀛洲) Mountain,

Tai(泰山) Mountain, Son(嵩) Mountain, Heng(衡) Mountain,  
Hua(華) Mountain,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s,

Tiantai(天台) Mountain, Emei(峨眉) Mountain, Shouyang(首陽)  
Mountain,

Geumgang(金剛) Mountain in the east, Guweol(九月) Mountain  
in the west, Jiri(智異) Mountain in the south,

Hyang(香) Mountain in the north, Gaya Mountain, and Songni  
Mountain.

I clearly watched the sunset on Wu(巫) Mountain and the sunrise  
on a valley.

I felt better than Confucius who said the world looked small  
from the top of Tai(泰) Mountain.

I treat two legendary gods as my students, teaching them how  
to live long without growing old.

When bored, I lash their calves.

Isn't my life great?”

## 20. (토끼의 팔난) 별주부가 토끼의 험난한 삶을 말하며 겁을 준다.

[아니리] 자라 듣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씀이오.

세상의 제일가는 호걸이오.

그러나 퇴선비 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은 일색<sup>1026</sup>)이나 미간<sup>1027</sup>)에 화망살<sup>1028</sup>)이 들어,

죽을 액<sup>1029</sup>)이 여덟이시.<sup>1030</sup>)

팔난세상<sup>1031</sup>) 자네로다.”

토끼 어이없어,

“내 상<sup>1032</sup>)이 설령 그리할지라도, 초면에<sup>1033</sup>) 그다지 박절하게<sup>1034</sup>)

말씀을 하신단 말이오?

내가 말은 허되,

사실은 목 안의 숨은 하나도 없소.”

“퇴서방 팔난세상 내 이를 테니 들어보소.”

[자진모리] “일개 한토<sup>1035</sup>) 그대 신세

삼춘구추<sup>1036</sup>) 다 지내고,

대한<sup>1037</sup>) 엄동<sup>1038</sup>) 설한풍<sup>1039</sup>) 만학에<sup>1040</sup>) 눈 쌓이고

천봉에<sup>1041</sup>) 바람칠 제,

화초목살<sup>1042</sup>) 바이없어<sup>1043</sup>)

어둑한<sup>1044</sup>) 바위틈 벗 없이 앓은 모양

채운<sup>1045</sup>) 편월<sup>1046</sup>)의 무관수<sup>1047</sup>) 초희왕<sup>1048</sup>)의 원한이요,

일월고초복해상 소중량<sup>1049</sup>) 원혼이라.

주려 죽을 자네 몸이 삼동<sup>1050</sup>) 고생을 다 지내고,

벽도홍행<sup>1051</sup>) 춘이월<sup>1052</sup>)에 주린 구복<sup>1053</sup>)을 채우려고 심곡심산<sup>1054</sup>)

기다닐<sup>1055</sup>) 제

## 20. (Hare's Eight Hardships) Terrapin threatens Hare, telling him about Hare's hard life.

[Aniri] After hearing Hare, Terrapin responds,

"How great your life is!

You are a great figure in the world.

But your face forebodes your future.

It looks good, but the space between your eyebrows indicates  
you will be killed by fire.

You will go through eight crises.

Your life is filled with eight hardships."

Hare is stunned.

"Even if my fate is bad, how can you say such cruel words to  
me when we just met?

I bragged about my life.

To tell the truth, however, my life is precarious."

"Let me tell you about your eight hardships. Listen."

[Jajinmori] "You are just a hare with a trivial fate.

Spring and autumn go.

In cold winter, snow piles up on numerous valleys.

A wind blows hard on numerous peaks.

Flowers, grasses, and fruits are gone.

You sit alone between dark rocks.

Your fate is the same as that of the ancient king who died below  
radiant clouds and the crescent moon.

Your life is as hard as that of the ancient diplomat who lived  
in a hut near the Caspian Sea.

You almost starve to death and manage to hang on in winter.  
When peach and apricot blossoms bloom in spring, you wander  
around deep mountains and valleys to fill your empty stomach.

골골이 묻은 것은 목달개<sup>1056</sup> 엄착귀<sup>1057</sup>)요,  
 기슭으로 도는 것은 사냥개 물이꾼,  
 험산곡<sup>1058</sup>) 있는 것은 토끼 잡는 아호<sup>1059</sup>)라.  
 송하에<sup>1060</sup>) 숨은 것은 불 잘 놓는<sup>1061</sup>) 저 포수,  
 오는 토끼 놓으려하고<sup>1062</sup>) 왜물<sup>1063</sup>) 조총<sup>1064</sup>) 약<sup>1065</sup>)을 잡어  
 대돈잡이<sup>1066</sup>) 철환<sup>1067</sup>) 넣어 불 박아<sup>1068</sup>) 손에 들고 은근히 앓았다,  
 토끼 앞에 당도하면 좀 뒤, 좀 앞 단속하야,  
 반달같은 방아쇠,  
 고추같은 불을 당겨<sup>1069</sup>)  
 한 눈 재그리고<sup>1070</sup>) 반만 일어서서,  
 단는 토끼 쩡그려 보고 ‘꾸루루루 팡.’”  
 헛총<sup>1071</sup>) 놓으니,<sup>1072</sup>)  
 토끼 깜짝 놀래,  
 “아이고, 그 총소리 좀 내지 마오.  
 우리 삼대가 총으로 다 망했소.”  
 “사면으로 두른 것은 토끼 잡는 그물이라.  
 은왕성탕<sup>1073</sup>) 가신 후에 그 그물을 누가 들며,  
 들로 내려 토끼 은신,  
 수풀 속의 막대로 뚜드리며, ‘위리 오호’ 쫓는 것은 술 먹은 초동<sup>1074</sup>)  
 이라.  
 그대 신세 생각하면 적벽강상전패허든<sup>1075</sup>) 조맹덕<sup>1076</sup>)의 정신이요,  
 작은 눈 부릅뜨고,  
 짜룬<sup>1077</sup>) 꿩지<sup>1078</sup>) 뒤로 끼고,  
 암상<sup>1079</sup>) 고석<sup>1080</sup>) 절벽상에 바빠바빠 도망갈 제,  
 입궁기<sup>1081</sup>) 쓴 내<sup>1082</sup>) 나고,  
 밑궁기<sup>1083</sup>) 조총 놓을 제<sup>1084</sup>)

Snares and traps are hidden in every valley.  
 Chasers and hunting dogs move to the foot of a mountain.  
 A hungry tiger is in a rugged valley.  
 A hunter hiding under a pine tree is a sharp shooter.  
 In order to catch you, he puts gunpowder in a Japanese rifle.  
 He also puts a heavy bullet in it, kindles fire, and holds the rifle,  
 waiting for you.  
 If you arrive in front of him, he aims at you.  
 The trigger looks like the half moon.  
 He kindles fire as red as pepper.  
 He squints his eye and stands half way up.  
 You run, but he frowns at you. Bang!"  
 Terrapin mimics a gunshot.  
 Hare is startled.  
 "Gosh, stop mimicking the gunfire.  
 All of my family members perished because of rifles."  
 "Nets to catch hares are set up in every direction.  
 Who will get rid of the nets for the sake of you?  
 You run to the field and hide there.  
 Drunken woodcutters hit the bush with sticks and chase you  
 with their dogs.  
 You feel like the ancient premier, Cao Cao(曹操), who lost a  
 war in Chibi(赤壁) River.  
 You open your small eyes wide.  
 Your short tail touches your back.  
 You flee on the rocks covered with moss on a cliff.  
 You taste bitter in your mouth.  
 You are shot on the back.

조생모사<sup>1085</sup>) 자네 신세  
 한가히다고 뉘 이르며,  
 만산풍경<sup>1086</sup>) 좋다헌들  
 무삼<sup>1087</sup>) 정<sup>1088</sup>)으로 유산,<sup>1089</sup>)  
 무삼 경황<sup>1090</sup>)에 완월?<sup>1091</sup>)  
 아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다는  
 그런 거짓말일랑은 뉘 앞에다가 내어 씹나?”<sup>1092</sup>)

## 21. (수궁 흥미) 별주부가 수궁의 온갖 자랑을 늘어놓으며, 토끼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아니리] 토끼 듣고 뉘이 없어,  
 “여보, 그러면 수궁 풍경 소식 좀 들어봅시다.”  
 “말이라 허는 것은 들으면 병이지요.  
 팔난세상 살던 이가 수궁풍경 흥미 듣고 가자하면 뵈 수 없고,  
 가기로 하면 한 등짐<sup>1093</sup>) 헐 터이니,  
 차라리 안 듣는 것이 낫지요.”  
 토끼 듣고 하는 말이,  
 “주부공<sup>1094</sup>) 유식헌 것 같어도 무식허오그려.  
 봉우유신<sup>1095</sup>) 추우강남<sup>1096</sup>)이란 말도 못 들었소?  
 혼자만 안락하고 벼은 모르니  
 그 아니 한심인가?”  
 별주부 이 말 듣고 속으로 좋아라고,  
 “오, 그렇다면 내 이를게 들어보오.”  
 이놈이 역으로<sup>1097</sup>) 유인을 허는디,



Your life is always in jeopardy.  
Who says you are free?  
Mountains are beautiful?  
But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visit mountains for fun?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enjoy the moon?  
A few minutes ago, you said you lashed the calves of gods.  
Do you think I would buy such a blatant lie?"

**21. (Good Things about Sea Palace) Terrapin boasts of  
the sea palace, proposing that Hare go there with  
him.**

[Aniri] Hare is struck dumb.

"Hello. If so, please tell me about the sea palace."

"If you hear about it, you will become impatient. s

Given that you live in the eight hardships, you will ask me to  
take you there, and I won't be able to push you off.

I can't take you there either because you will be a burden to  
me.

You had better not hear about the sea palace."

Hare speaks,

"I thought you are knowledgable, but in fact you are ignorant.  
Friendship is an important value in our life.

You enjoy happiness, but don't care about your friend.

Isn't that deplorable?"

Deep in his mind, Terrapin is pleased to hear what Hare said.

"If you insist, let me tell you about the sea palace."

Terrapin implicitly tempts Hare to the sea palace.

**[아니래]** “우리 수궁 장관<sup>1098</sup>)이라.  
 천양지간<sup>1099</sup>)에 해내최대<sup>1100</sup>)하고,  
 만물지중에<sup>1101</sup>) 신위최령<sup>1102</sup>)이라.  
 무변대해<sup>1103</sup>)에 영덕전 높은 집을 천여 간<sup>1104</sup>) 지었으되,  
 호박 기둥,  
 황금 주추,<sup>1105</sup>)  
 산호주<sup>1106</sup>)로 난간하니,  
 주궁패궐<sup>1107</sup>)은 영룡허여 삼광<sup>1108</sup>)을 응하였고,  
 곤의수상<sup>1109</sup>) 황홀하야 오복<sup>1110</sup>)을 가졌으니,  
 우리 용왕 즉위하사<sup>1111</sup>) 만족<sup>1112</sup>)이 귀시허고,<sup>1113</sup>) 백성이 앙덕<sup>1114</sup>)  
 이라.  
 앵무<sup>1115</sup>) 금잔<sup>1116</sup>) 천일주<sup>1117</sup>)와  
 천빈옥반<sup>1118</sup>)의 불로초<sup>1119</sup>) 빈사과<sup>1120</sup>)를 싫도록 자신<sup>1121</sup>) 후에,  
 수궁 미색<sup>1122</sup>) 수십 명, 갓은 풍류<sup>1123</sup>) 세악수<sup>1124</sup>) 좌우로 가득 세우고,  
 자연거수승거산<sup>1125</sup>)이라.  
 요지<sup>1126</sup>)로 들어갈 제,  
 칠백 리 군산<sup>1127</sup>)은 물 속에 벌여 있고,  
 삼천사장<sup>1128</sup>) 해당화는 약수<sup>1129</sup>)에 붙어 있다.  
 한가 태평하야 월청명<sup>1130</sup>)  
 추강상<sup>1131</sup>) 어적소리<sup>1132</sup>) 화답<sup>1133</sup>)허며,  
 경수<sup>1134</sup>) 위수<sup>1135</sup>) 낙수<sup>1136</sup>) 회수<sup>1137</sup>) 양진<sup>1138</sup>) 포진<sup>1139</sup>) 팽예<sup>1140</sup>)  
 소상<sup>1141</sup>) 흑거흑래<sup>1142</sup>) 노닐 적에,  
 적벽강<sup>1143</sup>) 소자첨<sup>1144</sup>)과  
 구선하던<sup>1145</sup>) 유룡<sup>1146</sup>)이며,  
 애월하던<sup>1147</sup>) 태백<sup>1148</sup>)이도  
 수궁 풍경 보았으면 세상에서 머물쏘냐?

**[Aniri]** “My sea palace is spectacular.  
 The sea is the largest thing between heaven and earth.  
 God is the most sacred thing in the world.  
 The sea palace is high and wide in the limitlessly large sea.  
 Pillars are made of amber.  
 Cornerstones are made of gold.  
 Balustrades are made of coral beads.  
 Pearls and clams of the sea palace are brilliant like the sun, the moon, and stars.  
 The emperor’s trousers are embroidered and splendid, bringing about blessings.  
 When my king came to the throne, all the people treasured him and looked up to him.  
 A thousand-day-old wine is served on a shell and a golden glass.  
 You can avail yourself of elixir plants and snack on a wide jade tray.  
 Dozens of beautiful girls dance in accordance with many sorts of music.  
 You will say living in the sea is better than in the land.  
 A boat arrives at a divine pond.  
 Many mountains are reflected on the pond.  
 Wild roses are red on a long sandy field of a divine river.  
 The sea is peaceful, and the moon is bright.  
 We respond to a fisherman’s flute on an autumn river.  
 We travel to and come back from famous rivers, their tributaries, ports, lakes, and sites famous for scenic beauty.  
 An ancient poet had good time on a river.  
 An ancient king wanted to become a god.  
 Another ancient poet loved the moon.  
 Had they known the sea palace, they would not have lived in the land.

원컨대 토선생도 나를 따라 수궁 가면 늙름한 저 풍신<sup>1149</sup>)에 용호대장<sup>1150</sup>) 틀림없네.

물실차기<sup>1151</sup>) 따라가세.”

## 22. (여우 만류) 토끼가 별주부를 따라 수궁을 가는데, 여우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토끼 듣고 하는 말이,

“수궁 천 리 먼먼 길에

일거<sup>1152</sup>) 소식 끊어지면 그 아니 원통허오?”

자래 듣고 다시 구변<sup>1153</sup>)을 내는디,

[중중모리] “수궁 천 리 머다 마소. 수궁 천 리 머다 마소.

맹자도 불원천리<sup>1154</sup>) 양혜왕<sup>1155</sup>)을 가 보았고,

궁괄십<sup>1156</sup>) 강태공<sup>1157</sup>)도 은국<sup>1158</sup>)을 이별허고

멀고먼 기주<sup>1159</sup>) 가서 문왕<sup>1160</sup>) 만나 귀히<sup>1161</sup>) 되고,

백리해<sup>1162</sup>)도 목공<sup>1163</sup>) 따라 진국<sup>1164</sup>)의 재상되고,

한신<sup>1165</sup>)이도 소하<sup>1166</sup>) 따라 한나라 대장 되니,

원컨대 퇴선생도 염려 말고 따라가세.”

“그리허면 가옵시다.”

토끼는 뒤에서 깡충깡충,

자래는 앞에서 앙금앙금,<sup>1167</sup>)

원로수변<sup>1168</sup>)을 내려갈 제,

건넌산 바우 틈에 깊이 묻힌 여호<sup>1169</sup>) 썩 나서며,

“이애, 토끼야!”

“왜냐?”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certainly become a brave general, given that you look majestic.  
Don't miss out on this chance. Let's go."

**22. (A Fox Tries Dissuade Hare) While Hare follows Terrapin to the sea palace, a fox shows up and tries to dissuade Hare from going.**

[Aniri] Hare speaks,

"The sea palace is far from here.

I am afraid I might not be able to come back."

Terrapin becomes eloquent again.

[Jungjungmori] "Don't say the sea palace is far from here.

Mencius visited a king, taking a long journey.

After living a poor life for eighty years, Jiang Taigong(姜太公) left his country.

He went to a foreign country far from his home, met a king, and lived a precious life.

Bai Li Xi(百里奚) followed a politician to a foreign country and became a premier.

Han Xin(韓信) followed a politician to a foreign country and became a general.

Mr. Hare, please follow me. Don't worry."

"If so, let's go."

Hare scampers behind Terrapin.

Terrapin toddles ahead of Hare.

They take the long journey to the shore.

A neighboring fox comes out from the deep lair between rocks.

"Hello, Hare!"

"What?"

“네 어디 가느냐?”

“별주부 따라 수궁 간다.”

“수궁은 무엇하러 가느냐?”

“훈련대장 하러 간다.”

“허허, 자식 어린지고.<sup>1170)</sup>

너희 둘이 수작할 제, 내 여기 앉아 다 들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칼 잘 쓰던 연인<sup>1171)</sup> 형가<sup>1172)</sup> 역수한풍<sup>1173)</sup> 슬픈 소리 장사일거<sup>1174)</sup>

저 못 왔고,

소상강<sup>1175)</sup> 모운간<sup>1176)</sup>에 제녀<sup>1177)</sup>도 울어 있고,

연년춘초<sup>1178)</sup> 푸른 곳에 왕손<sup>1179)</sup>도 귀불귀라.<sup>1180)</sup>

토끼 너도 수궁 가면 돌아오지 못허리라.

수궁인즉<sup>1181)</sup> 위방<sup>1182)</sup>이라.

위방불입<sup>1183)</sup>이요,

난방불거<sup>1184)</sup>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 말 듣고 가지 마라.”

### 23. (별주부 토끼 유인) 토끼가 주저하자 별주부가 토끼를 유인하여 수궁으로 출발한다.

[아니래] 토끼란 놈 하하 웃고.

“앗차차, 하마트면 큰일 날 뻔허였고.<sup>1185)</sup>

별주부 잘 가시오.

나는 오던 길로 돌아가다 맹감<sup>1186)</sup>이나 따 먹지.”

“Where are you going?”

“I am following Terrapin to the sea palace.”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I am going there to become the general of the military academy.”

“Gee, how foolish you are!

When you talked with Terrapin, I heard you two.

Don’t go there.

An ancient swordman never returned, after saying goodbye to his friends by a river when a cold wind blew.

Two ancient queens wept when the sun set over a river.

Grass rose up every spring, but a descendent of a king couldn’t come back.

Hare, you will not return either if you go to the sea palace.

The sea palace is a dangerous country.

A dangerous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A disorderly country is not to be lived in.

Don’t go to the sea palace.

Listen to me, and don’t go there.”

**23. (Terrapin Wins Hare Over.) Hare hesitates.  
Terrapin wins Hare over. They depart for the sea  
palace.**

[Aniri] Hare laughs loudly.

“I would almost have gotten into big trouble.

So long, Terrapin.

I will go back home and eat fruits of vines.”

깡충깡충 뛰어가니,  
 자래 어이없어,  
 “여보, 토선생. 토선생 생긴 것이 복이 없으니 할 수 없소.  
 가기는 가시오마는 내의 말을 듣고 가오.  
 일전에<sup>1187</sup>) 저 녀석이 남해 수변<sup>1188</sup>)으로 가재 사냥 내려왔다  
 실수하여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제,  
 우리 수궁 대장 범치 세상 구경 나가셨다  
 마침 보고 쫓아가서 저 녀석을 건져 업고 수궁으로 돌아오니,  
 용왕이 보시고 풍신<sup>1189</sup>)이 점잖다고 훈련대장 허라 허니,  
 호반<sup>1190</sup>)이라 마다허고,  
 약방<sup>1191</sup>) 도제조<sup>1192</sup>) 이조판서 보국<sup>1193</sup>) 주어도 마다허고,  
 궁중에 무임<sup>1194</sup>)으로 있다가 시녀 간통허고,  
 어전<sup>1195</sup>) 곤장<sup>1196</sup>) 삼십 도<sup>1197</sup>)에 축출<sup>1198</sup>)허여 본국으로 쫓았더니,  
 그 한으로 남도 못되게 방맹이를 드요그려.<sup>1199</sup>)  
 알아서 하시오.  
 나는 가요.”  
 모른 채허고 별주부 두어 발<sup>1200</sup>) 내려가니,  
 토끼 허허 웃고,  
 “이것 양수<sup>1201</sup>) 지팡이로구나.<sup>1202</sup>)  
 별주부 말도 그럴 듯, 여우 말도 그럴 듯.  
 어찌 해야 옳단 말이냐?  
 별주부 같이 갑시다.  
 남해 수변<sup>1203</sup>)까지 가 보아  
 발목물만 지면<sup>1204</sup>) 가려니와  
 허리물<sup>1205</sup>)만 저도 못 가겠소.”



Hare scampers back.  
 Terrapin is speechless.  
 “Hello, Mr. Hare. Your physical appearance indicates you are unlucky.  
 You can go, but please listen to me before you go.  
 The other day, that fox came to the beach of the South Sea to hunt lobsters.  
 Making a mistake, he was almost drowned.  
 A goby, a general, from the sea palace was there for sightseeing.  
 He spotted the fox and carried him to the sea palace.  
 The dragon king saw the fox and wanted to appoint him as the general of the military academy.  
 The fox declined the offer because he didn’t like a military position.  
 He also declined a medical position and ministerial position.  
 He stayed in the palace without a position and had an affair with a maid.  
 The king gave an order to hit him with a cane thirty times and to expel him back to the land.  
 Resentful at the sea palace, he is jealous of you.  
 Make a wise decision.  
 I am leaving.”  
 Pretending he doesn’t mind, Terrapin takes a few steps.  
 Hare laughs.  
 “It is hard to make a decision.  
 Both sides sound plausible.  
 What should I do?  
 Terrapin, let’s go.  
 Let’s go to the beach of the South Sea.  
 If the water reaches below my ankle, I will go.  
 But if it reaches my waist, I won’t go.”

자래 돌아다보며,

“어서 오시오. 점잔지하에<sup>1206</sup> 왜 그리 변덕이 많소?”

같이 내려가,

[진양조] 남해수변<sup>1207</sup> 당도하니,

세우중<sup>1208</sup>에 돛을 달고 도용도용<sup>1209</sup> 뗏는 배는

한가한 추강<sup>1210</sup> 어부 풍월<sup>1211</sup> 실러 가는 뱃가?

범피창과<sup>1212</sup> 높이 떠서

청강<sup>1213</sup>흥미 무한경<sup>1214</sup>을 백구다려<sup>1215</sup> 문답할 제,

“소소한풍추야월<sup>1216</sup>에 울고 가는 저 기력아.

네 어디로 행하느냐?<sup>1217</sup>

소상<sup>1218</sup> 동정<sup>1219</sup> 어디 두고,

여관한등<sup>1220</sup> 잠든 나를

네가 어이 깨우느냐?”

만리청강<sup>1221</sup> 위의 여산<sup>1222</sup> 동남 물결이<sup>1223</sup> ‘위르르 출렁’.

[아니레] 헛총<sup>1224</sup> 노니,<sup>1225</sup>

“여보, 수국 가면 화망살 면하리까?”

“수국과는 상극<sup>1226</sup>이라 화망살도 면하고 만세동락<sup>1227</sup>허오리다.”

토끼 제일 총 없단 말에 반기허여<sup>1228</sup> 가기로 작정하니,

자래 물로 수루루루 들어가 살살 헤엄치며,

“어서 들어오시오.”

토끼 버드나무 곁가지<sup>1229</sup> 앞발로 휘어잡고, 뒷발을 물에 넣으니,

물은 벌써 턱밑에 오르는데,

발밑으로 수천 길<sup>1230</sup>이나 되겠다.

Terrapin turns around.

“Come here. You are gentle but capricious.”

They go together.

**[Jinyangjo]** Terrapin and Hare arrive at the beach of the South Sea.

A boat sets a sail in drizzle and moves gently by the waves.

Is it carrying a fisherman’s poem in the quiet autumn river?

It floats on the blue sea.

Hare and Terrapin ask sea gulls about the happy life on the clear water and the vast landscape.

“Wild geese honk while flying in a cold wind in lonely moonlit autumn night.

Where are you headed?

Why don’t you fly to Xiaoxiang(瀟湘) River and Dongting(洞庭) Lake?

I was sleeping under a cold light in an inn.

Why are you waking me up?”

Southeast waves are made in an upper region of a long river.

**[Aniri]** Terrapin mimicked a gunshot.

“If I go to the sea palace, can I avoid my fate to be killed by fire?”

“The sea palace will suppress that fate, and you will live happily forever.”

Pleased to hear that there is no rifle in the sea palace, Hare decides to go there.

Terrapin gets into the water elegantly and swims slowly.

“Hurry into water.”

Hare holds a protruding willow branch with his fore legs and puts his hind legs in the water.

The water almost reaches his neck.

The water can more than bury him.

겹을 내어 올라오려고 가지에 힘을 주니,  
곁가지는 점점 찢겨져  
물에 잠기거늘,  
“얼씨구나, 잘 죽는다!”

[자진모리] 저 자래 거동<sup>1231)</sup> 보아라.

와락 뛰어 달려들어 토끼 두 귀 검쳐잡고<sup>1232)</sup> 물에 풍 빠져놓으니,  
이제는 하릴없이<sup>1233)</sup> 죽었구나.

이리저리 들어갈 제, 토끼 겹을 내어,  
“아이고, 별주부야. 조금만 놓아라.”

“네 이놈, 잔말<sup>1234)</sup> 마라.

짚물이 입에 들면 병어리가 되느니라.”

토끼를 검쳐<sup>1235)</sup> 업고 만경창파<sup>1236)</sup> 무변대해<sup>1237)</sup>로 둥덩실 떠나갈 제,

## 24. (범피중류)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소상팔경을 구경하 며 수궁으로 들어간다.

[아니리] 소상팔경<sup>1238)</sup>을 구경하며 들어가던 것이었다.

[진양조] 범피중류<sup>1239)</sup> 둥덩실<sup>1240)</sup> 떠나간다.

망망<sup>1241)</sup>한 창해<sup>1242)</sup>이며,

탕탕한<sup>1243)</sup> 물결이라.

백빈주<sup>1244)</sup> 갈매기는 홍요안<sup>1245)</sup>으로 날아들고,

삼강<sup>1246)</sup>의 기러기는 한수<sup>1247)</sup>로 돌아든다.

요량한<sup>1248)</sup> 남은 소리 어적<sup>1249)</sup>이 이언마는<sup>1250)</sup>

곡종인불견<sup>1251)</sup>의 수봉<sup>1252)</sup>만 푸르렀다.

애내성중만고수<sup>1253)</sup>는 날로 두고<sup>1254)</sup> 이름인가?

Scared, Hare tries to move up and pulls the branch.  
 The branch is stretched to the limit.  
 Hare is submerged.  
 “Oh my god. I am dying!”  
**[Jajinmori]** Behold Terrapin,  
 He rushes to Hare, grabs his two ears, and pulls him into the water.  
 It looks like Hare will die.  
 Hare is scared as he gets into the water.  
 “Terrapin, let go of me.”  
 “You villain. Shut up.  
 If salty water goes into your mouth, you will become dumb.”  
 Terrapin puts Hare on his back, and floats away on vast blue sea.

**24. (On the Sea) Terrapin carries Hare on his back.  
 They go to the sea palace as they watch the eight  
 beautiful sites.**

**[Aniri]** Terrapin and Hare watch the eight beautiful sites as they go to the sea palace.  
**[Jinyangjo]** Terrapin and Hare go slowly in the wide sea.  
 The sea is endlessly wide.  
 The large waves are strong.  
 Sea gulls fly from the island of white flowers to the hill of red reeds.  
 Wild geese return from three rivers to another river.  
 A far-reaching sound seems to be from a fisherman’s flute.  
 When the song is over, only a few green peaks are seen.  
 The oar sounds seem to express anxiety.

장사<sup>1255</sup>)를 지내가니 가태부<sup>1256</sup>)는 간 곳이 없고,  
먹라수<sup>1257</sup>)를 당도하니 굴삼려<sup>1258</sup>) 어복충훈<sup>1259</sup>) 무양<sup>1260</sup>)도 하시  
던가?

황학루<sup>1261</sup>)를 당도하니 일모향관하처시오?  
연파강상의 사인수는 최호의 유적이요,<sup>1262</sup>  
봉황대<sup>1263</sup>)를 당도하니 삼산은 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sup>1264</sup>)는 이태백이 놀던 데요,  
심양강<sup>1265</sup>)을 돌아드니, 백낙천<sup>1266</sup>) 일거후에<sup>1267</sup>) 비파성<sup>1268</sup>)이 끊  
어지고,

적벽강<sup>1269</sup>)을 돌아드니  
소동파<sup>1270</sup>) 놀던 풍월 의구하여<sup>1271</sup>) 있다마는,  
조맹덕<sup>1272</sup>) 일세지웅<sup>1273</sup>) 이금에 안재오?<sup>1274</sup>  
월락오제<sup>1275</sup>) 깊은 밤에 고소성외<sup>1276</sup>) 배를 매니,  
한산사<sup>1277</sup>) 쇠북소리는<sup>1278</sup>) 객선에<sup>1279</sup>) 땡땡 들리는 듯,  
진회수<sup>1280</sup>)를 바라보니

격강<sup>1281</sup>)의 상녀들<sup>1282</sup>)은 망국한<sup>1283</sup>)을 모르고서  
연룡한수월룡사헌디<sup>1284</sup>) 후정화<sup>1285</sup>)만 부르더라.<sup>1286</sup>  
악양루<sup>1287</sup>) 높은 집은 호상에<sup>1288</sup>) 솟았는 듯,  
무산<sup>1289</sup>)에 뜬 달은 동정호<sup>1290</sup>)로 비쳐오니 상하천광<sup>1291</sup>)이 거  
울<sup>1292</sup>) 속에 푸르렀다.  
창오산<sup>1293</sup>)이 아득하니, 황룡묘<sup>1294</sup>) 잠졌어라.

Terrapin and Hare pass a place where a famous politician and poet lived in ancient times.  
 They watch a river and say hello to a loyal official who became food for fish in the river in ancient times.  
 They arrive at a tower where an ancient poet said, "The sun sets. Where is my hometown?  
 A fog rising up from the river intensifies my anxiety."  
 They reach another tower and see clouds hanging around the middle of three peaks.  
 A river flows around the island where another ancient poet enjoyed himself.  
 Terrapin and Hare enter another river where a lute sound stopped after another ancient poet had gone.  
 They drop by another river.  
 The beautiful site remains the same as when another ancient poet enjoyed himself.  
 Cao Cao(曹操), a hero in ancient times was here, but he has gone.  
 A boat casts an anchor near a castle at night when the moon sets and a crow cries.  
 A drum sound from a Buddhist temple seems to reach the boat with a traveler.  
 They cross a canal.  
 Bar girls across the river did not know the fall of their country.  
 They only sang a song when thick fog hung over the cold river and the moonlight was shiny on the sandy field.  
 A high pavilion seems to rise up on a lake.  
 The moon above a mountain is reflected on a lake along with the blue sky.  
 Since Cangwu(蒼梧) Mountain is far, Huanglin(黃陵) Shrine cannot be seen.

삼협<sup>1295</sup>)의 잔나비<sup>1296</sup>)는 자식 찾는 슬픈 소리,  
 천객<sup>1297</sup>) 소인<sup>1298</sup>)의 눈물을 몇몇이나 빗었든고?  
 팔경<sup>1299</sup>)을 다 본 후에 한 곳을 당도하니,  
 악양루와 같은 누각<sup>1300</sup>)에 백옥<sup>1301</sup>) 현판<sup>1302</sup>)에 황금 대자<sup>1303</sup>)로 새  
 겠으되,  
 ‘남해 영덕전 수정문’이라 두렛이<sup>1304</sup>) 붙었거늘,  
 토끼 보고 좋아라고 그곳을 점점 들어가니,  
 일월이 조요<sup>1305</sup>)허고  
 사면이 광활하여<sup>1306</sup>)  
 엄연히 별세계<sup>1307</sup>)로구나.  
**[중모리]** 토끼 자래 등에서 선뜻<sup>1308</sup>) 내려 좌우 경개<sup>1309</sup>)를 살펴본다.  
 “동<sup>1310</sup>)을 바라보니 일륜홍<sup>1311</sup>)이 어려 있고,  
 서를 바라보니 일발청산<sup>1312</sup>) 층층헌디 비취색<sup>1313</sup>)이 어려 있고,  
 남을 바라보니 대봉<sup>1314</sup>)이 비진<sup>1315</sup>)허고,  
 북을 바라보니 약수삼천리<sup>1316</sup>) 해당화 장히<sup>1317</sup>) 좋다.  
 중앙은 백록탄<sup>1318</sup>) 여동빈,<sup>1319</sup>) 소동파,<sup>1320</sup>) 장건<sup>1321</sup>)이며 비상  
 천<sup>1322</sup>)하는 거동 이에서 더할쏘냐?  
 깊기는 깊다마는 들어와보니 별유천지<sup>1323</sup>)로다.  
 이러한 좋은 경치에 글 한 귀<sup>1324</sup>) 못해서야 훈련대장 할 수 있나?  
**[시창]** 산림유객이 도용궁허니  
 사해풍광입안중이라.”<sup>1325</sup>)



A monkey of a valley looks for its young sadly.  
 How many times did banished people and poets shed tears?  
 After watching the eight sites, Terrapin and Hare arrive at a  
 certain place.  
 On a pavilion, there is a white jade board with large golden  
 letters.  
 It says clearly "The Crystal Gate of the Sea Palace of the South  
 Sea."  
 Delighted to see it, Hare goes through the gate.  
 The sun and the moon are bright.  
 An open field is unfolded in front of them.  
 This is clearly a different world.  
**[Jungmori]** Hare jumps off Terrapin swiftly and take a look at  
 the landscape.  
 "I see the red sun in the east.  
 I faintly see a mountain as green as jade in the west.  
 I see a large phoenix fly high in the south.  
 I see beautiful sweetbriers along a divine river in the north.  
 Lu Dong Bin(呂洞賓), Su Dong Po(蘇東坡), Zhang Qi An(張騫)  
 rise up above white and blue rapids in the middle.  
 The sea palace is in the deep sea, but it is a paradise.  
 Given the scenic view is great, I should write a poem as the  
 future general of the military academy.  
**[Poetic Mode]** A guest from a mountain arrives in the sea palace.  
 Marine scenes enter his eyes from all directions."

25. (토끼 잡아들임) 수궁에 당도하여 나졸들이 토끼를 잡  
아들이자, 토끼가 자신은 토끼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아니리] “여보, 토생원.

여기 잠깐 앉아계웁시면

우리 수궁 남여<sup>1326</sup> 내보낼 테니 타고 들어오웁소서.”

“그리허요.”

자래 들어와 복지주왈,<sup>1327</sup>

“진세<sup>1328</sup>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sup>1329</sup>이요.”

용왕이 반기<sup>1330</sup> 여겨

“만리진세<sup>1331</sup>에 무사히 다녀오며,

토끼를 잡아왔는가?”

“대왕의 성덕<sup>1332</sup>으로 진세 일개토<sup>1333</sup>를 생금<sup>1334</sup>하여

수정문 밖에 대령<sup>1335</sup>하였나이다.”

용왕이 반기허여,

“기특타<sup>1336</sup> 주부지충<sup>1337</sup>이여.”

어주<sup>1338</sup>를 내려 치하<sup>1339</sup>허시고 좌우에 명하여,

“토끼 바빠 잡아들여라!”

수궁이 진동하게 호령하여 놓으니,

토끼 문밖에서 듣고,

‘아차, 내 일이야. 사지<sup>1340</sup>를 들어왔구나.

사불여의<sup>1341</sup> 도망을 허자헌들 수로 만 리 갈 수 없고,

수국 중에 숨자헌들 내 모양이 조<sup>1342</sup>가 나니,<sup>1343</sup>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백계무책<sup>1344</sup>이로구나’

자탄허고 앉었을 제,

**25. (The Arrest of Hare) Hare and Terrapin arrive in the sea palace. Guards try to arrest Hare. He denies he is a hare.**

[Aniri] "Hello, Mr. Hare.

Sit here for a minute.

I will send a carriage for you. Come inside on the carriage."

"That's fine."

Terrapin goes inside, lies face down, and speaks.

"Your Majesty, this is Terrapin from the land."

The king is glad to see him.

"How was your long trip in the sea?

Did you bring a hare?"

"Thanks to your virtue, I brought a hare alive from the land.

He is waiting outside the crystal gate."

The dragon king is pleased.

"Terrapin, you are a praiseworthy loyal subject."

After offering a glass of wine to Terrapin, he gives an order.

"Bring Hare here immediately!"

His stern order shakes the sea palace.

Hearing the order, Hare mutters,

"Oh my goodness. I came to a dangerous place.

I can't flee because I am surrounded by the vast sea.

I can't hide in the sea palace because that is disgraceful.

Alas, What should I do?

A good idea doesn't occur to my mind."

He laments his own misfortune.

**[자진모리]** 강신하줄<sup>1345)</sup> 별군직<sup>1346)</sup>과 수많은 도루묵,<sup>1347)</sup> 해모지  
 리,<sup>1348)</sup> 원참군<sup>1349)</sup> 남생이,<sup>1350)</sup>  
 청사<sup>1351)</sup> 홍사<sup>1352)</sup> 가막쇠<sup>1353)</sup>를 요하<sup>1354)</sup>에 빗겨<sup>1355)</sup> 차고  
 우루루 나오더니,  
 “이애, 토끼 거<sup>1356)</sup> 있느냐?”  
 토끼 깜짝 놀래,  
 “내 이름은 토끼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도적 지키는 개요.”  
 “개라니 더욱 좋다.  
 삼복<sup>1357)</sup>에 너를 잡아 약개장<sup>1358)</sup>도 좋거니와  
 개가죽 벗겨내어 잘랑하니<sup>1359)</sup> 더욱 좋다.  
 이 개 바빠 몰아가자.”  
 “아이고, 망아지요!”  
 “말이라니 더욱 좋다.  
 선간목후간족<sup>1360)</sup>에  
 요단향장천리마로다.<sup>1361)</sup>  
 연인도 오백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sup>1362)</sup>  
 너를 산 채 몰아다가 대왕전에<sup>1363)</sup> 바쳤으면 천금상<sup>1364)</sup>을 아니 주랴?  
 들거라. 우!”  
 “아이고, 나 망아지도 아니고 송아지요!”  
 “소라니 더욱 좋다.  
 도탄<sup>1365)</sup>에 너를 잡아  
 두피,<sup>1366)</sup> 족,<sup>1367)</sup> 갈비,  
 양,<sup>1368)</sup> 회간,<sup>1369)</sup> 처넙,<sup>1370)</sup> 콩팥  
 후박없이<sup>1371)</sup> 나뉘 먹고,

[Jajinmori] Numerous sailfin sandfishes, gray mullets, and tortoises are soldiers.

They carry blue and red iron hooks under their waists obliquely.  
They come out in a crowd.

“Is Hare there?”

Hare is surprised.

“I am not a hare.”

“Then, what are you?”

“I am a dog watching out for thieves.”

“A dog is even better.

A dog is a good material for a tonic soup in hot summer.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tilized as a mat.

Let’s take this dog to the king.”

“I am a colt!”

“A horse is much better.

You have good eyes and legs.

You must be a fine horse.

An ancient man paid a lot of money to buy the bones of a dead horse.

Since you are alive, the king will give us more money if we take you to him.

Carry him inside!”

“I am not a colt but a calf!”

“A cow is much better.

We will paste you with mud and put you in a charcoal fire.

Your head, skin, feet, ribs,

stomach flesh, liver, fourth stomach, and kidney,

will be evenly distributed among us.

네 뿔 빼어 활도 매고,<sup>1372)</sup>  
 네 껌질 벗겨 내어 신도 짓고, 북고 매고,  
 네 속에 든 우황<sup>1373)</sup> 값 중헌<sup>1374)</sup> 약이 되고,  
 똥 오줌은 거름을 하니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소 바빠 몰아가자!”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제기럴! 너희들의 할애비다.”  
 여러 놈이 달려들어 청사 홍사 가막쇠를 이리저리 질끈 묶어,  
 주장대<sup>1375)</sup> 들어메고 성화<sup>1376)</sup>같이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어따, 이놈 별주부야! 너희 수궁 남여는 본래 이러느냐?”  
 “오냐. 세상 남여와는 다르리라.”  
 영덕전 넓은 뜰에 동맹이쳐<sup>1377)</sup> 대랑대랑 끌어 들고,  
 “토끼 잡어들었소!”

## 26. (토끼의 궤) 용왕이 토끼 배를 가르라고 하니, 토끼가 궤를 내어 뱃속에 간이 없다고 둘러댄다.

[아니리] 용왕이 반기허여,<sup>1378)</sup>  
 “이놈, 네가 토끼냐?”  
 “예, 토끼로소이다.”  
 “내 우연득병<sup>1379)</sup>허여 필사지경<sup>1380)</sup> 되었더니,  
 명이가 지시허되 너의 간을 쓰면 즉효<sup>1381)</sup>허리라 허기에,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 왔느니.<sup>1382)</sup>  
 너는 일개<sup>1383)</sup> 녹림초신<sup>1384)</sup>이요,

Your horn will be used to make a bow.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to make shoes and drums.  
 The bile in your gall bladder is an expensive medicine.  
 Your dung and urine will be used for manure.  
 No part of your body will be useless.  
 Let's take this calf to the king in a hurry!"  
 Hare is stunned.  
 "Darn it, I am your grandfather."  
 They run at Hare and tie him with blue and red iron hooks.  
 They carry the red stick on which Hare hangs to the king rapidly.  
 Hare is dumfounded.  
 "You villain, Terrapin! Does a carriage look like this in this sea palace?"  
 "Yes, It is different from a carriage in the land."  
 Hare is thrown on and dragged over the wide yard of the sea palace.  
 "We've brought Hare here!"

**26. (Hare's Trick) The dragon king gives the order to open Hare's belly. Hare tells a lie that there is no liver in his belly.**

[Aniri] The dragon king is happy.  
 "You villain! Are you Hare?"  
 "Yes, I am Hare."  
 "I happened to catch a serious disease.  
 A renowned doctor told me your liver is an efficacious medicine.  
 I sent a virtuous subject to the land and had him bring you here.  
 You are just a subject in a green forest

짐은 수부<sup>1385</sup>) 용왕이라,  
 너의 간을 써 왕명을 보존함이 어떠하뇨?<sup>1386</sup>  
 네가 죽더라도 신체는 비단으로 감장<sup>1387</sup>)하여 칠곽<sup>1388</sup>)에 정히<sup>1389</sup>)  
 담아,  
 장풍<sup>1390</sup>) 향양<sup>1391</sup>) 명당<sup>1392</sup>)을 가려 깊이깊이 안장<sup>1393</sup>)하고,  
 정조<sup>1394</sup>) 한식<sup>1395</sup>) 단오<sup>1396</sup>) 추석 연년이<sup>1397</sup>) 오는 명절 제사라도  
 착실히 분별할 것이니,  
 너 죽는다 한을 마라.  
 토끼 배 가르고 간 내오너라.  
 식기 전에 먹어보자.”  
 토끼 듣고 어안이 병병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우자천려에 필유일득<sup>1398</sup>)이라.  
 한 피를 نن죽<sup>1399</sup>) 생각하여,  
 흠어진 정신을 가다듬어  
 조금도 안색<sup>1400</sup>)을 변치 않고 천연히<sup>1401</sup>) 여짜오되,  
**[중모레]** “소퇴 한 말씀 아뢰리다.  
 회음<sup>1402</sup>)땅 한신이<sup>1403</sup>) 소하<sup>1404</sup>) 따라 파촉<sup>1405</sup>) 가기는 한왕<sup>1406</sup>) 섬  
 길 마음이요,  
 궁팔십<sup>1407</sup>) 강태공<sup>1408</sup>)이 주나라 가옉기는 문왕<sup>1409</sup>) 섬길 마음이요,  
 남양<sup>1410</sup>) 땅 제갈량<sup>1411</sup>)이 한나라 가옉기는 현덕<sup>1412</sup>) 섬길 마음이요,  
 소퇴도 별주부 따라 수궁에 들어오기는 대왕 섬길 마음이라,  
 분골쇄신하올진대<sup>1413</sup>) 추호<sup>1414</sup>) 기망<sup>1415</sup>)허오리까?  
 시일갈상<sup>1416</sup>) 노래 소리 역조창생<sup>1417</sup>) 원망 중에,  
 탐학한<sup>1418</sup>) 상주임금<sup>1419</sup>)이 성현<sup>1420</sup>)의 뱃속에 칠궁기<sup>1421</sup>)가 있다  
 하여  
 비간<sup>1422</sup>)의 배 가르니, 일곱 궁기 없었으니,



I am a dragon king of this sea palace.  
 What do you say about using your liver to save a king?  
 After you die, your body will be wrapped up with silk and  
 placed on a lacquered coffin with respect.  
 You will be buried in a carefully chosen propitious site.  
 A ritual will be performed for you on every big holiday every  
 year without fail.  
 Don't resent your death.  
 Guards, open Hare's belly and bring his liver here.  
 Let me eat it while it is warm."  
 After hearing the dragon king, Hare is speechless.  
 Even a fool can think up a good idea if he thinks hard for a  
 long time.  
 A trick occurs in Hare's mind.  
 He collects himself.  
 He speaks naturally without changing his facial expression.  
**[Jungmori]** "Let me speak, Your Majesty.  
 An ancient general followed a high official to a certain place  
 to serve his king.  
 An ancient politician who lived a poor life for eighty years went  
 to a foreign country to serve his king.  
 An ancient military strategist followed his king to serve him.  
 Similarly, I followed Terrapin to the sea palace to serve Your  
 Majesty.  
 Even if my bones become powder, I won't tell a lie to you at  
 all.  
 The people sang a song, wishing for the death of their king.  
 An atrocious king believed there were seven holes in a wise  
 man's belly.  
 He opened his good official's belly only to learn there were not  
 seven holes.

소퇴도 배를 갈라보아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대왕병도 못 나수고<sup>1423)</sup> 소퇴만 죽사오면  
 그 아니 원통허오?  
 복원<sup>1424)</sup> 대왕은 상찰하속<sup>1425)</sup>허옵소서.”  
 용왕이 들으시고,  
 “네 말이 간교<sup>1426)</sup>허다.  
 의서<sup>1427)</sup>에 일렀으되, 비수병즉구불능식<sup>1428)</sup>허고,  
 담수병즉설불능언<sup>1429)</sup>허고,  
 신수병즉이불능청<sup>1430)</sup>허고,  
 간수병즉목불능시<sup>1431)</sup>라.  
 간이 없고야 눈으로 어찌 만물을 보느냐?”  
 “예, 그 말 대답허오리다.  
 대왕은 단지기일이요 미지기이로소이다.<sup>1432)</sup>  
 복희씨<sup>1433)</sup>는 어찌하여 사신인수<sup>1434)</sup>가 되었으며,  
 신농씨<sup>1435)</sup> 어찌하여 인신우수<sup>1436)</sup>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기드란허옵고,<sup>1437)</sup>  
 소토는 무슨 일로 꼬리가 이리 묘뚝<sup>1438)</sup>하오며,  
 대왕의 옥체<sup>1439)</sup>에는 비늘이 번쩍번쩍,  
 소토의 몸에는 털이 요리 송살송살,<sup>1440)</sup>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개 있고, 오후 까마귀 쓸개 없사오니,  
 인생 만물 비금주수<sup>1441)</sup>가 한가지라 뻥뻥 우기니 답답치 아니 하오리까?  
 소퇴의 간인즉은<sup>1442)</sup> 월륜정기<sup>1443)</sup>로 생겼삽기로<sup>1444)</sup>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믐이면 간을 들입니다.<sup>1445)</sup>  
 세상의 병객<sup>1446)</sup>들이 소퇴 곧 얼른허면은<sup>1447)</sup> 간 달라고 보채기로,

It would be nice if you opened my belly and found a liver.  
 If there is not a liver, you will not be cured and I will die.  
 Isn't that regrettable?  
 I wish you listen to my humble words."  
 The dragon king responds,  
 "Your words are wicked.  
 A medical book says if your spleen is ill, you can't eat.  
 If your gall bladder is ill, you can't speak.  
 If your kidneys are ill, you can't hear.  
 If your liver is ill, you can't see.  
 If you don't have a liver, how can you see things?"  
 "Let me answer your question, Your Majesty.  
 Your knowledge is incomplete.  
 Why did a legendary king have a snake's body and a man's  
 head?  
 Why did another legendary king have a man's body and a cow's  
 head?  
 Why does Your Majesty have a long tail?  
 What made my tail this short?  
 Why does Your Majesty have shiny scales?  
 Why is my body covered with soft hair?  
 Let's talk about a crow.  
 It has a gall bladder before noon, and not after noon.  
 Isn't it frustrating you insist flying and walking animals are of  
 the same kind?  
 My liver was created by the energy from the moon.  
 On the full moon, I take it out.  
 On the end of the month, I put it back in.  
 Sick people of the world pester me for my liver if I don't take  
 great care.

간을 내어서 파초 앞에다 꼭꼭 싸서,  
 취노<sup>1448</sup>)로 칭칭 동여,<sup>1449)</sup>  
 영주<sup>1450</sup>) 석상<sup>1451</sup>) 계수나무 늘어진 가지 끝끝터리에다<sup>1452</sup>) 달아 매  
 놓고,  
 도화유수<sup>1453</sup>) 옥계변<sup>1454</sup>)에 탁족하러<sup>1455</sup>)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서,  
 수궁 흥미가 좋다기로  
 완경차<sup>1456</sup>)로 왔나니다.”<sup>1457)</sup>  
 용왕이 반이나 옴이<sup>1458</sup>) 듣고,  
 “그러면 간 출입허는<sup>1459</sup>) 표<sup>1460</sup>)가 있느냐?”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한<sup>1461</sup>) 궁기<sup>1462</sup>)가 서이<sup>1463</sup>) 늘어 있거늘,  
 “저 궁기가 모두 다 어쩐 내력<sup>1464</sup>)인고?”  
 “예, 내력을 아뢰리다.  
 한 궁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 궁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궁기로는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로<sup>1465</sup>) 출입허나니다.”  
 “그러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궁기<sup>1466</sup>)로 내옴기에  
 만물시생<sup>1467</sup>)에  
 동방삼팔목,<sup>1468</sup>  
 남방이칠화,<sup>1469</sup>  
 서방사구금,<sup>1470</sup>  
 북방일육수,<sup>1471</sup>  
 중앙오십토,<sup>1472</sup>

I wrap my liver in a plantain leaf,  
 I tie it tightly with a vine.  
 I hang it at the end of the top branch of a cinnamon tree in  
 a divine rocky mountain.  
 I came down to wash my feet in a clear stream carrying peach  
 blossoms.  
 I met Terrapin by chance.  
 I heard there is a lot of fun in the sea palace.  
 I came here for sightseeing.”  
 The dragon king is convinced to some degree.  
 “If so, do you have a hole for taking your liver in and out?”  
 “Yes, I have.”  
 “Let me take a look.”  
 “Here you are.”  
 There are three red holes in a row.  
 “What do you have the three holes for?”  
 “Let me tell you in detail.  
 I used one to take a shit and another to take a pee.  
 I take my liver in and out at my will through my last hole.”  
 “Which holes do you use to take your liver in and out?”  
 “I swallow my liver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When things were first created,  
 Wood was in the east,  
 Fire was in the south,  
 Gold was in the west,  
 Water was in the north,  
 and Earth was in the middle.

천지음양,<sup>1473</sup>) 사시정기,<sup>1474</sup>) 아침 안개 저녁 이슬, 오색광채<sup>1475</sup>)를  
응하야<sup>1476</sup>)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내놓기,<sup>1477</sup>)

만병회춘<sup>1478</sup>)의 명약<sup>1479</sup>)이라,

으뜸 약이 되나니다.

미련허더라, 저 주부야.

네 콧궁기<sup>1480</sup>)가 그렇게 작으니 어찌 아니 미련하랴?

세상에서 날보고<sup>1481</sup>) 이런 이약을<sup>1482</sup>) 허였으면,

네 간 말고라도 우리 사돈네 간이 일만팔천여 보<sup>1483</sup>)가 계수나무에  
걸렸거늘,

간을 보째<sup>1484</sup>) 가지고 들어와

대왕 병도 즉차<sup>1485</sup>)허여,

저도 충성이 나타나 양주<sup>1486</sup>) 양합<sup>1487</sup>)에 좋을 텐디,

미련허드라, 저 주부야.

만시지탄<sup>1488</sup>)이 쓸 데 없네.”

**[아니레]** “그러면 세상에서 네 간을 먹고 즉효한 사람이 있느냐?”

**[중중모레]** “소퇴의 한애비<sup>1489</sup>) 풍경을 좋아허여 유산유수<sup>1490</sup>) 노  
닐 제,

목욕차로<sup>1491</sup>) 내려오다 실족<sup>1492</sup>)허여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  
을 제,

한 무제<sup>1493</sup>) 신<sup>1494</sup>)들이 유산<sup>1495</sup>)하러 나왔다 건져 주어 살았기로,  
그 은혜 난망<sup>1496</sup>)허여 간 조금 주었더니

동방삭<sup>1497</sup>)이 투식<sup>1498</sup>)허고 삼천갑자<sup>1499</sup>) 살아 있고,

위수<sup>1500</sup>)로 돌아가다 간 내어 씻쳤더니,<sup>1501</sup>)

I harmonized with the ground, the sky, negative energy, positive energy, the energy generating the four seasons, the morning fog, the evening dew, and the five brilliant colors.

I put my liver in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last hole.

My liver is a panacea.

It is the best medicine.

How stupid Terrapin is!

You are stupid because your nostrils are small.

You should have told me the truth while we were on the land. Eighteen thousand livers of my relatives by marriage are on cinnamon trees in addition to mine.

I would have brought a liver in its entirety.

The dragon king would be cured right away.

Terrapin would become a loyal subject and we would be good friends.

How stupid Terrapin is.

It is of no use to regret.”

**[Aniri]** “If so, is there anybody who was cured immediately after eating your liver?”

**[Jungjungmori]** “My grandfather loved beautiful landscapes, so he visited mountains and rivers.

He came down to a river, took a false step, and was almost drowned.

A subject to an ancient king visited a mountain for sightseeing and saved my grandfather from the river.

To return the favor, my grandfather gave a little piece of his liver to the subject.

He lived for eighteen hundred thousand years, stealing food and money from the government.

I washed my liver in a river.

궁팔십<sup>1502</sup> 여상<sup>1503</sup>이도 낚기질<sup>1504</sup> 나왔다가  
 기갈<sup>1505</sup>이 자심<sup>1506</sup>허여 그 물 조금 떠 마시고 달팔십<sup>1507</sup> 더 살  
 았고,  
 안기생<sup>1508</sup> 적송자<sup>1509</sup>도 우리 간 얻어먹고 장생불로<sup>1510</sup> 허였으니,  
 원컨대 대왕도 소퇴 간을 자시면<sup>1511</sup> 만만세<sup>1512</sup>를 사오리다.”

## 27. (수궁 풍류)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고, 큰 잔치를 베풀 어 즐기도록 한다.

[아니래] 용왕이 토끼에게 아주 둘리어,<sup>1513</sup>  
 “토선생 해박<sup>1514</sup>하라.”  
 토끼 해박하여 전상<sup>1515</sup>에 앉히고 인사하시되,  
 “퇴공은 거양계<sup>1516</sup>허고 과인은 처수부<sup>1517</sup>하야 불상통섭<sup>1518</sup>이러니,  
 오늘 피차<sup>1519</sup> 만나기는 천만몽외로시.<sup>1520</sup>  
 토선생에게 술을 올려라.”  
 수궁 미색<sup>1521</sup> 전어<sup>1522</sup> 단정히 궤좌<sup>1523</sup>허고  
 동정춘주<sup>1524</sup> 가득 부어 토끼에게 올리니,  
 토끼 황궁대왕,<sup>1525</sup>  
 “대왕이 이다지 관대하시니 뼈를 갈아 드린들 무슨 한이 있사리까?  
 소퇴는 과맥전대취<sup>1526</sup>로소이다.”  
 “퇴공이 과인<sup>1527</sup>을 위하여 원해만리<sup>1528</sup>를 수고로이 들어왔다.  
 내 정히<sup>1529</sup> 섭섭하니  
 한 잔만 받게.”  
 토끼 사양타가,  
 “이렇게 권하시니 사차불피<sup>1530</sup>로소이다.”  
 일상<sup>1531</sup> 산골물만 먹든 놈이



An ancient politician who lived a hard life for eighty years was fishing in the river.

Thirsty, he drank a little water from the river and lived another eighty years happily.

Two ancient men became immortal after eating a hare's liver. Your Majesty, if you eat my liver, you will live forever too."

## **27. (Having Fun in the Sea Palace) Fooled by Hare, the dragon king throws a big party for him.**

[Aniri] The dragon king is completely fooled by Hare.

"Set Mr. Hare free."

The dragon king sets Hare free, asks him to sit on a high place, and says,

"You live in the land. I live in the sea. So we don't know each other.

I didn't expect I would see you today.

Offer wine to Mr. Hare."

A shad, a beautiful girl, kneels down politely.

She pours wine in a glass full to the brim and offers it to Hare. Hare speaks in awe,

"Your Majesty, you are so generous that I can even sacrifice my life for you.

But I don't drink wine."

"Mr. Hare, you took a long journey on the sea for the sake of me.

If you decline, I will be disappointed.

Drink a glass of wine."

Hare declined but now he says,

"Because you insist, I can't but drink it."

Hare drank only the water of brooks of mountains in the past.

동정춘주를 알 수 있나?

한 잔을 맛 보더니,

“참 술맛 좋소. 한 잔만 더 주시오.”

맛에 취해 이삼배<sup>1532</sup> 먹어노니

취흥이 도도하여,

수궁 물을 발목물<sup>1533</sup>로 알고 마음이 황홀해지겠다.

뜻밖에 토공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궁 풍류<sup>1534</sup>가 낭자<sup>1535</sup>허는데,

[옛모레 왕자 진<sup>1536</sup>의 봉피리<sup>1537</sup> 나나노 나노 나나노 나노,

곽처사<sup>1538</sup> 질장구<sup>1539</sup> 찌지렁 꿈 짝 꿈, 성련자<sup>1540</sup> 거문고 등덩지

등덩,

장량<sup>1541</sup>의 옥통소, 혜강<sup>1542</sup>의 해금<sup>1543</sup>이며,

완적<sup>1544</sup>의 휘파람, 격타고 취용적,<sup>1545</sup>

능파사,<sup>1546</sup> 보허사,<sup>1547</sup> 우의곡,<sup>1548</sup> 채련곡<sup>1549</sup>을 곁들여서 노래할 제,

낭자한 풍악<sup>1550</sup> 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토끼놈 좋이라고 앞발을 어긋 딛고<sup>1551</sup> 춤을 추며 노닌다.

“얼씨구 절씨구 자화자자 줄씨구.

약일레라.<sup>1552</sup> 약이여.

내 간이 약이여.

위수변<sup>1553</sup> 강태공도 날 만나 간 좀 먹고 궁팔십 달팔십<sup>1554</sup> 일백육

십을 살았고,

동방삭<sup>1555</sup>이 날 만나 간 좀 달라기에 팔난만큼<sup>1556</sup> 주었더니 삼천갑

자<sup>1557</sup> 십팔만 장생불로<sup>1558</sup>하였네.

대왕의 환후<sup>1559</sup>도 내의 간을 가지면 천천만만세<sup>1560</sup>를 태평으로 누

릴 테니,

어찌 안 좋을씨고?

얼씨구나 좋네.”

He didn't drink the wine of the sea palace before.  
 He drinks a glass of the wine.  
 "It tastes good. Give me one more glass of the wine."  
 He likes the taste, so he drinks a few glasses.  
 He becomes drunk.  
 Hare is in rapture, thinking that the water of the sea palace is low.  
 Suddenly, the music shakes the sea palace to entertain Hare.  
**[Eonmori]** They play a phoenix-shaped pipe,  
 a bowl-shaped drum, a six-stringed zither,  
 a jade flute, a Korean fiddle,  
 a whistle, a drum made of alligator skin, and a dragon pipe.  
 They sing a divine pond song and a divine song along with two ancient songs.  
 The music spreads and shakes the sea palace.  
 Exuberant, Hare sings and dances with his fore legs crossed.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Medicine, medicine!  
 My liver is a medicine.  
 An ancient fisherman of a river met me, ate a little bit of my liver, and lived for 160 years.  
 An ancient official met me, ate a little bit of my liver, lived for 180,000 years without growing old.  
 Your Majesty, if you eat my liver, you will live happily forever too.  
 Isn't this great?  
 Yippee! Hurrah."

28. (토끼 방정) 토끼가 출랑거리며 춤을 추고 놀다가 간이  
들었다고 의심받자, 급히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한다.

[중중모리] 앞내 버들은 청포장<sup>1561</sup>) 두르고,  
뒷내 버들은 유록장<sup>1562</sup>) 둘러,  
한 가지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평퍼져,<sup>1563</sup>  
바람 부는 대로 흔들흔들, 우줄우줄<sup>1564</sup>) 춤을 출 제,  
아버지는 노구<sup>1565</sup>)를 지고,  
어머니는 동이<sup>1566</sup>)를 이고,  
노고지리<sup>1567</sup>) 지리 지리 노고지리.”  
앞발을 번쩍 추켜들더니 출랑출랑<sup>1568</sup>) 노닌다.  
[아니리] 귀 밝은 대장 범치<sup>1569</sup>)가 토끼 뒤를 따라다니다가,  
“아파, 이 자식 뱃속에 간 노는<sup>1570</sup>) 소리가 출랑출랑<sup>1571</sup>)허는구나!”  
토끼 깜짝 놀래,  
“아, 이 자식아! 여태 내가 무엇을 먹었겠나?  
빈 속에 술잔이나 먹어노니  
똥뎡이 노는 소리를 듣고,  
간이 논다 허는구나.”  
토끼 생각허되, ‘군자<sup>1572</sup>)는 가기이기방<sup>1573</sup>)이요,  
견기이작<sup>1574</sup>)이라 허였으니,  
속인 김에 아주 빼는 것이 상책<sup>1575</sup>)이라.’  
용왕전 복지주왈,<sup>1576</sup>)  
“별주부를 주옵시면 세상에 급히 나가 간보<sup>1577</sup>)를 바빠 들여오리다.”  
용왕이 좋아라고, 또다시 별주부를 정명<sup>1578</sup>)허니,

28. (Hare's Flippancy) Hare dances frivolously. Others think there must be a liver in his belly. He says he wants to go back to the land immediately.

[Jungjungmori] "Green willows are along the front stream.  
Blue willows are along the back stream.

A branch is torn off.

Another is horizontal.

The willows dance along with the wind.

My father carries an iron pot on his back.

My mother carries a water jar on her head.

A skylark sings a song."

Hare holds up his fore legs and dances flippantly.

[Aniri] A goby, a general, with sensitive ears has been following Hare.

"Gee. I hear the sounds of a liver moving to and fro in this villain belly!"

Hare is astonished.

"You bastard! What do you think I ate so far?"

My stomach was empty when I drank.

Some shit is moving back and forth.

You are taking the sounds of shit moving as those of a liver."

Hare thinks that a wise man can deceive others well,

that he should go far away, once he learned about a foreign land,

and that he should flee while the king is fooled.

He kneels down in front of the king and speaks to him.

"If you tell Terrapin to assist me, I will go out to the land and bring a liver here quickly."

Delighted, the dragon king gives an order to Terrapin.

## 29. (별주부 애원) 별주부가 토끼의 배를 가르자고 용왕에게 애원하니, 토끼가 배를 가르라고 큰소리친다.

[진양조] 별주부 황궁대왕,<sup>1579)</sup>

“신의 충성 다 베풀어 원해삼만리<sup>1580)</sup>에 겨우 잡아들인 토끼,  
뱃속에 달린 간을 아니 내고 보낼진대, 세상 웃음이 될 것이요,  
맹획<sup>1581)</sup>을 칠종칠금<sup>1582)</sup>하던 공명<sup>1583)</sup>의 지모<sup>1584)</sup> 아니어든  
뉘라서 잡으리까?

배만 갈라 보옵소서.”

[중중모리] 토끼 앉았다가 일어서며 화를 내어 허는 말이,

“네 이놈아, 말 들어라!

왕명이 지증커늘<sup>1585)</sup>

내 어이 기만<sup>1586)</sup>허리?

옛말을 못 들었나?

상주<sup>1587)</sup>의 몫쓸 마음 비간<sup>1588)</sup>의 배 가르니 칠구<sup>1589)</sup>도 못 보았고,  
미구에<sup>1590)</sup> 망국<sup>1591)</sup>된 줄 내가 어이 모르느냐?

너도 내 배를 갈라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내의 혼백 수로만리<sup>1592)</sup> 갈 수 없고,

너의 수궁 원귀<sup>1593)</sup> 되어 염병,<sup>1594)</sup> 시병<sup>1595)</sup> 퍼질진대,<sup>1596)</sup>

너의 용왕 십년 살 데<sup>1597)</sup> 하루도 못 살 터이요,

느그<sup>1598)</sup> 수궁 만조백관<sup>1599)</sup> 한 날, 한 시 모두 다 멸살<sup>1600)</sup>시키리라.

아나,<sup>1601)</sup> 배 갈라라.

아나, 였다,<sup>1602)</sup>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29. (Terrapin's Entreaty) Terrapin entreats the dragon king to open Hare's belly. Hare boldly tells them to open his belly.**

**[Jinyangjo]** Terrapin speaks in awe.

"Being loyal to you, I managed to catch Hare from the land far from here.

The world will laugh at us if we send Hare back alive without taking a liver out of him.

I am not the military strategist Zhu Ge Kong Ming(諸葛孔明) who captured and released his enemy king seven times.

How can I catch him again?

Please open Hare's belly."

**[Jungjungmori]** Infuriated, Hare stands up and speaks,

"You bastard. Listen to me!

The king's order is stern.

How can I fool him?

Don't you know the old story?

Don't you know that an atrocious ancient king opened his loyal subject's belly, he couldn't find seven holes, and his country collapsed before long?

It would be nice if you opened my belly and found a liver in it. If there is no liver, my poor soul can't leave the vast sea.

I will become an evil spirit and spread contagious diseases to the sea palace.

Your dragon king will die in a day, instead of living for 100 years.

I will massacre all the officials in the sea palace at once.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Only shit is in my belly.

내 배를 갈라 네 보아라.”

[아니리] 용왕이 토끼 거동<sup>1603</sup>을 보고,  
요망한<sup>1604</sup> 짐승이 사귀<sup>1605</sup> 되어 그럴 듯도 허거늘,  
“다시 일구이언<sup>1606</sup>허는 지는 어망살<sup>1607</sup>로 정배출송<sup>1608</sup>하리라.”  
이렇듯 하령<sup>1609</sup>허니, 별주부 하릴없어<sup>1610</sup> 토끼를 업고 세상으로 나  
오겠다.

### 30. (토끼 생환) 토끼가 별주부 등에 업혀 세상을 나가면서 사면 경치를 구경한다.

[진양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sup>1611</sup>를 바빠 건너 백로주<sup>1612</sup>를 어서 가자.

삼산<sup>1613</sup>을 바라보니 청천외에<sup>1614</sup> 멀어 있고,

일락장사추색원한데

부지하처조상군고?”<sup>1615</sup>

한 곳을 당도하니 한 사람이 나오는데,

푸른 옷에 검은 관을 쓰고,

거수<sup>1616</sup>에 읍<sup>1617</sup>을 하며,

“토공은 수로 왕래 상거천리<sup>1618</sup>에 하이지차오?”<sup>1619</sup>

토끼가 대왈,<sup>1620</sup>

“회족청산하니

관불과제관이요,

탁족무임하니

태불과봉황이라.

소무지식하여

유매평생이라.<sup>1621</sup>

포문강상지흥미하고 오안풍경지도차로다.”<sup>1622</sup>



Open my belly and check for yourself.”

[Aniri] The dragon king watches Hare.

It sounds plausible to him that a wicked animal can become an evil spirit.

“If anybody defies my order, I will banish him to a fish weir.”

At the king’s order, Terrapin cannot but return to the land with Hare on his back.

### **30. (Hare Returns Alive) Hare watches the scenic view, as he comes back to the land on Terrapin’s back.**

[Jinyangjo] “Let’s go. Hurry up.

Let’s hurry up to the sandy island in a river.

A divine mountain is below the blue sky far from here.

The sun sets on the long sandy field, and a mountain with the autumn color is far from here.

It is clear where tribute should be paid to the ancient queens.”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place where a person comes out.

He wears blue clothing and a black hat.

He holds up his hands and shows respect to Hare.

“Mr. Hare, why are you taking such a long journey on the sea?”

Hare responds,

“I came back to the green mountains.

I can’t just pass by them because I missed them so much.

They were not trodden upon by dirty feet.

It is so peaceful that even a phoenix will not just go by them.

I was not knowledgeable.

I almost became a wandering ghost.

I heard about the beautiful landscape of the sea palace, saw it first-hand, and am coming back.”

기인<sup>1623</sup>)이 듣고 체읍장탄왈,<sup>1624</sup>  
 “군불견 삼려대부 어복지장혼인가?<sup>1625</sup>  
 내 일찍 세상에서 이충사군<sup>1626</sup>)하옵다가,  
 시운<sup>1627</sup>)이 불행하여  
 이 물에 몸이 잠겨  
 영불출세<sup>1628</sup>) 설운<sup>1629</sup>) 뜻과,  
 나의 글 외웠다가  
 상천일월<sup>1630</sup>) 밝은 세상의 음풍명월<sup>1631</sup>) 문장재사<sup>1632</sup>)들께 천고지  
 원<sup>1633</sup>) 전해주소.”  
 그 글에 하였으되,  
 “제고양지묘예혜여  
 짐황고왈백용이라.<sup>1634</sup>  
 유초목지영락혜여  
 공미인지지모로다.<sup>1635</sup>  
 거세개탁이어든 아독청하고,  
 중인이 개취어든 아독성이라.”<sup>1636</sup>  
 창연히<sup>1637</sup>) 생각하니, 이는 만고충신<sup>1638</sup>) 굴원<sup>1639</sup>)이로다.  
**[중중모리]** 백로주<sup>1640</sup>) 바빠 지나 적벽강<sup>1641</sup>)을 당도허니,  
 소자침<sup>1642</sup>) 범주유,<sup>1643</sup>  
 동산상<sup>1644</sup>) 달 떠나  
 두우간<sup>1645</sup>) 배회<sup>1646</sup>)하여,  
 백로횡강<sup>1647</sup>) 바빠 가.  
 소지노화월일선<sup>1648</sup>) 추강<sup>1649</sup>) 어부가 빈 배.  
 기경선자<sup>1650</sup>) 간 연후 공명월지단단.<sup>1651</sup>  
 자래 등 저 달 실어  
 우리 고향을 어서 가.

The man sheds tears, sighs, and speaks.  
 “Didn’t you hear an ancient politician drowned?  
 I earlier served my king with all my heart.  
 I was unlucky back then.  
 I drowned here.  
 Sadly, I can’t ever go back to the land.  
 Memorize my poem.  
 If you go out to the bright land, convey my resentment to the  
 poets who enjoy nature.”  
 His poem says,  
 I am a descendent of the king, Gao Yang(高陽).  
 My father was Bo Yong(伯庸).  
 Grasses and trees wither.  
 I feel sad that my king grows old.  
 The world is dirty except for me.  
 Everyone is drunk except me.”  
 Sadly, he is an eternal loyal subject, Qu Yuan(屈原).  
**[Jungjungmori]** Hare and Terrapin hurriedly pass by a sandy  
 island and get to a river.  
 An ancient poet amused himself on a boat in the river.  
 The moon rises over a mountain in the east.  
 The moon moves between Ursa Major and the Herdsman.  
 A white heron hurriedly crosses a river.  
 With a smile, the heron points to a boat loaded with white reed  
 flowers and moonlight.  
 After a god flew up on a whale, there is nothing but the full  
 moon in the sky.  
 Put that half moon on Terrapin’s back.  
 Let’s hurry to my hometown.

환산농명월<sup>1652</sup>)

원해근산<sup>1653</sup>) 좋을시고.

위수<sup>1654</sup>)로 돌아드니

어조하던<sup>1655</sup>) 강태공<sup>1656</sup>)은 기주<sup>1657</sup>)로 돌아가고,

은린옥척<sup>1658</sup>)뿐이라.

벽해수변<sup>1659</sup>)을 당도하여

깡깡 뛰어내려서 모르는 체로<sup>1660</sup>) 가는구나.

### 31. (토끼 별주부 조롱)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별주부를 올 가미에 걸어 조롱한 뒤, 욕을 하며 산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리] 대해를 다 지내고 벽계변<sup>1661</sup>) 다다를 제,

“이놈, 토끼야!

내가 수궁서는 대왕이 계시기에 임의로<sup>1662</sup>) 못허였지마는,

여기서야 내 마음대로 못 할쏘냐?

네 뱃속에 잔뜩 든 것이 간이 아니고 무엇이냐?

잔말<sup>1663</sup>) 말고 간만 내어다오.”

토끼 생각허니 다 살아와서 또 중병이 나는구나.

마침 건넌산 바라보니 까막까치<sup>1664</sup>) 날짐승이 녹림간<sup>1665</sup>)에 지저귀니,

토끼 겁낸 체하고,

“이애, 별주부야!

내 간보<sup>1666</sup>)를 저 건넌 절벽상에<sup>1667</sup>) 두고 왔더니,

오작<sup>1668</sup>)이 날아든다.

자칫하면 오작에게 간 보차<sup>1669</sup>) 잃겠다.

어서 바빠 내려다오.”

Let's enjoy watching the bright moon in mountains.  
It is good that mountains are close and the sea is far.  
Hare and Terrapin reach a river.  
An ancient politician fished in a tributary of this river.  
There are large shiny fishes.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blue beach.  
Hare jumps down and goes off without saying anything.

**31. (Hare Derides Terrapin.) After arriving on the land, Hare derides Terrapin, hanging him in a snare. He speaks curse words at Terrapin and goes to a mountain.**

[Aniri] Hare and Terrapin pass the vast sea and arrive in a blue stream.

“Hare, you villain!

In the sea palace, I couldn't act as I wanted to because of the dragon king.

Here, I can act in any way I want to.

What is it that fills up your belly, if not a liver?

Give me your liver. Don't argue with me.”

Hare thinks he came back alive, but he got into trouble again.

Just then, crows and magpies call in the forest of a mountain.

Hare pretends he is startled.

“Hey Terrapin!

I left my liver on the cliff over there.

Crows and magpies fly around it.

I might lose my whole liver to them.

Let's hurry to the land.”

자래 그 말에 돌리어<sup>1670</sup>) 어쩔 줄 모르고 언덕에다 등을 대놓으니,  
토끼 팔짝 뛰어내려 절벽 가로 깡충깡충 뛰어올라가 내려보며,  
“별주부, 어서 올라오시오.

간 줄게, 어서 올라오시오.”

별주부 어이없어,

“아이고, 고석산<sup>1671</sup>)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겠소?”

“그러면 좋은 수<sup>1672</sup>)가 있소.

내가 칩넌출<sup>1673</sup>)로 흘룽이<sup>1674</sup>)를 만들어 줄 터이니,

목을 길면 당겨줄 것이니 잡고 올라오시오.”

자래 의심허여,

“네가 나를 해코자<sup>1675</sup>) 하는 놈이 아니냐?”

“그럴 리가 있겠는가?

충신부터는 하늘이 아시는 법이라.”

자래 또 돌리어 목을 길게 늘어 흘룽이에 걸고, ‘잡아다녀라.’<sup>1676</sup>) 하  
여놓으니,

**[중모래]** 토끼놈 거동 보아라.

흘룽이를 추켜들고<sup>1677</sup>) 화해<sup>1678</sup>) 돌려 짓쳐노니,<sup>1679</sup>)

나무쟁반 떠나가듯 공중에 높이 떠서 둥둥 떠나가다

낙낙장송<sup>1680</sup>)에 걸려노니 하릴없이 죽었구나.

토끼놈 나무 밑에서 조롱을 허는디,

“여보아라, 별가놈<sup>1681</sup>)아!

네가 나를 살살 꼬여 너의 수궁 들어가,

내 배를 갈라 간을 내어 너의 용왕 준다허였더냐?

동풍<sup>1682</sup>)에 음건<sup>1683</sup>)되어 뻗뻗 말라 돼지거라.<sup>1684</sup>)

왕배탕<sup>1685</sup>)이 좋을시고.

들랑날랑허는 목을 늘여서 죽이리라.”

칩 끈을 낭기<sup>1686</sup>)에 매고 산천으로 올라간다.

Fooled by Hare, Terrapin hurriedly climbs up on a hill.  
 Hare jumps off, scampers up the cliff, and turns around.  
 "Terrapin, come up here quickly.  
 I'll give you my liver. Come up here quickly."  
 Terrapin is stunned.  
 "Gosh! How can I climb up a rugged cliff?"  
 "Right. I've got an idea.  
 I will make a snare with a vine and drop it to you.  
 If you put your neck in, I'll pull the vine up and you'll come  
 up here."  
 Terrapin is suspicious of Hare.  
 "Aren't you trying to hurt me? You rat!"  
 "Why would I hurt you?  
 Heaven can recognize a loyal subject."  
 Fooled again, Terrapin pulls out his long neck, puts it in the  
 snare, and says, "Pull it up."  
**[Jungmori]** Behold Hare.  
 He yanks on the noose strongly, winds it, and pulls it up.  
 Terrapin spins around like a wood tray in the air as he goes  
 up.  
 Hanging on a drooping pine tree, Terrapin cannot but die.  
 Hare derides Terrapin under the tree.  
 "Hello, Terrapin!  
 You enticed me into the sea palace.  
 Did you intend to open my belly and give my liver to your king?  
 You should dry to death by the east wind.  
 Everybody likes terrapin soup.  
 I will kill you by pulling out your neck that you can take in  
 and out of your body."  
 Hare ties the vine on the tree and goes off to a mountain.

[아니리] 그때에 별주부 목이 졸리어 말도 못하게 되니 울음인들 울 수 있으리오마는,

속으로 우는 말이 소리를 허자니 듣게 되었던 것이었다.

[진양조] 별주부 기가 막혀 통곡으로 우는 말이,

“비나니다.<sup>1687)</sup> 비나니다. 하느님전 비나니다.

내의 충성 부족하여 이 죽음을 당하오나,

영덕전 병든 용왕 어찌 잊고 죽단 말이오?

명천<sup>1688)</sup>이 감동하여 우리 용왕을 살려주오.”

[아니리] 한참 이리 탄식을 하니,

하느님이 감동을 허셨든지,

산신님이 돌보았는지

홀룡이가 벗겨져 뽕뽕 돌아 내리치니,

내민 돌에 부딪쳐 등짝이 난리가 났구나.

이랬으면 그대로 돌아가면 좋으련마는,

원체 충성이 지극한 별주부라 토끼를 불러 또 허는 말이,

“퇴선생, 너무 심한 장난 말고,

일구이언<sup>1689)</sup> 할 수 있소?

그 간 쪼끔만 떼어주고 가시오.”

토끼 대답하되, “간을 주면 나는 죽으라고?”

별주부한테 욕을 퍼붓는다,

[중모리] “제기를 붙고 발기를 갈 녀석.<sup>1690)</sup>

뱃 속에 달린 간을 어찌 들고 내드란 말이냐?

미련허드라. 미련허드라. 느그<sup>1691)</sup> 용왕이 미련허드라.

느그 용왕 실겁기<sup>1692)</sup> 날갈고<sup>1693)</sup> 나 미련키 느그 용왕 같거드면 하릴없이<sup>1694)</sup> 죽을 것을.

내 밀궁기<sup>1695)</sup> 서이<sup>1696)</sup> 아니어든,<sup>1697)</sup> 내 목숨이 어이 살았겠나?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가노라. 백운청산<sup>1698)</sup>으로 내 돌아간다.”



[Aniri] Terrapin is strangled with the vine, so he can neither speak nor cry.

He weeps in his mind which can be sung as follows.

[Jinyangjo] Struck dumb, Terrapin bewails.

"I pray to you, God. I pray to you, God.

I am facing this death because my loyalty was insufficient.

How can I die when my sick dragon king in the sea palace?

Please be moved and help my dragon king."

[Aniri] Terrapin wails as said above.

God must have been moved.

A mountain god must be helping Terrapin too.

He slips the snare and swirls down.

His back is hit by a protruding stone.

It would be good if Terrapin leaves for the sea palace.

He is so loyal to his king that he calls Hare and says,

"Mr. Hare, don't play with me.

How can you contradict yourself?

Please give me a little bit of your liver."

Hare replies, "If I give you my liver, I'll die."

He throws curse words at Terrapin.

[Jungmori] "You are a scoundrel to be drawn and quartered.

How can I take my liver in and out of my belly?

How stupid! How foolish! How stupid your dragon king was!

I would surely be dead now if your dragon king were as smart as I, or if I were as foolish as your dragon king.

How would I come back alive but for the three holes in my body?

I am going back to the green mountain covered with snow."

32. (토끼 그물에 걸림) 별주부에게 엉터리 약 처방을 일러  
주고 방정을 떨다가 그물에 걸려 죽게 된 토끼가 쉬파  
리들에게 쉬를 슬어주면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말하자,  
쉬파리가 사람의 손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래] “네 이놈, 별주부야.

네 소행을 생각하면 단박<sup>1699</sup>) 돌로 깨서 죽일 일로되,

네가 원해만리를 내 업고 온 은혜로 살려주니

고맙게 알아라.

네가 충성이 지극헌 고로 화제<sup>1700</sup>) 하나 해줄 터이니

그대로 약 써 보아라.

거, 느그 수궁 들어가 보니 암자래 많더라.

하루 일천오백 마리씩 잡어 달여 먹이고,

복쟁이<sup>1701</sup>) 가루를 천 석을 만들어

오자대<sup>1702</sup>) 환<sup>1703</sup>)을 지어

무시복<sup>1704</sup>)하고 퍼먹여 버려라.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끝장 보리라.

오, 그래도 안 낫거든 또 좋은 약이 있다.

화제는 가미허랑탕<sup>1705</sup>)이라.

두꺼비 쓸개 열 보,

빈대 월경수<sup>1706</sup>) 서 말,

새새끼 발톱 작말<sup>1707</sup>) 서 되,

병아리 원눈물<sup>1708</sup>) 한 말,

흰구름 단지<sup>1709</sup>)에다 은하수 물을 붓고,

번갯불에 바짝 달여

거름자<sup>1710</sup>) 수건에 아드득<sup>1711</sup>) 짜 먹여야 망정이지,

32. (Hare is Caught in a Net) Hare gives an absurd prescription to Terrapin. While acting frivolously, he is caught in a net. He tells flesh flies that he can survive if they lay eggs on his body. Flesh flies tell Hare that he can't defeat a human hand.

[Aniri] "Terrapin. You bastard.

Thinking about your behavior, I want to kill you now by breaking you into pieces with a stone.

I am setting you free because I appreciate your giving me a ride on the vast sea.

Be grateful to me.

Since you are loyal, let me give you a prescription.

Make this medicine exactly as the prescription says.

I saw a lot of female terrapins in the sea palace.

Boil 1,500 female terrapins and eat them everyday.

Get 1,000 bags of powder out of blowfish.

Make balls as large as the fruit of a paulownia tree.

Let your king eat the balls at any time.

And your king will be cured or die.

In case he is not cured, here goes another medicine.

The medicine is called Absurd Soup.

Prepare ten gall bladders of toads,

three buckets of housebug's menstrual blood,

three packs of young birds' nail powder,

a bucket of a young chicken's tears from its left eye,

Put them in a cloud urn and pour water of the Milky Way in it.

Boil it with lightning.

Squeeze it with a shadow towel and have your king drink it.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염라대왕이 지<sup>1712</sup>) 할애비라도 살기는 틀렸다,  
이 녀석아.

어서 가거라. 어서 가거라. 나는 간다.”

별주부 통곡하며 수궁으로 돌아오고,

토끼란 놈 살아왔다 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덜거리고<sup>1713</sup>) 노니다

토끼 뒷에 딱 치어노니

또 죽게 되었제.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이리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수궁에서 죽어

정조<sup>1714</sup>) 한식<sup>1715</sup>) 단오<sup>1716</sup>) 추석 제사라도 착실히 받아먹을 것인데,

이 지경이 웬일이냐?”

자탄하고 었졌을<sup>1717</sup>) 제,

마침 쉬파리<sup>1718</sup>)가 ‘왕’하고 날아드니,

“아이고, 쉬낭청<sup>1719</sup>) 사촌,

어디 갔다 인자<sup>1720</sup>) 오시오?

내 등에 쉬<sup>1721</sup>)를 좀 슬어주면<sup>1722</sup>) 살 도리가 있소.”

쉬파리 이말 듣고,

“네 아무리 피 많은들 사람의 손을 당할쏘냐?

사람 손 내력<sup>1723</sup>)을 내 이를 테니,

들어봐라.”

**[자진모리]** “사람의 손 내력 들어라. 사람의 손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엇어 놓으면 하늘이요,

뒤세노면<sup>1724</sup>) 땅인디,

요리저리 금<sup>1725</sup>)이 있기는 일월<sup>1726</sup>) 다니는 길이요,

엄지 잔가락<sup>1727</sup>)이 두 마디기는 천지인<sup>1728</sup>) 삼재<sup>1729</sup>)요,

Or your dragon king will die even if the King of Death is his grandfather.

You rascal,

Get lost. Go away. I am leaving.”

Terrapin goes back to the sea palace in tears.

Hare jumps around, thinking he came back alive.

He dances wildly and joyously.

He is caught in a net.

He is again bound to die.

He is struck dumb.

“Alas. If I had known this, I would have died in the sea palace.

Rituals would be performed for me on every big holiday every year.

I can’t believe this.”

Hare laments over his lot.

Just then, flesh flies come to Hare.

“Oh, flesh flies. My cousins.

Where have you been?

If you lay eggs on my back, I can survive.”

The flesh fly says,

“No matter how smart you are, you can’t defeat a human hand.

Let me tell you about the background of a human hand.

Listen.”

**[Jajin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the background of a human hand.

The principles of heaven can be seen on the palm.

The principles of earth can be seen on the back of the hand.

The lines of the palm are the paths of the sun and the moon.

The two knuckles in the thumb stand for heaven, earth, and humans.

집가락<sup>1730</sup>)이 장가락<sup>1731</sup>)만 못하기는 정월, 이월, 삼월,  
 장가락이 그중에 길기는 사월, 오월, 유월이요,  
 무명지<sup>1732</sup>) 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칠월, 팔월, 구월이요,  
 소지<sup>1733</sup>)가 그중에 짜름기<sup>1734</sup>)는 시월, 동지, 선달인디,  
 자오묘유<sup>1735</sup>)가 여기 있고,  
 건감간진손이곤태<sup>1736</sup>) 선천팔괘<sup>1737</sup>)가 여기 있고,  
 불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연,<sup>1738</sup>) 간상연<sup>1739</sup>) 여기 있고,  
 육도기문<sup>1740</sup>)에 대장경,<sup>1741</sup>)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라.<sup>1742</sup>)  
 네 아무리 껴 많탄들<sup>1743</sup>) 사람 손을 못 당하리라.  
 두 말 말고 너 죽어라.”

### 33. (초동목수 신세 타령) 토끼가 죽은 채하고 있을 때, 나 무하는 아이들이 신세타령을 하며 올라온다.

[아니레] “하여튼 내 수단<sup>1744</sup>)대로 할 것이니  
 쉬나 좀 슬어주고 가오.”  
 쉬파리가 제 동료<sup>1745</sup>)를 수만 마리 불러  
 빈틈없이 쉬를 슬어놓고 날아갔었다.  
 토끼란 놈 죽은 채하고 쉬 한 짐 짊어지고 었졌는디,<sup>1746</sup>)  
 그때에 초동들<sup>1747</sup>) 아침밥 일찍 먹고, 노래를 부르며 올라오는디,  
 [중모레] “어이 가리너. 어이 가리너. 어이 가리너, 너화로그나.  
 태고라 천황씨는 목덕으로 왕하였으니,<sup>1748</sup>)  
 낭기<sup>1749</sup>) 아니 중할쏘냐?

The index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signifies January, February, and March.

The middle finger is the longest because it denotes April, May, and June.

The ring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indicates July, August, and September.

The little finger is short because it means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The four directions are in the palm.

The eight direction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Buddhist principle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some Buddhist teachings about the world are in the palm.

However clever you might be, you can't beat a human hand. Shut up and accept your death."

**33.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Bewail their Lot) While Hare pretends to be dead,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approach him as they bewail their lot.**

[Aniri] "I will escape in my own way.

Please lay eggs on me."

The flesh fly calls thousands of his friends.

They lay eggs on Hare, leaving no empty space.

Hare pretends he is dead, lying face down with a lot of eggs on his back.

Just then, young woodcutters who had an early breakfast, come to Hare while singing a song.

[Jungmori]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An ancient man became a king thanks to the wood energy.

Isn't a tree valuable?

인항씨<sup>1750</sup>) 아홉 형제 분장구주<sup>1751</sup>) 마련할 제 우리 곤케<sup>1752</sup>) 허였든가?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삼태육경<sup>1753</sup>) 좋은 집에 부귀영화로 잘사는데,  
우리 팔자 어이허여 헌옷 입고 망엿이<sup>1754</sup>)만 짊어지고 심산궁곡<sup>1755</sup>)  
이 웬 일인고?

집이라고 돌아가면 술 텅빈 방안에 곱송그려<sup>1756</sup>) 새우잠 자니,  
초동 팔자 가련지고.<sup>1757</sup>)

여보소, 친구들아.

자네는 저 골로 들어가고,

나는 이 골로 들어가

떨어진 낙엽, 부러진 가지 힘대로 허여다가,

위부모보처자식<sup>1758</sup>)을 극진공대<sup>1759</sup>) 허여보세.

어이 가리너, 너화로구나.”

### 34. (토끼 살아남) 토끼가 기지로 살아나서, 잘난 체하며 좋아한다.

[아니레 토끼 덧 살펴보니 과연 토끼 하나 치였구나.<sup>1760</sup>)

여러 초동들 달려들어,

“웁다. 술안주감 생겼구나.”

끄어내려<sup>1761</sup>) 손을 대니 쉬 회를 부쳤거늘,<sup>1762</sup>)

“아차, 좋은 것을 버렸다.

그 엇그제만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나 여러 날이 되었구나.”

비추아비<sup>1763</sup>) 썩 나서며 된<sup>1764</sup>) 목청으로,

“이애들아, 요새 것은 내음<sup>1765</sup>)만 아니 나면 먹느니라.

코 두었다 어따<sup>1766</sup>) 쓸래?



Did poverty arise when an ancient legendary king and his brothers ruled nine regions of his country?

Some are born with good fates to become high officials and to become rich.

I can't believe my fate to wear old clothing, carry nets, and wander in deep valleys and mountains.

If I go back home, the iron pot is empty and my body shrinks like a shrimp while I sleep in the room.

The fate of a young woodcutter is pathetic.

Hello, my friends.

You work in that valley.

I will work in this valley.

Let's collect as many fallen leaves and broken scrub as possible.

Let's support our parents, wives, and children as best as we can.

Where should we go?"

### **34. (Hare Survives) Wits save Hare, and he dances arrogantly and joyfully.**

[Aniri] Grass-cutters take a look at the net and spot Hare.

They run to Hare.

"Good. We can eat Hare with wine."

They take Hare off the net and see a lot of fly eggs on him.

"Oh, a good thing went bad.

I wish I had seen this hare a few days ago.

Too much time has passed."

An adult man speaks in a loud voice.

"Folks, we can eat it unless it smells bad.

What is the use of a nose?

말어 봐라, 말어 봐.”

내음을 맡으랴 제, 토끼란 놈 마침 신통한 방귀를 소리 없이 내어  
놓으니,

“카, 아, 참말로 썩었다.”

뒷다리 잡어 던져노니

토끼 팔짝 뛰어 달아나다 돌아보며,

“수궁에 들어가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디,

무식하고 미련한 너희들을 못 속일쏘냐?”

깡충깡충 뛰어가니 초동들이 어이없어,

“어허, 저런 방정 보소.”

저희 조<sup>1767</sup>)에 문자<sup>1768</sup>) 쓰되,

“차소위<sup>1769</sup>) 부엌이 똥꼴이로고.”<sup>1770</sup>)

토끼란 놈 초동들을 조롱을 허는디,

**[중중모리]** 깡충깡충 뛰어가며,

“사지<sup>1771</sup>)에서 살아가니 내가 진정 영웅이라.

관대장자<sup>1772</sup>) 유방<sup>1773</sup>)이 지혜 많기가 날만해?<sup>1774</sup>)

소진<sup>1775</sup>) 장의<sup>1776</sup>) 구변<sup>1777</sup>)인들 내 말을 당할쏘냐?

삼국시<sup>1778</sup>)에 내 났던들 공명선생이 나만할까?

전국시<sup>1779</sup>)에 나 났던들 김전<sup>1780</sup>)이가 말을 할까?

시리함<sup>1781</sup>)도 시리하다.

영산홍록<sup>1782</sup>) 봄바람에 넘노나니<sup>1783</sup>) 도화<sup>1784</sup>)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영수색<sup>1785</sup>)을 그림히고,<sup>1786</sup>)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춘색<sup>1787</sup>)을 자랑한다.

예<sup>1788</sup>) 들던 청산 두견,

자주 운다 저 새소리.

Have a smell at it.”

The moment a boy tries to smell Hare, Hare silently breaks marvelous wind.

“This hare is really rotten.”

The boy grabs Hare’s hind leg and throws him away.

Hare runs away and turns around.

“I even fooled the dragon king and came back alive.

Do you think I can’t fool stupid people like you?”

The grass-cutters were stunned to see Hare flee.

“How frivolous it is!”

They speak a profound sentence in their own manner.

“What an unlucky day it is today!”

Hare derides the grass-cutters.

**[Jungjungmori]** Hare scampers.

“I am a true hero because I escaped a place of death.

Is an ancient king, Liu Bang(劉邦), wiser than I?

Are ancient strategists, Su Qin(蘇秦) and Zhang Yi(張儀), more eloquent than I?

Would an ancient strategist, Kong Ming(孔明), be better than I if I had been born in his era?

Would an ancient general in Civil War Era of China be better than I if I had been born in his time?

I closely escaped my death.

Red and green peach blossoms dance in the spring wind in a mountain.

Red blossoms and green leaves are reflected in the river like a picture.

Flying butterflies and singing birds boast of the spring excitement.

The cry of a cuckoo in a green mountain sounds familiar to me.  
Birds are chirping everywhere.

타향 수국 갔든 벗님 고국산천이 반가워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깡충깡충 뛰어간다.

### 35.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토끼가 독수리에게 잡혔으나 속임수를 써서 독수리를 따돌리고 살아난다.

[아니리] 이렇게 거덜거리고<sup>1789)</sup> 올라갈 제,  
난데없는 독수리 ‘우’ 날아와 토끼 놈을 검쳐들고<sup>1790)</sup> 공중에 둥실  
높이 떠서,

[중모리] 독수리 좋아라고,

“얻었구야.<sup>1791)</sup> 삼사일 주렸더니 요깃감<sup>1792)</sup>을 얻었구나.

육진미<sup>1793)</sup> 갇은 차담<sup>1794)</sup> 이에서<sup>1795)</sup> 더하오며,

홍문연<sup>1796)</sup> 높은 잔치 죽물상<sup>1797)</sup>이 이 같으랴?

코를 먼저 빼 먹을까,

눈을 먼저 빼 먹을까,

배를 갈라 내복<sup>1798)</sup> 내어 식기 전에 내가 먹어볼까?

얼씨구나, 좋을시고. 지화자자 좋을시고.”

[아니리] 토끼 곰곰 생각하니 꿈쩍달짝 못하고 죽게 되었거늘,

또 한 피를 비집는데,<sup>1799)</sup> 거짓 울음을 울되,

[중모리]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나 죽기는 싫잖으나,<sup>1800)</sup>

내가 만일 죽거든 아까운 의사쭈치<sup>1801)</sup> 무주공산<sup>1802)</sup>에다 저버리

고 임자 찾아 못 전하니 이 아니 원통한가?

아이고, 아이고.”

슬피 우니,

I have been to the sea palace and am glad to see my country again.”

Hare scampers around joyously.

**35. (Hare is Caught by an Eagle and Escapes.) Hare is caught by an eagle, but deceives the eagle and escapes from him.**

[Aniri] Hare goes up the mountain arrogantly.

All of a sudden, an eagle flies to Hare, grabs him, flies high in the sky.

[Jungmori] The eagle is delighted.

“I got food. After being hungry for several days, I got food. This is better than a sumptuous meal.

This is better than the food on a bamboo table on a big feast.

Should I take out his brain and eat it first?

Should I take out his eyes and eat them first?

Should I take out his intestines and eat them before they cool down?

Whoopee! Oh boy! What a pleasure!”

[Aniri] Hare ponders and realizes he is bound to die.

He squeezes out an idea and starts a fake cry.

[Jungmori] “Alas. How miserable my fate is!

I don’t mind my dying.

I left Wish-Granting Bag, a precious thing, in an empty mountain. Isn’t it sad I can’t deliver it to its owner, if I die. Alas, Alas.”

Hare weeps sadly.

독수리 듣고,

“이놈아, 의사쭈치가 무엇이간디<sup>1803)</sup> 죽기보듬<sup>1804)</sup> 쏘다느냐?”

“예, 장군님. 들주소. <sup>1805)</sup>

의사쭈치라 하는 보물을 쫓 펴놓고 보면 일곱 궁기가 있는데,  
한 궁기를 탁 튕기며, ‘도야지새끼<sup>1806)</sup> 나오너라.’ 하면 한 번에 수백  
마리가 꾸역꾸역 나오고,

‘병어리 나오너라.’ 하면 일천오백 마리가 나오고,

‘노루 창사,<sup>1807)</sup> 개 창사 나오느라.’ 하면 한없이 꾸역꾸역 나오고,

그저 나오라 하는 대로는 다 나오니,

이런 보물을 저 건넌산 바위틈 속에 놓아두었는데,

임자 찾아 못 전하고 죽게 되니

이런 원통헌 일이 어디가 있소?”

**[아니레]** 독수리 이 말 듣더니,

“그 보물을 어디서 들렀냐?”<sup>1808)</sup>

“일전<sup>1809)</sup>에 내가 별주부 따라 수궁을 들어갔지요.”

“오냐. 너 수궁에 들어갔단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용왕이 주신 보물이요.”

독수리 욕심이 잔뜩 나서,

“토끼야, 내가 너 살려줄 것이니,

그 보물 날<sup>1810)</sup> 다고.”<sup>1811)</sup>

“장군님 생긴 것이 욕심이 대단하여,

결불병행<sup>1812)</sup>이라,

쭈치<sup>1813)</sup>를 뺏은 후에 나까지 먹으려고 그리 하오?”

“야, 그럴 리가 있나?

너와 사촌 의<sup>1814)</sup>를 맺자.”

“욕심이 잔뜩 나면 사촌을 아시리까”

The eagle speaks,

"You rat. What is Wish-Granting Bag that you think is more precious than your life?"

"General, listen to me.

If you unfold Wish-Granting Bag, you will see seven holes.

If you hit one of the holes and say 'Come out, young pigs,' hundreds of young pigs come out continuously.

If you say, 'Come out, chicks,' one thousand five hundred chicks come out.

'Come out, either roe deer's intestines or dogs' intestines,' they come out without a limit continuously.

Anything you want comes out.

I left such a treasure in between some rocks in that mountain.

I am dying without giving to its owner.

Isn't that regrettable?"

[Aniri] The eagle responds,

"Where did you steal that treasure?"

"I went to the sea palace with Terrapin the other day."

"Okay. I heard you had been to the sea palace."

"I got the treasure from the dragon king."

The eagle is excited about the treasure.

"Hare, I'll set you free.

Give me the treasure."

"General, you seem to be greedy.

If both you and I want a treasure, nobody can get it.

Do you intend to eat me after depriving me of Wish-Granting Bag?"

"How could I do that?

Let's be cousins to each other."

"I don't believe you would respect your cousin when you are greedy."

“아, 이놈아. 너는 잠깐 요기감박에는 안 되나,  
 그 줍치만 있고 보면 내 생전 양식 걱정은 안 하겠구나.  
 그런 좋은 것을 준다면, 내가 너를 잡아먹을 리가 있느냐?  
 어서 그것이나 날 주라.”  
 “꼭 날 살려주시오.”  
 “오냐. 꼭 살려주지.”  
 “그렇다면 저 건넌산 바우틈으로 갑시다.”  
 독수리 훨훨 날아 바우 앞에 내려노니,  
 토끼 의심 없이 바우틈으로 들어가며,  
 “이 속에 가 들었소.”  
 독수리 의심이 나, “너 이놈 발목 잡고 있을 테니, 어서 가지고 나오  
 너라.”  
 “그러시오. 의사줍치를 깊이 여췄으니<sup>1815)</sup> 조금만 놓으시오.”  
 “오냐. 발목만 잡었다.”  
 “아, 좀 더 놓으시오. 의사줍치가 달동말동, 갈신갈신허요.”<sup>1816)</sup>  
 “오냐. 엄지발가락을 잡었다.”  
 “아이고, 조금만.”  
 “오냐.”  
 딱 차고 들어가, 이놈이 시조를 내놓겼다.  
**[시조창]** “반 남아<sup>1817)</sup> 늙었으니 다시 젊기 어려워라.”  
**[아니레]** “네 이놈. 한가한 치라고<sup>1818)</sup> 시조 하지 말고,  
 어서 의사줍치 가지고 나오너라.  
 내 일이 바쁘다.”  
 “아, 이놈, 독술아!  
 죽게 된 내가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의사줍치가 아니고 무엇이냐?



“You villain. You are just one time meal.

If I have Wish-Granting Bag, I will not worry about food for the rest of my life.

If you give it to me, why would I eat you?

Give it to me right away.”

“Promise me you will release me.”

“Okay. I will release you.”

“If so, let’s go to the space between the rocks in that rocky mountain.”

The eagle flies and puts Hare down in front of the rocks.

Of course, Hare goes into the space between some rocks.

“It’s in that den.”

Suspicious of Hare, the eagle says, “I will hold your ankle. Bring it out here.”

“Okay. Wish-Granting Bag is deep inside. Please release me a little.”

“Okay. I am only holding your ankle.”

“Please release me a little more. I’ve almost reached Wish-Granting Bag.”

“Okay. I am holding your toe.”

“A little more.”

“Okay.”

Hare kicks the eagle and recites a poem.

[Poetic Mode] “More than half of my life is gone. I can’t become young again.”

[Aniri] “You villain. Don’t recite a poem, pretending you are relaxing.

Bring out Wish-Granting Bag right away.

I have no time.”

“Eagle, you villain!

I just escaped my death. Isn’t that Wish-Granting Bag?

어서 다른 데로 가서 일 보아라.”

독수리 어이없어, “어른의 말대답을 나와서 해야지, 굴속에서 한단 말이냐?”

“내가 어른?

너 혼자 어른이다.

귀찮허다.

어서 가거라.”

독수리 화를 내어,

“네 이놈, 언제든지 여기 있다 나오기만 해라.

네 사지를 갈라 놓으리라.”

토끼 조롱허되,

“인제 내 나이 팔십이니 어린 손자 자식이나 보아주고,

수신제가<sup>1819</sup>)허지,

내가 갈 배<sup>1820</sup>) 만무<sup>1821</sup>)허고,

내의 몸 보신책<sup>1822</sup>)으로 북두칠성경<sup>1823</sup>)이나 외워볼까?

대해감문명대성<sup>1824</sup>) 북두칠원성군.”<sup>1825</sup>)

독수리 기가 막혀,

“내가 욕심이 너무 많기에 이 분함을 당허는구나.”

독수리 화가 바짝<sup>1826</sup>) 나서,

“예끼,<sup>1827</sup>) 몸을 놔아. 잘 살아라.”

훨훨 날아가고,

토끼란 놈 다시 나와 사면을 살펴보며,

**[중모리]** 깡충깡충 뛰어보고,

원갓 향초<sup>1828</sup>)도 맡아 보고,

침순<sup>1829</sup>)도 끓어 먹고,

짓거리<sup>1830</sup>)도 허여보며,

Fly away and mind your own business."  
 Struck dumb, the eagle says, "How can you talk back to an adult  
 inside? Come out!"  
 "Are you an adult?  
 You think you are an adult.  
 Don't annoy me.  
 Fly away."  
 The eagle is infuriated.  
 "You villain. I'll wait for you here. Come out.  
 And I will tear your limbs apart."  
 Hare mocks the eagle.  
 "Since I am eighty years old now, I'll take care of my  
 grandchildren.  
 I will cultivate myself and my family here.  
 I'll not leave here.  
 Let me recite a folk scripture for the sake of my health.  
 Seven gods are helping my family."  
 The eagle is dumfounded.  
 "I am suffering from this insult because I was too greedy."  
 The eagle is exasperated.  
 "You bastard. Have a good life."  
 The eagle flies away.  
 Hare comes out and looks around.  
**[Jungmori]** Hare jumps around.  
 He smells all sorts of fragrant grasses.  
 He eats a vine, cutting it off.  
 He dances joyously.

“입사출생<sup>1831</sup>)허였으니 내가 진정 영웅이라.  
 용왕도 내의<sup>1832</sup>) 간계<sup>1833</sup>)에 빠졌고,  
 별주부도 내 속였고,  
 어리석은 초동들과 욕심 많은 독수리 내 모두 속였으니,  
 만고풍상<sup>1834</sup>) 이내 신세 삼재팔난<sup>1835</sup>) 다 면했네.”  
 도리질<sup>1836</sup>)도 허여보고, 앙그주춤<sup>1837</sup>) 자태도 내어보며,  
 “얼씨구나, 좋을씨구.  
 예 들던 청산 두견 반갑고도 반가워라.”  
 심심산곡<sup>1838</sup>) 들어가며 태평가를 부른다.

**36—A. (정권진) (후일담) 용왕이 산신에게 공문을 보내 토끼 한 마리를 보내라고 하니, 산신이 늙은 토끼 한 마리를 보내 용왕 병이 낫는다.**

[아니리] 이때에 별주부 수궁에 돌아와  
 세상에서 토끼에게 곤욕<sup>1839</sup>)당했던 전후 사연을 용왕전에 낱낱이 상소하니,  
 용왕이 분을 내어 승지<sup>1840</sup>) 도미를 불러 하교<sup>1841</sup>)하시되,  
 “토끼란 놈 기군망상<sup>1842</sup>)한 연유<sup>1843</sup>)로 진세 산신전에<sup>1844</sup>) 이문<sup>1845</sup>)하라.”  
 승지 청령<sup>1846</sup>)허고, 이문장<sup>1847</sup>)을 쓰는데,  
 ‘병구잔질<sup>1848</sup>)이 위득미병하여<sup>1849</sup>) 필사이래려니,<sup>1850</sup>)  
 행청도사지언 즉진세퇴간을 횡식일포하면 토차위신병지선약고로,<sup>1851</sup>)

“I am a true hero because I escaped from a place of death.  
 The dragon king was fooled by my wicked trick.  
 Terrapin was deceived by me.  
 I took in foolish grass-cutters and the greedy eagle.  
 I got around many hardships, so I escaped all the eight  
 hardships.”  
 Hare shakes his head, and he bends his backbone.  
 “Yippee! Whoopee!  
 I am glad to see the familiar cuckoo that lives in a green  
 mountain.”  
 He goes to a deep valley as he sings a happy song.

**36—A. (Jeong Gweon-jin) (Subsequent Story) The  
 dragon king sends an official document to a  
 mountain god, asking for a hare. The mountain god  
 sends an old hare to the dragon king. The dragon  
 king is cured.**

[Aniri] Meanwhile, Terrapin comes back to the sea palace.  
 He tells the dragon king in detail about how he suffered from  
 Hare.  
 Exasperated, the dragon king calls his secretary, a snapper, and  
 gives an order.  
 “Because Hare deceived a king, I’ll send an official document  
 to a mountain god.”  
 At the king’s order, the snapper writes an official document.  
 “Seriously ill, I have been thinking that I will die.  
 A god told me that I would be cured if I eat a hare’s liver.

사령별주부신하여 진세일개토를 생금이라리니,<sup>1852)</sup>  
 차물 천성이 소래간음튼지<sup>1853)</sup> 조사백단<sup>1854)</sup>하여 간보<sup>1855)</sup>를 쾌어칭  
 산단계지수허고 망치입래운운고로,<sup>1856)</sup>  
 안동별주부신하여 사속출세리니,<sup>1857)</sup>  
 불원청산의 무수육설멸시수부하고 행행입산운하니,<sup>1858)</sup>  
 차물피상은 불가심상처분더리  
 토차위신병지선약고로 자이이문하오니,<sup>1859)</sup>  
 노토일수를 지급착송하심을 행심하나니다.’<sup>1860)</sup>  
 이문 사신 즉송<sup>1861)</sup>허여 산신전에 올리니,  
 산신이 받아보고 수국 진세 화친<sup>1862)</sup>을 위허여 천년노퇴<sup>1863)</sup>를 결박  
 착송<sup>1864)</sup>하였구나.

**[중모레]** 용왕의 급한 마음 토끼 배 급히 갈라 간 내어 먹어노니,  
 용왕의 깊은 병이 즉위쾌차<sup>1865)</sup>하였구나.  
 용왕의 반긴<sup>1866)</sup> 마음 대연<sup>1867)</sup>을 배설<sup>1868)</sup>허고  
 별주부를 입시<sup>1869)</sup>시켜 충신으로 봉하시고,  
 수궁 제신<sup>1870)</sup> 만좌중<sup>1871)</sup>에 갓은<sup>1872)</sup> 풍류,<sup>1873)</sup> 일등 미색<sup>1874)</sup> 좌우  
 로 나열허여 성덕<sup>1875)</sup>을 부르는데,

**[중중모레]**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 절씨구.”  
 주부공<sup>1876)</sup> 씹 나서며,  
 “여보시오, 여러 대신.<sup>1877)</sup> 이내 말을 들어보오.  
 우리 용왕 살리려고 출세입산<sup>1878)</sup>허였을 제, 토끼란 놈 간계<sup>1879)</sup>에  
 빠져  
 하마트면 죽을 것을 대왕 성덕으로 아니 죽고 살아왔네.  
 하나님의 도움인지, 우리 대왕 짙은 병이 일시에 멀리 가고,

I had my subject, Terrapin, go out to the land and catch a hare.  
Wicked by nature, Hare made up a story that he left his liver  
on a cinnamon tree.

I told Hare to go back to the land with my subject, Terrapin.  
Before he had reached a mountain, he had insulted the sea  
palace with numerous curse words and went off to a mountain  
without looking back.

Hare's attitude should not go unnoticed.

I am sending this document to you because a hare's liver is  
medicine.

It would be fortunate if you send me an old hare."

A messenger quickly sends the document to a mountain god.  
After reading the document, the god ties an old hare with a rope  
and sends it to the dragon king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a country and the land.

**[Jungmori]** The dragon king hurriedly opens the hare's belly and  
eats his liver.

He is cured of the serious disease immediately.

Delighted, he throws a big party.

Terrapin is called in and officially recognized as a loyal subject.  
All subjects and beautiful dancing girls of the sea palace praise  
the king's virtues while all sorts of music are heard.

**[Jungjungmori]** "Whoopee! Oh boy! What a pleasure!"

Terrapin steps forward.

"Hello, ministers. Listen to my words.

When I went to the land to save our dragon king, I fell into  
the trap by Hare.

I was about to die, but I came back alive thanks to the virtues  
of our dragon king.

Perhaps, thanks to God's help, our dragon king is cured of a  
serious disease immediately.

영덕전 궁궐 위에 춤을 추고 놀으시니<sup>1880)</sup>

어찌 아니 좋을시고!<sup>1881)</sup>

해불양과<sup>1882)</sup> 태평허다

주야송덕<sup>1883)</sup>허여 보세.

### 36-B. (정회석) (후일담) 독수리는 날아가고, 산신이 늙은 토끼 한 마리를 보내 용왕 병이 낫는다.

[옛모래] 독수리 하릴없이 훨훨 날아가고,

그때 산신께옵서는 노퇴일수<sup>1884)</sup>를 보내어

대왕 병도 즉차즉효<sup>1885)</sup>하여 태평가<sup>1886)</sup>를 불렀더라.

“어와, 세상 벗님네들, 이러한 미물<sup>1887)</sup>들도 보국충성<sup>1888)</sup>을 다하거  
늘,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말을 족히<sup>1889)</sup> 할 수 있나?

나라에 충성허고, 부모에게 효도허세.

고수님 팔도 아프고,

저의 목도 아플 지경이요,

호가장창불락이니<sup>1890)</sup>

그만, 더질더질.<sup>1891)</sup>



He dances, having fun in the sea palace.  
How great this is!  
The sea is peaceful.  
Let's praise our king's virtues day and night.

**36—B. (Jeong Hoi seok) (Subsequent Story) The eagle  
flies away. The mountain god sends an old hare to  
the dragon king. The dragon king is cured.**

[Eonmori] The eagle cannot but fly away.  
The mountain god sends an old hare to the dragon king.  
The dragon king is cured immediately and sings a happy song.  
“Hello, my friends in the world. Even animals are loyal to their  
king.  
We, humans, should be loyal to our king too.  
Let's be patriotic to our country and be nice to our parents.  
The drummer feels sore in his arms.  
I feel sore in my throat too.  
Singing a song for a long time makes you tired of it even if  
it is a good song.  
Let me finish.

- 1) 仲夏月. 한여름에 해당하는 음력 오월.
- 2) 廣利王. 중국 신화에서 남쪽 바다를 맡고 있다는 축융(祝融) 신. 당나라 현종이 광리왕에 봉했다고 함.
- 3) 靈德殿.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4) 三海. 세 방향의 바다.
- 5) 君臣賓客. 임금과 신하, 그리고 손님.
- 6) 千乘萬騎. 수많은 수레와 말. 승은 수레를 세는 단위.
- 7) 江漢之將. 양자강과 한수를 지키는 장수. 강물에 사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 8) 川澤之君. 냇물과 연못의 임금. 냇물과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 9) 奏樂. 음악을 연주함. 또는 그 음악.
- 10) 逼真. 사정이나 표현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음.
- 11) 觥籌交錯. 벌로 먹이는 술의 술잔과 잔 수를 세는 산가지가 뒤섞인다는 뜻으로, 연회하 성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2) 노닐더니. 한가하게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놀더니.
- 13) 瀛海天熱風. 큰 바다의 뜨거운 바람.
- 14) 過히. 지나치게 많이.
- 15) 卒然得病. 갑자기 병을 얻음.
- 16) 藥房. '내의원(內醫院)'을 가리킴. '내의원'은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던 관청.
- 17) 都提調. 조선시대에 자문기관에 설치한 자문 명예직. 여기서는 내의원의 도제조를 가리킴. 정일품 정승을 지낸 사람이나 정승을 임명하였으나 실무에 종사하지는 않았음.
- 18) 萬無回春之望. 병이 나올 가망이 전혀 없음.
- 19) 靈德殿. 용궁에 있는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20) 天無烈風. 하늘에 거센 바람이 불지 않음.
- 21) 海不揚波. 바다에는 파도가 일지 않음.
- 22) 呻吟中에.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고생하고 허덕이는 가운데.
- 23) 哀痛.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 24) 玄雲. 검은 구름.
- 25) 黑霧. 검은 안개. 짙은 안개.
- 26) 飄風細雨. 회오리바람이 불고 가는 비가 내림.
- 27) 青衣道士. 푸른 옷을 입은 도사.
- 28) 麻布長衫. 마포로 만든 장삼. '마포'는 삼베. '장삼'은 승려의 옷으로, 길이를 길게 하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든다.
- 29) 玉. 여기서는 '옥홀(玉笏)'이어야 할 듯. '옥홀'은 옥으로 만들어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손에 쥐던 물건.
- 30) 再拜而進曰. 두 번 절하고 나와 말하기를.
- 31) 弱水三千里. 삼천 리나 되는 약수. '약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강물로,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여국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길이는 2,700리이며, 부력이 약하여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 32) 白雲 瑤池宴. 흰 구름 속의 요지에서 열리는 잔치. ‘요지’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다는 연못.
- 33) 千年碧桃. 천 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신선 세계의 복숭아. 반도(蟠桃).
- 34) 地下. 땅속. 여기서는 용궁을 가리킨 말인 듯함.
- 35) 風便. 소문.
- 36) 萬萬危重타혹읍기로. 매우 위태하고 심하다고 하시기로.
- 37) 嵬고자 해서.
- 38) 曰. 말하기를.
- 39) 遑遑한. 갈광질광 어쩔 줄 모르게 급한.
- 40) 짐작하시어.
- 41) 仙藥. 효험이 짙 좋은 약.
- 42) 脈. 맥박. 심장의 박동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얇은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동맥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 맥박의 빠르기나 강하고 약함 따위로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
- 43) 脈. 손목이나 발목의 맥박.
- 44) 心小臟. 심장과 소장.
- 45) 火. 오행의 화를 가리킴.
- 46) 肝膽. 간과 쓸개.
- 47) 木. 오행의 목.
- 48) 肺大臟. 하과와 대장.
- 49) 金. 오행의 금.
- 50) 腎膀胱. 생식기와 오줌보.
- 51) 水. 오행의 수.
- 52) 脾胃. 지라와 위.
- 53) 肝木. 오행의 목에 해당하는 간을 이르는 말.
- 54) 太過. 아주 지나치게 심하거나, 많거나, 큼.
- 55) 木克土. 음양오행설에서 목이 토를 이긴다는 말.
- 56) 傷하옴고. 다쳐 상처를 입고.
- 57) 膽經. 쓸개의 경락. ‘경락(經絡)’은 오장 육부의 병이 몸 거죽에 나타나는 자리. 이 자리를 침이나 뜸, 그밖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하면 관계된 장부의 병이 낫게 됨.
- 58) 甚하니. 보통의 정도보다 더하니.
- 59) 腎經. 생식기의 경락.
- 60) 肝膽經. 간과 쓸개의 경락.
- 61) 自盡. 저절로 없어짐.
- 62) 方書. 약방문을 적은 책. ‘약방문’은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 이름과 분량을 적은 종이.
- 63) 脾. 지라.

- 64) 一身之祖宗. 한 몸에서 으뜸으로 중요한 것.
- 65) 膽. 쓸개.
- 66) 乃一身之標本. 한 몸의 표본임.
- 67) 心靜則 萬病이 息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 68) 心動則 萬病이 生하오니,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병이 생기오니.
- 69) 心經. 심장의 경락.
- 70) 五勞七傷. 오로와 칠상. '오로'는 심(心)이 피로하면 혈(血)이 약해지고, 간이 피로하면 혈이 약해지고, 폐가 피로하면 기(氣)가 약해지고, 신(腎)이 피로하면 정력이 약해지고, 방광(오줌보)이 피로하면 먹는 것이 약해지는 것임. 허하고 약한 병이 스스로 오로를 낳고, 오로가 육극(六極)을 낳고, 육극이 칠상을 낳는데, 칠상의 1은 음한(陰寒), 2는 음위(陰痿), 3은 이급(裡急), 4는 정루(精漏), 5는 정소(精少), 6은 정청(精淸), 7은 소변 삭(小便數)을 말함.
- 71)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한의학에서 원기를 도우며 외감(外感. 한의학에서 감기를 가리키는 말)을 푸는 데 쓰는 탕약.
- 72) 熟地黃. 한약재의 한 가지. 생지황을 술에 담갔다가 여러 번 찌는 것. 보혈(補血), 보음(補陰)에 효과가 많음.
- 73) 酒蒸. 술을 뿌려 찌м.
- 74) 다섯 돈. '돈'은 무게의 단위. 관(貫)의 1/1000로 약 3.75g.
- 75) 山查肉. 한약재로서, 씨를 빼낸 산사나무의 열매. 위장을 튼튼하게 하거나 소화제로 씀.
- 76) 天門冬. 한약재의 한 가지. 호라지꽃의 뿌리. 성질은 찬데, 진해제(鎮咳劑)·강장제(強壯劑) 등으로 쓰임.
- 77) 細辛. 한약재의 일종. 족두리풀이나 민족두리풀의 뿌리. 말려서 두통(頭痛), 발한(發汗), 거담(祛痰) 등의 약제로 씀.
- 78) 去土. 흙을 떨어냄.
- 79) 肉蓯蓉. 열당과(列當科)에 딸린 기생식물의 한 가지. 줄기는 살지고 기둥 모양이며, 잎은 비늘같이 나는데, 줄기와 함께 엽록이 없어 누런 갈색을 띰. 깊은 산속에 나는데, 폐병의特效약이라고 함.
- 80) 澤瀉. 한약재의 일종으로, 택사의 덩이뿌리를 가리킴. 성질이 차며, 이수도(利水道), 임질(淋疾), 습진, 부종 따위의 약제로 씀.
- 81) 罌粟殼. 한약재의 한 가지로, 양귀비 열매의 껍질. 거담(祛痰), 진경약(鎮莖藥) 또는 설사, 이질 따위에 약제로 씀.
- 82) 甘草. 한약재의 일종으로 감초의 뿌리. 비위(脾胃)를 돕고, 다른 약의 작용을 부드럽게 하므로, 모든 처방에 널리 쓰임.
- 83) 水一升煎半連用.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계속 복용함.
- 84) 貼. 약봉지에 쓴 약의 문치를 세는 말.
- 85) 效無動靜. 힘을 써봐도 효과가 없음.
- 86) 加減白朮湯. 백출탕의 원방에서 다른 약재를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여 지은 탕약. '백출'은 한약재의 한 가지로,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 87) 白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성질이 따뜻하며, 비위(脾胃)를 돕고, 소화불량, 구토, 설사, 습증 등에 씀.

- 88) 炒灸. 불에 볶음.
- 89) 砂仁. 한약재의 일종으로, 측사밀(縮砂密). 키가 1m 쯤 되는 생강과에 딸린 풀)의 씨.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제로 좋은 약재.
- 90) 白茯苓. 한약재의 한 가지로, 빛깔이 흰 복령. 땀이 알맞게 나도록 하고, 오줌을 순하게 하며, 담증(痰症), 부증(浮症), 습증(濕症), 설사 따위에 쓰는데, 보(補)하는 효험이 있음.
- 91) 麝香. 사향노루의 사향낭에서 얻어지는 향료. 여기서는 '산약(山藥)'의 잘못인 듯. '산약'은 한약재의 하나로, 마의 뿌리. 강장제의 약재로서 유정, 몽설, 대하, 요통, 설사 따위에 씀.
- 92) 五味子. 한약재의 한 가지로, 오미자나무의 열매. 폐를 돕는 효험이 있으므로 기침, 갈증에 쓰며, 담과 설사를 그치게 하는 데에도 씀.
- 93) 懷香. 회향풀. 회향풀의 열매. 대회향과 소회향이 있는데, 다 같이 약으로 쓰고, 기름도 짬.
- 94) 當歸. 한약재의 한 가지로, 승검초의 뿌리.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피를 돕는 약으로 쓰이며, 강장제, 진정제로도 쓰임. 특히 부인병에 좋음.
- 95) 川芎. 한약재의 한 가지로, 천궁이·궁궁이의 뿌리. 성질이 따뜻하고, 신맛이 있으며,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순혈·청혈제로 쓰임.
- 96) 羌活. 한약재의 한 가지로, 강활의 뿌리. '강활'은 미나리과에 딸린 두해, 세해살이풀. 깊은 산골짜기에 절로 나는데, 그 뿌리를 해열 및 진통제로 씀.
- 97) 鹿角. 사슴뿔. 한약재의 한 가지.
- 98) 돈의 1/10.
- 99) 水一升煎半連用.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계속 복용함.
- 100) 陽減. 양의 기운을 줄임.
- 101) 加味羌活湯. 강활탕의 원방에 다른 약재를 넣은 탕약.
- 102) 麻黃. 한약재의 한 가지로, 마황의 줄기. 성질은 따뜻하며, 땀을 내게 하는 힘이 강하며, 기침, 두통, 오한 따위에 약재로 쓰임.
- 103) 陳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오래 묵은 귤껍질. 위를 튼튼하게 하고, 땀을 내게 하는 약효가 있음.
- 104) 防風.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방풍나물의 말린 뿌리. 고뿔(감기), 풍병 등에 약으로 씀. 방풍나물은 미나리과에 딸린 세해살이풀.
- 105) 白芷. 한약재의 한 가지로, 구리때의 뿌리. 감기로 인한 두통·요통·비연(鼻淵. 코에서 콧물이 많이 나오고, 때때로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하는 병) 따위에 쓰며, 외과 약으로도 널리 쓰임.
- 106) 蒼朮. 한약재로 쓰는 삼주(영거시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의 뭉치지 않은 뿌리. 백출보다 땀을 내는 힘이 강하여 소화를 범한 외감(外感.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일컫는 말. 감기.)을 푸는 데 많이 씀.
- 107) 升麻. 한약재의 한 가지로, 승마·왜승마·쫓대승마 따위의 뿌리. 열을 내리게 하거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데 쓰여, 외감·설사·하혈·변혈·탈음·탈항 따위에 많이 쓰임.
- 108) 葛根. 한약재의 한 가지로, 칩의 뿌리. 갈증·두통·요통·항강증(項強症) 및 상한(傷寒) 등에 발한·해열제로 쓰이며, 가루로 하여 복용함.

- 109) 神農氏. 고대 중국의 전설 상의 임금으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110) 百草藥. 온갖 약초로 만든 약.
- 111) 쓰려고 하다가는.
- 112) 무슨 일이 채 되기 전이나, 기회나 시기가 이르기 전에.
- 113) 가마솔.
- 114) 달여.
- 115) 味甘. 단맛.
- 116) 大補元氣. 원기를 크게 분돋아 줌.
- 117) 止渴生津.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함.
- 118) 造營養胃. 영양을 조성하고 위를 건강하게 함.
- 119) 甘溫. 달고 따뜻함.
- 120) 健脾強胃. 지라를 건강하게 하며, 위를 강하게 함.
- 121) 除瀉除濕. 설사를 멎게 하고, 습기를 제거함.
- 122) 兼治膽脾. 쓸개와 지라의 병도 아울러 치료함.
- 123) 灸則溫中. 볶으면 따뜻함이 알맞고.
- 124) 生則瀉火. 생것은 열기를 내보냄.
- 125) 清心丸. 심경(心經)의 열을 푸는 환약.
- 126) 蘇合丸. 소합향을 원료로 하여 만든 환약의 한 가지. 위장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맑게 함.
- 127) 八味丸. 육미환에다 육계(肉桂)와 부자를 더한 약. 정력을 돕는 데 쓰임.
- 128) 六味丸. 가루로 만든 육미탕을 꿀에 반죽하여 만든 환약. '육미탕'은 숙지황·산약·산수유·백복령·목단피·택사 따위로 된 가장 흔히 쓰이는 보약. '환약(丸藥)'은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둥글둥글하게 빚은 약.
- 129) 瓊玉膏. 혈액순환을 고르게 하기 위한 보약의 한 가지로, 생지황·인삼·백복령·백밀 따위의 약재를 씀.
- 130) 滋陰瓊玉膏. 음기를 보충해 주는 경옥고.
- 131) 白茯苓. 빛깔이 흰 복령. 오줌이 잘 나오게 하고 담병, 부종(浮腫), 습증 따위를 다스리거나 몸을 보하는 데 쓴다.
- 132) 赤茯苓. 색깔이 담홍색인 복령. 수종(水腫), 소변불리, 설사 따위에 쓴다.
- 133) 大黃. 한약재의 한 가지로, 강군포의 뿌리.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통리(通利. 대소변이 통함)하는 힘이 많아 대소변 불통·조열(燥熱. 마음이 답답하고 몸에 열기가 남)·헛소리·잠꼬대·적취(積聚. 오랜 체증으로 인하여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경가(癥瘕. 여자의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어혈(瘀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뭍혀 있는 증세) 같은 병에 씀.
- 134) 芒硝.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박초(朴硝)를 두 번 달여서 만든 약재. 성질은 차고, 흠어 내리는 작용을 함. '박초'는 초석(硝石. 질산칼륨)을 한 번 구워서 만든 약재.
- 135) 靑皮. 청귤피(靑橘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아직 익지 아니한 푸른 귤의 껍질.
- 136) 半夏.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반하의 뿌리. '반하'는 천남성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로

- 땅속에 등근 뿌리가 있으며, 꽃줄기는 높이 30cm 안팎임. 등근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담, 구토, 습증, 해수 등에 쓰임.
- 137) 肉桂.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건위, 강장제로 씀.
- 138) 穿山甲. 천산갑의 껍질을 말린 것. 한약재로 쓴다. ‘천산갑’은 천산갑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의 길이는 50-80cm, 꼬리의 길이는 20-50cm 정도이며, 몸의 위쪽은 이마에서 꼬리 끝까지 모두 어두운 빛갈의 비늘로 덮여 있다. 몸의 아래쪽은 비늘이 없고 옅은 살색의 털만 있다. 주둥이가 뾰족하고 이가 없어 긴 혀로 먹이를 훔아 먹는다.
- 139) 丹砂. 주사(朱砂). 천연적으로 나는 유화수은으로, 한약재로 사용함.
- 140) 蓮實. 연꽃의 열매.
- 141) 懷香. 회향풀. 회향풀의 열매. 대회향과 소회향이 있는데, 다 같이 약으로 쓰고, 기름도 짤.
- 142) 當歸. 한약재의 한 가지로, 승검초의 뿌리.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피를 돕는 약으로 쓰이며, 강장제, 진정제로도 쓰임. 특히 부인병에 좋음.
- 143) 川芎. 한약재의 한 가지로, 천궁이·궁궁이의 뿌리. 성질이 따뜻하고, 신맛이 있으며,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순혈·청혈제로 쓰임.
- 144) 木通. 으름덩굴의 말린 줄기 또는 말린 뿌리의 목질부. 성질은 차고, 임질과 부증(몸이 통통하게 붓는 병)에 쓰임.
- 145) 麥門冬. 한약재의 한 가지로, 맥문동이나 소엽맥문동의 뿌리. 보음(補陰. 음기를 도움)·청폐(淸肺. 폐를 깨끗이 함)·거담 및 자양제 따위로 씀.
- 146) 胡黃蓮. 한약재의 한 가지로, 미나리아재비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인 호황련의 뿌리. 성질은 매우 차고, 열로 인한 골증(骨蒸. 뼈가 몹시 쑤시는 병)과 도한(盜汗. 잠자는 사이에 저절로 나는 식은 땀)·안질·치질 등에 약으로 씀.
- 147) 唐黃蓮. 한약재의 하나로, 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황련(깽깽이풀)의 뿌리. 여러 해묵은 황련의 뿌리를 캐어 잔털을 따서 벌에 말림. 건위제로 쓰임.
- 148) 加味六君子湯. 보혈제로 쓰이는 탕약.
- 149) 清暑六和湯. 더위에 상한 심장을 다스리는 데 쓰는 탕약.
- 150) 二元益氣湯. 내장을 다스리며 기력을 돋우는 탕약.
- 151) 羌活湯. 강활의 뿌리를 달인 탕약. 해열 및 진통제로 씀.
- 152) 桃仁湯. 복숭아씨의 알맹이를 달인 탕약으로, 어혈과 혈관을 다스리는 약. ‘도인’은 복숭아씨의 알맹이.
- 153) 白蛇酒. 흰 뱀을 넣고 담근 술.
- 154) ‘저령탕(豬苓湯)’인 듯. ‘저령’은 저령, 목통, 택사 따위의 약재를 달인 약. 열이 뭉쳐 소변이 순조롭게 소통되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저령’은 참나무류의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의 균핵(菌核)을 말린 것.
- 155) 百藥. 온갖 약.
- 156) 鍼灸. 한의학에서 침과 뜸을 함께 이르는 말.
- 157) 銅鍼. 구리로 만든 침.
- 158) 銀鍼. 은으로 만든 침.

- 159) 天地之上經.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경락'이란 의미인 듯.
- 160) 流注. '자오유주침법(子午流注針法)'을 가리킨 말. '자오유주침법'은 천간·지지·음양·오행·장부·경락과 팔꿈치·무릎관절 이하의 오수혈(五輸穴)을 연합하여 조성된 일종의 날짜와 시간에 따라 침질을 하는 침법.
- 161) 甲日. 일진에 '갑'이 들어가는 날.
- 162) 甲戌時에. 육십갑자 중에서 갑술에 해당하는 시에.
- 163) 膽經. 쓸개의 경락.
- 164) 불명.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에는 44혈이 있는데, 여기에 '주유'는 없다.
- 165) 乙日. 일진에 '을'이 들어간 날.
- 166) 酉時.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 167) 大腸經 商陽. 수양명대장경에 속하는 상양혈. '상양'은 둘째 손가락 노뼈 쪽 손톱 뒷물서리에서 일푼(0.3cm 정도) 뒤에 있다.
- 168) 靈龜. '영구팔법(靈龜八法)'을 이름. 옛날에 쓰던 배혈방법의 하나로서, 고대에 쓰던 팔괘·구궁도·기경팔맥의 이론에 따라 침을 놓을 때의 날짜와 시간을 천간과 지지의 숫자로 계산하여 나온 숫자를, 이미 붙여놓은 팔맥교회혈의 숫자에 대입하여 혈을 선택하는 배혈방법.
- 169) 一 申脉.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1은 신맥에 해당된다는 말. '신맥'은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로서, 바깥 복숭아뼈의 중심에서 4푼 아래인 가는정강이뼈 머리의 아래 기슭 우묵한 곳이다.
- 170) 二 照海.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2는 조해에 해당된다는 말. '조해'는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혈. 안쪽 복사뼈의 중심에서 0.4인치 아래인데, 안쪽 복사뼈의 아래 우묵한 곳.
- 171) 三 外關.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3은 외관에 해당된다는 말. '외관'은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혈. 손등 쪽 손목 가로간 금의 중간에서 2치 위자뼈와 노뼈 사이에 있다.
- 172) 四 臨泣.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4이면 임읍에 해당된다는 말. '임읍'은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혈. 임읍혈에는 머리 임읍혈과 발 임읍혈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리 임읍혈을 가리킴. 머리 임읍혈은 눈동자로부터 5푼 위에 있으며, 다리 임읍혈은 발등에서 제4, 제5 발목뼈가 갈라진 사이이며, 소지신근건의 바깥쪽에 있다.
- 173) 六 公孫.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6이면 공손에 해당된다는 말. '공손'은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 발 안쪽에서 제1 발목뼈바닥의 안쪽 전하방과 단모지굴근 사이에 있는 우묵한 곳이다.
- 174) 七 後谿.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7이면 후계에 해당된다는 말. '후계'는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혈. 새끼손가락뼈 쪽 제5 손목 손가락뼈마디의 뒤에 있는 금 끝에 있다.
- 175) 八 內關.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8이면 내관에 해당된다는 말. '내관'은 수厥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혈 이름. 손목의 손바닥쪽 가로 간 금의 가운데로부터 2 치 올라가서 장장근건과 노뼈 쪽 수근굴근건 사이에 있다.
- 176) 九 列缺.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9이면 열결에 해당된다는 말.



- ‘열결’은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혈 이름. 손목의 가로 간 굵에서 1.5 치 올라가 요골경상돌기 위에 정맥이 있는 곳이다.
- 177) 三氣. 한의학에서 풍(風), 한(寒), 습(濕)의 세 가지 사기(邪氣)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기’는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78) 불명. 혹 ‘奇經八脉’의 잘못된지도 모르겠음. ‘기경팔맥’은 십이경맥과 달리 다른 길로 자기 혼자 행하는 경맥. 여덟 갈래인데, 임맥, 독맥, 중맥, 대맥, 음교맥, 양교맥, 양유맥, 음유맥이다.
- 179) 左脈. 몸의 왼쪽에 있는 맥.
- 180) 任脈. 기경팔맥의 하나로서, 몸의 앞 정중선에 분포된 경맥이다.
- 181) 督脈. 기경팔맥의 하나로서, 미추골 아래에서 시작하여 척추 속을 따라 올라가다가 풍부혈 부위에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정수리로 나온 다음, 이마와 콧마루를 지나 뒤통 속으로 들어간다.
- 182) 十二經脈. 모든 경맥들 중 기본이 되는 12개의 경맥. 분포된 부위, 연계된 장부에 따라 음경, 양경, 수경, 족경으로 나눈다.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수소음신경(手少陰腎經)·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수궤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족궤음간경(足厥陰肝經)·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열두 가지임.
- 183) 承漿. 임맥의 혈. 정중선에서 아랫입술 아래 가장 깊은 곳이다.
- 184) 廉泉. 임맥의 혈. 혀뿌리의 윗변연 중심부이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침을 놓는다.
- 185) 天突. 임맥의 혈. 앞 정중선상에서 흉골병의 경절혼으로부터 위로 5 분 되는 우묵한 곳이다.
- 186) 鳩尾. 임맥의 낙혈 이름. 검상돌기와 갈비활이 갈라진 사이를 연결한 중심에서 1 치 아래에 있다.
- 187) 巨闕. 임맥의 혈로서, 앞 정중선 배꼽 위 6촌 되는 곳이다.
- 188) 上脘. 임맥의 혈로서, 앞 정중선 배꼽 위 5촌 되는 곳이다.
- 189) 中脘. 임맥의 혈 이름. 앞 정중선 배꼽 위 4촌 되는 곳이다.
- 190) 下脘. 임맥의 혈 이름. 앞 정중선 배꼽 위 2촌 되는 곳이다.
- 191) 神厥. 임맥의 혈 이름. 배꼽 중앙이다.
- 192) 丹田. 임맥의 혈인 석문(石門). 앞 정중선 배꼽 아래 2촌 되는 곳, 음교(陰交). 앞 정중선 배꼽 아래 1촌 되는 곳, 기해(氣海). 앞 정중선 배꼽 아래 1.5촌 되는 곳, 관원(關元). 앞 정중선 배꼽 아래 3 촌 되는 곳) 혈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관원혈을 이른다.
- 193) 崑崙.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 이름. 바깥 복숭아뼈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 높이에서 바깥 복숭아뼈의 뒷기슭과 뒤축뼈힘줄의 바깥기슭과의 중간점에 있다.
- 194) 足太陰脾經. 십이경맥의 하나.
- 195) 三陰交. 족태음비경의 혈 이름. 안쪽 복숭아뼈의 중심에서 세 치 올라가 굽은정강이뼈의 안쪽 후연과 긴발가락굽 힘살 사이에 있다.
- 196) 陰陵泉.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 이름. 굽은정강이뼈 안쪽 뒤 아래 우묵한 곳이다.
- 197) 病勢. (더하고 덜한) 병의 형세.
- 198) 危重. (병세가) 위험할 만큼 매우 중함.

- 199) 氣色.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
- 200) 물끄러미.
- 201) 驚動脈. 놀라 움직인 맥.
- 202) 脾胃脈. 지라와 위의 맥.
- 203) 腹中. 배속.
- 204) 걸려. 숨을 크게 쉬거나 움직일 때에,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게 딱딱 마쳐.
- 205) 火病. 울화병. 울울하고 답답하여 일어나는 심화로 말미암아 생긴 병.
- 206) 陰陽風病. 음양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정신작용·근육 신축·감각 등에 고장이 생긴 병.
- 207) 動하여. 발동하여.
- 208) 巽氣. 팔괘의 손에 속하는 기운.
- 209) 辛氣. 12지의 신에 속하는 기운.
- 210) 正陰. 가장 강한 음기.
- 211) 辰庚亥未는. 12지 중에서 진과 경과 해와 미는.
- 212) 正陽. 가장 강한 양기.
- 213) 陰虛火動. 음기가 허하고 화기가 활발함.
- 214) 黃疸. 주로 간장의 고장으로 생기는 증상으로서 쓸개즙의 색소가 혈액 속으로 이행하여 생기는 병.
- 215) 塵世山間. 인간이 사는 세상의 산 속.
- 216) 差效. 차도. 병이 나아가는 일.
- 217) 同姓. 성씨가 같음.
- 218) 東方朔. 전한(前漢) 때의 사람. 자(字)는 만천(曼倩). 무제를 섬기어 금마문시중이 되었으며, 해학과 변설에 능하였음.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죽지 않고 장수하였으므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일컬음.
- 219) 누를 황(黃), 샘 천(泉), 돌아갈 귀(歸)하겠소. 황천으로 돌아감, 곧, 죽겠다는 말.
- 220) 神農氏. 중국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 성은 강(姜).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을 형상한 인신우수(人身牛首)의 신인(神人). 화덕(火德)으로써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약사의 신. 또 8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역자(易者)의 신이 되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도 불림.
- 221) 卯乙巽은 陰木이요.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묘와 십간의 을은 오행으로는 목(木)에 속하는데, 팔괘의 손(巽)이 소음(少陰)이므로, 셋이 합하여 음의 목이 된다.
- 222) 辰戌是 陽土.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진과 십간의 술은 오행의 토(土)에 해당되는데, 팔괘의 간은 소양(少陽)이므로 셋이 합하여 양의 토가 된다는 말.
- 223) 甲寅乙卯大溪水. 육십갑자의 갑인과 을묘는 큰 강의 기운을 나타낸다.
- 224) 辰艮巳山은 元屬木. (점술이나 택일에 쓰이는 홍병 오행에) 진과 간과 사와 산은 원래 목에 속한다는 말.
- 225) 木克土. 나무가 흙을 이긴다는 말. 나무와 흙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로 남녀 관계나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형이 목극토일 경우 화합되지 않는다고 한다.
- 226) 水生木. 음양오행설에서, 물에서 나무가 생긴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227) 然하다. 그렇다.
- 228) 雖然이나. 비록 그러하지만.
- 229) 蒼茫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 230) 塵世間的. 이 세상의.
- 231) 碧海. 푸른 바다.
- 232) 萬頃 밖에. 만 이랑이나 되게 넓은 푸른 바다 밖에.
- 233) 白雲이 九萬里요. '흰 구름이 구만리나 뻗어 있는 먼 곳이요'라는 의미로 쓰였음.
- 234) 渺然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 235) 水國中에. 물의 나라 가운데에.
- 236) 流砂一路上. 유사 한 길 위의. '유사'는 바람이나 물에 흐르는 모래.
- 237) 弱水三千里. 삼천 리나 되는 약수. '약수'는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가진 청조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목왕(周穆王)께 전했다고 함.
- 238) 塵世. 사람이 사는 이 세상.
- 239) 往來間에. 오고가는 가운데.
- 240) 幽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치가 깊고 넓은.
- 241) 路殊. 길이 다름.
- 242) 昔者의. 옛날의.
- 243) 萬乘天子. 만 대의 전차를 부릴 수 있는 천자.
- 244) 威嚴.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 245) 不死藥.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약.
- 246) 童男童女. 어린 사내아이와 계집아이.
- 247) 虛送三山.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에 쓸데없이 보냄.
- 248) 然後에. 그런 뒤에.
- 249) 一髮靑山. 한 가닥의 머리카락처럼 가물가물 보이는 산. 송나라 문인 소식의 시 〈정매역 통조각(澄邁驛通潮閣)〉의 한 구절인 '靑山一髮是中原'에서 따온 말.
- 250) 蹤迹.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
- 251) 萬古英雄.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영웅.
- 252) 漢武帝(BC 156— BC 87). 전한의 제7대 황제(재위 BC 141년—BC 87)이다. 아명은 체(彘)이며 자는 통(通)이다. 묘호는 세종(世宗), 시호는 효무황제(孝武皇帝)이다. 경제의 열 번째 아들이며 효경황후 왕자의 소생이다.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다스렸으며 해외 원정을 펼쳐 흉노, 위만조선 등을 멸망시켜 당시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어 전한의 전성기를 열었다.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에 한사군 또는 한군현을 설치하기도 했다. 중국 역사상 진시황제·강희제 등과 더불어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 253) 承露盤. 하늘에서 내리는 장생불사의 감로수를 받아먹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쟁반.
- 254) 崩하시니. (임금이) 돌아가시니.
- 255) 盛衰興亡. 번성하고 쇠퇴하며, 흥하고 망함.

- 256) 壽命長短. 수명의 길고 짧음.  
 257) 在天. 하늘에 있음. 운명에 달려 있음.  
 258) 驪山 松柏.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중국 섬서성에 있는 여산의 소나무와 잣나무.  
 259) 鬱鬱蒼蒼. '울울창창'은 나무가 백백이 들어서 무성하여 푸른 모양. 따라서 여기서는 '울울창창한 속에' 로 해야 옳음.  
 260) 三千古墳. 삼천 개나 되는 옛 무덤. 황제들도 다 죽어 무덤이 그렇게 많다는 뜻.  
 261) 海外. 바다 밖.  
 262) 日月的 밝은 世上. 해와 달이 있는 밝은 세상.  
 263) 無定處로. 정한 곳 없이. 정처 없이.  
 264) 是非 없이. 본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이 없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가리지 않고'라는 의미 정도로 쓰였음.  
 265) 泰山之間에 有百揆之士하고. 큰 산속에도 벼슬아치가 될 선비가 있고.  
 266) 堯舜之君에 有瞽瞍之臣이라. 요순임금에게도 고수와 같은 신하가 있다. '고수'는 장님이라는 뜻으로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는 우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수로 일컬어졌다. 고수는 후처에게 빠져서 후처와의 사이에서 난 막내아들 상(象)을 사랑하여 순을 죽이려고 했으나, 순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우를 사랑하여 화목하기에 힘썼으므로 모두 선도되었다고 한다.  
 267) 聖德. 임금의 덕을 높여서 이르는 말.  
 268) 忠義之臣. 충성과 절의가 있는 신하.  
 269) 滿朝諸臣. 조정에 가득한 여러 신하.  
 270) 下教. 임금이 명령을 내림.  
 271) 떨어져자. 끝나자.  
 272) 因忽不見. 보이지 않음.  
 273) 옹계.  
 274)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신하.  
 275) 一品. 옛날 벼슬아치의 최고 급수인데, 무관과 문관의 구별이 있고, 종일품과 정일품이 있다.  
 276) 맛이 있는.  
 277) 至賤. 매우 혼한.  
 278) 諸臣. 여러 신하.  
 279) 모두.  
 280) 等物들이. 여러 사물들이.  
 281) 丞相. 옛날 중국의 벼슬인데, 우리 나라의 정승에 해당한다.  
 282) 承旨.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던 정삼품의 벼슬아치.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관.  
 283) 注書.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려 역사 자료를 기록하던 정7품 벼슬.  
 284) 오징어.  
 285) 한림학사(翰林學士). 조선시대 예문관에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보던 정9품 벼슬.  
 286) '박죽상어'인 듯. '박죽상어'는 중간 크기의 상어를 말함.

- 287) 大司成. 고려와 조선시대 성균관의 으뜸 벼슬로 정3품.
- 288) 도루묵. 바닷물고기로, 몸길이 15-26cm에 입이 큼.
- 289) 蚌僉使. 내시부의 종3품 벼슬인 첨사 벼슬을 가진 조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 290) 해운공(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291) 물방개. 곤충의 일종으로 몸은 평평한 타원형이고, 길이 30-40mm이며, 몸빛은 흑갈색에 녹색 광택이 남. 뒷다리는 길고 크며, 털이 많고, 물 속을 헤엄쳐 다님.
- 292) 監獄官. '형벌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관리'라는 뜻으로 지어낸 말.
- 293) 水獺. 족제비과에 딸린 포유동물. 족제비와 비슷한데, 몸통의 길이는 60-80cm, 꼬리는 40-50cm이고, 몸의 위쪽은 광택이 나는 갈색, 아래쪽은 담갈색임.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교묘히 헤엄치며, 물고기, 개, 조개 등을 잡아먹음. 강기슭이나 늪가에 굴을 파고 살며, 봄에 1-5 마리의 새끼를 낳음.
- 294) 留守. (임금을 대신하여 머물러 지킨다는 뜻) 수도 이외의 요긴한 곳을 다스리던 특수한 벼슬아치의 이름.
- 295) 廣魚. 넙치. 넙치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60cm 정도이고 위아래로 넓적한 긴 타원형이며, 눈이 있는 왼쪽은 어두운 갈색바탕에 눈모양의 반점이 있고, 눈이 없는 쪽은 흰색이다.
- 296) 兵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선조 때 각 지방에 두어 병마를 통솔 지휘하던 종4품 무관.
- 297) 靑魚. 청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이 좀 늘씬하고 옆으로 넓적함. 길이 35cm 안팎.
- 298) 海狗. 물개.
- 299) '부세'인 듯. 경골어류 농어목 민어과의 바닷물고기. 참조기와 유사하긴 생김 어종으로 굴비를 만들거나 찌 먹는 경우가 많다.
- 300) 察訪. 조선시대에 각 도(道)의 역참을 관장하던 종6품의 외관직(外官職). 마관(馬官)·우관(郵官)이라는 별칭이 있다.
- 301) 御史. 왕의 명령으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임시 관리.
- 302) 솜뽕이목 양볼락과의 바닷물고기. 지느러미와 가시에 독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흥취하고 무섭게 생겼으나 복어와 맛이 유사하며, 매운탕 등으로 인기가 좋다.
- 303) 曹部將. 부장 벼슬의 조기. '조기'의 '조'자를 성으로 하여 만든 말임. 부장은 조선시대 종6품의 무관 벼슬.
- 304) 조기.
- 305) 비변랑(備邊郞). 낭청(郎廳)이라고도 하는, 나라 안팎의 군사기밀을 다루던 종6품 벼슬.
- 306) 청가오리. '청분'이라고도 함. 가오리의 한 종류로, 꼬리에 가시가 있음.
- 307) 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에 딸린 하급 병졸. 나졸은 말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 체포를 담당했음.
- 308) 巡令手. 대장의 전령(傳令), 호위를 맡거나,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 309) 大元帥. 전군(全軍)을 통솔하는 대장.
- 310) 물고기 이름인 듯하나 불명.
- 311) '송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송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

따위로 부름.

- 312) 龍參軍. ‘원’은 자라이며, ‘참군’은 정칠품, 혹은 종칠품 무관 벼슬. 따라서 ‘원참군’은 ‘자라 참군’이란 의미로 지어낸 이름.
- 313)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314) 鼈主簿. ‘별’은 자라. ‘주부’는 조선조 때 종육품 벼슬 이름. 따라서 ‘주부 벼슬을 하는 자라’라는 뜻으로,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 315) 모래무지. 잉어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5cm 정도이며, 은백색이다. 등과 옆구리에 옅은 황갈색의 반점이 있으며 배는 희다. 머리가 크고 입가에 한 쌍의 수염이 있다.
- 316) 누치.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잉어와 비슷하며, 몸길이는 20-30cm이나 큰 것은 50cm에 이룸.
- 317) 민물에 사는 메기.
- 318) 미끌미끌한 뱀장어.
- 319) 正言使劄. 정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정언’은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육품 벼슬.
- 320) 차가사리. 민물고기의 한 가지로, 동자개와 비슷하나 몸이 작고, 입 둘레에 네 쌍의 수염이 있으며, 몸빛은 누르다.
- 321) 돌 밑에 사는 꺾저기. ‘꺾저기’는 농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쏘가리와 비슷하나 좀 작음.
- 322) 산에 있는 냇물에 사는 중고기. ‘중고기’는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몸은 가름하고 납작하며, 길이는 10-16cm. 몸빛은 등 쪽이 암록갈색이고, 배는 희며, 옆구리 중앙에 암색의 세로띠가 있음.
- 323) 피라미.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 몸길이는 10-14cm.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현저한 혼인색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빛 좋은’이란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임.
- 324) 망둑어. 망둑어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의 길이는 20cm 정도이며, 배지느러미가 빨간처럼 되어 있다. 바닷가의 모래땅에 산다.
- 325) 찡뚱어. 망둥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15-18cm. 몸은 말뚝망둥이 비슷하여 가늘고 길며, 머리 폭이 넓음.
- 326) 물고기 이름인 듯하나 불명.
- 327) 개구리.
- 328) 송사리의 경상도 사투리.
- 329) 龍王前. 용왕 앞에. 용왕께.
- 330) 伏地聽命. 땅에 엎드려 명령을 들음.
- 331) 몸을 뒤로 조금 젖히고 밀찍이서.
- 332) 生鮮塵. 생선을 파는 가게.
- 333) 都物主.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밀천을 대어주고 장사를 시키는 우두머리.
- 334) 경들. ‘경’은 임금이 신하를 가리키는 데 쓰는 말.
- 335) 快活者. 명을 낮게 할 사람.
- 336) 누가.

- 337) 面面相顧. 서로 얼굴만 쳐다봄.
- 338) 默默不答. 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음.
- 339) 割股事君.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여 임금을 섬김. 춘추시대 진(晉)의 개자추는 문공(文公)이 조나라 망명시에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었다고 함.
- 340) 개자추(介子推). 춘추시대 진(晉)의 선비로 문공(文公)이 망명시에 19년을 모셨으나, 문공이 귀국 후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면산(綿山)에 숨어버렸는데, 후에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자, 불을 질러 나오도록 했으나, 끝내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함. 한식(寒食)날은 개자추가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음.
- 341) 誑楚亡身 紀信. 초나라를 속이고 죽은 기신. 기신은 한나라 고조 때 충신. 한 고조 유방이 하남성에서 초나라의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여자들에게 갑옷을 입혀 뒤를 따르게 한 뒤, 유방의 수레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유방을 피신토록 하고 대신 죽었음.
- 342) 임금.
- 343) 君臣有義. 오륜(五倫)의 하나.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는 의리에 있음을 이른다.
- 344) 重할시고. 중한 것이로구나.
- 345) 萬魚之中에. 수많은 물고기 중에.
- 346) 一忠臣. 한 사람의 충성스런 신하.
- 347) 自歎. 스스로 탄식함.
- 348) 臣子之道理. 신하의 도리.
- 349) 公論. 여럿이 모여 의논함, 또는 여럿이 하는 의논.
- 350) 떠들썩하고 뒤숭숭하되.
- 351) 어떠한가?
- 352) 祭饌. 제사 때 올리는 밥.
- 353) 爲主. 으뜸으로 삼음.
- 354) 春三月. 봄 3월달.
- 355) 好時節. 좋은 시절. 좋은 때.
- 356) 죽겠느냐?
- 357) 正言.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에 딸린 벼슬. 정원은 2명이고 품계는 정6품이었음.
- 358) 무엇이 눈앞에 잠깐 나타나기만 하면.
- 359) 守門將. 대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
- 360) 물에 사는 메기.
- 361) 長鬚口大. 수염이 길고 입이 큼.
- 362) 好風身. 풍채가 좋음.
- 363) 食量이 壯히 넓어. 먹는 양이 매우 많아서.
- 364)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 365) 시장기를 면할 재료.
- 366) 蓑笠. 도롱이나蓑갓.
- 367) 漁翁. 고기 잡는 늙은이. 어부.
- 368) 細雨斜風釣不歸. 가랑비 오고 바람 빗겨 부는데 낚시질을 하며 돌아가지 아니함.

- 369) 미끼.
- 370) 飮食. 음식을 탐냄. 음식을 탐내어 먹음.
- 371) 斷不饒貸. ‘단불요대’는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단숨에 꼼짝없이’라는 뜻인 듯.
- 372) 痢疾. 설사를 하는 전염병.
- 373) 腹疾. 뱃병. 배앓이 설사 따위.
- 374) 이질.
- 375) 瘧病.瘧로 인해 생긴 병.
- 376) 補胃藥. 위의 기능을 좋게 하는 약.
- 377) 海狗. 물개.
- 378) 腎莖. 음경. 자지.
- 379) 好色. 여자를 좋아함.
- 380) 色必亡身. 여자는 반드시 자신을 망치게 함.
- 381) 鰓郎廳. 낭청벼슬을 하는 새우. ‘낭청’은 종육품의 벼슬.
- 382) 超等. 등급을 뛰어넘음. 뛰어남.
- 383) 眼睛. 눈동자.
- 384) 短命之相. 목숨이 짧은 생김새.
- 385) 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386) 바위갯과의 하나. 등딱지의 길이는 3cm, 폭은 3.5cm 정도이며, 어두운 녹색이고 몸은 사각형으로 우툴두툴하고 다리에 털이 적다. 등에 ‘H’자 모양의 흠이 뚜렷하며 집게발은 수컷이 암컷보다 역세다.
- 387) 伏地奏曰. 땅에 엎드려 아뢰어 말하기를.
- 388) 靑林碧溪. 푸른 숲 속의 푸른 시냇물.
- 389) 山川水. 산속의 냇물.
- 390) 潛身하여. 몸을 물속에 잠그고.
- 391) 月中兔. 달 속의 토끼.
- 392) 망월토(望月兔). 보름달 속에 있는 토끼.
- 393) 顏面. 서로 얼굴이나 알만한 친분.
- 394) 的實하니. 틀림이 없이 확실하므로. 여기서는 ‘있사오니’ 정도로 해야 옳음.
- 395) 小臣.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396) 엄지발가락.
- 397) 무거운 물건을 힘겹게 들 때 나는 소리.
- 398) 大王前. 대왕께.
- 399) 王曰. 왕이 말하기를.
- 400) 十脚. 열 개의 다리.
- 401) 具存. 빠짐없이 갖추어 있음.
- 402) 人跡. 사람의 발자취.
- 403) 무엇이 눈앞에 잠깐 나타나기만 하면.



- 404) 當大事. 큰 일을 맡음. 여기서 이 맡은 빼어야 자연스러움.
- 405) 公論. 일반의 공통된 의견.
- 406) 未決할 제. 아직 결정하지 못할 때.
- 407) 靈德殿. 남해 용왕인 광리왕(廣利王)이 지었다는 궁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 편에 나옴.
- 408) 隱目短足. 눈이 작고 다리가 짧음.
- 409) 長頸鳥喙. 목이 길고, 주둥이가 까마귀의 부리와 같음.
- 410) 虎胸背. 호랑이를 수놓아 무관의 관복의 배와 등에 붙이던 천조각.
- 411) 자라의 등껍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412) 어린아이나 다리가 짧은 동물이 느리게 걸거나 기어가는 모양.
- 413) 鞠躬再拜. 몸을 굽혀 두 번 절함.
- 414) 上疏. 임금에게 올리는 글.
- 415) 惶恐伏地하고. 황공하여 땅에 엎드리어.
- 416) 臣. 신하가 임금을 상대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말.
- 417) 奏主上殿下하노이다. 임금님께 아뢰니다.
- 418) 本是. 본래. 처음부터.
- 419) 忠臣之後裔. 충신의 후손.
- 420) 錐處囊中. 송곳이 주머니에 있으면 그 끝이 밖으로 뚫고나오는 것과 같이 재능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그재능이 알려지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421) 穎脫而出. 뾰족한 송곳 끝이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뜻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재능(才能)이 밖으로 드러남을 이르는 말
- 422) 毛遂. 《사기(史記)》의 〈평원군전(平原君傳)〉에 나오는 사람. 전국시대(戰國時代) 말엽 진(秦)나라의 공격을 받은 초나라 혜문왕은 동생이자 제상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 군을 청하기로 했다. 20명의 수행원이 필요(必要)한 평원군은 그의 3,000여 식객 중에서 19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사람을 뽑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다. 이 때 모수라는 식객이 자천하고 나서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 끝이 밖으로 나오듯이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인데, 내 집에 온 지 3년이나 되었다는 그대는 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모수는 자기를 단 한 번이라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기만 한다면 끝뿐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내 보이겠다고 답하였다. 이 채지 있는 답변에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다.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 받으면서 구원군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 423) 재주.
- 424) 吞炭爲啞하고. 숯을 삼켜 병어리가 되어.
- 425) 行乞於市하던. 저자에서 구걸을 하던.
- 426) 豫讓. 《사기(史記)》 〈자객전(刺客傳)〉에 나오는 사람. 중국 춘추시대 말기, 진(晉)나라의 실권자였던 지백(智伯)이 패권다툼에서 조양자(趙襄子)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자, 지백의 신하 중 예양(豫讓)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조양자를 죽이려고 미장이로 변장하고 궁중 공사에 끼어들어가, 조양자가 변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찔러 죽이려다가 실패하여 붙잡혔다. 이에 조양자가 그 이유를 묻자, “지백은 나를 국사(國

士)로 대접하였으니, 나도 국사로서 보답하기 위함이다.”라고 대답했다. 조양자는 그를 충신이라 하여 훈방했다. 그러나, 예양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몸에 옷칠을 하여(漆身) 문둥이처럼 하고, 숯을 삼켜(吞炭) 병어리처럼 하고는 걸식하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다리 밑에 숨어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조양자를 죽이려고 했으나 역시 실패하고 잡혔다. 조양자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며 죽이라 명했다. 그러자, 예양은 마지막 소원이라며 조양자의 옷을 빌려달라고 했다. 옷을 건네받은 예양은 가슴 속에서 비수를 꺼내어 그 옷에 세 번 칼질을 하고, “지백 어른, 이제야 원수를 갚았습니다.”라고 하늘을 우러러 외친 다음 그 비수로 자결했다고 한다.

427) 六國. 중국 전국시대의 여섯 나라.

428) 합종책(合從策). 중국 전국시대에 소진이 주장한 외교 정책. 서쪽의 강국 진(秦)나라에 대항하기 위하여 남북으로 위치한 한·위·조·연·제·초의 여섯 나라가 동맹하여 진에 대항하자는 정책임.

429) 蘇秦. 중국 전국시대 중엽의 유세가. 하남성 낙양 사람으로 장의(張儀)와 함께 귀국선생에게 배웠다. 처음에 진(秦)나라의 혜왕(惠王)을 비롯하여 제후 밑에서 유세를 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BC 333년 연나라에서 초나라에 이르는 남북선상(南北線上)의 6국의 합종에 성공하여 혼자서 6국의 재상의 인장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무안군(武安君)이라 칭하여 이름을 떨쳤다. 이 때문에 동방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던 진나라는 십수년간 그 진출을 저지당했다. 그러나 그의 합종책은 장의의 연횡책(連橫策)에 패배하여 실패했다.

430) 口辯. 말재주. 말솜씨.

431) 孟獲. 남만(지금의 베트남)의 왕으로, 서기 225년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익주를 침입하였으나, 제갈량이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자, 제갈량에게 항복하였다.

432) 七縱七擒.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줌.

433) 諸葛亮.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181-234). 자(字)는 공명(孔明). 시호는 충무(忠武). 뛰어난 군사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曹操)의 위(魏)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다. 유비가 죽은 후에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 중에 병사하였다.

434) 智謀. 슬기로운 꾀.

435) 當此國體靡寧之時하여. 임금께서 병으로 인하여 편안하지 못한 이 때를 당하여. ‘국체’는 본래 주권의 소재에 따라 나는 나라의 형태이지만, 여기서는 임금을 가리킨다.

436) 豈敢不忠圖報하오리까? 어찌 감히 충성으로 보답하기를 꾀하지 않겠습니까?

437) 此依聖上之威靈과 無窮之造化로 光被四海하시니. 임금님의 위엄 있는 신령스러움과 끝없는 조화에 의지하여 빛이 온 세상을 덮으니.

438) 何往不利며 何求不得으로 塵世 一介甁을 何難捉來리까? 어디를 간들 이롭지 않으며, 어느 것을 구한들 얻지 못하여, 세상의 한 마리 토끼를 잡아오기 어렵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하환구득산간일개토’(何患求得山間一介甁)‘어찌 산간의 한 마리 토끼를 구하여 얻을 것을 걱정하리오?’로 되어 있다.

439) 伏願 聖上은 擺脫下生不仁之德하시고, 앞드려 비움군대, 임금께서는 하생(지위가 낮은 사람)의 불인(어질지 못한)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시고, 다른 곳에서는 ‘파탈분전지의(擺脫紛戰之議)’(어찌럽게 싸우는 논의를 벗어남)로 되어 있다.

- 440) 卽令小臣으로 使速出世케 하옵시며, 즉시 소신에게 영을 내려 빨리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며.
- 441) 塵世 一介兔를 捉至御庭히며 國體平復하심을 臣所願也로소이다. 세상의 한 마리 토끼를 임금님의 뜰에 잡아와 임금님께서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되기를 신은 바라는 바입니다.
- 442) 英俊之臣, 영리하고 재주가 뛰어난 신하.
- 443) 忠直之言, 충성스럽고 정직한 말.
- 444) 沛公, 한나라를 세운 고조(高祖) 유방(劉邦). 유방이 패에서 났기 때문에 패공이라고 한다.
- 445)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왔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나라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때 그는 '교토사주구팽(狡兔死走狗烹,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446) 皇后, 한 고조 유방의 황후인 여후(呂后). 한신은 고조가 반란을 진압하러 간 사이에 모반을 꾀했으나 여후에게 잡혀 죽었음.
- 447) 한신(韓信)더러.
- 448) 美哉로다. 아름답도다.
- 449) 柱石之臣, 나라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신하.
- 450) 자라탕.
- 451) 別味, 특별히 좋은 맛. 특별히 맛이 좋은 음식.
- 452) 원통한가?
- 453) 惶恐對曰, (위엄이나 지위에 눌리어) 두려워하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 454) 裕餘, 모자라지 않고 넉넉함.
- 455) 進退, 앞으로 나아갔다 물러났다 함.
- 456) 鴻門宴,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고 홍문에서 벌인 잔치.
- 457) 樊噲(? - BC 189), 중국의 전한 초기의 무장. 유방과 같은 패현의 사람. 작위는 무양후(舞陽侯). 시호는 무후(武侯)이다. 개고기를 파는 미천한 신분이며 유방과 친형제처럼 절친한 관계였다. 홍문연에서 항장이 칼춤을 추다가 유방을 죽이려고 했을 때 번개가 막아 유방을 구했다.
- 458) 둥근 방패.
- 459) (둥에다) 짚어졌사옵고.
- 460) 江上에, 강물 위에.
- 461) 望보기, 상대편의 동태를 알기 위하여 멀리서 동정을 살피는 일.
- 462) 逢敗, 일이 잘못됨.
- 463) 海中之所生, 바다 속에서 태어난.
- 464) 畫像, 얼굴을 그린 그림.

- 465) 畫工. 그림을 그리는 화가.
- 466) 燕 昭王.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의 소왕. 이름은 평(平)이며,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고, 어진 선비를 후하게 대했으며, 악의(樂毅)를 장군으로 삼아 제(齊)나라의 70여 성을 빼앗았다.
- 467) 黃金臺. 연나라 소왕이 천하의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놀던 곳. 그 누대를 짓는데 천금이 들었다하여 ‘황금대’라고 하였음.
- 468) 凌虛臺. 하늘을 능멸할 정도로 허공에 높이 솟은 누대. 또는 ‘능허대’는 송나라 때 진희량이란 사람이 봉상현의 태수로 있을 때 지은 누대 이름. 송나라 때의 문인 소식은 진희량의 밑에 있으면서 그의 명을 받아 1063년에 능허대의 아름다움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내용을 노래한 글을 지었다고 함.
- 469) 名畫師. 이름난 화가.
- 470) 洞庭琉璃靑紅硯. 동정호의 유리창(琉璃廠)에서 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나는 고운 벼루.
- 471) 錦水秋波.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여기서는 ‘금수추파를 담은’으로 해야 함.
- 472) 거북 硯滴. 거북 모양을 한 벼루물을 담는 그릇.
- 473) 兩頭畫筆. 양 쪽에 화필이 달린 붓.
- 474) 듬뿍. 매우 많거나 넉넉하게.
- 475) 丹青 彩色. 붉고 푸른 여러 가지 빛깔.
- 476) 白綾雪花簡紙上. 눈꽃 무늬가 있는 하얀 비단으로 된 화선지 위.
- 477) 天下名山. 온 세상의 이름난 산.
- 478)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
- 479) 芝草. 지치. 쌍떡잎식물 갈래꽃류에 속하는 한 과(科)로, 염료나 약재용으로 쓰임.
- 480) 향초(香草). 향기나는 풀.
- 481) 지저귀어 울 제.
- 482) 봉래산(蓬萊山). 중국에서 상상하던 삼신산(三神山). 신선이 산다는 세 산으로,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산)의 하나.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483) 방장산(方丈山). 삼신산의 하나.
- 484) 雲霧. 구름과 안개.
- 485) 냄새.
- 486) 萬化方暢花林中. 봄이 되어 온갖 사물이 한창 피어나는 꽃수풀 속.
- 487) 大寒.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소한의 다음이며, 양력 1월 21일 경으로 가장 추운 때임.
- 488) 嚴冬. 매우 추운 겨울.
- 489) 雪寒風.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 추위.
- 490) 防風. 바람을 막음.
- 491) 神農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492) 嘗百草. 온갖 풀을 맛봄.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황제인 신농씨가 온갖 풀을 먹어 보아 약초를 찾아냈다고 함.

- 493) (입술이나 귀 따위를) 뽀뽀하게 치켜세우거나 뽀족이 내미는 모양.  
 494) 둥글둥글함.  
 495) 늘씬. 미끈하게 긴 모양.  
 496) 꼬리.  
 497)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498) 綠水라. 푸른 물이다.  
 499) 綠水青山. 푸른 물과 푸른 산.  
 500) 조금 휘어져 굽은.  
 501) 長松. 키가 큰 소나무.  
 502) 축 아래로 휘어져 늘어진.  
 503) 楊柳枝. 버드나무 가지.  
 504) 들락날락. 연거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505) 엉거주춤.  
 506) 모습은.  
 507) 峨眉山月半輪秋. 이백의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의 첫 구절. 아미산 위에 뜬 반달이  
 벌써 가을이 되었다.  
 508) 이에서. 이보다.  
 509) ‘여기 있다’ 또는 ‘여기 보아라’라는 뜻으로 쓰는 감탄사.  
 510) 물건 따위를 잘 거두어 보호하거나 보관함.  
 511) 御酒. 임금에 주는 술.  
 512) 卿. 임금이 이품 이상의 신하를 가리키던 말.  
 513) 쾌할진댄. 낮게 한다면.  
 514) 半分. 절반으로 나누어 가짐.  
 515) 惶恐對曰. (위엄이나 지위에 눌리어) 두려워하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516) 鞠躬再拜. 허리를 굽혀 두 번 절함.  
 517) 奉命使臣.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  
 518)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519) 淫骨. 여자를 아주 밝히는 사람.  
 520) 恪謹. 조심함.  
 521) 色近狼狽. 여자를 가까이하면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  
 522) 음흉(陰凶).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영악하고 흉악함.  
 523) 舉動. 몸을 움직이는 태도.  
 524) 담배를 끼워서 빼는 물건.  
 525) 콧구멍.  
 526) 責하여.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겨.  
 527) 體位.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528) 年期老重. 나이가 많이 늙음.

- 529) 少年輕薄子. 나이 어려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람.
- 530) 鄙陋.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러움.
- 531) 未安.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움.
- 532) 兒女子.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 533) 發論되면. 의논거리로 말하여 드러나게 되면.
- 534) 滿朝諸臣. 조정에 있는 수많은 신하.
- 535) 路柳牆花.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창녀나 기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536) 大笑하며. 크게 웃으며.
- 537) 忠臣之子. 충신의 아들.
- 538) 烈女之子. 열녀의 자식.
- 539) 家中. 온 집안.
- 540) 蒼茫한. 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 541) 塵世間에.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 542) 부디.
- 543) 水晶門. 수정으로 만든 문. 용궁의 문을 가리킴.
- 544) 景概.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
- 545) 壯히. 매우. 씩.
- 546) 杲杲天邊一輪紅. 동틀 무렵 하늘가에 떠 있는 붉은 해.
- 547) 扶桑. 해가 돋는 곳, 혹은 그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548) 暘谷. 해가 돋는 골짜기.
- 549) 자욱하게 긴.
- 550) 月峰으로. ‘월봉’은 달이 뜨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 551) 豫章村. 중국 회남과 강북의 경계에 있는 마을.
- 552) 回雁峯. 중국 호남성에 있는 형산의 으뜸가는 봉우리. 기러기가 겨울에 이곳까지 왔다 가, 봄이 되면 북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553) 蘆花. 갈대꽃.
- 554) 浮萍. 개구리밥과에 딸린 물풀.
- 555) 魚龍. 물고기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
- 556) 평과에 딸린 작은 새로, 모양은 메추라기와 비슷하나 조금 큼.
- 557) 洞庭如天波始秋. 하늘처럼 맑고 넓은 동정호의 물결이 비로소 가을을 알리다.
- 558) 錦水秋波.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 559) 여기라.
- 560) 碧波. 푸른 물결.
- 561) 滄浪. 맑은 물결.
- 562) 地廣. 땅 넓이.
- 563) 波光. 물 빛깔.
- 564) 天一色. 하늘과 같은 색깔임.
- 565) 天外巫山の 十二峯.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566) 海外瀟湘. 바다 멀리까지 뻗은 소상강.
- 567) 眼下. 눈앞.
- 568) (동정호를 중심으로) 오나라는 동쪽으로, 초나라는 남쪽으로 넓게 자리잡았고, (호수에는) 이 세상이 밤낮 없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두보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의 한 구절로, 원문은 '오초동남탁(吳楚東南拓) 건곤일야부(乾坤日夜浮)'이다.
- 569) 南薰殿. 순임금이 짓고 살았다는 궁전.
- 570) 五絃琴. 줄이 다섯 개가 있는 옛날 중국의 현악기로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함.
- 571) 洛浦. 낙수 강가에 있는 포구. 낙수의 북쪽에 낙양이 있는데, 낙양에서 무관은 하루나 이틀 걸리는 거리임.
- 572) 武關囚의. '무관수'는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 573) 楚懷王. 초(楚)나라의 왕으로, 진나라의 소왕이 무관에서 만나자고 한 말을 믿고 갔다가 잡히고 말았음. 진나라는 회왕을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굴원이 벼슬을 하다가 참소를 입은 것이 이 때임.
- 574) 冤魂.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 575) 潛身하여. 몸을 물속에 잠그고.
- 576)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577) 萬鏡臺.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불명.
- 578) 鶴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 579) 七寶山. 중국 안휘성 무위현에 있는 산.
- 580) 崑崙峯. 산봉우리 이름.
- 581) 稽山罷霧鬱嵯峨. 안개가 걷히니 계산이 더욱 높아 보인다. 당나라 시인 하지장의 <채련곡(採蓮曲)>의 일절.
- 582) 鏡水無風也自波. 거울같이 맑은 물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물결이 일다.
- 583) 물이 깊은 모양.
- 584) 萬山. 온갖 산.
- 585) 鬱鬱. 나무가 뻗뻗하여 무성한 모양.
- 586) 落花. 떨어진 꽃.
- 587) 가볍게 물 위에 떠내려가는 모양.
- 588) 落落. 가지가 늘어진 모양.
- 589) (가로 퍼진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널찍한.
- 590) 뭉뚱한 다래나무.
- 591) 칠당굴.
- 592) 으뜸당굴.
- 593) 뱃나무.
- 594) 柑子. 감자나무의 열매. 감자나무는 굴과 비슷하나 열매가 굴보다 작음.
- 595) 갓은. 온갖.
- 596) 果木. 과일나무.

- 597) 굽이져.
- 598) 奔飛. 이리저리 날아다님.
- 599) 새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600) 江上. 강물 위의.
- 601) 때로 다니는 고니.
- 602) 少昊天子 紀官하던. ‘소호천자가 벼슬의 이름에 새의 이름을 붙이던 때와 같은 태평성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소호천자는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소호 금천씨(金天氏). ‘소호 금천씨’는 중국 고대의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의 아들로, 황제의 위에 오르자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으므로, 관직 이름에 새 이름을 붙였다고 함.
- 603) 萬壽門前의. 만수문 앞의.
- 604) 洋洋滄滄點點動. 넓고 넓은 바다 물결에 점점이 떠 움직임.
- 605) 사랑롭다. 사랑스럽다.
- 606) 烏鵲이. 까마귀와 까치.
- 607) 새 이름인 듯하나 불명.
- 608) 해오라기. 백로.
- 609) 너새. 기러기와 비슷하나 몸이 크고 부리가 짧음.
- 610) 징경이. 물수리라고도 하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 611)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
- 612) 萬壑千峰이요.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요.
- 613) 白沙地. 흰 모래사장.
- 614) 약간 휘우듬하게 구부러진.
- 615) 長松. 키가 큰 소나무.
- 616) 狂風. 사나운 바람.
- 617) 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몸 전체를 울동적으로 멋있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 618) 遠山. 멀리 있는 산.
- 619) 暗暗. 깊고 그윽함.
- 620) 近山. 가까이 있는 산.
- 621) 重重. 거둑거둑 또는 겹겹으로 되어 있는 모양.
- 622) 奇巖. 기이한 바위.
- 623) 層層. 층을 이루어 높이 쌓여 있는 모양.
- 624) 메아리.
- 625) 천 리나 되는 긴 시내.
- 626) 물줄기 따위가 끊이지 않고 흐르는 소리.
- 627) 모든 골짜기.
- 628) 한 곳으로.
- 629) 합수(合水)져. 물이 합쳐져.
- 630) 천방저 지방저 언덕저 구부저. 천방지축으로 언덕처럼 솟아오르고 굽이쳐.
- 631) 거품이 일어.
- 632) 병풍석(屏風石). 병풍처럼 생긴 바위.



- 633) 때려.
- 634) 大海水中. 큰 바다 물 가운데.
- 635) 거품.
- 636) 술 식혀 등이 괴어 끓어오르는 모양. 여기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거품이 끓어오르는 모양을 표현한 것임.
- 637) 바다 같은 넓은 물에 크게 움직이는 물결.
- 638) 크고 묵직한 물체나 몸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
- 639) 뒤틀려서 우그러져서.
- 640) 물결이 자꾸 흔들리는 모양. 여기서는 물속에 비친 산 그림자가 물결에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됨.
- 641) 어느 곳으로.
- 642) 가자는 말인가?
- 643) 여기로구나.
- 644) 雲層境. 구름이 층층이 쌓인 높은 곳.
- 645) 前後不見樹木處. 앞뒤가 안 보이는 나무가 우거진 곳.
- 646) 許多히. 매우 많이.
- 647) 生面不知. 태어나서 만나 본 적이 없어 전혀 모름.
- 648) 上座 다투.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투.
- 649) 舜임금.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
- 650) 南薰殿. 순임금이 정사를 보던 궁전.
- 651) 五絃琴. 순임금이 탔다는 줄이 다섯인 비파.
- 652) 蕭蕭鬼聲. 쓸쓸한 귀신 소리.
- 653) 岐山.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 고공단보가 도읍을 삼은 곳.
- 654) 鬱鬱하여. '울울'은 나무가 매우 배게 들어서 무성함. 여기서는 '매우 무성하여'라는 의미로 쓰였음.
- 655) 周文武. 주나라 문왕과 무왕. 문왕은 무왕의 아버지이며, 무왕은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고, 천하를 통일하여 주나라를 세웠음.
- 656) 계시고.
- 657) 萬古大聖. 세상에 다시 그 유례가 없는 대성인.
- 658)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 659) 길. 자기 키만큼의 길이.
- 660) 飢不啄粟. 배가 고파도 곡식을 먹지 않음.
- 661) 瀛州山.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 662) 천천히 기어가는 모양.
- 663) 瀟湘斑竹. 중국 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무늬가 있는 대.
- 664) 눈썹. 눈을 둘러싼 언저리.
- 665) 대가리. '머리'의 비어.
- 666) 根本. 자라온 환경과 경력.
- 667) 越王 句踐. 중국 춘추시대 말기의 월나라의 임금인 구천. 오나라의 부차(夫差)에게

- 패하여 회계산(會稽山)에서 항복을 했음. 그 후 명신 범려와 와신상담(臥薪嘗膽) 20년  
에 마침내 부차를 죽여 회계의 치욕을 씻고, 패자(霸者)가 되었음.
- 668) 彷彿. 거의 비슷함.
- 669) 山陰. 중국의 지명.
- 670) 王羲之(307?-365?). 중국 동진(東晉)의 서예가. 자는 일소(逸少). 그의 전아하고 힘차  
며 품위 있는 서풍은 일찍부터 안팎의 존경을 받았음.
- 671) 洗硯池. 벼루를 씻은 연못.
- 672)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673) 星稀. 별이 드문드문함.
- 674) 南飛. 남쪽으로 날아감.
- 675) 三國興亡. 위·오·촉 세 나라의 흥망.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가 지은 시 <단가행(短  
歌行)>의 “月明星稀 鳥鵲南飛 遶樹三匝 無枝可依(달은 맑고 별은 희미한 밤,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다)”를  
두고 한 말임. <단가행>은 패하여 도망칠 유비를 조롱하여 지은 것임.
- 676) 議論. 의논.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음.
- 677) 反哺恩. 까마귀의 새끼가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잡아다 주어, 길러준 은혜를 갚  
는 일.
- 678)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679) 心性.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
- 680) 不測하여. 미리 헤아릴 수 없어서. 엉금하고 껄쩍하여.
- 681) 守節寡婦.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 절개는 지키는 여자.
- 682) ‘오비이락(鳥飛梨落)’을 가리킴. ‘오비이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의심을 받게 됨을 이룸.
- 683) 罪狀. 죄의 구체적인 사실.
- 684) 滿座中. 사람들이 모든 좌석에 가득 앉은 가운데.
- 685) 作春秋에. 《춘추》를 지을 적에.
- 686) 絕筆. 붓을 놓고 글 쓰기를 그만둠.
- 687) 공자가 《춘추》를 엮을 적에, ‘노나라 애공이 사냥을 가서 …… 기린을 잡다(획린(獲  
麟))’라는 구절로 끝을 낸 데서 나온 말임. ‘획린’은 절필, 혹은 임종의 뜻으로 쓰임.
- 688) 三軍三營. ‘삼군’은 군대의 좌익, 우익, 중군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삼영’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통틀어 일컫는 말.
- 689) 舉動時. 임금님이 나들이를 할 때에.
- 690) 天子 玉輦. 임금이 타고 다니는 수레.
- 691) 玉京仙官. 신선이 사는 하늘나라의 벼슬아치. ‘옥경’은 도교에서 옥황상제가 있는 곳.
- 692) 乘匹. 타고 다님.
- 693) 出入風雲. 들어오고 나갈 때 바람과 구름을 일으킴.
- 694) 西伯. 주나라의 문왕.
- 695)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696) 非熊非豹.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기에 앞서 점을 쳤는데,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임금을 모실 훌륭한 신하를 만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는데, 이 점괘대로 문왕은 위수 북쪽에서 강태공을 만났음.
- 697) 太昊 伏羲氏. ‘태호’는 매우 밝다는 뜻. 따라서 복희씨는 덕이 높은 천자로서 매우 밝아 해나 달과 같다는 뜻. ‘복희씨’는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은 뱀이고, 얼굴은 사람으로, 소의 머리와 범의 꼬리를 가졌다고 함.
- 698) 羊犧牲. 희생으로 삼은 양. ‘희생’은 제사 때 마치는 산 짐승. 복희씨는 얼룩이 있는 소, 양, 돼지를 길러서 요리하여 제물로 삼았다고 한다.
- 699) 老羊. 늙은 양.
- 700) 少羊. 어린 양.
- 701) 滄海力士. 창해군이라고 하는 힘센 장사. 한 고조의 모사였던 장량이 젊었을 적 진시황을 죽이려고 창해군이라고 하는 장사를 만나 박랑사에서 시황이 탄 수레를 철퇴로 내리쳤으나, 실패했다고 함.
- 702) 博浪沙. 하남성 양무현(陽武縣)에 있는 지명. 여기서 장량이 창해군을 시켜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다 함.
- 703) 狙擊하던. 일정한 대상을 노려서 치던.
- 704) 다람쥐.
- 705) 江水東流猿夜聲. 강물은 하염없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원숭이만 밤에 구슬피 운다. 이태백의 시 〈양양가(襄陽歌)〉의 한 구절.
- 706) 원숭이.
- 707) 獾皮. 노랑담비의 모피. 또는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일컫는 말.
- 708) 돈피와 같은 말.
- 709) 麝香노루. 사향노루과의 포유류. 몸의 길이는 1미터, 어깨의 높이는 50cm 정도이며, 어두운 갈색이다. 꼬리는 어두운 갈색, 배는 흰색이고, 볼기와 귀, 눈 사이에 잿빛 얼룩무늬가 있다. 암수 모두 뿔이 없고, 수컷은 위턱에 짧은 송곳니가 밖으로 나와 있다. 배의 향주머니에 사향이 들어있다.
- 710) 날담비. 족제비과 담비속에 딸린 만주날담비와 목도리날담비의 속칭.
- 711) 길담비. 날담비에 이어서 기어다니는 담비라는 의미로 쓴 말. ‘담비’는 족제비과에 딸린 동물. 족제비와 비슷한데 조금 크고 빛깔이 고옴.
- 712) 멧돼지.
- 713) 年年이. 해마다.
- 714) 尊長. 일가친척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 715) 年齒. ‘나이’의 높임말.
- 716) 卽次로. 다음으로.
- 717) 手上手下. 나이나 항렬 따위가 위인 사람과 아래인 사람.
- 718) 갈라짐. 헤어짐.
- 719) 獐都監. ‘도감 벼슬을 하는 노루’라는 뜻으로, 노루를 의인화한 표현.
- 720) 騎鯨仙子. 고래를 타고 다니는 신선.

- 721) 나와.
- 722) 同接.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함.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관계.
- 723) 匡山. 이태백이 십 년 동안 글공부를 했다고 하는 중국 사천성에 있는 산.
- 724) 玉京. 도가에서 옥황상제가 있다는 신선 세계의 서울.
- 725) 昇天. 하늘로 올라감.
- 726) 微物. 보잘 것 없는 물건.
- 727) 微賤. 신분이나 지위 등이 하찮고 낮음.
- 728) 年甲. 나이가 같음.
- 729) 撻把撻. ‘파총 벼슬을 하는 너구리’라는 뜻으로, 너구리를 의인화한 표현임.
- 730) 비슷한 또래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 731) 銅雀臺. 중국 후한 건안 15년 겨울에 조조가 위나라 수도인 업(鄴)의 북서쪽에 지은 누대. 구리로 만든 봉황으로 지붕 위를 장식한 데에서 생긴 말이다.
- 732) 玉龍閣. 동작대의 우편에 크고 높다랗게 지은 집.
- 733) 金鳳樓. 동작대 좌편에 세운 누대.
- 734) 二喬女. 중국 삼국시대에 강동에 살던 교공의 두 딸인 대교와 소교를 가리키는데, 매우 예뻐했다고 한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주유가 손권의 형인 손책을 따라 완성을 칠 때 포로로 잡아 대교는 손책이, 소교는 주유가 차지했다. 본래 〈동작대부〉의 마지막 구절에 ‘연이교어동서혜(連二橋於東西兮)여 약장공지체동(若長空之蛟螭)’(동서로 다리를 이어놓으니, 마치 하늘에 뜬 무지개인 듯하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공명이 ‘攬二喬於東南兮 樂朝夕之與共(대교와 소교를 동남에서 데려와 밤낮으로 함께 즐기며 지내리라)’으로 쓸적 바꾸어 주유를 격노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이용한 것임.
- 735) 曹子建. 이름은 식(植). 조조의 아들로서 글재주가 뛰어나, 조조가 〈동작대부〉를 짓게 했음.
- 736) 〈동작대부(銅雀臺賦)〉. 동작대를 두고 조자건이 지은 시.
- 737) 韻하던. 읊던.
- 738)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 739) 맺돼지.
- 740) 거스러미 눈. ‘거스러미’는 나무의 결 같은 것이 얇게 터져서 일어난, 가시처럼 된 부분. ‘거스러미 눈’은 멧돼지의 눈썹이 가시처럼 거칠게 생겼기 때문에 이를 일컫는 말임.
- 741) 연이어 친철히 껌벅이는 모양.
- 742) 喇呷.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졌음.
- 743) 내두르고.
- 744) 저낭청(猪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돼지’라는 뜻으로, 돼지를 의인화한 표현.
- 745) 匈奴國. 흉노족이 세운 나라. ‘흉노’는 기원 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 746) 爲國忠節 十九年에 首髮이 盡白하여. 나라를 위해 충성스런 절개를 지킨 지 19년만에 머리털이 모두 희어져.
- 747) 허위적허위적. (벗어나거나 헤어나려고)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 748) 蘇中郎. 중랑장 벼슬의 소무(蘇武). ‘소무’는 한나라 때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으로

- 갔다가 잡혀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충절을 지키다, 19년만에 백발 노인이 되어 돌아왔음.
- 749) 漢 光武. 한나라 광무제. 후한을 세운 유수(劉秀).
- 750) 諫議大夫. 중국에서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정치의 득실을 논하던 벼슬아치.
- 751) 뜯구름.
- 752) 遮日. 햇벌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 753) 桐江의 七里灘. 중국 절강성 동로현에 있는 여울. 한나라 때 엄광(嚴光)이 여기서 낚시질을 하였다고 함.
- 754) 嚴子陵. 이름은 광(光)이고, 자롱은 그의 자(字)임. 후한을 세운 유수와 어려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후에 유수가 광무제가 되어 간의대부 벼슬을 내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숨어 살았음.
- 755) '시조(始釣)'는 낚시질을 시작함. 따라서 여기는 '시조와'를 빼버리고 '엄자롱과'로 해야 어법에 맞음.
- 756) 年齒. 나이.
- 757) 此山中. 이 산속.
- 758) 감추어진 일의 내용.
- 759) 號令聲. 호령하는 소리.
- 760) 混沌未分太極初. 우주가 생겨서 혼돈이 아직 태극으로 나뉘어지기 전의 태초.
- 761) 넓은.
- 762) 鑛石. 쇠붙이를 유리하게 채취할 수 있는 광물이나 또는 그 집합체.
- 763) 女媧氏. '여왜씨'는 복희씨(伏羲氏)의 누이동생으로, 복희씨 다음으로 임금이 되었는데, 제후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하늘 한 쪽이 부서져서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자, 돌을 다듬어 부서진 곳을 메우고, 거북의 다리를 잘라 사방의 기둥을 세웠다고 한다.
- 764) 療飢渴. 시장기를 면할 정도로 먹을 재료.
- 765) 실속 있게. 마음에 흡족하게.
- 766) 隱身. 몸을 숨김.
- 767) 방법이나 수단.
- 768) 水路萬里. 만 리나 되는 먼 물길.
- 769) 정도가 심하지 않고 약하게.
- 770) 生員. 일반 백성이 양반 선비를 부르던 말.
- 771) 前後不見初聞. 이전이나 이후에도 전혀 본 적 없이 처음 들음.
- 772) 榜. 어떤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나 많이 모이는 곳에 써 붙이는 글.
- 773) 八族. 모든 친인척. 보통은 '구족(九族)'이라고 한다. '구족'은 어머니 쪽인 외조부, 외조모, 이모의 자녀와 처족(妻族)인 장인·장모, 아버지 쪽인 고모의 자녀,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와 자기의 동족(同族)을 통틀어 이르는 말.
- 774) 長林. 길게 뻗어있는 숲.
- 775) 일록일록.
- 776) 두 팔을 벌려서 편 거리.

- 777) 잠두(蠶頭). 보통 산의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특 불거진 모양을 가리킴.
- 778) 箭筒. 화살을 넣는 통.
- 779)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메는 기구.
- 780) 석로 만든 냇.
- 781) 큰 모래.
- 782) 옆드려 있겠다.
- 783) 壯히. 매우. 씩.
- 784) 憂患. 근심이나 걱정거리.
- 785) 되더구만. 되더군.
- 786)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 787) 둥근 방석.
- 788) 생겼구나.
- 789) 한 가운데.
- 790) 잘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끈기 있게.
- 791) 견디어.
- 792) 거기가.
- 793) 百獸之長. 모든 짐승들의 어른.
- 794) 猛虎將軍. '사나운 호랑이 장군'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795) 自招災禍.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임.
- 796) 小魚. '작고 보잘 것 없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자라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797) 名色. 어떠한 명목으로 불리는 이름.
- 798) 자라탕.
- 799) '천남성'의 전라도 사투리. '천남성'은 여러해살이풀로 한약재로 쓰는데, 천남성과 중에서 큰천남성의 꽃은 독이 있다. 여기서 '천남생이'라고 한 것은 천남성이 남생이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다. 혹은 남생이의 한 종류를 가리킨 듯하다.
- 800)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801) 濕氣. 한의학에서 습한 기운을 이르는 말.
- 802) 單方藥. '단방약'은 한 가지 약재로 조제한 약.
- 803) 治痰治濕. 담과 습기를 치료함. '담'은 가래, 혹은 몸의 분비액이 큰 열을 받아서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일컫는 말.
- 804) 불에 태워.
- 805) 萬病回春.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806) 名藥. 효험이 좋은 이름난 약.
- 807) 부족하던가.
- 808) 客死죽음. 객지에서 죽는 죽음.
- 809) 北堂. 집의 북쪽에 있는 주부(主婦)가 거처하는 곳.
- 810) 鶴髮母親. 머리털이 하처럼 하얗게 센 어머니.

- 811) 옥빈홍안(玉鬢紅顏). 아름다운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 곧 젊은이의 모습.
- 812) ‘그만두어라’라는 뜻으로 쓰는 감탄사.
- 813) 悖術. 사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술수.
- 814) 움츠린.
- 815) 高聲. 큰 소리.
- 816)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 817) 鼈나리. 자라를 의인화하여 부른 이름. ‘나리’는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던 말.
- 818) 職品. 벼슬의 품계.
- 819) 壯히. 굉장히. 매우.
- 820) 생겼는고?
- 821) 頽落. (건물 따위가) 무너지고 떨어짐.
- 822) 重創. 낡은 건물을 헐거나 고쳐서 다시 지음.
- 823) 間. 건축물에서 사방 일곱 자(약 210cm) 내지 아홉 자(약 270cm) 평방의 넓이를 이르는 단위.
- 824) 기와나 볏짚, 이엉 따위로 지붕 위를 덮을 때.
- 825) 衝舌. 추녀.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 826) 名醫다려. 명의에게.
- 827) 돼지나 곰의 쓸개를 썰 때 쓰는 수효.
- 828) 卽效藥. 즉시 낫는 약.
- 829) 몸을 힘차게 소구치어 높이 떠올라.
- 830) 三角山.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 831) 거기에.
- 832) 匕首劍. 날카롭고 짧은 칼.
- 833) 뱅뱅 돌리는 일.
- 834) 五臟. 한의학에서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다섯 가지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 835) 無盡. 다함이 없을 만큼 매우.
- 836) 鼈主簿前에. 별주부 앞에.
- 837) 膝下. 아버지나 조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 838) 血肉. 자기가 낳은 자식.
- 839) 孫世. 자손의 늘어가는 정도.
- 840) 後悔莫及.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음.
- 841) 切痛.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함.
- 842) 我生然後에 殺他라고 하니. 내가 산 뒤에 남을 죽인다고 하니.
- 843) 휘어놓았지. 구부러지게 해 놓았지. 곧 굴복을 시켰다는 말.
- 844) 길게.
- 845) 인심 쓴 체하느라고.
- 846) 몽글렀다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가.

- 847) 달려가듯.
- 848) 鳥銃. 구식 장총.
- 849) 鐵丸. 처란. 잘게 만든 총알.
- 850) 楚歌聲. 초나라 노랫소리. 초한 시절에 항우와 유방이 해하성에서 싸울 때, 유방의 군대가 달밤에 초나라 노래를 구슬프게 불러, 항우의 군사들이 고향 생각에 모두 달아났다고 함.
- 851) 초패왕(楚霸王). ‘항우’를 달리 이르는 말. 진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이 되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852) 闌出. 함부로 경계 밖으로 나감.
- 853) 格으로. 형편에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로.
- 854) 江水. 강물.
- 855)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짐.
- 856) 지명인 듯하나 불명. ‘관문’의 의미로 보기도 함.
- 857) ‘천남성’의 전라도 사투리. ‘천남성’은 여러해살이풀로 한약재로 쓰는데, 천남성과 중에서도 큰천남성의 꽃은 독이 있다. 여기서 ‘철남생이라고 한 것은 천남성이 남생이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다. 혹은 남생이의 한 종류를 가리킨 듯하다.
- 858) 뽕죽한 끝을 약간 내밀어.
- 859) 조금 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양.
- 860) 그 사이에.
- 861) 쇠스랑처럼 봉우리가 세 개 있는 고개 이름인 듯.
- 862) 어울리지 않게 홀로 우뚝한 모양.
- 863) 壯談.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함. 또는 그 말.
- 864) 되니까.
- 865) 굳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굳었다’는 ‘죽었다’는 뜻.
- 866) 불명.
- 867) 아리네그려. (상처 따위가) 알알하여 찌르듯이 아프네그려.
- 868) 山中之靈物. 산 속의 신령스런 짐승.
- 869) 志氣. 의지와 기개.
- 870) 變化. 술법을 써서 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함.
- 871) 山祭. 산신제(山神祭). 산신에게 지내는 제사.
- 872) 碧溪水. 푸른 시냇물.
- 873) 淨히. 깨끗이.
- 874) 盤松가지.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가지.
- 875) 廣石岩上. 넓은 바위 위.
- 876) 가만가만 가볍게 계속해서 끌어내는 소리.
- 877) 秋風落葉.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 878)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879) 三色. 세 가지 색깔. ‘삼색과(三色果)’를 가리키기도 함. ‘삼색과’는 제사 지낼 때 상에 올려놓은 밤, 대추, 잣 또는 감을 이른다.



- 880) 左紅右白. 왼쪽 곧 동쪽에는 붉은색 과일, 오른쪽 곧 서쪽에는 흰색 과일을 놓는 제사 상 차림법.
- 881)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 882) 石間水.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
- 883) 祭酒. 제사에 쓰는 술.
- 884) 물고기 이름인 듯하나 불명. 다른 곳에서는 ‘은어 한 마리’로 부른다. 혹 생식 시기에 붉은 색을 띠는 피라미가 아닌가 생각됨.
- 885) 牛羊. 소와 양.
- 886) 代를 하고. 대신을 하고.
- 887) 席下에. 자리 아래에서.
- 888) 跪坐. 무릎을 꿇고 앉음.
- 889) 焚香再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을 함.
- 890) 讀祝. 축문을 읽음. ‘축문’은 제사 때에 읽어神明(神明)께 고하는 글.
- 891) 朔. 초하루. 축문에서 월건 다음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임.
- 892) 南海臣. 남해의 신하.
- 893) 敢昭告于山神國首傳하노니. 산신의 나라 우두머리 계신 곳에 감히 고하니.
- 894) 偶然得病하여. 우연히 병을 얻어.
- 895) 百藥. 온갖 약.
- 896) 問醫한즉. 의원에게 병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 897) 塵世兎肝. 이 세상 토끼의 간.
- 898) 非但身病之去根하고. 비단 몸의 병의 뿌리를 없앨 뿐만 아니라.
- 899) 兼且延年益壽云故로. 겸해서 또 수명을 더욱더 오래 늘여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 900) 渡越遠海三萬里하여. 먼 바다 삼만 리를 건너서.
- 901) 身躬纔到此山에. 내가 이 산에 도착하자마자.
- 902) 飛禽走獸. 날아다니는 새와 뛰어다니는 짐승.
- 903) 滿山往來. 산에 가득 오고감.
- 904) 本是. 본래.
- 905) 海中之所生. 바다 속에서 태어남.
- 906) 難辨兎者. 토끼를 분별하기 어려움.
- 907) 茲敢憫惻之情을 大綱 仰告하오니. 이에 감히 민망한 마음을 대강 우러러 고하오니.
- 908) 伏乞神靈下鑑主簿之忠하시어. 엎드려 비옵건대, 신령님께서는 별주부의 충성을 굽어 살피시어.
- 909) 此山中一介兎만. 이 산속 한 마리의 토끼만.
- 910) 卽以支給. 곧 내어주시기를.
- 911) 俾無後艱 더하여 후에 어려움이 없기를.
- 912) 謹以清酌. 삼가 맑은 술 한 잔으로.
- 913) 祇薦于神. 신께 공경하여 바칩니다.
- 914) 伏惟. 엎드려 삼가 생각하옵건대.
- 915) 常事. 아들이 부모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떳떳한 일이라는 뜻으로 《예기》에

나오는 말. 제문이나 축문의 끝에 상투어로 씀.

- 916) 尙饗. 신명이 제물을 받아 드시기를 비는 말. 흠향하시옵소서.  
917) 再拜. 두 번 절함.  
918) 至誠이면 感天이라.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리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말.  
919) ‘그림 靑宅瑤林中’으로 보면, ‘그림같은 푸른 산과 아름다운 숲속’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음.  
920) 耳目. 귀와 눈.  
921) 月中兔. 달 속의 토끼.  
922) 望月兔. 보름달 속의 토끼.  
923) 的實하니. 틀림없으니.  
924) 逢敗. 낭패를 당함.  
925) 매우 강하게.  
926) 발음을 해 보리라.  
927) 반가와라고.  
928) 거기.  
929) 사람이.  
930) 箕山. 중국 하남성에 있는 산. 요 임금이 소부와 허유가 숨어 산 곳.  
931) 潁水. 중국 하남성에 있는 강. 요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허유가 못 들은 말을 들었다고 하여 귀를 씻은 곳.  
932) 巢父. 중국 요임금 때의 이름 높은 선비. 속세를 떠나서 산의 나무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함.  
933) 許由. 중국 요임금 때 숨어서 살던 선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고, 도리어 못 들은 말을 들어 귀가 더러워졌다고 하여 영수에서 귀를 씻었다고 함.  
934) 支依하자고, 의지하자고. 다른 곳에서는 ‘피세가자고’로 부름. ‘피세가자고’는 ‘세상을 피해 숨자고.’  
935) 鷄鳴山. 중국 강소성의 남경 서쪽에 있는 산. 여기서는 한나라의 장량이 항우와의 싸움에서 부르게 한 〈계명가(鷄鳴歌)〉에서 음만 따온, 실제와는 상관없는 지명인 듯 하다.  
936) 항우와 유방의 마지막 싸움인 해하성 전투에서 장량은 통소를 불고, 병사들에게는 초나라 노래인 〈계명가〉를 부르게 했다고 함.  
937) 八千兵. 팔천 명의 군사. 항우가 처음 강동에서 8,000명의 군사로 일어났음.  
938) 흠어지게 함.  
939) 同意請兵. 군사를 요청한 데 동의함. 초한 시절 유방이 항우를 섬멸하려고 공격할 때 고릉(하남)에서 한신과 팽월을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자, 유방은 장량의 권유에 따라 초나라 땅을 한신에게, 양나라 땅을 팽월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다. 이에 한신과 팽월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다. 경포(黥布)도 뒤에 합세하여 대군으로 항우를 해하성까지 몰아넣어 무찔렀는데, 아마도 이 일을 가리킨 듯함.  
940) 桃花流水. 물 위에 뜬 복숭아꽃.

- 941) 무릉도원(武陵桃園). 도연명의 <도화원기(桃園記)>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도화원기>에 복숭아꽃잎이 흘러오는 곳으로 거슬러 가니 별천지가 있었다고 하였다.
- 942) 舉酒屬客. 술을 들어 손님에게 권하는 사람.
- 943) 商山四皓. 중국 진시황 때에 난리를 피하여 산시성(陝西省) 상산(商山)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 동원공, 기리게, 하황공, 녹리선생을 이른다. '호(皓)'란 본래 희다는 뜻으로, 이들이 모두 눈썹과 수염이 흰 노인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944) 緣分.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
- 945) 기우뚱거리고.
- 946) 初面. 처음 보는 것.
- 947) 鳥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 948) 듣는 이를 조금 낮추어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당신.
- 949) 通姓名.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 950) 거기는. 당신은.
- 951) 天上月宮. 하늘 위에 있는 달 속의 궁전.
- 952) 理陰陽順四時. 음양을 맡아서 사계절의 변화를 순조롭게 함.
- 953) 大小月. 크고 작은 달.
- 954) 바꾸며.
- 955) 禮部尙書.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956) 월중토(月中兔). 달 속의 토끼.
- 957) 搗藥醉中. 술에 취해 약을 찧다가.
- 958) 長生藥. 먹으면 오래 산다는 약.
- 959) 上帝前. 옥황상제께.
- 960) 得罪하여. 죄를 지어.
- 961) 此山中. 이 산속.
- 962) 謫下.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음.
- 963) 토명(兔名). 토끼라는 이름.
- 964) 반갑게.
- 965) 卽聞塵世之姓名하고 不遠千里而來러니. 금방 인간 세상의 이름을 듣고 천 리를 멀다 않고 왔더니.
- 966) 彼此. 나와 당신 모두.
- 967) 千萬夢外. 천만 뜻밖.
- 968) 久仰聲華. 훌륭한 명성을 오래 동안 우러러 봄. 첫인사에서 인사로 하는 말.
- 969) 본래는 '하상견지만만무고불측(何相見之晩晩無故不測)'(이렇게 늦게 만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음)인데, 우습게 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함.
- 970) 文章. 문장가. 글을 잘 쓰는 사람.
- 971) '文字질'인 듯. '문자질'은 '문자를 가지고 하는 일.'
- 972) 出嫁外人. 시집간 여자는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

- 973) 兩相和賣.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서로 잘 의논하여서 물건을 팔고 삼.
- 974) 法之不行은 長鼓동 속이요.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장구동 속처럼 시끄럽다는 뜻인 듯.
- 975) 牛耳讀經. 소 귀에 경 읽기. 둔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
- 976) 莫非王土. 임금의 땅이 아닌 곳이 없음.
- 977) 女必從夫. 여자는 반드시 지아비를 따라야 함.
- 978) 熟不還生. 한번 익힌 음식은 다시 날것으로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와 장만한 음식은 먹어 치울 수밖에 없다는 뜻.
- 979) 汝啗折角. 네 담(담장) 아니면 내 소뿔 부러졌겠느냐? 남에게 억지로 책임을 지우는 말.
- 980) 細毛防川. 가는 털 하나가 냇물을 막는다.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표현한 말.
- 981) 我歌查唱.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는 뜻으로, 꾸밈음이나 나무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큰소리를 침을 이르는 말.
- 982) 魚東肉西. 차릴 때 물고기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다 놓는 것을 이르는 말.
- 983) 紅東白西.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984) 左肺右醢. 말린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 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985) 焚香再拜. 향불을 피우고 두 번 절함.
- 986) 親查頓通家門. 친가와 사돈집이 서로 대문이 통해 있음. 그렇게 가깝다는 말.
- 987) 一口二言하는 耆는 三千億父之子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삼천억 명이나 되는 어머니의 아들이다.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를 과장해서 표현한 것임.
- 988) 구경을 하려고.
- 989) 도무지. 영.
- 990) 日暮黃昏. 저무는 황혼.
- 991) 月出東嶺. 산봉우리에 달이 뜬.
- 992) 塵世間.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속.
- 993) 綠水青山. 물과 푸른 산. 곧, 자연.
- 994)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995) 飽食. 배부르게 먹음.
- 996) 身如浮雲無是非. 몸이 뜬구름과 같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 없음.
- 997)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 998) 廬山. 중국 강서성 북부에 있는 지명. 여산의 동남쪽에 오로봉(五老峯)이 있음.
- 999) 五老峯. 여산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다섯 노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유래하였다고 함.
- 1000) 鎮國名山. 서울이나 성 뒤에 자리잡은 나라의 운수가 매여 있는 산.
- 1001) 萬丈峰.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높은 봉우리.
- 1002) '천외무산십이봉(天外巫山十二峯)'의 잘못된 뜻. '천외무산십이봉'은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라는 말.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1003) 三山. '삼산'은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1004) 중국에서 높은 산으로 일컬어지는 다섯 산인 오악(五嶽)을 가리킨 듯함. ‘오악’은 동악(東嶽) 태산(泰山. 산동성에 있음), 서악 화산(華山. 섬서성에 있음), 남악 형산(衡山. 호남성에 있음), 북악 향산(恆山. 산서성에 있음), 중악 숭산(嵩山. 직례성에 있음)을 이룸.
- 1005) 萬壑千峰.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 1006) 天台山. 중국 절강성에 있는 산.
- 1007) 蛾眉山.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산.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임.
- 1008) 首陽山. 중국 산서성의 남서쪽에 있는 산. 옛날 백이와 숙제가 여기서 굶어 죽었음.
- 1009) 東金剛. 동쪽의 금강산.
- 1010) 西九月. 서쪽의 구월산.
- 1011) 南智異. 남쪽의 지리산.
- 1012) 北香山. 북쪽의 묘향산.
- 1013) 遍踏. 두루 돌아다님.
- 1014) 巫山.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1015) 落照景. 해가 지는 광경.
- 1016) 陽谷. 해가 뜨는 골짜기.
- 1017) 日出景. 해가 뜨는 광경.
- 1018) 歷歷히. 환히 알 수 있도록 또렷하게.
- 1019) 登泰山小天下.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아 보인다’는 말로, 《맹자》에 나옴.
- 1020)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 1021) 大觀. 천하를 한 눈에 훑어 봄.
- 1022)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晉)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1023) 赤松子. 중국의 고대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 1024) 長生不老.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삶.
- 1025) 호화롭고 편안한 삶.
- 1026) 아주 뛰어난 미인.
- 1027) 眉間. 두 눈썹 사이.
- 1028) 火亡煞. 불에 의해 죽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 1029) 厄. 모질고 사나운 운수.
- 1030) 여덟이네.
- 1031) 八難世上. 여덟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팔난’은 여덟 가지의 괴로움이나 어려움.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란(兵亂)을 이른다.
- 1032) 相. 관상에서 얼굴이나 체격의 됃됨이.
- 1033) 初面에. 처음 얼굴을 대하는데.
- 1034) 迫切하게. 인정이 없고 쌀쌀하게.
- 1035) 一介 寒窶. 한 마리의 보잘 것 없는 토끼.

- 1036) 三春九秋. 봄 석 달과 가을 90일(석 달).
- 1037) 大寒. 24절기 중의 마지막 절후. 양력 1월 21일 경으로 일년 중 가장 추운 때임.
- 1038) 嚴冬. 아주 추운 겨울.
- 1039) 雪寒風. 눈 내리고 찬 바람 부는 추위.
- 1040) 萬壑에. 수많은 골짜기에.
- 1041) 千峰에. 수많은 산봉우리에.
- 1042) 花草木實. 꽃과 풀, 나무열매.
- 1043) 전혀 없어.
- 1044) 제법 어두운.
- 1045) 彩雲. 여러 빛깔로 아롱진 구름.
- 1046) 片月. 조각달.
- 1047) 武關四의.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 1048) 楚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 1049) 日月苦楚北海上 蘇中郎. 흉노 땅의 북해(카스피해)에서 날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한나라의 소무(蘇武). 소무는 흉노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갇은 고생 끝에 19년만에 늙어 돌아옴. ‘중랑’은 소무가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
- 1050) 三冬. 겨울 석 달.
- 1051) 碧桃紅杏. 벽도화(신선세계의 복숭아꽃)와 붉은 살구꽃.
- 1052) 春二月. 봄 이월.
- 1053) 口腹. 배속.
- 1054) 深谷深山. 깊은 골짜기와 깊은 산.
- 1055) 기어다닐.
- 1056) 올라가미.
- 1057)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
- 1058) 險山谷. 험한 산골짜기.
- 1059) 餓虎. 굶주린 범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험하거나 무서운 대상을 이르는 말.
- 1060) 松下에. 소나무 밑에.
- 1061) 충을 잘 쏘는.
- 1062) 불을 놓으려고. 충을 쏘려고.
- 1063) 倭物. 일본 물건.
- 1064) 鳥銃. 화승의 불로 터지게 만든 구식 총. ‘화승’은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 대의 속살을 꼬아 만든 것으로, 옛날 총열에 화약과 탄알을 채고 이 노끈에 불을 땡겨 귀약통에 대어 폭발시켰다.
- 1065) 藥. 화약.

- 1066) '대돈쫙잡이'인 듯. 다섯 돈의 무게가 나가는 것. '돈'은 무게의 단위로 약 3.75g
- 1067) 鐵丸. 처란. 잘게 만든 총알.
- 1068) 가운데 집어넣어.
- 1069) 불을 붙여.
- 1070) 쩡그리고.
- 1071) 실탄을 넣지 않은 총.
- 1072) 쏘니.
- 1073) 殷王成湯. 은나라 탕왕. '탕왕'은 중국 은나라의 초대 왕. 원래 이름은 이(履) 또는 대을(大乙). 박(亳)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상(商)이라 칭하였으며, 제도와 전례(典禮)를 정비하였다. 13년간 재위하였다.
- 1074) 樵童. 나무하는 아이.
- 1075) 赤壁江上戰敗하던. 적벽강에서 싸워 패하던. 중국 삼국시절에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과 조조가 적벽강에서 싸웠는데, 여기서 조조가 대패하였다.
- 1076)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자(字).
- 1077) 짧은.
- 1078) 꼬리.
- 1079) 巖上. 바위 위.
- 1080) 古石. 이끼 낀 오래된 돌.
- 1081) 입구멍.
- 1082) 쓴 냄새. 힘든 일을 표현하는 말.
- 1083) 밀구멍.
- 1084) 鳥銃. 농을 제. 조총을 쏠 때. '조총'은 화승총(火繩銃)을 가리킴. '화승총'은 화승(불을 붙게 하는 노끈)에 불을 붙여 쏘는 총.
- 1085) 朝生暮死.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는 죽음.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를 가리키는 말.
- 1086) 滿山風景. 온 산에 가득한 풍경.
- 1087) 무슨.
- 1088) 情. 마음. 정신.
- 1089) 遊山. 산으로 놀러다님.
- 1090) 景況. 정신적, 시간적 여유나 형편.
- 1091)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 1092) 내어 말을 하는가? '쫙다'는 '말하다'의 비어.
- 1093) 등에 진 짐. 여기서 '한 등짐'은 힘껏 등에다 짊어진 짐.
- 1094) 主簿公. 주부를 높여 이르는 말.
- 1095) 朋友有信. 벗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오륜의 한 가지.
- 1096) 追友江南.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로, 자기의 주견이 없이 남의 말에 아부하며 동조함을 이르는 말.
- 1097) 逆으로. 거꾸로.
- 1098) 壯觀. 훌륭하고 멋진 광경.

- 1099) 天壤之間. 하늘과 땅 사이.
- 1100) 海乃最大. 바다가 제일 큼.
- 1101) 萬物之中에. 세상의 온갖 사물 가운데.
- 1102) 神爲最靈. 신이 가장 신령스러움.
- 1103) 無邊大海. 끝이 없는 큰 바다.
- 1104) 間. 집에서 넓이를 재는 단위로, 대개 일곱 자(210cm) 평방, 또는 여덟 자(240cm) 평방, 아홉 자(270cm) 평방을 이룸.
- 1105) 주춧돌. 원주형으로 다듬어 만든 주춧돌. 둥근 기둥 밑에 받침.
- 1106) 珊瑚珠. 산호로 만든 구슬.
- 1107) 朱宮貝闕. 진주와 보배로운 조개로 만든 궁궐.
- 1108) 三光.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의 세 가지 빛.
- 1109) 袞衣繡裳. 고대 천자가 입던 수놓은 하의.
- 1110) 五福. 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복. 보통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이르는데,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貴)함과 자손이 중다(衆多. 많음)함을 꼽기도 한다.
- 1111) 卽位하시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 1112) 萬族. 온갖 족속.
- 1113) 貴示하고. 귀하게 여기고.
- 1114) 仰德. 덕을 우러러 봄.
- 1115) 鵬鵠(鸛鵠). 앵무조개의 껍데기를 가공하여 만든 술잔.
- 1116) 金盞. 금으로 만든 술잔.
- 1117) 千日酒.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맛 좋은 술.
- 1118) 千賓玉盤. 천 명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넓은 옥쟁반.
- 1119) 不老草.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약초.
- 1120) 유밀과의 하나. 강정을 만들 때 나오는 부스러기를 기름에 지져 조청으로 버무리며 둥쳐서 육면체로 썰거나 틀에 넣어 육면체가 되게 한 후, 여러 가지 색깔로 물을 들인다.
- 1121) 잡수신.
- 1122) 美色. 아름다운 여자.
- 1123) 風流. ‘멋’과 ‘맛’을 아는 일.
- 1124) 細樂手. 세악을 연주하는 군인. ‘세악’은 취타(吹打)가 아닌 장구, 북, 피리, 저, 해금 따위로 구성한 군악.
- 1125) 自言居水勝居山. 물에서 사는 것이 산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 말함.
- 1126) 瑤池. 중국의 전설 속의 선녀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는 연못.
- 1127) 群山. 산의 무리.
- 1128) 三千沙場. 삼천 개나 되는 수많은 모래밭.
- 1129) 弱水.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청조(靑鳥. 파랑새)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목왕(周穆王)께 전했다고 함.



- 1130) 月清明. 달은 맑고 밝음.
- 1131) 秋江上. 가을 강물 위.
- 1132) 漁笛소리.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 1133)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1134) 涇水. 중국 감숙성 화평현과 고원현의 두 곳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에서 위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 중국에서는 경수(涇水)·위수(渭水)·이수(伊水)·낙수(洛水)·한수(漢水)·소수(灋水)·상수(湘水)·장수(章水)·공수(貢水)를 구류(九流)라고 하고, 황하(黃河)·양자강(楊子江)·회수(淮水)·제수(濟水)를 사독(四瀆)이라고 하고, 절강(浙江)과 양자강을 이강(二江)이라 하고, 동정(洞庭)·청초(靑草)·단양(丹陽)·팽려(彭蠡)·태호(太湖)를 오호(五湖)라고 한다.
- 1135)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136) 洛水. 섬서성 정변현에서 비롯하여 위수와 합쳐져 황하로 들어가는 강.
- 1137) 淮水. 중국 대별산맥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양자강으로 들어가는 강.
- 1138) 漾津. 섬서성 반충산에서 비롯하여 흐르는 한수의 상류.
- 1139) 蒲津. 산서성에서 비롯하여 황하로 흘러가는 포수(蒲水)에 있는 나루인 듯하다.
- 1140) 彭蠡(彭蠡). 강서성에 있는 호수인 파양호의 옛 이름.
- 1141) 瀟湘. 호남성 동정호의 남쪽 영릉 부근으로, 소수와 상수가 합치는 곳. 주변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소상팔경(瀟湘八景)'으로 유명함.
- 1142) 或去或來.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함. 왔다 갔다 함.
- 1143) 赤壁江. 송나라 때의 문장가 소동파가 귀양가서, 음력 7월 16일 날 밤에 배를 띄우고 놀며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다고 하는 강. 호북성 황강현에 있음.
- 1144) 蘇子瞻. 송나라 대문호인 소동파(蘇東坡). '자첨(子瞻)'은 그의 자(字).
- 1145) 求仙하던. 신선 되기를 원하던.
- 1146) '유후(留候)'의 잘못인 듯. '유후'는 한나라 유방의 책사였던 장량이 '유' 지방에 책봉되었으므로 부르는 이름. 그런데 신선되기를 원했던 사람으로는 흔히 한 무제(漢武帝)를 일컫는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한무제'로 부른다. '한 무제(BC 159-BC 87)'는 전한(前漢)의 7대 왕으로, 유교를 국교로 하여 사상의 통일을 꾀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체제를 정비하고, 국토를 넓혀 대제국을 이루어놓기는 하였으나, 만년에는 장기간에 걸친 정복 전쟁의 결과 재정이 악화되고 사회불안이 더했다. 불사약을 구하려고 젊은 남녀 500명을 삼신산으로 보냈다고 한다.
- 1147) 愛月(愛月)하던. 달을 사랑하던.
- 1148) 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은 그의 자(字).
- 1149) 風神. 풍채(風采), 사람의 드러나 보이는 의젓한 겉모양.
- 1150) 龍虎大將. 용과 호랑이처럼 용맹한 장수.
- 1151) 勿失此機.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 1152) 一去. 한 번 가서.
- 1153) 口辯.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 1154) 不遠千里. 천리를 멀다 않음.
- 1155) 梁惠王. 중국 전국시대에 위(魏) 나라의 제후 앵(鶯)은 서울을 대량으로 옮기고 왕이

- 되었는데, 이가 해왕이다.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천하의 인재를 불러들였는데, 맹자도 그를 찾아간 적이 있다.
- 1156) 窮八十. 가난하게 살던 80년.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을 만나기 전 80년을 가난하게 살았고, 문왕을 만난 이후 80년은 부귀를 이루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를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라고 한다.
- 1157) 姜太公. 강태공은 속칭이며, 이름은 여상(呂尚)임. 중국 주나라의 재상으로 무(武)왕을 도와 은(殷)나라를 정벌하고 주(周)나라를 세웠음.
- 1158) 殷國. 은나라, 곧 상(商)나라.
- 1159) 岐周.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인 고공(古公)이 북쪽에서 쳐들어온 오랑캐를 피하여 자리잡은, 섬서성 기산현에 있는 기산 남쪽의 주원 지방을 가리키는데, 뒤에 무임금이 이 땅의 이름을 따서 국호를 주(周)라고 했다.
- 1160) 文王. 주나라의 기초를 닦은 명군. 덕치에 힘썼고, 상나라와 화평주의적 태도를 취했으며 제후들의 신뢰를 얻었다. 유가로부터 이상적 군주로 칭송받았다. 본명은 ‘창(昌)’이고, 별칭은 ‘서백(西伯)’이다.
- 1161) 貴히. 귀하게.
- 1162) 百里奚. 우리나라 출신이며 중국 춘추시대 진(秦)나라의 재상이다. 백리해가 초나라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오고양피(값비싼 양양의 가죽 다섯 장)를 주고 다시 찾아서 정치를 맡겼으므로 오고대부(五穀大夫)라 불렀음. 백리해가 정치를 잘하여 진나라는 패자가 되었고, 태평했음.
- 1163) 穆公. 성은 영(嬴), 이름은 임호(任好)이다. 덕공(德公)의 셋째 아들로 춘추 5패의 한 사람이다. 백리해 등을 등용해서 국정을 정비하고, 동으로는 하서(河西)를 빼앗고 서로는 서융(西戎)을 쳐서 패자(霸者)가 되어 국세가 급격히 발전하였다. 정(鄭)을 치려다가 진(晉)의 공격을 받아 패배, 그 실패를 뉘우치고 ‘진서(秦誓)’를 만들어 보복하였다.
- 1164) 秦國. 진나라.
- 1165)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섰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나라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때 그는 ‘교토사구쟁(狡兔死走狗烹,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1166) 蕭何. 한나라 고조 유방의 참모, 명재상. 강소성 출생. 장량(張良), 한신(韓信), 조참(曹參)과 함께 고조의 공신 중의 한 사람.
- 1167) 양금양금.
- 1168) 遠路水邊. 물가까지의 먼 길.
- 1169) 여우.
- 1170) 어리석은지고. 어리석구나.
- 1171) 燕人. 연나라 사람. 전국시대 말 연나라 사람이었던 형가를 가리킴.
- 1172) 荊軻. 중국 전국시대 자객. 연(燕)나라의 태자 단(丹)을 위해 진왕(秦王) 정(政)을

- 죽이려다가 도리어 진왕에게 죽음. 진왕 정은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으로  
고쳐 불렀음.
- 1173) 易水寒風. 역수의 찬 바람. '역수'는 중국 하북성에 있는 강 이름. 형가가 진왕 정을  
죽이려고 떠날 때, 태자 단과 친구들이 나와서 전송한 곳임.
- 1174) 壯士一去. 장사가 한번 떠남.
- 1175)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176) 暮雲間. 저녁 무렵의 노을 속.
- 1177) 帝女. 황제의 딸. 여기서는 요임금의 두 딸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가리킴. 아황  
과 여영은 순임금의 왕비가 되었는데, 순임금이 남쪽 지방을 순시하다가 창오산에서  
죽자, 그곳으로 달려가 피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따라 죽었다고 한다.
- 1178) 年年春草. 해마다 다시 나는 봄풀.
- 1179) 王孫. 왕의 자손.
- 1180) 歸不歸. 가서 돌아오지 못함. 즉 한 번 죽어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이룸.
- 1181) 수궁은 곧.
- 1182) 危邦. 위험한 나라.
- 1183)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음.
- 1184) 亂邦不居.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않음.
- 1185) 큰일 날 뻔하였구나.
- 1186) 청미래당굴의 열매. '청미래당굴'은 백합과의 낙엽 활엽 덩굴성 관목. 줄기는 마디마  
디 굽으면서 2-3미터 자라고 가시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원형 또는 넓은 타원형으  
로 덩굴손이 있다.
- 1187) 日前에. 며칠 전에.
- 1188) 水邊. 물가.
- 1189) 風神. 풍채(風采). 사람의 드러나 보이는 의젓한 겉모양.
- 1190) 虎班. 무반(武班). 군에 적을 두고 군사 일을 맡아보는 관리.
- 1191) 藥房. '내의원(內醫院)'을 가리킴. '내의원'은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던 관청.
- 1192) 都提調. 조선시대에 자문기관에 설치한 자문 명예직. 여기서는 내의원의 도제조를  
가리킴. 정일품 정승을 지낸 사람이나 정승을 임명하였으나 실무에 종사하지는 않  
았음.
- 1193) 輔國.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는 조선시대에 둔 정일품 문무관  
의 벼슬. 고종 2년(1865)부터 문무관, 종친,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함께 사용  
하였다.
- 1194) 無任. 맡은 일이 없음.
- 1195) 御前. 임금님 앞.
- 1196) 棍杖. 예전에, 죄인의 불기를 치던 형구. 또는 그 형벌.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었다.
- 1197) 度. 횡수.
- 1198) 逐出. 쫓아냄.
- 1199) 듭니다그러.

- 1200) 발걸음.  
 1201) 두 손.  
 1202) 두 손에 든 지팡이란 뜻으로, 두 가지가 비슷하여 선택하기 어려움을 뜻함.  
 1203) 水邊. 물가.  
 1204) 발목까지 물이 차면.  
 1205) 허리까지 차는 물.  
 1206) 점잖으면서.  
 1207) 南海水邊. 남해의 물가.  
 1208) 細雨中. 가랑비가 오는 가운데.  
 1209) 滔滔汨汨. 넘실넘실.  
 1210) 秋江. 가을 강.  
 1211) 風月. 청풍(淸風)과 명월(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곧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가로 읊음, 혹은 그 지은 시.  
 1212) 泛彼滄波. 저 푸른 물결 위에 뚝뚝 뜸.  
 1213) 淸江. 맑은 강.  
 1214) 無限景. 끝이 없는 아름다운 경치.  
 1215) 白鷗더러. 갈매기더러. 갈매기에게.  
 1216) 蕭蕭寒風秋夜月. 쓸쓸하게 찬바람 부는 가을 달밤.  
 1217) 行하느냐? 가느냐?  
 1218) 瀟湘. 소상강.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  
 1219) 洞庭. 동정호. 중국 호남성(湖南省) 동북쪽에 있는 호수. 상강, 자수(資水)강, 원강(沅江) 따위가 흘러들며, 호수 안에는 악양루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다.  
 1220) 旅館寒燈. 여관의 찬 등불.  
 1221) 萬里淸江. 만 리나 되게 긴 맑은 강.  
 1222) 廬山. 중국 강서성 북부에 있는 지명. 여산의 동남쪽에 오로봉(五老峯)이 있음.  
 1223) 東南. 동남쪽.  
 1224) 신탄을 넣지 않은 총.  
 1225) 쏘니.  
 1226) 相尅. 음양오행설에서 '金은 木를, 木은 土를, 土는 水를, 水는 火를, 火는 金을 이김'을 이르는 말.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화, 비장은 토, 간장은 목, 신장은 수, 폐장은 금에 결부시키고, 그 상호간의 관계를 억제하는 것을 상극이라고 함.  
 1227) 萬歲同樂. 만 년 동안이나 오래오래 같이 즐김.  
 1228) 반가와 하여.  
 1229) 곁으로 뺀 가지.  
 1230) 사람 키만큼의 길이.  
 1231) 舉動. 몸을 움직이는 태도.  
 1232) 거머쥐어 잡고.  
 1233) 어찌할 수 없이.  
 1234)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 1235) 두 물체를 맞대고 걸쳐서 붙여.
- 1236) 萬頃蒼波. 만 이랑의 푸른 물결이라는 뜻으로,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이르는 말.
- 1237) 無邊大海. 끝이 없는 큰 바다.
- 1238) 瀟湘八景.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에 있는 상강과 소수 주변의 여덟 가지 아름다운 경치. 산시청람(山市晴嵐), 어촌석조(漁村夕照), 소상야우(瀟湘夜雨), 원포귀범(遠浦歸帆), 연사만종(煙寺晚鐘), 동정추월(洞庭秋月), 평사낙안(平沙落雁), 강천모설(江天暮雪)을 이른다.
- 1239)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 1240) 물건이 공중이나 바다에 떠 있는 모양.
- 1241) 茫茫. 넓고 아득함.
- 1242) 滄海. 넓고 큰 바다.
- 1243) 蕩蕩한. 넓고 큰 물살이 힘찬.
- 1244)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 1245)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 1246) 三江. 삼강은 중국에 있는 송강, 전당강, 포양강의 세 강.
- 1247)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 1248)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 1249)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 1250) 이것이지만.
- 1251) 曲終人不見. 노래가 끝나고 사람은 보이지 않음.
- 1252) 數峯. 몇몇 산봉우리.
- 1253)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젓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 1254) 나를 두고, 나 때문에.
- 1255) 長沙. 중국 호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 1256)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사람으로,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장사왕(長沙王)과 양(梁) 나라 회왕(懷王)의 태부가 됨. 굴원의 닛을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 1257)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湘江)으로 들어 감. 중국 전국시대 굴원이 주위의 참소를 당하고 분함을 못 이겨 빠져 죽은 곳.
- 1258)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을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다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경〉을 짓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 1259)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 1260) 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인사말로 쓰임.
- 1261)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장현의 서쪽의 황학산에 있는 누각.
- 1262)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的使人愁는 崔灝의 遺蹟이요.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시름만 더해 준다'는 시구는 당나라 때 시인 최호가 남긴 자취요. 최호가 쓴 〈황학루〉의 끝 구절. 최호는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 1263)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 1264) 三山은 半落青天外요, 二水中分白鷺洲.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 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이수'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섬.
- 1265)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늙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1266)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 1267) 一去後에. 한번 간 뒤에. 죽은 후에.
- 1268)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 1269)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270) 蘇東坡. 송나라 시인으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 이름은 식(軾), 동파(東坡)는 호임. <적벽부(赤壁賦)>로 유명함.
- 1271) 依舊하여. 옛과 같이.
- 1272)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호임.
- 1273) 一世之雄. 한 시대의 영웅.
- 1274) 而今에 安在哉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 1275)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 1276) 姑蘇城外. 고소성 밖. '고소성'은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1277)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1278) 쇠로 된 북소리. 곧 종소리.
- 1279) 客船에. 나그네가 탄 배에.
- 1280)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1281) 隔江. 강을 건너서.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음.
- 1282) 商女들. 술 파는 여인들.
- 1283) 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 1284) 煙籠寒水月籠沙한데.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데.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의 한 구절.
- 1285) 後庭花. 중국 남북조시대 진(秦)나라의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1286) 여기는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를 변형한 것임. 원문은 다음과 같다. 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

- 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  
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 1287) 岳陽樓. 중국 호남성 악양현에 위치한 누대. 당나라 때에 세워졌으며, 아름다운 동정  
호의 조망으로 유명한 곳임.
- 1288) 湖上에. 호수 위에.
- 1289) 巫山.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  
고 함.
- 1290) 洞庭湖. 중국 호남성(湖南省) 동북쪽에 있는 호수. 상강, 자수(資水)강, 원강(沅  
江) 따위가 흘러들며, 호수 안에는 악양루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다.
- 1291) 上下天光. 위와 아래(곧 호수에 비친 하늘과 하늘에 있는)의 하늘빛.
- 1292) 여기서는 맑은 동정호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1293) 蒼梧山. 중국 호남성 영원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구의(九疑)라고도 함. 순임금이  
이곳에서 죽었음.
- 1294) 黃陵廟.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我皇)과 여영(女英)을 모신 사당.
- 1295) 三峽. 중국 사천, 호북 두 성의 경계에 있는 양자강 종류의 좁은 골짜기. 무산(巫山)  
산지(山地)의 침식으로 세 협곡이 이어져, 예로부터 유명한 경승지임.
- 1296) 원승이.
- 1297) 遷客.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귀양 간 사람.
- 1298) 騷人. 시인 또는 문사(文士).
- 1299) 八景. 소상팔경(瀟湘八景)을 이름. '소상팔경'은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 언덕의 소수  
와 상강이 모이는 곳에 있는 여덟 가지의 아름다운 경치. 평사낙안(平沙落雁)·원포  
귀범(遠浦歸帆)·산시청람(山市晴嵐)·강천모설(江天暮雪)·동정추월(洞庭秋月)·  
소상야우(瀟湘夜雨)·연사만종(煙寺晚鐘)·어촌석조(漁村夕照).
- 1300) 樓閣.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
- 1301) 白玉. 흰 빛깔의 옥.
- 1302) 懸板. 글씨나 그림을 새겨 벽이나 문 위에 다는 널조각.
- 1303) 黃金大字. 황금색의 큰 글자.
- 1304)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게.
- 1305) 照耀. 밝게 비쳐 빛남.
- 1306) 廣闊하여, 막힌 데가 없이 트이고 넓어.
- 1307) 別世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의 다른 세상.
- 1308)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런 모양.
- 1309) 景概. 경치.
- 1310) 東. 동쪽.
- 1311) 一輪紅. 붉게 떠오르는 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312) 一髮青山. 한 가닥의 머리카락처럼 가물가물 보이는 산. 송나라 문인 소식의 시 〈정  
매역통조각(澄邁驛通潮閣)〉의 한 구절인 '청산일발시중원(青山一髮是中原)'에서 따  
온 말.
- 1313) 翡翠色. 비취옥의 빛깔과 같이 곱고 짙은 푸른색.

- 1314) 大鳳. 큰 봉황새.
- 1315) 飛盡. 높이 날.
- 1316) 弱水三千里. 삼천 리나 되는 약수. '약수'는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청조(靑鳥, 파랑새)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목왕(周穆王)께 전했다고 함.
- 1317) 壯히. 매우 씩.
- 1318) 白礫灘. 희고 푸른 여울. '청산기주백록탄(靑山夔洲白礫灘)'(청산에 살면서 섬과 희고 푸른 여울을 두려워함)의 잘못.
- 1319) 呂洞賓. 당나라 때 사람으로 호는 순양자(純陽子). 64세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강호를 떠돌았는데, 목숨을 연장하는 술법을 배워 여덟 명의 신선 중 하나로 일컬어짐.
- 1320) 蘇東坡. 중국 북송의 문인(1036-1101). 자는 자첨(子瞻). 호가 동파.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서화에도 능하였다. 작품에 〈적벽부〉, 저서에 《동파전집(東坡全集)》 등이 있다.
- 1321) 張騫. 중국 전한(前漢) 때의 외교가(?-BC 114). 자는 자문(子文). 인도 통로를 개척하고, 서역 정보를 가져와 동서의 교통과 문화교류의 길을 열었다.
- 1322) 飛翔天. 하늘로 날아올라 감.
- 1323) 別有天地. 특별히 다른 세계(별천지)가 있음.
- 1324) 한 句. 한 구절.
- 1325) 山林遊客이 到龍宮허니, 四海風光이 入眼中이라. 숲속에서 놀던 손님이 용궁에 도착하니, 사방의 바다 경치가 눈 안에 들어오는구나.
- 1326) 藍輿.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 승지나 참의 이상의 벼슬아치가 탔다.
- 1327) 伏地奏曰. 땅에 엎드려 아뢰어 말함.
- 1328) 塵世.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 1329) 現身.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처음으로 뵈.
- 1330) 반갑게.
- 1331) 萬里塵世. 만 리나 멀리 떨어진 인간들이 사는 세상.
- 1332) 聖德. 임금의 덕을 높여 이르는 말.
- 1333) 一介甞. 한 마리 토끼.
- 1334) 生擒. 산 채로 잡음. 사로잡음.
- 1335) 待命. 윗사람의 명령이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
- 1336) 奇特타. 기특하다.
- 1337) 主簿之忠. 별주부의 충성.
- 1338) 御酒. 임금이 주는 술.
- 1339) 致賀.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다.
- 1340) 死地. 죽을 지경의 매우 위험하고 위태한 곳.
- 1341) 事不如意. 일이 뜻대로 안 됨.



- 1342) 調. 품격을 높고 깨끗하게 가지려는 행동.
- 1343) 드러나니.
- 1344) 百計無策. 어려운 일을 당하여 온갖 계교를 다 써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함.
- 1345) 江神河卒. 강의 신과 냇물에 사는 병졸. 강에 사는 큰 물고기와 냇물에 사는 작은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 1346) 別軍職. 조선 시대에, 별군직청에 속하여 임금을 호위하며 죄인을 잡아내는 일을 맡아 보던 무관 벼슬.
- 1347) 도루묵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25cm 정도이고 옆으로 편평하며, 등은 누런 갈색이고 배는 흰 은빛이다.
- 1348) '바다모지리'라는 뜻인 듯. '모지리'는 '송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송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1349) 龜參軍. '원'은 자라이며, '참군'은 정철품, 혹은 종철품 무관 벼슬. 따라서 '원참군'은 '자라 참군'이란 의미로 지어낸 이름.
- 1350)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1351) 靑絲. 빛깔이 푸른 실. 여기서는 '술'을 가리킴. '술'은 가마, 기(旗), 끈, 띠, 책상보, 옷 따위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 1352) 紅絲. 붉은 색 실. 여기서는 '술'을 가리킴. '술'은 가마, 기(旗), 끈, 띠, 책상보, 옷 따위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 1353) 한쪽 끝을 감아 고리뿔을 달고 다른 쪽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배목(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등글게 구부려 만든 고리 걸쇠)에 걸도록 만든 쇠. 흔히 문짝을 잠그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걸어 끼운다.
- 1354) 腰下. 허리 아래.
- 1355) 비스듬히.
- 1356) 거기.
- 1357) 三伏.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삼복'은 여름철의 몹시 더운 기간.
- 1358) 약을 넣어 끓인 개장국.
- 1359) 잘랑을 만들어 장만하니. '잘랑'은 개잘랑으로, 방석처럼 깔려고 털이 붙어 있는 채로 가공한 개가죽을 이룸.
- 1360) 先看目後看足. 먼저 눈을 보고, 뒤에 발을 본다는 말로, 말을 고르는 방법.
- 1361) 腰短項長千里馬로다. 허리가 짧고 목이 긴 것이 하루에 천 리를 간다는 천리마로다.
- 1362) 燕人도 五百金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연나라 사람도 오백금을 주고 죽은 뼈를 사갔으니. 연나라 소왕(昭王)이 괘외에게 어진 신하를 구하는 법을 묻자, 괘외가 말하기를, "옛날 어느 왕이 신하에게 천금을 주면서 천리마를 사오라고 했는데, 그 신하는 오백금을 주고 죽은 말 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연유를 묻자, 죽은 말의 뼈도 오백금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 살아있는 천리마라면 얼마를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 좋은 말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져 천리마를 세 마리나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어진 신하를 구하고 싶으시면 우선 저부터 쓰십시오. 그러면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자 과연 인재들이 연나라로 몰려들었

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임.

- 1363) 大王前에. 임금님 앞에.  
1364) 千金賞. 많은 돈을 주는 상.  
1365) 塗炭에. 진흙과 숯불에.  
1366) 頭皮. 잡은 소의 머리와 가죽.  
1367) 足. 잡은 소의 네 다리.  
1368) 소의 밥통을 고기로 이르는 말.  
1369) 회쳐 먹는 간.  
1370) 되새김질하는 위의 세 번째 것으로, 잎 모양의 많은 조각이 있음.  
1371) 厚薄없이.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공평하게.  
1372) 꾸며 만들고.  
1373) 牛黃.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는 노란 색깔의 단단한 물체. 한약재로 쓰임.  
1374) 重한. 무거운. 많은.  
1375) 朱杖대. 주릿대나 무기로 쓰이는 붉은 칠을 한 몽둥이.  
1376) 星火. 유성이 떨어질 때의 불빛을 가리키는 말로, 몹시 급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77) 무엇을 들어 힘차게 내던져.  
1378) 반가와 하여.  
1379) 偶然得病. 우연히 병을 얻음.  
1380) 必死之境. 반드시 죽을 지경.  
1381) 卽效. 약이 곧 효과가 있음.  
1382) 왔느니라. 왔다.  
1383) 一介. 보잘 것 없는 하나.  
1384) 綠林草臣. 푸른 숲속에 사는 미천한 신하.  
1385) 水府.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전설 속의 궁전.  
1386) 어떠한가?  
1387) 勘葬. 장사 치르는 일을 끝마침.  
1388) 漆槨. 옷칠을 칠한 관. ‘곽’은 관을 넣기 위해 따로 짜 맞춘 매장 시설.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1389) 精히.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게.  
1390) 藏風. 풍수지리에서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는 지형지물  
1391) 向陽. 햇볕을 마주 받음.  
1392) 明堂. 풍수지리에서,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뗏자리나 집터.  
1393)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1394) 正朝. 설날 아침.  
1395) 寒食. 명절의 하나. 동지가 지난 뒤 105일이 되는 날인데, 4월 5일이나 6일 쯤 든다. 한식날은 중국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이 날은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1396) 端午. 명절의 하나로 음력 오월 오일.

- 1397) 年年이. 해마다.
- 1398) 愚者千慮에 必有一得.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천 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가지 얻는 게 있다는 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을 하면 그 과정에서 한 가지쯤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1399) 넌지시.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 1400) 顏色. 얼굴빛.
- 1401) 시치미를 뚝 떼어 걸으로는 아무렇지 아니한 듯이.
- 1402) 淮陰. 중국 강소성 중부에 있는 도시. 수운이 발달하여 북쪽의 밀과 남쪽의 쌀의 집산지였음.
- 1403)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섰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나라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때 그는 ‘교토사주구팽(狡兔死走狗烹.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1404) 蕭何. 한나라 고조 유방의 참모, 명제상. 강소성 출생. 장량(張良), 한신(韓信), 조참(曹參)과 함께 고조의 공신 중의 한 사람.
- 1405) 巴蜀. 서촉(西蜀)이라고도 하는데 파촉이란 지금의 중경(重慶)을 중심으로 한 파국(巴國)과 성도(成都)를 중심으로 한 촉국(蜀國)을 합한 지명으로, 현재의 사천성(四川省) 전역에 해당된다.
- 1406) 漢王. 한나라 왕. 곧 한 고조 유방(劉邦)을 가리킨.
- 1407) 窮八十. 가난하게 살던 80년.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을 만나기 전 80년을 가난하게 살았고, 문왕을 만난 이후 80년은 부귀를 이루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를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라고 한다.
- 1408) 姜太公. 강태공은 속칭이며, 이름은 여상(呂尚)임. 중국 주나라의 재상으로 무(武)왕을 도와 은(殷)나라를 정벌하고 주(周)나라를 세웠음.
- 1409) 文王.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 이름은 창(昌). 강태공을 모사로 삼고 국정을 바로잡아 국력을 길러 천하의 반을 통일하였음.
- 1410) 南陽.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1411) 諸葛亮. 자는 공명(孔明). 시호 충무(忠武). 낭야군 양도현(琅玕郡陽都縣. 지금의 산둥성 기수현) 출생.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 겸 전략가. 명성이 높아 와룡선생이라 일컬어졌다. 오의 손권과 연합해 남하하는 조조의 대군을 적벽의 싸움에서 대파하고, 형주와 익주를 점령했다. 그 후에도 수많은 공을 세웠고, 221년 한의 멸망을 계기로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재상이 되었다.
- 1412) 玄德.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제1대 황제(제위 221-223) 유비(劉備)의 자(字). 관우·장비와 결의형제하였으며, 제갈량을 모사로 맞아들였다. 220년 조비가 한나라 헌제의 양위를 받아 위의 황제가 되자, 221년 그도 제위에 올라 한의 정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국호를 한(漢, 蜀漢)이라 하였다.
- 1413) 粉骨碎身하지. ‘분골쇄신’은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순다는 뜻으로, 정성으로 노

- 력함을 이르는 말.
- 1414) 秋毫.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415) 欺罔. 남을 속여넘김.
- 1416) 時日曷喪. 해가 언제 사라질까.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폭군인 걸(桀)이 자기를 해라고 했으므로, 폭정을 못 이긴 백성들이 빨리 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함.
- 1417)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들.
- 1418) 貪虐한. 욕심이 많고 포악한.
- 1419) 商紂임금. 상나라, 곧 은(殷)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紂)를 말함.
- 1420) 聖賢. 성인과 현인.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
- 1421) 일곱 개의 구멍.
- 1422) 比干. 은나라 때의 충신. 주(紂)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다 죽임을 당했음.
- 1423) 낮게 하고.
- 1424) 伏願. 엎드려 바랍.
- 1425) 詳察下屬. 하속을 자세히 살핌. '하속'은 하인배를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그저 아랫 사람 정도의 의미로 쓰였음.
- 1426) 奸巧. 간사하고 교활함.
- 1427) 醫書. 의술을 적은 책.
- 1428) 脾受病則口不能食. 비장(지라)에 병이 나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함.
- 1429) 膽受病則舌不能言. 쓸개에 병이 나면 혀로 말을 하지 못함.
- 1430) 腎受病則耳不能聽. 신장(콩팥)에 병이 나면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함.
- 1431) 肝受病則目不能視. 간에 병이 나면 눈으로 보지 못함.
- 1432) 但知其一이요 未知其二로소이다. 단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십니다.
- 1433) 伏羲氏.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은 뱀이고, 얼굴은 사람으로, 소의 머리와 범의 꼬리를 가졌다고 함.
- 1434) 蛇身人首. 몸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의 형상.
- 1435) 神農氏.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며, 성은 강(姜)임.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와 약사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 1436) 人身牛首.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형상.
- 1437) 길고.
- 1438) 몽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1439) 玉體. 사람의 몸을 높여 부르는 말.
- 1440) 털이 보드랍게 복슬복슬 난 상태를 이르는 말.
- 1441)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1442) 간은 곧.

- 1443) 月輪精氣. 달의 정기.
- 1444) 생겼기 때문에.
- 1445) 들어 넣습니다.
- 1446) 病客. 아픈 사람.
- 1447) 언뜻하면. 무엇이 잠깐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 1448) 침으로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 만든 끈.
- 1449) 동여.
- 1450) 瀛州. 영주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 1451) 石上. 바위 위.
- 1452) 맨 끄트머리에다가.
- 1453) 桃花流水. 복숭아꽃이 떠오르는 시내.
- 1454) 玉溪邊. 맑은 시냇가.
- 1455) 濯足하리. 발을 씻으리.
- 1456) 玩景次. 구경하러.
- 1457) 왔습니다.
- 1458) 옮겨.
- 1459) 出入하는. 들고 내고.
- 1460) 標. 표시.
- 1461) 빨간.
- 1462) 구멍.
- 1463) 셋이. 세 개가.
- 1464) 來歷. 지금까지 지내온 경로나 경력.
- 1465) 任意로. 마음대로.
- 1466) 밀구멍. 밑에 있는 구멍.
- 1467) 萬物始生. 만물이 처음 생김(생겼을 때에).
- 1468) 東方三八木. 풍수지리설에서 오행의 하나인 목(木)은 천수(天數) 3과 지수(地數) 8이 모여서 생겼으며, 동쪽을 가리킨다.
- 1469) 南方二七火. 오행의 하나인 화(火)는 천수(天數) 2와 지수(地數) 7이 모여서 생겼으며, 남쪽을 가리킨다.
- 1470) 西方四九金. 오행의 하나인 금(金)은 천수(天數) 4와 지수(地數) 9가 모여서 생겼으며, 서쪽을 가리킨다.
- 1471) 北方一六水. 오행의 하나인 수(水)는 천수(天數) 1과 지수(地數) 6이 모여서 생겼으며, 북쪽을 가리킨다.
- 1472) 中央五十土. 오행의 하나인 토(土)는 천수(天數) 5와 지수(地數) 10이 모여서 생겼으며, 중앙을 가리킨다.
- 1473) 天地陰陽. 온 세상의 음양.
- 1474) 四時精氣. 사계절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
- 1475) 五色光彩. 다섯 가지 색깔의 찬란한 빛.
- 1476) 應하여. 받아서.

- 1477) 내기 때문에.
- 1478)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나아 살아남.
- 1479) 名藥. 이름난 약.
- 1480) 콧구멍.
- 1481) 나더러.
- 1482) 이야기를.
- 1483) 돼지나 곰의 쓸개를 셀 때 쓰는 수효
- 1484) ‘보’가 돼지나 곰의 쓸개를 셀 때 쓰는 수효이므로, ‘보째’는 한 덩이 전체를 이르는 말.
- 1485) 卽瘥. 병이 바로 나음.
- 1486)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여기서는 ‘두 사람 모두’라는 의미.
- 1487) 兩合. 둘이 서로 마음이 일치함.
- 1488) 晩時之歎. 기회를 놓쳐 뒤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1489) 할아버지.
- 1490) 遊山遊水. 산과 물로 놀러 다님.
- 1491) 沐浴次. 목욕을 할 차례로. 목욕을 하려고.
- 1492) 失足. 발을 헛디딤.
- 1493) 漢武帝. 중국 전한의 제7대 왕. 묘호는 세종(世宗).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흉노를 외몽골로 내쫓는 등 여러 지역을 정벌하였으며,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동서 교류를 왕성하게 하였다. 재위 기간은 기원 전 141-87년이다.
- 1494) 臣. 신하.
- 1495) 遊山. 산으로 놀러다님.
- 1496) 難忘. 잊기 어려움.
- 1497) 東方朔. 전한(前漢) 때의 사람. 자(字)는 만천(曼倩). 무제를 섬기어 금마문시중이 되었으며, 해학과 변설에 능하였음.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죽지 않고 장수하였으므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일컬음.
- 1498) 儉食. 국가나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나 곡식을 도둑질하여 먹음.
- 1499) 三千甲子. 육십갑자의 삼천 배. 곧 18만 년을 이른다.
- 1500)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501) 씻었더니.
- 1502) 窮八十. 어렵게 산 80년. 강태공은 80년을 어렵게 살다가 후에 80년을 출세하여 부귀하게 살았다고 함.
- 1503) 呂尙. 주나라의 정치가 강태공. ‘여’는 그에게 봉해진 영지 이름이며, ‘상’은 이름이다. 주나라의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 1504) 낚시질.
- 1505) 飢渴. 목마름.
- 1506) 滋甚. 더욱 심함.
- 1507) 達八十. 높이 되어 부귀를 누린 80년. 강태공은 80년을 어렵게 살다가 후에 80년을 출세하여 부귀하게 살았다고 함.

- 1508)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晉)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1509) 赤松子. 중국의 고대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 1510) 長生不老.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삶.
- 1511) 簞食水飧. 잡수시면.
- 1512) 萬萬歲. 만만 년. 곧 아주 오랜 세월.
- 1513) 속아서.
- 1514) 解縛. 결박을 풀.
- 1515) 殿上. 궁전의 자리 위.
- 1516) 居陽界. 양계에 삶. '양계'는 육지 세계를 수중 세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1517) 處水府. 수부에 있음. '수부'는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전설 속의 궁전.
- 1518) 不相通涉. 서로 사귀어 오고가지 못함.
- 1519) 彼此. 저와 나. 나와 너.
- 1520) 千萬夢外로세.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로세.
- 1521) 美色. 아름다운 여자.
- 1522) 鰈魚. 청어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20-30cm이고 옆으로 납작하며, 등은 검푸른색, 배는 은백색이고, 비늘에 짙은 갈색 무늬의 점줄이 있다.
- 1523) 跪坐. 꿇어앉음.
- 1524) 冬淸春酒. '동정'은 본래 '동온하정'이란 말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한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어 효도함을 이르는 말. 여기서는 그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함'이란 의미로 썼음. '춘주'는 청명(淸明, 24절기의 하나로 4월 5일 무렵.)에 담은 좋은 술.
- 1525) 惶恐對曰. (위엄이나 지위에 눌리어) 두려워하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 1526) 過麥田大醉. 밀밭을 지나가면 밀 냄새만 맡고도 크게 취(醉)한다는 뜻으로, 술을 도무지 마시지 못한다는 말.
- 1527) 寡人.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 1528) 遼海萬里. 만 리나 떨어진 먼 곳에 있는 바다.
- 1529) 正히. 진정으로. 꼭.
- 1530) 事此不避. 이 일을 피할 수 없음.
- 1531) 日常. 늘.
- 1532) 二三盃. 두세 잔.
- 1533) 발목까지 차는 물.
- 1534) 風流. 음악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
- 1535) 狼藉.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움.
- 1536) 王子 璠.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뒤에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날아갔다고 전함.
- 1537) 鳳피리. 왕자 진이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 듯함.
- 1538) 郭處士. 당나라 무종 때의 곽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곽도원은 격구(擊甌)라는

-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539)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나라 질장구와 비슷해서 그렇게 말한 듯함.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밥을 담은 큰 놋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서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540) 成蓮子.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인.
- 1541) 張良.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 장량(張良). 해하 싸움에서 달밤에 옥통소를 구슬프게 불어 초나라 항우의 군사들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겼음.
- 1542) 嵇康.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숙야(叔夜)이며,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
- 1543) 奚琴. 깡강이를 아악에서 이르는 이름.
- 1544) 阮籍.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으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인물. 자(字)는 사종(嗣宗)이며, 하남(河南) 사람이다.
- 1545) 擊鼙鼓 吹籥笛. 악어 가족으로 만든 북을 치고, 용의 울음소리를 내는 피리를 불다. 당나라 때 시인 이하(李賀)의 시 <장진주(將進酒)>에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는 '취용적 격타고'로 되어 있다.
- 1546) 凌波詞. 당나라 현종이 꿈속에서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을 깬 뒤에 지었다는 노래.
- 1547)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548) 羽衣曲. 당나라 현종이 지은 노래.
- 1549) 採蓮曲. 중국 양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당나라 24악곡 중의 하나인 <강남릉(江南弄)> 속에 들어 있는 악곡.
- 1550) 風樂. 우리나라 고유의 옛 음악.
- 1551) 어긋나게 딛고.
- 1552) 藥丸레라. 약이로구나.
- 1553) 渭水邊. 위수의 물가. '위수'는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로 강태공이 낚시질을 하던 곳.
- 1554) 窮八十達八十. 가난하게 살던 80년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80년.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을 만나기 전 80년을 가난하게 살았고, 문왕을 만난 이후 80년은 부귀를 이루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를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라고 한다.
- 1555) 東方朔. 자는 만천(曼倩). 산둥성 염차 사람. 막힘이 없는 유창한 변설과 재치로 한무제(漢武帝)의 사랑을 받아 측근이 되었다. '익살의 재사'로 많은 일화가 전해진다. 속설에 서왕모(西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였다 하여 '삼천 갑자 동방삭'으로 일컬어졌으며, '오래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그 뜻이 바뀌어 쓰인다
- 1556) 팔의 난알만큼.
- 1557) 三千甲子. 삼천 번의 갑자. 한 갑자는 60년이므로, 삼천갑자는 180,000년임.
- 1558) 長生不老.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삶.
- 1559) 患候. 웃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 1560) 千千萬萬歲. 천천만만년. 아주 오랜 세월.
- 1561) 靑布帳. 푸른 색의 포장. 버들가지가 우거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1562) 柳綠帳. '버들의 푸른 장막'이란 뜻으로, 여류가 되어 우거진 버드나무 숲을 가리킴.



- 1563)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옆으로 퍼져.  
 1564) 우쭐우쭐. 크게 울동적으로 자꾸 움직이는 모양.  
 1565) 노구술. 아무데나 옮겨서 걸고 쓸 수 있는 술.  
 1566) 질그릇의 하나. 흔히 물 길는 데 쓰는 것으로, 보통 둥글고 배가 부르고 아가리가 넓으며 양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  
 1567) '노고지리'는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동시에 '노구술을 지리'라는 뜻을 담고 있음.  
 1568) 자꾸 체신없이 까불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1569) 망둥이.  
 1570) 헐거워져 이리저리 움직이는.  
 1571) 물 따위가 물결을 이루며 자꾸 흔들리는 소리.  
 1572) 君子.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  
 1573) 君子는 可欺以其方이라. 군자는 그럴 듯한 방법으로 남을 속일 수 있음이라. 《맹자》의 〈만장〉편에 나오는 말임.  
 1574) 見知離逝. (이방의 풍속을) 보고 알았으면 멀리 떠나야 한다.  
 1575) 上策. 가장 좋은 대책이나 방법.  
 1576) 伏地奏曰. 땅에 엎드려 아뢰어 말함.  
 1577) 간 덩이.  
 1578) 定命. 변경하지 못할 명령. 따라서 '정명하니'는 '변경하지 못할 명령을 내려놓으니' 정도의 의미.  
 1579) 惶恐對曰. (위엄이나 지위에 놀리어) 두려워하며 대답하여 말함.  
 1580) 遠海三万里. 삼만 리나 멀리 떨어진 바다.  
 1581) 孟獲. 남만의 왕으로, 서기 225년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익주를 침입하였으나, 제갈량이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자 제갈량에게 항복하였다.  
 1582) 七縱七擒.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줌.  
 1583) 孔明. 제갈량(諸葛亮).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181-234). 자(字)는 공명(孔明). 시호는 충무(忠武).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의 위(魏)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다. 유비가 죽은 후에 무향후(武鄉侯)로서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 중에 병사하였다.  
 1584) 智謀. 슬기로운 꾀.  
 1585) 至重하거늘. 지극히 무겁거늘.  
 1586) 欺瞞. 남을 속여 넘김.  
 1587) 商紂. 상나라의 주임금. 상나라 마지막 임금으로 폭정을 일삼다가 주나라 무왕에 의해 망했다.  
 1588) 比干. 은나라 때의 충신. 주(紂)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다 죽임을 당했음.  
 1589) 칠구(七竅). 사람의 얼굴에 있는 일곱 개의 구멍. 귀, 눈, 코에 각 두 개씩 있으며 입에 하나가 있다. 여기서는 그냥 '일곱 개의 구멍'이라는 의미. 폭군 주가 성인의 뱃속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면서 비간의 배를 갈라 죽였다고 함.

- 1590) 未久에. 오래지 않아서.
- 1591) 亡國. 나라가 망함.
- 1592) 水路萬里. 만 리나 되는 먼 물길.
- 1593) 冤鬼. 원통하게 죽어 한을 품고 있는 귀신.
- 1594) 染病.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1595) 時病. 때에 따라 유행하는 전염성 질환.
- 1596) 퍼진다면.
- 1597) 살 것을.
- 1598) 너희.
- 1599)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관리.
- 1600) 滅殺. 다 죽여 없앴.
- 1601) 상대편의 분수에 맞지 않는 희망이나 꿈에 대하여 비웃거나 조롱할 때 쓰는 말.
- 1602) 여기 있다.
- 1603) 舉動. 몸을 움직이는 태도.
- 1604) 妖妄한. 언행이 방정맞고 경솔한.
- 1605) 邪鬼. 사악한 귀신.
- 1606) 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함. 이랬다 저랬다 함.
- 1607) 어살. 물고기를 잡는 장치. 싸리, 참대, 장나무 따위를 개울, 강, 바다 따위에 날개모양으로 둘러치거나 꽃아 나무 울타리를 친 다음 그 가운데에 그물을 달아두거나, 길발, 깃발, 통발과 같은 장치를 하여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도록 한다.
- 1608) 定配出送. 유배를 정하여 내보냄.
- 1609) 下命. 명령을 내림.
- 1610) 어찌할 수 없어.
- 1611) 二水. 양자강의 지류인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키는 말.
- 1612)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 1613) 三山.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1614) 青天外에. 푸른 하늘 밖에. 푸른 하늘 멀리.
- 1615) 日落長沙秋色遠한데 부지하처조상군(不知何處弔湘君)고. 해는 긴 모래밭에 떨어지고 가을 산빛은 아득한데, 어디서 상군을 조문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태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에 있는 구절.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 1616) 舉手. 손을 위로 들어 올림. 찬성과 반대, 경례 따위의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
- 1617) 揖.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 1618) 相距千里.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천 리나 됨.
- 1619) 何以至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십니까?
- 1620) 對曰. 대답하여 말함.
- 1621) 回足青山하니 觀不過諸觀이요, 濯足無臨하니 殆不過鳳凰이라. 素無知識하여 流魅平生이라. 청산으로 발길을 돌려 돌아오니 경치마다 정겨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고,

- 더러운 발이 이르지 않아, 봉황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세상이라.  
본디 이는 게 없어 (별주부에게 속아 용궁에 갔다가) 도깨비가 되어 평생을 떠돌  
뻘했다.
- 1622) 飽聞江上之興味하고 吾眼風景之到此로다. 물 위의 흥미를 싫증나도록 많이 듣고 내  
눈으로 풍경을 보며 여기에 이르렀다.
- 1623) 其人. 그 사람.
- 1624) 涕泣長歎曰. 눈물을 흘리고 길게 탄식하며 말함.
- 1625) 君不見 三閭大夫 魚腹之葬魂인가? 그대는 삼려대부가 물고기의 뱃속에 장사지낸 것  
을 못 들었는가? 곧 삼려대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을 가리킴. '삼려대부'는 중국 전국  
시대의 초나라 사람으로 성은 굴(屈), 이름은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대부  
의 벼슬자리에 있다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경〉을 짓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 1626) 以忠事君. 충성으로 임금을 섬김.
- 1627) 時運. 시대나 그때의 운수.
- 1628) 永不出世. 영원히 세상에 나가지 못함.
- 1629) 서러운.
- 1630) 上天日月. 하늘 위의 해와 달.
- 1631) 吟風明月. 바람과 밝은 달을 읊음. 곧 자연의 경치를 읊은 시가.
- 1632) 文章才士. 글을 잘 쓰는 사람과 재주 있는 선비.
- 1633) 千古之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풀지 못한 원한.
- 1634) 帝高陽之苗裔兮 朕皇考曰伯庸이라. 고양 임금의 후손이여, 내 아버지는 백용이라  
고 하셨다. '고양'은 중국 고대 제왕 전욱(顓頊)의 칭호. 전욱의 후손 웅역이 주나라  
때 초나라에 봉해졌고, 또 그 후손 하(瑕)가 굴읍(屈邑)에 봉해져 굴을 성으로 썼는데,  
굴원은 하의 후손이다. 굴원이 쓴 〈이소〉의 첫 구절이다.
- 1635) 惟草木之零落兮 恐美人之遲暮로다. 풀, 나무의 시듦을 생각하고, 미인의 늙어감을  
두려워하네. 여기서 '미인'은 초나라 회왕에 대한 사모의 정을 표현한 것임. 〈이소〉에  
있는 구절.
- 1636) 舉世皆濁이든 我獨淸하고, 衆人皆醉이든 我獨醒이라. 온 세상이 흐린데 나만  
혼자 맑고, 못 사람이 모두 취해 있는데, 나만 혼자 깨어 있다. 굴원이 쓴 〈어부사(漁  
父辭)〉에 있는 구절.
- 1637) 悵然히. 몹시 서운하고 섭섭하게.
- 1638) 萬古忠臣. 오랜 세월을 걸쳐 이름을 날릴 충신.
- 1639) 屈原.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 사람으로 성은 굴(屈), 이름은 평(平), 자(字)는 원(原)  
이다. 삼려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경〉을 짓  
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 1640)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 1641)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642) 蘇子瞻. 송나라 때 문인인 소동파(蘇東坡). 〈적벽부〉를 썼음.
- 1643) 泛舟遊. 를 띄우고 놀다.

- 1644) 東山上. 동쪽 산 위.  
 1645) 斗牛間. 북두칠성과 견우성 사이.  
 1646) 徘徊.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님.  
 1647) 白鷺橫江. 백로가 강을 가로질러 감.  
 1648) 笑指蘆花月溢船. 웃으며 손가락으로 흰 갈대꽃과 달빛이 가득찬 배를 가리킴.  
 1649) 秋江. 가을 강.  
 1650) 騎鯨仙子. 고래를 탄 신선, 곧 이태백을 가리킴.  
 1651) 空明月之團團. 빈 하늘엔 밝은 달만 둥글다.  
 1652) 還山弄明月. 산중으로 돌아와 밝은 달을 보며 즐김.  
 1653) 遠海近山. 바다는 멀고, 산은 가까움.  
 1654)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1655) 漁釣하던. 낚시질하던.  
 1656) 姜太公. 주나라 때 사람으로, 문왕을 만나 등용되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음.  
 1657) 岐周. 창 의 할아버지인 고공(古公)이 북쪽에서 쳐들어온 오랑캐를 피하여 자리잡은, 섬서성 기산현에 있는 기산 남쪽의 주원 지방을 가리키는데, 뒤에 무임금이 이 땅의 이름을 따서 국호를 주(周)라고 했다.  
 1658) 銀鱗玉尺. 비늘이 은빛처럼 번쩍번쩍하고 모양이 좋은 큰 물고기.  
 1659) 碧海水邊. 푸른 바닷가.  
 1660) 모르는 채하고.  
 1661) 碧溪邊. 푸른 시냇물가.  
 1662) 任意로. 마음대로.  
 1663)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1664) 까마귀와 까치.  
 1665) 綠林間. 푸른 숲 속.  
 1666) 간덩이.  
 1667) 絕壁上에. 절벽 위에.  
 1668) 烏鵲. 까마귀와 까치.  
 1669) 보چه. 덩어리째.  
 1670) 속아서.  
 1671) 高石山. 높은 바위 산.  
 1672)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  
 1673) 칩덩굴.  
 1674) 올라가미.  
 1675)害코자. 해치고자.  
 1676) 잡아당겨라.  
 1677) 힘 있게 위로 끌어올려 들고.  
 1678) (무엇을 가볍게) 자꾸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  
 1679) 함부로 마구 때려놓으니.

- 1680) 落落長松.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 1681) 鼈哥놈. 별이라는 성씨를 가진 놈.
- 1682) 東風. 동쪽에서 부는 바람. 봄바람.
- 1683) 陰乾. 그늘에서 말림.
- 1684) '죽어라'의 속된 말.
- 1685) 자라탕. 자라를 넣고 끓인 탕.
- 1686) 나무.
- 1687) 뵙니다.
- 1688)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 1689) 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함. 이랬다 저랬다 함.
- 1690) 옥의 일종. '발기다'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헤쳐 발리다.'는 말이므로, '발기를 갈 너석'은 '찢어 죽일 너석' 정도의 의미.
- 1691) 너희.
- 1692) 슬기롭기.
- 1693) 나와 같고.
- 1694) 어찌할 수 없이.
- 1695) 밀구멍.
- 1696) 셋이. 세 개가.
- 1697) 아니었더라면.
- 1698) 白雲靑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1699) 그 자리에서 바로.
- 1700) 약화제(藥和劑). 약방문(藥方文).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재의 종류와 분량을 적은 글.
- 1701) 복. 참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 몸이 뚱뚱하고 등지느러미가 작으며, 이가 날카로움. 고기는 맛이 좋으나 내장에 독이 있어 중독될 염려가 있음.
- 1702) 梧子大. 오동나무 열매만큼 큰 덩이.
- 1703) 丸. 환약(丸藥).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동글동글하게 빚은 약.
- 1704) 無時服. 때를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약을 먹음.
- 1705) 加味虛浪湯. '허랑'은 말이나 행동이 허황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고, '가미'는 원방에다 다른 약재를 섞은 한약을 말함. '가미한 허랑탕'이라는 이름으로 우습게 지어 붙인 이름.
- 1706) 月經水. 월경으로 나오는 피.
- 1707) 作末. (썰거나, 갈거나 뺑아서) 가루로 만들.
- 1708) 왼쪽 눈의 눈물.
- 1709)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 1710) 그림자.
- 1711) 아무지게 이를 갈 때 나는 소리. 여기서는 이를 악물고 힘을 쓸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것임.
- 1712) 제.

- 1713) 거드럭거리고. 거만스럽게 잘난 체하며 자꾸 버릇없이 굴고.
- 1714) 正朝. 설날 아침.
- 1715) 寒食. 명절의 하나. 동지가 지난 뒤 105일이 되는 날인데, 4월 5일이나 6일 쯤 든다. 한식날은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이 날은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 1716) 端午. 음력 오월 오일.
- 1717) 엎드려 있을.
- 1718) 파리의 일종.
- 1719) 쉬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쉬파리라는 뜻으로 쉬파리를 의인화한 표현.
- 1720) 이제.
- 1721) 파리의 알.
- 1722)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깔겨 주면.
- 1723) 來歷. 지금까지 지내온 경로나 경력.
- 1724) 뒤집어놓으면.
- 1725) (줄을) 굿거나 접거나 한 자리.
- 1726) 日月. 해와 달.
- 1727) 여기서는 ‘작은 손가락’이라는 의미.
- 1728) 天地人. 하늘과 땅과 사람.
- 1729) 三才. ‘삼재’는 음양설에서 세계의 근본이 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컫는 말.
- 1730) 집게손가락.
- 1731) 가운뎃손가락.
- 1732) 無名指. 약손가락.
- 1733) 小指. 새끼손가락.
- 1734) 짧기.
- 1735) 子午卯酉.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네 요소. 곧, 자는 북쪽,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유는 서쪽.
- 1736) 乾坎艮震巽離坤兌. 《주역》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쳐서 나타내는 팔괘의 상(象).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 1737) 先天八卦. 주나라 문왕이 만든 후천팔괘와 함께 주역의 근본이 되는, 복희씨가 만든 팔괘.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 1738) 坎中連. 팔괘의 하나인 감의 상형.
- 1739) 艮上連. 팔괘의 하나인 간의 상형.
- 1740) 六道記文. 불교에서 중생이 지은 죄에 따라서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여섯 세계, 곧 지옥, 마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 대해 적은 글.
- 1741) 大藏經. 일체의 불경을 모두 모아놓은 것.
- 1742) 一掌中이라. 손바닥 하나 속에 있다.
- 1743) 많다고 한들.

- 1744) 手段.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솜씨와 꾀.
- 1745) 同類. 나이나 신분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사람.
- 1746) 엮드려 있는데.
- 1747) 樵童들. 땔나무를 하는 아이들.
- 1748) 太古라 天皇氏는 木德으로 王하셨으니. 먼 옛날 천황씨라는 분이 나타나 목덕(木德. 金木水火土의 오행 가운데 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靑에 가까운 기운을 이룸)으로써 임금이 되었으니.
- 1749) 나무.
- 1750) 人皇氏. 중국 전설상의 세 황제 중 한 사람.
- 1751) 分掌九州. 아홉 주를 나누어 맡음. 인황씨의 아홉 형제들이 아홉 개의 지방을 나누어 다스렸다고 함.
- 1752) 困하게. 가난하고 괴롭게.
- 1753) 三台六卿. 삼정승과 육판서. 높은 벼슬아치들.
- 1754) 網罟이. 노끈으로 그물을 뜨듯이 얹은 물건. 또는 그런 그물.
- 1755) 深山窮谷. 깊은 산 깊은 골짜기.
- 1756) 몸을 잔뜩 움츠려.
- 1757) 可憐한지고. 가엽고 불쌍하구나.
- 1758) 爲父母保妻子息. 부모를 위하고 자식을 보호함.
- 1759) 極盡恭待. 그 이상 더할 수 없이 마음을 다하여 공손하게 잘 대접함.
- 1760) 그물에 걸렸구나.
- 1761) 끌어내려고.
- 1762) '쉬 회(會)를 부쳤다'는 말은 쉬들의 모임을 소집했다는 뜻으로, 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표현한 말.
- 1763) '비추'는 남녀의 생식기를 뜻하는데 주로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고, '아버'는 아버지의 낮춤말이니, 결혼한 사람을 낮추어 속되게 일컫는 말인 듯.
- 1764) 목소리가 높은.
- 1765) 냄새.
- 1766) 어디에다.
- 1767) 調. 품격이나 인품.
- 1768) 文字.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한자로 된 숙어나 성구(成句) 또는 문장.
- 1769) 此所謂. 이것이 이른바.
- 1770) '똥구시로고'인 듯. 똥구시로구나. '똥구시'는 변소.
- 1771) 死地. 죽을 땅. 죽을 곳.
- 1772) 寬大長者. 성품이 너그럽고 점잖은 사람.
- 1773) 劉邦.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
- 1774) 나만한가?
- 1775) 蘇秦. 중국 전국시대 중엽의 유세가. 하남성 낙양 사람으로 장의(張儀)와 함께 귀곡선 생에게 배웠다. 처음에 진(秦)나라의 혜왕(惠王)을 비롯하여 제후 밑에서 유세를 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BC 333년 연나라에서 초나라에 이르는 남북선상(南

北線上)의 6국의 합종에 성공하여 혼자서 6국의 재상의 인장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무안군(武安君)이라 칭하여 이름을 떨쳤다. 이 때문에 동방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던 진나라는 십수 년간 그 진출을 저지당했다. 그러나 그의 합종책은 장의의 연횡책(連橫策)에 패배하여 실패했다.

- 1776) 張儀.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모사. 소진의 주선으로 진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어 혜문왕 때 재상이 되었다. 연횡책을 주창하면서, 위 · 조 · 한나라 등 동서로 잇닿은 6국을 설득, 진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관계를 맺게 하였다.
- 1777) 口辯. 말을 잘하는 제주나 솜씨.
- 1778) 三國時. 삼국 때. 한나라 말엽 위, 오, 한(촉) 세 나라가 천하를 다투던 시절.
- 1779) 戰國時. 중국의 전국시대. 중국 역사에서, 춘추 시대 다음의 기원전 403년부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 약 200년간의 과도기. 여러 제후국이 패권을 다투었던 동란기로 ‘전국 칠웅’이라는 일곱 개의 제후국이 세력을 다투었으며, 제자백가와 같이 학문의 중흥기를 이루었고, 토지의 사유제와 함께 농사 기술의 발달 따위로 화폐가 유통되기도 하였다.
- 1780) 불명.
- 1781) 아슬아슬함.
- 1782) 映山紅綠. 붉고 푸른 산빛이 비침.
- 1783) 넘노는 것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나는 것이.
- 1784) 桃花. 복숭아꽃.
- 1785) 山影水色. 산 그림자와 물빛.
- 1786) 그리고.
- 1787) 春光春色. 봄철의 경치나 분위기.
- 1788) 옛말에.
- 1789) 거드럭거리고. 거만스럽게 잘난 체하며 자꾸 버릇없이 굴고.
- 1790) 거머쥐어 들고.
- 1791) 얻었구나.
- 1792) 療飢渴. 시장기를 면할 재료.
- 1793) 六珍味. 여섯 가지 맛있는 음식. 보통은 팔진미라고 한다. ‘팔진미’는 중국에서 성대한 음식상에 차린다고 하는 진귀한 여덟 가지의 음식으로 차린 맛 좋은 음식.
- 1794) 다담(茶啖).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차리는 차와 과자 따위.
- 1795) 이보다.
- 1796) 鴻門宴. 진나라 끝 무렵에, 하남성의 상구현(商丘縣)과 우성현(虞城縣)의 경계에 있는 홍구(鴻溝)의 군문(軍門)에서, 항우가 유방을 불러다 죽이려고 벌인 잔치. 항우는 범증(范增)의 권유에 따라 유방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유방은 장량(張良)의 피로 변괘(樊噲)를 데리고 달아나 목숨을 구했음.
- 1797) 竹物床. 대나무로 만든 상.
- 1798) 내장.
- 1799) 억지로 만들어내는데.
- 1800) 서럽지 않지만.



- 1801) 意思중치. 의사주머니. 생각주머니.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듯함.
- 1802) 無主空山. 주인 없는 빈 산.
- 1803) 무엇이기에.
- 1804) 죽기보다.
- 1805) 들어주십시오.
- 1806) 돼지새끼.
- 1807) 창자.
- 1808) 흠칫느냐?
- 1809) 日前. 며칠 전.
- 1810) 나를.
- 1811) 다오.
- 1812) 乞不並行. 빌어먹는 일은 여럿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그것을 얻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 1813) 주머니.
- 1814) 義.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 1815) 넣어놓았으니.
- 1816) 걸릴 듯 걸릴 듯합니다.
- 1817) 반 이상.
- 1818) 체하느라고.
- 1819) 修身齊家.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림.
- 1820) 바가.
- 1821) 萬無. 절대 그럴 리가 없음.
- 1822) 保身策.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꾀.
- 1823) 北斗七星經. '칠성경'이라고도 하는 민속에서 외는 수명 장수, 부귀를 구하는 경문. '북두칠성'은 탐랑(貪狼), 거문(巨門), 녹존(祿存), 문곡(文曲), 염정(廉貞), 무곡(武曲), 파군(破軍) 따위 일곱 개의 별. 밀교에서, 이것을 섬기면 천재지변 따위를 미리 막을 수 있다 함.
- 1824) 경문의 구절인 듯하나 불명.
- 1825) 北斗七元聖君. 민속의 북두칠성을 믿는 칠성신앙에서 숭배하는 일곱 신을 말함. 칠원 성군은 '탐랑성, 거문성, 녹존성, 문곡성, 염정성, 무곡성, 파군성'의 일곱 신.
- 1826) 매우 긴장하거나 힘주는 모양.
- 1827)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주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 1828) 香草. 향기 나는 풀.
- 1829) 칩의 새로 돌아나온 연한 싹.
- 1830) 흥에 겨워 멋으로 하는 짓.
- 1831) 入死出生. 죽을 데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옴.
- 1832) 나의.

- 1833) 奸計. 간사한 꾀.  
 1834) 萬古風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어 온 많은 고생.  
 1835) 三災八難. 삼재와 팔난이라는 뜻으로, 모든 재앙과 곤란을 이르는 말.  
 1836) 말귀를 겨우 알아듣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시키는 대로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재롱.  
 여기서는 그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가리킴.  
 1837) 엉거주춤. 아주 앉지도 서지도 아니하고 몸을 반쯤 굽히고 있는 모양.  
 1838) 深深山谷. 깊고 깊은 산골짜기.  
 1839) 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1840) 承旨. 승정원에 속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정삼품의 당상관. 정원이 6명으로,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가 있었다.  
 1841) 下敎. 임금이 명령을 내릴, 또는 그 명령.  
 1842) 欺君罔上. 임금을 속임.  
 1843) 緣由. 까닭.  
 1844) 山神前에. 산신령 앞에. 산신령께.  
 1845) 移文. 중국 한대(漢代)의 공문서 가운데 같은 등급의 관아 사이에 주고받던 공문서.  
 때로는 격(檄)과 더불어 포고문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1846) 聽令. 명령을 들음.  
 1847) 移文狀. 이문을 쓴 문서.  
 1848) 病軀殘疾. 병든 몸에 남아 있는 질병.  
 1849) 危得微病하여. 위태롭게 보잘 것 없는 병을 얻어.  
 1850) 必死而來러니. 꼭 죽을 것으로 알고 지내오더니.  
 1851) 幸聽道士之言 卽塵世兔肝을 橫食一飽하면 兔且爲身病之仙藥故로. 다행히 도사의 말  
 을 들은즉, 세상의 토끼 간을 배부르게 마음껏 먹으면 토끼가 또 몸의 병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에.  
 1852) 使令監主簿臣하여 塵世一介兔를 生擒以來러니. 신하 별주부를 시켜 세상의 한 마리  
 토끼를 사로잡아왔는데.  
 1853) 此物 天性이 素來姦陰튼지. 이 부류의 타고난 성품이 본래부터 간사하고 음침하던지.  
 1854) 造辭百端. 여러 가지로 말을 지어냄.  
 1855) 간덩이.  
 1856) 掛於青山丹桂之樹하고 忘置入來云云故로. 청산의 계수나무에다 걸어두고, 잊어버리  
 고 두고 들어왔다는 등 어저고 하기 때문에.  
 1857) 眼同監主簿臣하여 使速出世러니. 신하 별주부를 데리고 속히 세상으로 나가라고 시  
 켜더니.  
 1858) 不遠青山의 無數辱說蔑視水府하고 行行入山云하니. 청산에서 멀리 가지도 않아서,  
 무수한 욕설로 수궁을 멸시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버렸으니.  
 1859) 此物彼相은 不可尋常處分더러 兔且爲身病之仙藥故로 茲以移文하오니. 이 부류의 저  
 러한 태도는 보통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토끼는 몸의 병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에, 이로써 공문을 보내니.  
 1860) 老兔一首를 支給捉送하심을 幸甚하나니다. 늙은 토끼 한 마리를 자급하여 잡아 보내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 1861) 卽送. 즉시 보냄.
- 1862) 和親.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
- 1863) 千年老兎. 천 년 묵은 늙은 토끼.
- 1864) 結縛捉送. 몸을 묶어 잡아서 보냄.
- 1865) 卽爲快差. 즉시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음.
- 1866) 반가운.
- 1867) 大宴. 큰 잔치.
- 1868) 排設. 의식이나 연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벌이어 배품.
- 1869) 入侍. 대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1870) 諸臣. 여러 신하.
- 1871) 滿座中. 자리에 꽉 찬 사람들 가운데.
- 1872) 온갖.
- 1873) 風流. 음악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
- 1874) 美色.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 1875) 聖德. 임금님의 덕을 높여 이르는 말.
- 1876) 主簿公. 주부 벼슬을 하는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 1877) 大臣. 정승을 이르는 말.
- 1878) 出世入山. 세상을 나가 산으로 들어감.
- 1879) 奸計. 간사한 꾀.
- 1880) 노시니.
- 1881) 좋겠는가?
- 1882) 海不揚派.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아니함.
- 1883) 晝夜頌德. 밤낮으로 늘 덕을 칭송함.
- 1884) 老兎一首. 늙은 토끼 한 마리.
- 1885) 卽差卽效. 병이 곧 바로 낫는 효과를 즉시 보임.
- 1886) 太平歌. 아무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기뻐하여 부르는 노래.
- 1887) 微物. 작고 변변치 않은 물건.
- 1888) 報國忠誠. 나라의 은혜에 충성으로 보답함.
- 1889) 足히. 모자람이 없다고 여겨 더 바라는 바가 없이.
- 1890) 好歌長唱不樂이니. 좋은 노래도 오래 부르면 즐겁지 아니함.
- 1891) 더질더질. 판소리의 맨 끝에 오는 말로, 북소리의 의성어인 듯.



강도근 바디 수궁가(강도근 창)

Gang Do-geun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Gang Do-geun)

1. (용왕 득병) 남해 용왕이 우연히 병을 얻어 나올 가망이 없는데, 선의도사가 토끼 간을 먹으면 나올 것이라고 하자, 토끼를 잡을 방법이 없다면서 용왕이 탄식을 한다.

[아니레] 이 때여 남해 용왕이 우연히 병이 들어,  
갖가지로 약을 다 써도 효험보지 못하고  
꼭 죽게 될 적에,  
선의도사<sup>1)</sup> 문병 후에 말하기를,  
“퇴간<sup>2)</sup>이 종사오니,  
토끼를 잡아다 간을 내어 잡수시면 꼭 병이 낫겠습니다.”  
이 때에 남해 용왕이, ‘세상에 있는 토끼를 어떻게 잡아다 간을 먹고  
내 병이 낫는단 말이나?’하고 혼자 앉아 탄식을 하느니,  
[진양조] 왕왕 “연하다.<sup>3)</sup> 수연이나,<sup>4)</sup> 창망현<sup>5)</sup> 진세간<sup>6)</sup>의 벽해<sup>7)</sup> 만  
경<sup>8)</sup> 밖의 백운이 구만 리요,<sup>9)</sup>  
여산 송백<sup>10)</sup> 울울창창<sup>11)</sup> 삼천고분 황제묘인디<sup>12)</sup>  
토끼라 하는 짐생<sup>13)</sup>은 해외<sup>14)</sup> 일월<sup>15)</sup> 밝은 세상, 백운청산<sup>16)</sup> 무정처  
로<sup>17)</sup> 시비 없이<sup>18)</sup> 다니는 짐생을  
내가 어찌 구하드란 말이요?  
죽기는 내가 쉽사와도 토끼를 구할 길 없사오니,  
달리 약명을 일러주고 가옵소서.”

2. (어전 회의) 용왕이 어전회의를 소집하니 신하들이 들어온다.

[아니레] 도사 가로되,

**1. (The Dragon King Gets Ill)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accidentally gets ill. There is no chance for him to recover. A god says he will recover if he eats a hare's liver. He despairs, saying there is no way he can get a hare.**

[Aniri]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accidentally gets ill.  
He tries all sorts of medicines in vain.  
He is bound to die.

A god visits the dragon king and says,  
“A hare's liver is good.

If you get a hare and eats his liver, you will recover without fail.”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sighs alone, saying to himself  
“A hare lives in the land. How can I get one and eats his liver?”

[Jinyangjo] The king says, “That makes sense, but rivers and clouds are very far from this sea palace.

There are thousands of imperial tombs in the mountain thick with pine trees and nut pine trees.

A hare is an animal that wanders around in mountains and clouds under the sun and the moon in the bright outside world.  
How can I obtain one?

It's easier to die than to acquire a hare.  
Please tell me a different medicine.”

**2. (Royal Meeting) The dragon king convenes a royal meeting, and his subjects come.**

[Aniri] The god speaks,

“용왕의 성덕<sup>19)</sup>으로 어찌 성공지신<sup>20)</sup>이 없사오리까?”

말을 마친 후에 인홀불견<sup>21)</sup> 간 곳이 없었다.

이 때에 용왕이 수부조정<sup>22)</sup> 만조백관<sup>23)</sup>을 일시에 영<sup>24)</sup>을 내려노니,  
세상 같거드면은<sup>25)</sup> 일품<sup>26)</sup> 재상님네<sup>27)</sup>가 들어올 터이로되,<sup>28)</sup>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sup>29)</sup> 벼슬 이름만 타가지고<sup>30)</sup> 모도<sup>31)</sup> 들어오  
는디

이런 가관이 없겠다.

[자진모리] 승상<sup>32)</sup>은 거북,

승지<sup>33)</sup>는 도미,

판서 민어,

주서<sup>34)</sup> 오징어,

한림<sup>35)</sup> 박대,<sup>36)</sup>

대사성<sup>37)</sup> 도루묵,<sup>38)</sup>

방첨사<sup>39)</sup> 조개,

해운공<sup>40)</sup> 방개,

병사<sup>41)</sup> 청어,

군수 해구,<sup>42)</sup>

현감 홍어,

조부장<sup>43)</sup> 조구,<sup>44)</sup>

부변랑청<sup>45)</sup> 장대,<sup>46)</sup> 승대,<sup>47)</sup> 청다리,<sup>48)</sup> 가오리<sup>49)</sup>

좌우 나줄이,<sup>50)</sup> 금군<sup>51)</sup> 모조리,<sup>52)</sup> 상어, 순치,<sup>53)</sup> 눈치,<sup>54)</sup> 준치, 삼치,

병치, 까재<sup>55)</sup> 개구리까지

영을 듣고, 그저 빠각빠각<sup>56)</sup> 빠각 어전에 복지허여<sup>57)</sup> 대왕에게 절을

그저 꾸벅꾸벅꾸벅 허니,



“There is sure to be a successful official because you are a virtuous king.”

After saying that, the god disappears suddenly.

The dragon king orders all of his officials to come to the palace for a meeting.

If this were the world of the land, the premier would come in first.

But this is a sea world, so fishes come in according to their government titles.

That is quite a show.

**[Jungjungmori]** A turtle is a minister.

A snapper is an advisor to the king.

A croaker is a minister.

An octopus is a recorder of history.

A shark is a minister of the government record.

A sandfish is a regulator.

A shellfish holds a certain military position.

A diving beetle is a ship captain.

A herring is a general.

A seal is a county administrator.

A skate is a provincial head.

A yellow corbina is a military officer.

A sea robin, a purple fish, a blue ray, and a ray are secret agents.

A cornet fish, a shark, a minnow, a herring, an anchovy, a mackerel, a crawfish, and a frog are soldiers.

With the king's order, they come to the palace, kneel down, and bow to the king continuously.

### 3. (거북 천거) 용왕이 토끼 간을 가져올 신하를 천거하라고 하니, 잉어가 거북이를 천거하는데, 신하들이 반대한다.

[아니리]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sup>58)</sup> 보더니,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sup>59)</sup> 도물주<sup>60)</sup>가 되었구나.

경내<sup>61)</sup>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퇴끼를 구하여 짐의 병을 구하리까?”

좌우어두귀면지줄<sup>62)</sup>이 면면상고<sup>63)</sup>하며 묵묵부답<sup>64)</sup>이었다.

[중모리] 왕이 푹푹<sup>65)</sup> 탄식한다.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군<sup>66)</sup> 개자추<sup>67)</sup>와

광초망신 기신이<sup>68)</sup>는 죽을 임군을 살렸건마는,

우리나라는 충신이 있어도 어느 뉘기가<sup>69)</sup> 날 살리리오?”

정언<sup>70)</sup> 잉어가 여짜오되, “승상 거북이 어떠하뇨?”

“승상 거북은 지략이 놀랍삽고,

복판<sup>71)</sup>이 모두 다 대몬고로,<sup>72)</sup>

세상에를 나가오면 인간들이 잡어다가 복판 떼어

대모장도,<sup>73)</sup> 밀이개살착,<sup>74)</sup> 탕건<sup>75)</sup> 묘또기<sup>76)</sup>며, 쥘쌈지<sup>77)</sup> 끈까지 대

모가 아니면은 혈 줄을 모르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3. (Recommendation of a Turtle.) The dragon king tells his subjects to recommend a subject to bring a hare's liver. A carp recommends a turtle. Subjects object to the recommendation.

[Aniri] The sick dragon king has been sitting back and watching his subjects.

"It looks like I am not a dragon king but a head merchant of the fish market.

Who will go out to the world of the land and bring a hare to cure my disease?"

The stupid officials are silent, looking at each other's face.

[Jungmori] The king heaves a sigh.

"There are loyal subjects in other countries.

Jie Zi Tui(介子推) saved his king by giving him his thigh to eat.

Ji Xian(紀信) saved his king by deceiving the enemy.

I have some loyal officials, but who can save me?"

The carp says, "What about the turtle, the minister?"

"The turtle is smart and knowledgeable.

But his shell is used by humans as an ornament.

If he goes out, humans will catch him and cut his shell off.

His shell will be widely used to make such things as knives, tools, skullcaps, tobacco pouches, and cords.

So we can't send him there."

#### 4. (물메기, 방개, 조개 천거) 용왕이 메기와 방개, 조개를 천거하자 신하들이 반대한다.

[아니리] “그러면 수문장<sup>78)</sup> 물메기<sup>79)</sup>가 나가면 어떠하뇨?”<sup>80)</sup>

[자진모리] “미에기는<sup>81)</sup> 장수구대<sup>82)</sup>하고 호풍신<sup>83)</sup>하거니와, 아가리<sup>84)</sup>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룬고로,<sup>85)</sup> 세상을 나가오면 요기감<sup>86)</sup> 구하려고 조그만헌 산천수<sup>87)</sup> 이러저리 다닐 제,

사립<sup>88)</sup> 쓴 어웅<sup>89)</sup>들이 입갑<sup>90)</sup> 꿰어서 물에다 풍덩, 탐식<sup>91)</sup>으로 덜컥 삼켜 단불요대<sup>92)</sup> 죽거드면,<sup>93)</sup> 인간의 이질, 뱃병,<sup>94)</sup> 설사, 배아피<sup>95)</sup>난 데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아니리] 이 때여 해운공<sup>96)</sup> 방개란 놈이 열 발을 짹 벌리고 살살살살 기어 들어오며,

[중중모리] “신의 고향 세상이라.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벽계<sup>97)</sup> 산천수<sup>98)</sup> 가만히 잠신하야<sup>99)</sup> 천봉만학<sup>100)</sup>을 바라봐, 산중퇴<sup>101)</sup> · 화중퇴<sup>102)</sup> 안면<sup>103)</sup>이 있사오니, 소신<sup>104)</sup>의 엄지발<sup>105)</sup>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득<sup>106)</sup> 집어다가 대왕전<sup>107)</sup> 바치리다.”

[아니리] 용왕이 가만히 보더니,  
“네 요봐라, 아, 저 놈이 신하라고 들어와?  
저 놈 네 조<sup>108)</sup>가 밍다.

두 엄지발만 툇 떼어서 내쫓아라. 그럼,”

[중중모리] “방침사<sup>109)</sup> 조개가 어떠한고?”

4. (Recommendation of a Catfish, a Diving Beetle, and a Shellfish) The dragon king recommends a catfish, a diving beetle, and a shellfish. Subjects oppose the recommendation.

[Aniri] “Then, how about the catfish, the gatekeeper?”

[Jajinmori] “The catfish looks good with big mouth and long whiskers.

His mouth is so big that he needs a lot of food.

If he goes out, he will wander around in small streams, looking for food.

Old fishermen wearing bamboo hats will cast hooks with baits into water.

The gluttonous catfish will bite the hook and die without fail.

He will be used as a medicine for dysentery, stomachache, diarrhea, and belly trouble.

So we can't send him there.”

[Aniri] A Diving Beetle, a ship captain, steps forward slowly with his ten legs wide open.

[Jungjungmori] “The land is my hometown.

Immersed in a blue stream in a green forest, I watched numerous mountain peaks and valleys.

I am familiar with Hare in the mountain and on the moon.

I will grab Hare's thin waist with my claw and bring him to Your Majesty.”

[Aniri] The dragon king has been watching the diving beetle.

“Guard! How can that villain be a subject?

He looks ugly.

Cut his fore legs off and drive him away.”

[Jungjungmori] “How about a shellfish?”

“방침사 조개는 철갑<sup>110</sup>)이 굳고,  
 방신제도는<sup>111</sup>) 종사와도,  
 옛 글에 이르기를, ‘관방홀지세허고 좌수어인지공이라’,<sup>112</sup>)  
 홀조<sup>113</sup>)라는 새가 있어서 수루루루 펄펄 날아들어,  
 홀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홀조를 물고 서로 놓지를 못할 적에,  
 어부에게 모두 다 잡히어 속절이 없이 죽을 것이니,  
 보내지를 못허리다.”

##### 5. (별주부 자원) 이 때 별주부가 들어와 토끼 간을 구해오 겠다고 하면서, 토끼 화상을 그려달라고 청한다.

[아니리] 공론<sup>114</sup>)이 미결할 제,<sup>115</sup>)  
 [진양조] 영덕전<sup>116</sup>)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은목단죽<sup>117</sup>)이요, 장경오획<sup>118</sup>)로고나.  
 호흥배<sup>119</sup>) 등에다 방패<sup>120</sup>)를 지고 앙금앙금 기어들어오더니,  
 국궁 재배<sup>121</sup>)를 허는구나.  
 [아니리] 용왕이 바래보니 별주부<sup>122</sup>) 자라라.  
 “네가 세상을 나가 죽거드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하니,  
 그 아니 원통허냐?”  
 “소신의 수족이 너이라<sup>123</sup>) 강상<sup>124</sup>)에 등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잘하와  
 인간의 붕폐<sup>125</sup>) 없사오나,  
 해중지소생<sup>126</sup>)으로 퇴끼 얼굴을 모르오니  
 퇴끼 화상을 그려주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나이다.”  
 “글랑<sup>127</sup>) 그리하여라.”

“His body is covered with hard shell.  
The shell protects his body.  
But an ancient book says a shellfish once fought with a snipe.  
The snipe flew at the shell fish vigorously.  
The snipe and the shellfish bit each other and refused to release  
each other.  
They were caught by a fisherman and died helplessly.  
So we can't send the shellfish there.”

**5. (Terrapin Volunteers.) Terrapin comes, volunteers  
to bring a hare's liver, and asks for a picture of a  
hare.**

[Aniri] There is no agreement.

[Jinyangjo] An official comes through the back gate of the  
palace.

He has small eyes, short legs, a long neck, and a curved mouth.  
He comes in slowly with a cloth on his hard shell.

He bows twice to the king.

[Aniri] The dragon king realizes that the official is Terrapin.

“They say if you go out, you will be a great delicacy for humans.  
Isn't that regrettable?”

“Having four limbs, I am good at seeing things on the surface  
of a river.

I will not fall into disaster by humans.

I was born here, so I am not familiar with what a hare looks  
like.

If you draw a picture of a hare for me, I will bring a hare here  
without fail.”

I grant your wish.”

[중중모리] “화가를 불러라.”

화가를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청홍연<sup>128</sup>) 금수추파<sup>129</sup>) 거북 연적<sup>130</sup>) 오징어로 먹 갈어,  
양두화필<sup>131</sup>)을 덩벽<sup>132</sup>) 풀어 단청채색<sup>133</sup>)을 두루 묻혀서, 백룡연화  
간지상<sup>134</sup>)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 명산 승지<sup>135</sup>) 강산 경개<sup>136</sup>) 보던 눈 그리고,  
두견, 앵무 지저<sup>137</sup>) 울 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봉래<sup>138</sup>) 방장<sup>139</sup>) 운무<sup>140</sup>) 중의 내<sup>141</sup>) 잘 말던 코 그리고,  
난초 지초<sup>142</sup>) 온갖 향초<sup>143</sup>) 꽃 따먹던 입 그리고,  
만화방창화림중<sup>144</sup>)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백설강산<sup>145</sup>)에 치운<sup>146</sup>) 날의 어한허던<sup>147</sup>) 털 그리고,  
만화방창<sup>148</sup>) 화림<sup>149</sup>) 중의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두 귀는 쫓긋,<sup>150</sup>)  
두 눈 도리도리,<sup>151</sup>)  
허리는 늘썩,<sup>152</sup>)  
꽂닥<sup>153</sup>)은 묘뚝,<sup>154</sup>)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라.  
녹수청산<sup>155</sup>)의 예굽은<sup>156</sup>) 장승,  
휘늘어진 양류<sup>157</sup>) 속, 들랑달랑<sup>158</sup>) 오락가락  
양그조춤<sup>159</sup>)의 섰는 토끼,  
화중퇴 얼른 그러  
아미산월의 반륜퇴,<sup>160</sup>) 이에서<sup>161</sup>) 더할쏘냐?  
“아나,<sup>162</sup>) 옛다.<sup>163</sup>)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Jungjungmori] “Bring an artist here.”

An artist comes and draws a picture of a hare.

He uses a colorful inkstone, a turtle-like bowl, and black ink from a squid.

He puts a two-sided brush on the ink of various colors and moves the brush around on white silk of a figure of a lotus flower.

He draws the picture of the eyes which were gazing at the beautiful scenery,

the ears which were listening to the songs of cuckoos and parrots,

the nose which was smelling everything in mountains covered with cloud and fog,

the mouth which was eating fragrant grass and flowers,

the legs which were moving fast through the green spring forest,

the fur which was protecting him from the cold wind and snow in winter.

the legs which were moving fast through the green spring forest,

The ears are straight up.

The eyes are round.

The waist is slim.

The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Tall pine trees hanging down are on the blue mountain and stream.

A hare appears to move in and out of a willow drooping down.

Hare appears to stand hesitantly.

Hare is drawn swiftly in the picture.

He looks better than the one on a half moon over a mountain.

“Here you are, Terrapin.

Take this and leave.”

## 6. (별주부 모친 만류) 별주부가 화상을 간직하고 집에 가 니, 모친이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자래가 화상을 받아들고 곰곰이<sup>164)</sup> 생각허더니,  
목을 쑥 빼고, 목덜미<sup>165)</sup>에다가 화상을 얹고 목을 움쑥 오무려논 것이  
저 막통창사<sup>166)</sup>에 화상이 붙어 가죽 필갑 속이 되었겠다.<sup>167)</sup>  
‘요만했으면 수로 육로 이만 리를 다녀오드래도 물 한 점 안 묻겠구나.’  
용왕께 하직허고 본택<sup>168)</sup>으로 돌아올 제,  
별주부 노친<sup>169)</sup>이 있든가,  
별주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울며 불며 만류차로<sup>170)</sup> 나오는다,  
[진양조] “여봐라, 주부야. 여보아라, 별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단허니,  
무엇허로 갈라느냐?  
삼대독자<sup>171)</sup> 네 아니냐?  
장탄식<sup>172)</sup> 병이 든들 뉘 알뜰히 구환허며,<sup>173)</sup>  
이 몸이 죽어져서 오연<sup>174)</sup>의 밥이 된들,  
뉘라 손뺌을 두다리며<sup>175)</sup> 후여 처서<sup>176)</sup> 날려줄 이가 뉘 있드란 말  
이냐?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옛날에 너그<sup>177)</sup> 조부도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십 리 사장<sup>178)</sup> 모래 속에 장신하야<sup>179)</sup>  
쇠꼬치<sup>180)</sup>에 등이 찢려서 가련조사<sup>181)</sup>를 허여 있고,  
너그 부친 너를 낳고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미는 돌아오시지 못하였구나.  
너조차 갈라느냐?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6. (Terrapin's Mother Stops Terrapin.) Terrapin goes home with the picture. His mother tells him not to go to the land.**

[Aniri] Terrapin takes the picture and ponders for a while. He stretches his neck out, puts the picture on the back of his neck, and draws his neck in.

The picture is attached to a deep place below, viz., his appendix.

'If the picture is kept like this, there is no way it will get wet on a long journey in the sea.'

He says goodbye to the dragon king and comes back home. Terrapin's mother is at home.

Having heard that her son will go to the land, she comes out in tears to stop him.

[Jinyangjo] "Hello, my son. Look, my son.

I've heard you are going to the land.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You are the only son for three generations in my family.

When I am sick, who will take care of me?

I might die and fall prey to crows and kites.

Who will clap his hands and shout out to drive the birds away?

My son, don't go to the land. Don't go there.

One day, your grandfather went to the land for sightseeing.

He hid himself in a long sand field.

An iron stick pierced his back and died young.

After your father begot you, he went to the land for sightseeing and did not return.

Do you intend to go there?

You may not go there.

세상이라하는 데는 수중지물<sup>182</sup>)이 얼른허면<sup>183</sup>) 잡기로만 위주를 헨 단다.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마는,

살려두고는 못 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입<sup>184</sup>)이니 가지를 마라.”

## 7. (별주부 부인 작별) 별주부가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모친을 당부한다.

[아니리] 별주부 있다 허는 말이,

“나라에 환후<sup>185</sup>) 계시옵서<sup>186</sup>) 약을 구하러 가는 봉명<sup>187</sup>) 이오니 사세부득<sup>188</sup>)이로소이다.”

별주부 노친이 가만히 듣더니,

“내 몰랐다, 내 몰라.

나라에 환후 계시옵서 약을 구하러 간다허니,

그 아니 충성이 지극허냐?

수로 육로 이만 리를 무사히 다녀오렸다.”

노친께 하직허고 침실로 돌아올 적에,

이 때에 별주부 마누래<sup>189</sup>)가 있든가,

별주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울며불며 만류차로 나오는다,

[중중모리] 별주부 마누라 나온다. 주부 마누라가 나온다.

자래 생긴 맵시를 보면 어여쁜 데 없지마는

걸음 하나는 일색<sup>190</sup>)이라.

아장아장 나오더니,

In the land, if they see a sea animal, the first thing that occurs  
in their mind to catch it.

You can't go there.

If you kill me and bury me here, you can go there.

You can't go there while I am alive, my son.

A dangerous foreign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7.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asking her to take good care  
of his mother.**

[Aniri] Terrapin responds to his mother.

"The king is ill, so I am going there to get a medicine with his  
order.

I have no choice."

Terrapin's mother replies,

"I didn't know that.

You are going there to get a medicine for the sick king.

I admire your loyalty to the king.

Come back in one piece from the long travel."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mother and comes to his bedroom.

Terrapin's wife is in the bedroom.

Having heard her husband will go to the land, she comes out  
in tears to stop him.

[Jungjungmori] Terrapin's wife comes out. She comes out.

Her look is not terribly good.

But the way she walks is singularly beautiful.

She comes out in a cute manner.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위수과광<sup>191)</sup> 맑은 물에 양주<sup>192)</sup> 마주 떠서 맛좋은 흥미를 보냈더니,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청산<sup>193)</sup> 간다허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게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당상<sup>194)</sup> 학발<sup>195)</sup> 늙은 노친 조석공대<sup>196)</sup>를 못 잊어요?  
 군신유의<sup>197)</sup> 장한 충성 조정 사직<sup>198)</sup>을 못 잊어요?  
 규중<sup>199)</sup>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sup>200)</sup>를 못 잊어요?”  
**[아니리]** “내 가기는 가되 꼭 못 잊고 가는 게 하나 있네.”  
 “아니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저 재너머 진털발<sup>201)</sup>에 거 남생이<sup>202)</sup>란 놈이 있어.  
 그놈이 나허고 똑같은 말여.  
 그런디 우멍허기가<sup>203)</sup> 한정이 없는 놈이어, 그놈이.  
 내 여기 없는 새에<sup>204)</sup> 이놈이 문 열고 들어올 것이여.  
 그러니, 그 놈 몸에서는 노랑내<sup>205)</sup>가 나고,  
 내 몸에서는 비린내가 나니,  
 냄새로 짐작하고,  
 부대<sup>206)</sup> 조심하오.”  
 “걱정 말고 다녀오시오.”  
 서로 작별허고  
 수정문 밖 썩 나서니  
 처처이<sup>207)</sup> 경개<sup>208)</sup>였다.

“Darling, I can’t believe you are going to the land.  
We promised to float on the clear water of a river and enjoy  
the beautiful scenery together.  
You are forgetting everything and going to the distant land.  
If you go now, when are you coming back?”  
“I am going there, but one thing concerns me.”  
“What is it that you can’t get off your mind?  
Are you worried that your old mother might not be taken care  
of?  
Are you worried about this country as a loyal subject?  
Are you worried your young wife might not be faithful?”  
[Aniri] “I am leaving, but one thing concerns me.”  
“What is it that concerns you?”  
“A tortoise lives on a field with long grass.  
That villain resembles me.  
His treachery is without limit.  
While I am not here, he will open the door and come here.  
His body has the stench of meat.  
My body has the smell of fish.  
Identify him with smell.  
Please watch out for him.”  
“Don’t worry. Come back safely.”  
They say goodbye to each other.  
Terrapin goes out through the gate of the sea palace.  
A beautiful site is everywhere.

## 8. (고고천변)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보니, 세상 경치가 아름답다.

[중중모리] 고고천변일륜홍<sup>209</sup> 부상<sup>210</sup>에 높이 떠,  
양곡<sup>211</sup> 잣인<sup>212</sup> 안개 월봉<sup>213</sup>으로 돌고돌아,  
예장춘<sup>214</sup> 개 짓고,  
회안봉<sup>215</sup> 구름이 떠,  
노화<sup>216</sup>는 눈 되고,  
부평<sup>217</sup>은 물에 등실,  
어룡<sup>218</sup>은 잠자고,  
자고새<sup>219</sup>는 펄펄 날아들 적,  
동정여천의 파시추<sup>220</sup> 금수추파<sup>221</sup>가 여기라.<sup>222</sup>  
앞발로 벽파<sup>223</sup>를 찍어 당겨, 뒷발로 창랑<sup>224</sup>을 탕탕.  
요리저리 저리요리,  
양금<sup>225</sup> 등실 떠 사면을 바라봐.  
지광<sup>226</sup>은 칠백 리,  
파광<sup>227</sup>은 천일색인디,<sup>228</sup>  
천외무산의 십이봉<sup>229</sup>은 구름 밖에 가 멀고,  
해외소상<sup>230</sup>은 일천 리 눈 앞의 경개로다.  
오초는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여 있고,  
건곤은 어이하여 일야에 등실 떠,<sup>231</sup>  
남훈전<sup>232</sup> 달 밝은디 오현금<sup>233</sup>도 끊어지고,  
낙포<sup>234</sup>로 둥둥 가는 저 배,  
쫓각달 무관수<sup>235</sup>의 초 회왕<sup>236</sup>의 원훈<sup>237</sup>이요,  
모래 속에 가 장신하야<sup>238</sup> 천봉만학<sup>239</sup>을 바라봐.



## 8. (Sunrise) Terrapin sees the beautiful scenery in the world of the land.

[Jungjungmori] The red sun rises high above the horizon.  
A thick fog in the sun valley moves around Moon Peak.  
A dog barks from a village.  
Clouds hang over a peak.  
Reed flowers fall down like snow.  
Duck weeds float on the pond.  
Fishes sleep in the water.  
A bird flies vigorously in the sky.  
The breeze and the waves of a wide and clear lake signify autumn.  
Terrapin pulls and pushes blue waves of water with his front and rear legs.  
He moves around.  
He gazes aroun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land is wide.  
The color of the wat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sky.  
Twelve Peaks are above the clouds at a distance.  
A beautiful river stretches for thousands of miles in front of Terrapin's eyes.  
Wu(吳) and Chu(楚) countries were to the east and to the south.  
The sky and the earth are reflected on the lake day and night.  
The sound of a pentachord stopped in a palace on the bright moon.  
A boat goes to a port.  
It seems to be the revengeful spirit of an imprisoned king, King Huai(懷).  
Terrapin hides himself in the sands and sees numerous mountains and valleys.

만경대<sup>240</sup> 구름 속 학선<sup>241</sup>이 울어 있고,  
 칠보산<sup>242</sup> 비로봉<sup>243</sup>은 허공에 솟아,  
 계산과무울차아,<sup>244</sup> 산은 칭칭칭<sup>245</sup> 높고,  
 경수무풍야자파<sup>246</sup> 물은 출렁청 깊고,  
 만산<sup>247</sup>은 우루루루루,<sup>248</sup>  
 국화는 점점, 낙화<sup>249</sup>는 동동,<sup>250</sup>  
 장송은 낙락,<sup>251</sup> 늘어진 잡목,  
 평피진<sup>252</sup> 떡갈, 다래몽동,<sup>253</sup>  
 칩년출,<sup>254</sup> 머루, 다래,  
 으름년출,<sup>255</sup> 능수버들, 빛남기,<sup>256</sup>  
 오미자, 치자, 비자, 대추,  
 갓은<sup>257</sup> 과목<sup>258</sup> 얼크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sup>259</sup> 칭칭 감졌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sup>260</sup>  
 갈매기, 해오리,<sup>261</sup>  
 목파리,<sup>262</sup> 원앙새,  
 강상<sup>263</sup> 두루미, 수많은 떼고니,<sup>264</sup>  
 소호천자 기관허던<sup>265</sup> 만수문전의<sup>266</sup> 봉황새,  
 양양창과점점동<sup>267</sup> 사랑흠다고<sup>268</sup> 원앙새,  
 칠월 칠석 은하수 다리 놓던 오작이,<sup>269</sup>  
 목파리, 해오리, 너수,<sup>270</sup> 진경새,<sup>271</sup> 아옥따옥<sup>272</sup> 요리조리<sup>273</sup> 날아  
 들 제,  
 또 한 경계를 바라봐.  
 치어다보니<sup>274</sup> 만학천봉,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라.<sup>275</sup>  
 예구부러진<sup>276</sup> 늙은 장송 광풍<sup>277</sup>을 못 이기어서 너울너울 춤을 출 적,

A crane sings on a tower in clouds.  
A peak rises high into the sky.  
When the fog clears, the mountain looks even higher.  
Clear and deep water creates waves without wind.  
All the mountains are thick with trees.  
Mottled chrysanthemums, fallen leaves,  
drooping branches of a tall pine, stretching scrubs,  
a wide oak trees, stumpy actinidia argutas,  
kudzu vines, actinidia argutas, wild grapes,  
clematises, weeping willows, cherry trees,  
schizandra, gardenias, persimmon, jujubes,  
and all sorts of fruit trees are firmly and riotously intertwined  
with each other.  
A fishing boat comes back.  
Seagulls fly around.  
Seagulls, white herons,  
unknown birds, mandarin ducks,  
cranes on a river, numerous swans,  
a phoenix which used to work for the government at a gate,  
lovely mandarin ducks which drifted on the waves of the wide  
sea,  
crows and magpies which form a bridge in the Milky Way on  
July 7th,  
white herons, ospreys, and other birds fly in.  
Terrapin beholds another place.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s are above.  
A white sandy plain is below.  
The branches of old drooping pine trees dance in the wild wind.

천 리 시내<sup>278</sup>)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 물이 주루루루, 저 골 물이 꿩꿩,<sup>279)</sup>  
 열의 열두 골 물이 한트로<sup>280)</sup> 합수저,<sup>281)</sup>  
 천방저 지방저 율턱저 구부저,<sup>282)</sup> 방울이 버큘저,<sup>283)</sup>  
 건너 병풍석<sup>284)</sup>에다 마주 팡팡 마주 썰러,<sup>285)</sup>  
 산이 울렁거려 휘돌아간다.  
 요런 경개가 또 있소?  
 아마도 예로구나.<sup>286)</sup>  
 요런 경개 또 있어?

## 9. (봉황새 상좌다툼) 날짐승들이 모여 상좌다툼을 하는데, 봉황새가 상좌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이 때에 별주부가 세상에를 나와서 사면을 둘러보더니,  
 생전 못 본 데라 무섬증<sup>287)</sup>이 왈각 들어가지고,  
 모래 속에 장신하야 모가지만 내놓고 사면을 둘러보니,  
 경개 첩첩 무궁이라.<sup>288)</sup>  
 한 곳을 바라보니,  
 온갖 날짐승들이 모여 앉아 저희들끼리 상좌다툼<sup>289)</sup>을 허는디,  
 봉황새가 척 나서며,  
 “금년부터는 내가 상좌를 앉겠소.”  
 부엉새 꾸짖으며,  
 “어라, 이놈! 내가 어디서 상좌를 헐다고 나선단 말이냐?”  
 “아니, 내가 왜 상좌를 못 헐단 말이오?  
 내 근본<sup>290)</sup>을 이를 테니 들어보시오.”

A long river flows around green mountains.  
Flowing water makes sounds in valleys.  
Water from different valleys is combined in one place.  
The water runs down wildly, making foam.  
It bumps head-on into large rocks.  
It shakes a mountain, as it goes around.  
What a spectacle this is!  
This is the scenery.  
What a spectacle this is!

**9. (A Phoenix Vies for a High Seat) The birds compete  
for a high seat. A phoenix explains why he deserves  
it.**

[Aniri] Terrapin comes out to the land and looks around.  
He is not familiar with the landscape, so he is scared.  
He hides himself in sand, sticks out his head, and looks around.  
Beautiful scenes are in layers without limit.  
Terrapin looks at a certain place.  
All sorts of birds compete with one another for a high seat.  
A phoenix steps forward.  
“I will sit on the high seat from this year on.”  
An owl scolds the phoenix.  
“You villain! How dare you claim the high seat?”  
“Why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Let me tell you about my history.”

[중모래] “이 내 말을 들어봐라.

순임금<sup>291)</sup> 남훈전<sup>292)</sup>에 오현금<sup>293)</sup> 가지시고 소소귀성<sup>294)</sup> 노래할 제,  
기산<sup>295)</sup> 높은 봉 아침 별에 내가 가서 울음을 울 제,  
팔백 년 문물이 울울하야<sup>296)</sup> 주문무<sup>297)</sup> 나 계시고,  
만고대성<sup>298)</sup> 공부자<sup>299)</sup>도 내 앞에서<sup>300)</sup> 탄생허고,  
천 길<sup>301)</sup>이나 높이 날아 기불탁속<sup>302)</sup>하여 있고,  
영주산<sup>303)</sup> 석상 오동<sup>304)</sup> 기엄기엄<sup>305)</sup> 기어올라  
소상반죽<sup>306)</sup> 좋은 열매 내 양식을 삼았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 10. (까마귀와 부엉이의 상좌 다툼) 까마귀와 부엉이가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다툰다.

[아니리] 이 때에 까마구가 척 나서며,

“요 다음은 내야를<sup>307)</sup> 좀 들어보오.”

붕황새 꾸짖으며,

“어라, 이놈! 꽤썸헌 놈! 너 똥헌다고 나선단 말이냐?”

“아니, 내가 어째서 상좌를 못 헌단 말이오?”

“야, 이놈아. 들어봐라.

네 주둥이 길고,

온 몸에 흰 점 하나 없고,

눈에 꺼명창<sup>308)</sup>만 있는 놈이

어디서 상좌를 헌다고 나서?

꽤썸헌 놈 아닌가!

썩 물러가지 못허?”

“아니, 털만 뽳죽허고<sup>309)</sup> 대구리<sup>310)</sup>만 그저 크면 어른이란 말이오?

[Jungmori] “Listen to my words.

King Shun(舜) played a pentachord in a palace, making a dreary sound.

I sang a song on a peak in the morning sun.

Two great kings were born when the nation prospered for eight hundred years.

The greatest saint, Confucius, sighed because of me.

I flew high without eating food even if I was hungry.

I crawled up on a paulownia tree in a legendary mountain.

I fed on the good fruit of variegated bamboo on a river.

Aren't I your boss?”

## 10. (A Crow and an Owl Fight for the High Seat) A crow and an owl compete for the high seat.

[Aniri] Just then, a crow moves forward.

“Listen to my story about my origin.”

The phoenix scolds the crow.

“You villain. How rude! How dare you step forward?”

“Why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You bastard. Listen to me.

Your mouth is long.

Your body does not have a single white speck.

Even your eyes are all black.

How dare you claim the high seat?

How rude you are!

Don't you get lost?”

“Do you think you are an adult if your feather is wide and your head is big?

내 근본을 이를 테니 들어보시오.”

[엇중모리] “내 근본 들어라. 이 내 근본을 들어봐라.

이 주둥이 길기는 월왕 구천<sup>311</sup>) 방불허고,<sup>312)</sup>

이 몸이 검기는 산음땡<sup>313</sup>) 지내다가 왕희지<sup>314</sup>) 세연지에<sup>315</sup>) 풍덩 빠져  
먹물 들어 이 몸이 검어 있고,

은하수 삼길<sup>316</sup>) 적에 그 물에 다리를 놓아 건우 직녀 건네주고,  
오는 길에 적벽강 선유<sup>317</sup>)할 때

남비<sup>318</sup>) 둥둥 떠 삼국홍망<sup>319</sup>)을 의논하니,

천하에 반포은<sup>320</sup>)을 내 홀로 알았으니,

비금주수<sup>321</sup>) 효자는 천하에 나뿐인가.

아이고, 설움이야. 아이고, 설움이야.”

[자진모리] 부엉이 허허 웃고,

“네 암만 그런대도 심성<sup>322</sup>) 불측하야<sup>323</sup>)

열두 가지 울음으로

과부집 남계<sup>324</sup>) 앓어 울음으로 동할<sup>325</sup>)적에,

까옥 까옥 토락 토락 괴이한 음성으로 수절 과부<sup>326</sup>) 유인할 제,

네 소리 꺾꺾 나면 세상의 인간들이 돌을 들어서 날릴 적에,

너 날아가자 배 떨어지니

세상의 미운 놈은 너밖에 또 있느냐?

빈 통이나 찾어가지

이 좌석은 불길하다.”



Let me tell you about my history.”

**[Eot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root.

My beak is long like that of an ancient king.

My body is black because I fell into a pond on which an ancient calligrapher washed his ink stone, and was dyed with ink.

Ever since the galaxy was created, I served as a bridge between Herdsman and Vega.

On my way back, I relaxed on a boat on Chibi River(赤壁江).  
Hovering in the south sky, I pondered the rise and fall of the three ancient countries.

I take care of my old parents in an empty forest.

I am the only animal supporting its parents.

Alas. How sad I am! How sorrowful I am!”

**[Jajinmori]** An owl laughs loudly.

“Even so, you are born wicked.

You make twelve sounds.

You sit in a tree of a widow’s house and confuse her.

With a weird voice, you entice a widow faithful to her deceased husband.

If your unpleasant cry is heard, humans pick up stones in hatred and drive you away.

Once you fly, a pear falls down.

Who else is so detested?

Go and find an empty stump.

You bring bad luck to this seat.”

## 11. (길짐승 상좌 다툼) 한 곳을 바라보니 온갖 길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한다.

[아니레] “여보시오, 내 죄상은 그리할망정, 이 만좌중에<sup>327)</sup> 내 망신을 시켜도 유만부동<sup>328)</sup>이제, 그렇게 시킨단 말이오?”

까마구 하릴없이 한 쪽으로 훨훨 날아가고,

이 때에 별주부가 또 한편을 바라보니, 온갖 길짐승들이 모여 앉아 자기들끼리 상좌다툼을 허는디,

[중모리] 공부자<sup>329)</sup> 작춘추<sup>330)</sup> 절필<sup>331)</sup>허든 기린이며,<sup>332)</sup>

삼군삼영<sup>333)</sup> 거동시<sup>334)</sup> 천자옥련<sup>335)</sup>의 코끼리,

옥경선관<sup>336)</sup> 승필하던<sup>337)</sup> 풍채 좋은 사자로고나.

서백<sup>338)</sup>이 위수<sup>339)</sup> 사냥혈 적 비웅비표 곰이로다.<sup>340)</sup>

창해박랑사의 저격하든<sup>341)</sup> 저 다람쥐,

강수동류원야성<sup>342)</sup>의 슬피 우는 저 잔나비,<sup>343)</sup>

피 많은 여우,

날랜 퇴끼,

털 좋은 너구리,

암곰, 수곰, 노루, 사슴, 승냥이, 노루, 멧돼지,<sup>344)</sup> 이러한 등물들이<sup>345)</sup> 좌우로 늘어앉어 상좌 다툼을 하는구나.

## 12. (노루, 너구리의 상좌 다툼) 노루, 너구리가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다툰다.

[아니레] 이 때에 사자가 썩 나서며,

“저기 앉은 장도감<sup>346)</sup>은 언제 났소?”

**11. (Four-legged Animals Fight for the High Seat).**  
**Terrapin looks at another place and finds that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compete for the high**  
**seat.**

[Aniri] “Even though I am guilty as you stated, how can you put me to such shame in front of others?”

The crow has no choice but to fly away.

Terrapin looks at another place and finds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compete for the high seat.

[Jungmori] Confucius ended his book with a story of hunting down a giraffe.

An elephant carried a wagon for an emperor.

A god used to ride a large old lion in heaven.

A king came across a bear when he was hunting in a river.

Someone tried to kill a king like a squirrel.

A river flowed constantly to the east, and a monkey wept sadly at night.

A fox is sly.

A hare is fast.

A raccoon has great fur.

Such animals as a female bear, a male bear, a roe deer, a deer, a dhole, and a boar vie for the high seat.

**12. (A Quarrel of a Roe Deer and a Raccoon) A roe**  
**deer and a raccoon fight for the high seat.**

[Aniri] Just then, a lion moves forward.

“Hi, there, Mr. Roe Deer. When were you born?”

이 때여 노루가 나앉아서 말을 허는디,  
 [중모레] “자네들 내 말을 들어보소. 자네들, 내 근본 들어보소.  
 기경상천<sup>347</sup>) 이태백<sup>348</sup>)이 날과<sup>349</sup>) 둘이 동반하야<sup>350</sup>) 광산 십 년<sup>351</sup>)  
 글을 읽다,  
 태백은 인재로서 옥경<sup>352</sup>)으로 상천하고,  
 나는 미물로 짐승이 되야 이렇듯이 천하게 되었으나,  
 태백과 날과 둘이 연갑<sup>353</sup>)이니 내가 상좌를 못하겠나?”  
 달과충<sup>354</sup>) 너구리가 나앉으며,  
 “장도감<sup>355</sup>)도 내 아래요.”  
 “달과충은 언제 났소?”  
 “자네들, 내 근본을 들어보소.  
 동작대<sup>356</sup>)의 집을 짓되, 좌편은 옥룡각이요, 우편은 금봉루라.  
 이교<sup>357</sup>)에 뜻을 두고  
 조자건<sup>358</sup>)이 글을 지어 동작대부 운허든<sup>359</sup>)  
 조맹덕<sup>360</sup>)의 연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하겠나?”

### 13. (멧돼지 등장) 멧돼지가 나서며 자신이 상좌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레] 이 때에 멧돌<sup>361</sup>)이가 척 나서며,  
 그 나발같은<sup>362</sup>) 주둥이를 휘휘 내두르고,  
 꺼시력눈<sup>363</sup>)을 끔적끔적하며,  
 “달과충도 저리 가시오.  
 달과충 허길래 내 위인 줄 알았더니,  
 말을 듣고 보니까 나만 못하요그려.”

A roe deer sits forward and speaks.

[Jungmori] “Listen to me. Listen my story about my origin.

Li Bai(李白) read poems with me for ten years and flew up to heaven, riding a whale.

He was such a talented man that he ascended to the capital city of heaven.

Being an animal, I am worthless and humble here.

I am as old as the poet, so I deserve the high seat.”

A raccoon steps forward.

“Mr. Roe Deer, you are younger than I.”

“Mr. Raccoon, when were you born?”

“Listen to my story about my root.

Cao Cao(曹操) built a pavilion on the left and a tower on the right.

The premier had two girls in his mind.

He told his son to write a poem about the pavilion.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 **13. (A Boar Appears.) A boar comes out and gives a reason why he deserves the high seat.**

[Aniri] Just then, a boar jumps in.

He wields his mouth which looks like a bugle.

He slowly blinks his thorny eyes.

“Mr. Raccoon, move back.”

I thought you were older than I.

After hearing you, I realized you are younger than I.”

“아, 저낭청,<sup>364</sup> 언제 났가디<sup>365</sup> 그러시오?”  
 이 때에 멧돌이가 나앉아서 말을 허는디,  
 [중모리] “이 내 말을 들어봐라. 나의 수자<sup>366</sup> 들어봐라.  
 나는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sup>367</sup>에 사신 갔다,  
 주린 충절<sup>368</sup> 십구 년에 수발<sup>369</sup>이 진백하여<sup>370</sup>  
 고국 산천 험한 길로 허유허유<sup>371</sup> 돌아오던  
 소중량<sup>372</sup>의 연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 14. (토끼 등장) 토끼가 나서며 자신이 상좌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레] 이 때에 토끼가 깡충 뛰고 나앉으며,  
 “저낭청도 저리 가시오.  
 저낭청 장담허고 나서길래 나보다 훨씬 위인 줄 알았더니,  
 거, 말 듣고보니 내 고손지<sup>373</sup> 낫세만밖에<sup>374</sup> 안 되요.”  
 좌중 짐승들이 모두 박장대소<sup>375</sup>하며,  
 “아니, 토생원<sup>376</sup>이 언제 났기에 그러시오?”  
 “예, 내 근본은 이를 테니 들어보실랴요?”  
 “어디 한번 일러보시오.”  
 [자진모리] “나의 내력 들어봐라. 나의 근본을 들어봐.  
 한 광무<sup>377</sup> 시절에 간의대부<sup>378</sup>를 마다허고,  
 부운으로 차일 삼고,<sup>379</sup>  
 동강 여울 칠리탄<sup>380</sup> 뉘싯줄을 당겨놓고 고기 낚기 힘을 쓰던,  
 엄자룡<sup>381</sup>과 날과 둘이 연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Mr. Boar, when were you born to talk to me like that?”

The boar steps forward and speaks.

[Jungmori] “Listen to me. Listen to this story about my age.  
Su Zhong Lang(蘇中郎) of Han(漢) Dynasty visited an enemy  
country as a diplomat.

His life was hard but he remained loyal to his country for 19  
years, and his hair became gray.

He made an arduous journey back to his country.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 **14. (A Hare Turns Up.) A hare shows up and explains why he deserves the high seat.**

[Aniri] A hare jumps up and sits down.

“Mr. Boar, step back.

You spoke so confidently that I thought you are older than I.  
After hearing you, I realized you are as old as my grandchild's  
grandchild.”

The animals on the left and right laugh loudly, clapping their hands.

“Mr. Hare, when were you born?”

“Listen to my story about my origin.”

“Go ahead and speak.”

[Jajin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root.

Yan Zi Ling(嚴子陵) declined the offer of a government position  
in ancient times.

He instead took clouds as a parasol.

He dipped a fishing line in a river and engrossed himself in  
picking up fish.

The fishing man and I are of the same age.

Isn't the high seat mine?”

15. (호랑이 등장) 호랑이가 등장하여 멧돼지를 잡아먹으려  
할 때, 별주부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보고, 토생원을  
부른다는 것이 발음을 잘못하여 호생원이라고 부르니  
호랑이가 내려온다.

[아니리] 좌중 짐승이 가만히 듣더니,  
“대체 토생원이 상좌하겠소그려.  
금년부터는 토생원이 상좌하십시오.”  
이때에 토끼란 놈이 상좌에 올라앉아서,  
귀를 털고, 발을 털고 생방정<sup>382</sup>을 떨 적에,  
재수가 없을라고  
여러 날 굶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한 마리를 잡아먹  
을까? 내 배가 고파서 못 살겠는다.’  
이 호랭이란 놈이 이리저리 돌아댱겨도<sup>383</sup> 한 놈도 걸린 놈이 없겠다.  
‘아니, 오늘은 이놈들이 어디로 싹 가버리고 한 놈도 안 걸리니,  
시장기가 들어 큰 일 났는다.’  
한 곳을 당도할 적에,  
이 방정맞은 놈의 여시<sup>384</sup>가 기침을 ‘꽤’ 해는 것이,  
호랑이가 돌아보니까 조그마헌 골짜기에 모두 온갖 짐승들이 오모로  
히<sup>385</sup> 앉았는데,  
호랑이 마음에 찰박지게<sup>386</sup> 되었제.  
‘아, 이놈들이 전부 여가<sup>387</sup> 있구나,  
아, 여기 모여 있으니 한 놈이 걸려야지?  
웁다. 내 저기서 살찐 놈들부터서 내 먹어야지.’  
이놈이 뱀다<sup>388</sup> ‘어흥 크르르르르’ 허고 달려드니,  
좌중 짐승들이 모두도 정신을 못 차채리고, 똥오줌을 벌벌벌벌 싸고,  
사지를 벌벌 떨고,



**15. (A Tiger Comes Out.)** A tiger comes and tries to eat the boar. Terrapin mistakenly calls the tiger by mispronouncing Hare's name. Pleased, the tiger comes down from the high seat.

[Aniri] The animals on the left and right speak.

"Mr. Hare, you deserve the high seat.

You can sit on it from this year on."

Hare climbs and sits on the high seat.

He acts frivolously, shaking his years and feet.

But he is unlucky.

A tiger who went hungry for days speaks to himself, "When can I eat an animal? I am starving now."

The tiger wanders around, but he doesn't see an animal.

He speaks to himself, "Gee, where did all the animals go? I don't see anyone.

I am hungry. I am in trouble."

The tiger arrives at a certain place.

A careless fox coughs, and something bad happens.

The tiger learns that all sorts of animals gather together in a small valley.

He is ecstatic and murmurs.

"Darn animals were all here.

They are all here, so I can catch at least one.

Good. Let me eat the plump ones first there."

The tiger roars and runs fast at the animals.

All the animals are so horrified that they take shits and pees, and their four limbs shive.

죽은 듯이 모두 이만하고<sup>389)</sup> 있을 적에,  
 이때에 토끼란 놈이 강짱 뛰어 나왔으며,  
 “아이구, 장군님. 어디 갔다 오시오?”  
 “오냐, 내 배가 고파서 너그<sup>390)</sup> 한 마리아 잡아먹을까 했더니,  
 너희들이 여기서 노니 한 마리 걸릴 놈이 있어야지?  
 대관절 여기서 뿔하고 노느냐?”  
 “예, 저희들끼리 상좌를 삼고 놀고 있습니다.”  
 “뿔이 어찌? 이놈들!  
 아니, 차산중<sup>391)</sup> 어른은 나밖에 없는데  
 너희끼리 상좌를 삼고 놀아?  
 이런 죽일 놈들이 있는가!  
 부애<sup>392)</sup>난 김에  
 이놈들 살찐 놈으로 몇 놈 식후리라.”<sup>393)</sup>  
 이때에 멧돌이허고 고라니<sup>394)</sup>허고 둘이 머리를 서로 대고 크게 걱정  
 을 허는데,  
 “죽을 놈은 너허고 나허고 둘밖에 없구나.”  
 멧돌이가 옆눈으로 가만히 호랭이를 쳐다보니,  
 호랭이 뱃가죽이 등에 딱 붙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죽게 되었지.  
 멧돌이가 씩 나서며,  
 “장군님, 여기 죽을 놈은 고라니허고 나허고 둘밖에 없는데,  
 누구부터 잡수실까요?”  
 “아, 이놈아. 물어볼 거 뭐 있느냐?  
 살찐 너부터 먹어야제.”  
 멧돌이가 이 말을 듣더니, “아이구, 인자 내가 죽네! 아이구, 인자 내  
 가 죽네!”

They step back and stay as if they were dead.  
Just then, Hare jumps forward.  
“Oh, general. Where have you been?”  
“I was so hungry that I wanted to eat one of you.  
I couldn’t see any one of you because all of you were here.  
What on earth are you up to here?”  
“We are having fun, selecting our boss.”  
“What? You villains!  
I am the only boss in this mountain.  
How can you play such a game?  
You should all die!  
I am already angry.  
Let me kill the chubby ones first.”  
At that moment, a boar and an elk face each other and worry  
about themselves.  
“It looks like nobody except you and I will die.”  
The boar looks askance at the tiger.  
The tiger’s belly skin is attached to the back skin.  
He can’t help thinking that he will die.  
The boar moves forward.  
“General, nobody except me and the elk are eligible for your  
food.  
Who do you want to eat first?”  
“You scoundrel. Do you have to ask that question?  
I will definitely eat you first because you are fat.”  
The boar responds, “Alas, I am dying now! Alas, I am dying  
now!”

저 놈 뱃속에 가서 장사할 일을 생각하니 어안이 병병하야,  
 뒤를 돌아다보며 허는 말이,  
 “여보게, 명년부터는 이런 모임이 또 있을 것이니,  
 우리 큰아들놈 보고 참석 못하게 말 좀 해보고,  
 우리 작은 아들놈 보고 내가 오늘 죽더라고 이런 말이나 좀 전해  
 주소.”  
 “아이고, 장군님. 인자 나이도 많고,  
 인자 살기도 귀찮더니  
 어서 잡썰버리시오.”  
 “야 이놈아!  
 내가 배가 고파서 거기까지 못 가겠으니,  
 네가 이리 오너라.”  
 멧돌이가 아니 갈 수도 없고,  
 호랭이 앞으로 그저 죽을 차례로 뭉그적뭉그적<sup>395)</sup>하고 들어갈 적에,  
 이때에 호랭이가 재수가 없을라고,  
 별주부가 하필 거기를 바라봤지.  
 가만히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모여 있는데,  
 한가운데 상여틀<sup>396)</sup>만한 것이 딱 쪼굴치고<sup>397)</sup> 앉았었다.  
 별주부 마음에,  
 ‘아니, 저것이 퇴길까?  
 내 수궁에서 들을 적에는 퇴기가 조막만헌<sup>398)</sup> 줄 알았더니,  
 아, 저렇게 클까?  
 저 놈 무섭게 생겼는다.  
 어라, 내 기왕 나왔으니 한 번 불러봐야지.’  
 이때에 별주부는 원해만리<sup>399)</sup>를 아래턱으로 밀고 올라와서 입심<sup>400)</sup>  
 이 적었든가,

He is dumfounded to think that he will be buried in the tiger's belly.

He turns around and speaks.

"Folks, there will be another gathering like this next year.

Please tell directly my first son not to join it.

Please send this message to my second son even if I die today."

"Oh, general. I am now old.

I don't have the will to live anymore.

Please eat me."

"You villain!

I am so hungry I can't go there.

You come here."

The boar cannot help but going.

He reluctantly proceeds to the tiger, thinking he will die.

Something unfavorable to the tiger happens.

Of all places, Terrapin looks at the place of the animals.

He learns that all sorts of animals are there.

An animal as large as a bier squats in the middle of the place.

Terrapin talks to himself in his mind.

"Is that a hare?

I heard in the sea palace that a hare is a small animal.

Is a hare that large?

That villain looks fearsome.

Since I am already here, let me call him."

His mouth is weak because he pushed water with his lower jaw on the long journey on the sea.

‘퇴’자를 ‘호’자로 변해서 부르겠다.

“저기 저기 앉은 것,

몸은 얼쑹덜쑹하고<sup>401)</sup>

꼬리는 잔뜩 긴 게,

퇴 퇴 퇴 호생원<sup>402)</sup> 아니오?”

이렇듯 불리노니,

호랭이가 떡 들어보니 생원이라고 허겠다.

‘아니, 내가 이 산중에 살았지만은

내 생원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는다.

아니 누가 날다려<sup>403)</sup> 생원이라고 헐까?

어라,<sup>404)</sup> 내 갔다 와야지.’

“너 이놈들! 내 잠깐 다녀올 터이니,

한 놈도 가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으려다!”

[엇모래]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sup>405)</sup> 깊은 골로<sup>406)</sup> 한 짐승이 내려와.

누에머리<sup>407)</sup>를 흔들고,

양 귀 찢어지고,

몸은 얼쑹덜쑹,<sup>408)</sup>

꼬리는 잔뜩 길어 한 발<sup>409)</sup>이나 남고,<sup>410)</sup>

동개<sup>411)</sup>같은 뒷다리,

전동<sup>412)</sup>같은 앞다리,

쇠낫<sup>413)</sup>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엄동설한<sup>414)</sup> 백설격으로<sup>415)</sup>

좌르르르 뿌리고,

주홍 입 딱 벌리고,

홍앵홍앵하는 소리 산천이 뒤넘고,<sup>416)</sup> 땅이 툭 꺼지는 듯,

자라 앞에 가 우뚝 서니,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sup>417)</sup> 가만히 었졌다.<sup>418)</sup>

He mispronounces the tiger's name,  
"Hi. You animal sitting there.  
Your body is mottled.  
Your tail is long.  
Aren't you Mr. Hare?"  
He calls the tiger as said above.  
The tiger hears Terrapin saying mister.  
He mumbles, "I have lived in these mountains.  
Nobody called me with such respect.  
Who called me with such respect?  
Let me go and see him."  
"You villains! I will come back soon.  
Nobody leaves and moves until I come back!"  
**[Eonmori]** The tiger comes down.  
A beast comes down through a deep valley with pine trees.  
He shakes his sharp head.  
His ears are torn apart.  
His body is mottled.  
His tail is more than one meter long.  
His fore legs are strong.  
His hind legs are robust.  
With his long claws, he disturbs the roots of the grass and the  
thick sand as if he were splattering snow in a cold winter.  
He opens his red mouth.  
The tiger's roar seems to shake a stream and a mountain and  
destroy the ground.  
He stops in front of Terrapin.  
Terrapin is so scared that he remains motionless with his head  
pulled in.

16.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호랑이가 내려와 별주부를 보고 잡아먹으려 하자, 별주부가 자신은 자라가 아니라고 둘러댄다.

[아니리] 호랑이가 썩 내려와보니, 아무 것도 없지.

“아니, 누가 나를 불렀어?”

아니, 누가 나를 불렀어?

이리 좀 나와봐.”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 기척이 없겠다.

호랑이가 기가맥혀서,

‘허허, 나 재수가 없이. 기가 맥혀.

아니, 이거 어떤 놈이 나를 불러 갖고 이렇게 재수 없이 맹글았을까?<sup>419)</sup>

거 있는 꼴착<sup>420)</sup>을 쳐다보니,

모여 있던 짐승들이 썩 가버리고 하나도 없제.

‘참, 내 오늘 시장기가 들란개<sup>421)</sup> 별 일이 다 생겼네.

내 올라가 봐야제.’

막 올라갈라고 가만히 앞을 보니까, 뿔이 똥그럼헌<sup>422)</sup> 것이 딱 엮어  
졌는디,

생전 못 보던 것이었다.

‘아아, 이것이 나를 불렀을까?

아니, 이것이 나무 접시도 아니요,

누어 버린 쇠똥도 아니요,

이게 무엇일까?’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딱 보더니,

‘아, 요것이 하나님 똥이로고나.

내 배고픈 김에 요것이라도 먹어야제.

하나님 똥 먹으면 명 길다더라.



16. (The Tiger and Hare Meet.) The tiger comes down,  
sees Terrapin, and tries to eat him. Terrapin says  
that he is not a terrapin.

[Aniri] The tiger has come down and realizes that there is nothing.

“Who called me?

Who called me?

Come out here.”

The tiger sees nothing no matter what he speaks.

Stunned, the tiger murmurs,

“I am unlucky and stunned today.

Who called me and made me unlucky today?”

He looks at the valley of the animals.

All the animals are gone from the valley.

He mutters, “Something strange made me unlucky to be hungry today.

Let me go back.”

The moment the tiger tries to go back, he sees something round lying face down.

He is not familiar with it.

He murmurs, “Did this thing call me?

This is not a wood plate.

This is not a cow dung thrown away.

What is this?”

He looks up to the sky and murmurs.

“Oh, this is God’s dung.

I am hungry, so let me eat it.

It is said eating God’s dung extends our life.

기우라<sup>423)</sup> 한번 봤은개<sup>424)</sup> 먹어버려야지.’  
 그 억센 발톱으로 자래를 꼭 쥐고 막 먹으랴 헐 적에,  
 별주부 기가맥혀, ‘이놈 입 속으로 들어가면 깨물려서 영락없이 내가  
 죽게 되겠는디,  
 어라, 내 이왕 죽을 터면 누군가 야물게<sup>425)</sup> 좀 말이나 하고 죽어야제.’  
 “아이고, 깨물린다!” 해논 것이,  
 호랭이가 깜짝 놀래갓고 쭉 꿰어 내던지며,  
 ‘아니, 이것이 뭐라고 말을 허네그려.  
 아, 이 똥고름헌<sup>426)</sup> 것이 뭐라고 말을 허?’  
 이때에 별주부가 저 속에서 말허는디,  
 “거기 앉은 게 누구시오?”  
 ‘아니 요것이 날다려 통성명<sup>427)</sup>허자고 허는 것이로고나.’  
 “오냐. 내 이 산중 어른 호생원이라고 허느니라.  
 너는 명색<sup>428)</sup>이 무엇이냐?”  
 이때에 별주부가 호랭이란 말을 듣더니 무섭중이 왈작 나가지고 옹게  
 갈쳐주는디,<sup>429)</sup>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sup>430)</sup> 사대손 별주부<sup>431)</sup> 별나리<sup>432)</sup>라고 허요.  
 명색이 자라새끼라고 합니다.”  
 호랭이가 자래란 말을 듣고,  
 ‘야, 이거 옹게 참 맛진<sup>433)</sup> 진미<sup>434)</sup> 한 번 먹어보겠구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한 번 놀아보고 먹어보자.’  
 호랭이가 좋아라고 한 번 놀아보는디,  
**[중중모리]** “얼씨구나, 좋을씨구. 얼씨구나, 좋을씨구.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sup>435)</sup>을 원했더니,  
 오늘날 너를 만났으니  
 맛진 진미를 먹어보자.

Since I already saw it, let me eat it.”  
The tiger grabs Terrapin with his strong claws and tries to eat him.  
Struck dumb, Terrapin mutters, “If I get into this villain’s mouth, I will surely die, being bitten.  
If I am to die, let me speak some words clearly before I die.”  
He says, “Alas. I am bitten!”  
Startled, the tiger throws Terrapin away.  
The tiger murmurs, “This thing can speak.  
This round thing said some words.”  
Terrapin speaks with his head inside.  
“Who is sitting over there?”  
The tiger murmurs, “This thing wants to exchange names with me.”  
He speaks, “Yes, I am a tiger, the boss of this mountain.  
What is your name?”  
After hearing the name ‘tiger,’ Terrapin is so frightened that he tells the truth about himself.  
“Yes. I am a terrapin, a fourth descendent of a prison official in the sea world.”  
I am a terrapin.”  
Hearing the word ‘terrapiin’ the tiger mumbles,  
“Good. I will have the chance to taste a delicious cuisine.  
Since this is a rare chance, let me play with it before I eat it.”  
The tiger joyously plays with Terrapin.  
**[Jungjungmori]** “Hurray! Yippee! Whoopee! Oh boy!  
I’ve wanted to eat terrapin soup all my life.  
I met you today.  
Let me taste this cuisine.

이리 오너라, 먹어보자.”

“아니, 내가 자래 아니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sup>436</sup> 술에 타 먹거르면 만병회춘<sup>437</sup>의 명약이라드라.

이리 오너라, 먹어보자.”

“아니, 내가 두꺼비도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먹고 죽는 철남생이<sup>438</sup>요.”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먹거르면 습기<sup>439</sup>에는 명약이라드라.

이리 오너라, 먹어보자.”

## 17. (별주부 목 내력) 별주부가 목이 늘어나는 내력을 말하고, 호랑이 급소를 물자, 호랑이가 겁이 나서 도망한다.

[아니레] 아, 이놈이 먹기로 작정을 하니,

별주부 기가 맥혀,

‘아이구, 이 급살<sup>440</sup>맞을 것이

동의보감<sup>441</sup>을 보았는지,

비상<sup>442</sup> 덩어리라도 먹기로 작정을 하니,

아이구, 인자 내가 죽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거르면 수궁은 들어가도 못하고.

Come here. Let me eat you.”

“No, I am not a terrapin!”

“Then, what are you?”

“I am a toad.”

“A toad is even better.

If I roast you alive and eat you with wine, I will gain my health back.

Come here. Let me eat you.”

“No, I am not a toad either.”

“Then, what are you?”

“I am a tortoise. You will die if you eat me.”

“A tortoise is even better.

If I eat you alive, I will be immediately cured of the diseases of wet energy.

Come here. Let me eat you.”

**17. (Story about Terrapin’s Neck) Terrapin narrates a story of how his neck became long, and then bites the tiger’s vital point. The tiger flees away.**

[Aniri] This villain is only determined to eat Terrapin.

Dumfounded, Terrapin murmurs,

“God! This villain should die a sudden death.

He must have mastered a classic medical book.

He is determined to eat even poison.

Alas! I am dying now!

Alas! If I die here, I can’t go back to the sea palace.

아이구, 이를 어쩔그나!’

별주부가 곰곰이 생각허더니, ‘에라, 내가 이왕 죽을 테면 패술<sup>443</sup>)이  
나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

목을 쑥 빼고 호랭이 앞으로 엉금엉금 들어가며,

“자, 내 목 나가요!”

호랭이가 가만히 보니 어떻게 징그럽고 이상스럽게 생겼는지,

“아, 여보시오. 아, 그만 좀 나오시오!”

호랭이가 더 뒤로 몽그적몽그적<sup>444</sup>) 나오면서,

“아, 여보시오. 그만 좀 나오시오.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 수십 발 나오겠소.

그런디 어찌 목이 들랑달랑 이상스럽게 그리 생겼소?”

“오냐. 내 이 목병 내력을 일러줄 터이니 들어볼래?”

“어디 좀 일러보시오.”

[자진모리] “나의 내력 들어봐라. 나의 내력을 들어봐.

우리 수궁 퇴락하야<sup>445</sup>)

영덕전<sup>446</sup>) 너룬<sup>447</sup>) 곳에 천여 간<sup>448</sup>) 집을 지을 때,

기왓장을 나 홀로 올리다가

한 발 자칫 잘못되어 추녀<sup>449</sup>) 끝에 뚝 떨어져 목 병신이 되었기로

명의<sup>450</sup>)한테 문의헌즉<sup>451</sup>)

호랭이 쓸개가 좋다기로,

도리랑귀신<sup>452</sup>) 잡아 타고 호랭이 사냥을 나왔더니,

네가 진정 호랭이나?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비수검<sup>453</sup>) 드는 칼로 이 호랭이 배를 갈라

쓸개 한 봉<sup>454</sup>) 내오너라.”

도리랑 허고 달려들어,

Alas! What should I do?"

Terrapin ponders and murmurs, "Oh well. I am going to die.

Let me play a trick on him before I die."

He sticks his neck out and goes slowly to the tiger.

"Here comes my neck!"

The tiger takes a close look at the neck, taking it to be creepy and strange.

"Hello, mister! Stop coming out!"

The tiger steps backward little by little.

"Hello, mister! Stop coming out!"

If your neck comes out at that pace, it might extend a few kilometers a day.

You can pull your neck in and out. How strange it is!"

"Let me tell you how I got this neck. Are you interested?"

"I am interested."

**[Jajinmori]** "Listen to my story. Listen to my story.

Our sea palace once collapsed.

I was building a large tile-roofed house in the wide sea palace.

I lifted up tiles to the roof alone.

I made a false step, fell down from the corner of the eave, and my neck was deformed.

I consulted a renowned doctor.

He said a tiger's gall bladder is a good medicine.

I came here, riding a stream demon world to hunt down tigers.

Are you really a tiger?

Is the stream demon there?

Cut this tiger's belly in half with a sharp knife!

Bring a gall bladder here."

Terrapin goes at the tiger.

[아니래] 이 놈이 훌떡<sup>455)</sup> 뛰어가지고,  
 호랭이 그 저 깊은 살<sup>456)</sup>을 꼭 물고 외로<sup>457)</sup> 뺨 돌아논 것이,  
 어찌 뜨겁고 아프던지, 이 놈이 거기서 그냥, ‘아이고, 이 급살맛을  
 것이 상당히 무서운 놈이로고나.’ 허고  
 뛰고, 굴굴고,<sup>458)</sup> 뚝 잡아떼고,  
 얼마를 도망갔던지 한정<sup>459)</sup> 없이 가가지고,  
 숨을 쉬려고 가만히 보니까, 저 의주 압록강 가에까지 뛰었던 모양이제.  
 거기서 혼자 앓아 장담허는디,  
 ‘아따, 그것 참. 그놈 천하<sup>460)</sup> 무서운 놈이로고나.  
 아, 그 조막만헌<sup>461)</sup> 것이 어떻게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나를 이렇게  
 물어 뜯어?’  
 막 숨 쉴려고 앞을 보니까,  
 바우 틈새기서<sup>462)</sup> 생남생이<sup>463)</sup> 한 마리가 뽀쫂쫂롬히<sup>464)</sup> 올라오니,  
 남생이는 별주부허고 똑같이 생겼었다.  
 아, 이 놈이 어찌 거기서 또 놀래왔던지, ‘어따, 이 놈이 여까장<sup>465)</sup>  
 찾아왔네!’  
 얼마를 뛰어왔든지, 한참 뛰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 함경도 세수랑고개까정<sup>466)</sup> 뛰어왔던 모양이제.  
 ‘아따, 그 참 그 놈 무선 놈, 조막만헌 것이 무서운 놈이로고나.  
 아, 그것이 나를 그렇게 따라다녀?  
 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서운 것이 없었는디,  
 고것한테 생<sup>467)</sup> 혼이 났네그러.  
 제가 여기까지는 못 올 것이다.’  
 이 놈이 송진 따서 치료혈 적에,  
 이때에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아 버리고 곰곰이 생각하니,  
 ‘내 정성이 부족하여 이리 된 것이니,



**[Aniri]** Terrapin moves fast.  
 Terrapin bites the tiger's private thing hard and turns around.  
 The tiger is so painful that he thinks to himself, 'My goodness.  
 This fearsome villain should die a sudden death.'  
 He runs, rolls over, and gets Terrapin off.  
 He flees, running continuously without an end.  
 He takes a rest and realizes that he is in the side of Abrok River.  
 He mumbles with confidence,  
 "Gee, Terrapin was a fearsome villain.  
 How can that small thing run at me and bite me so relentlessly?  
 He tries to relax and looks in front of him.  
 A tortoise comes up from between rocks.  
 A tortoise looks like Terrapin.  
 Surprised again there, the tiger mutters, "Oh my god. This villain  
 followed me all the way here!"  
 He runs for a while and rests for a moment.  
 He has run all the way to a mountain pass in Hamgyeong  
 Province.  
 He mutters, "He is small, but he is a horrible villain.  
 Why does he follow me like that?  
 I have lived my life without fearing anything.  
 But I was terrified by him.  
 I suppose he can't follow me here."  
 He picks resin from a pine tree and cures himself.  
 Meanwhile, Terrapin ponders after driving the tiger away.  
 He murmurs, "I got into this situation because I was not  
 conscientious.

내가 산신제를 지낼밖에 수<sup>468</sup>)가 없구나.’

산신제<sup>469</sup>)를 지내는데,

## 18. (산신제) 별주부가 토끼 만나기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낸다.

[진양조] 계변양류<sup>470</sup>) 늘어진 반송가지<sup>471</sup>)를 앞니로 잘끈<sup>472</sup>) 꺾어내어

진토<sup>473</sup>)를 살살 쓸어버리고, 암상<sup>474</sup>)으로 제판<sup>475</sup>) 삼고,

낙엽으로 면지<sup>476</sup>)를 깔고,

산과목살<sup>477</sup>)을 주워다가

방위 갈라 받쳐 놓고,

은어 한 마리 잡어내어 어동육서

홍동백서<sup>478</sup>) 방위 갈라 받쳐놓고,

축문을 지어서 읽는구나.

[축문] “유세차<sup>479</sup>) 갑신 유월

남해 수궁 별주부 감소고우.<sup>480</sup>)

일월성신<sup>481</sup>) 후토지신<sup>482</sup>) 명산 신령님께 지성으로 비나니다.

남해 용왕이 우연득병<sup>483</sup>)하야,

선의도사<sup>484</sup>) 문병 후에 퇴간이 좋다하오니

중산<sup>485</sup>) 퇴끼 한 마리를 생금<sup>486</sup>) 하야 주시기를 축수<sup>487</sup>)하나이다.”

## 19. (별주부 토끼 상면) 별주부가 토끼를 발견하고 토생원 이냐고 물으니, 토끼가 좋아하며 내려온다.

[아니레] 빌기를 다 한 연후에,<sup>488</sup>)

Let me hold a ritual to a mountain god.”

He holds a ritual to a mountain god.

**18. (Ritual to a Mountain God) Terrapin holds a ritual  
to a mountain god so that he can meet a hare.**

[Jinyangjo] Terrapin cuts a drooping willow branch off by a stream with his front teeth.

He brushes dirt off a flat rock with the branch and uses it as a ritual table.

He puts fallen leaves on the rock.

He picks up mountain fruits.

He puts red fruits to the east, and white fruits to the west.

He catches a fish and places it to the east and red meat to the west.

He puts red fruit to the east white fruit to the west.

He writes a ritual prayer and reads it.

[Ritual Prayer] “This ritual prayer begins on a day of June.

Terrapin from the sea palace prays to you.

I pray to the gods of the sun, the moon, stars, the ground, and famous mountains.

The dragon king got sick suddenly.

A god from heaven recommended a hare’s liver.

I pray to you that you grant me a living hare from a mountain.”

**19. (Terrapin Meets Hare.) Terrapin spots Hare and  
asks him whether he is a hare. Hare happily comes  
to Terrapin.**

[Aniri] Terrapin finishes the ritual.

[중중모리] 한 곳을 바라보니 묘한 짐승이 앓았네.

두 귀는 종긋,

눈은 도리도리,<sup>489)</sup>

허리는 늘썩,<sup>490)</sup>

뽕닥<sup>491)</sup>은 묘뚝,<sup>492)</sup>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sup>493)</sup>로다.

녹수청산<sup>494)</sup>의 애굽은<sup>495)</sup> 장송 휘늘어진 양류<sup>496)</sup> 속,

들랑달랑 오락가락 앙그조춤<sup>497)</sup>의 췌는 토끼,

정녕한 토끼로다.

자라가 보고 고이하여,<sup>498)</sup>

화상을 보고 퇴끼를 보니

분명한 토끼로다.

“저기 앓은 거, 퇴, 퇴생원 아니요?”

토끼가 듣고 좋아라고,

“거 뉘기가<sup>499)</sup> 날 찾아?

거 뉘가 날 찾아?

내가 이 산중에 살았지만은

생원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네.

거 뉘기가 날 찾아?

기산<sup>500)</sup> 영수<sup>501)</sup> 소부<sup>502)</sup> 허유<sup>503)</sup> 피세가자고<sup>504)</sup> 날 찾아?

수양산<sup>505)</sup> 백이숙제<sup>506)</sup>가 채미<sup>507)</sup>허자고 날 찾아?

완월장취<sup>508)</sup> 강남 태백<sup>509)</sup> 기경상천<sup>510)</sup>하는 길에 함께 가자고 날 찾아?

도화유수<sup>511)</sup> 무릉<sup>512)</sup> 가자 거주속객<sup>513)</sup>이 날 찾아?

백화심처일승귀<sup>514)</sup>라, 춘풍석교화림중<sup>515)</sup>의 성진 화상<sup>516)</sup>이 날 찾아?

**[Jungjungmori]** Terrapin spots a strange animal sitting in a place.  
 His two ears are long.  
 His two eyes are round.  
 His waist is thin.  
 His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A tall pine tree and a willow droop down by a blue stream and  
 in the green mountain.  
 A hare moves in and out of trees, and hesitantly stands up.  
 He is definitely a hare.  
 Terrapin takes the hare to be weird.  
 Terrapin looks at the picture and the hare.  
 He is definitely a hare.  
 “Hi, there. Isn’t that Mr. Hare?”  
 Hare is pleased.  
 “Who is looking for me?”  
 Who is looking for me?  
 I have lived in this mountain.  
 Nobody called me with such respect.  
 Who is looking for me?  
 Are ancient hermits asking me to join them to live in a mountain  
 and by a river?  
 Are ancient brothers asking me to join them picking up brackens  
 for food in a mountain?  
 Is the ancient poet, Li Bar(李白), who enjoyed wines and the  
 moon asking me to join him on the journey to heaven riding  
 a whale?  
 Did a person from a paradise where peach blossoms flow in  
 a river come here to offer wine to me?  
 Are you the Buddhist monk who came back to a place where  
 there are all sorts of flowers, a spring wind, and a stone bridge?

거 뉘가 날 찾아?

차산중 운심헌디 부지처<sup>517)</sup> 오신 손님 날 찾을 이가 없건만은

거 뉘기가 날 찾아?

거 뉘가 날 찾아?

건년산 과부 퇴끼가 연분<sup>518)</sup>을 맺자고 날 찾아?

중영산<sup>519)</sup> 갓은<sup>520)</sup> 풍류<sup>521)</sup> 춤 잘 추는 무선이<sup>522)</sup> 왔다고 함께 가자  
고 날 찾아?”

요리로 깡쥬, 저리로 깡쥬,

짜우똥거리고<sup>523)</sup> 내려온다.

**[아니레]** 이 놈이 방정을 떨고 내려오다가,

자라허고 토끼허고 콧 들이받았것다.

자라 깜짝 놀래며,

“아이고, 마뻘<sup>524)</sup>이야!”

토끼 있다 허는 말이,

“아, 여보시오. 당신 마뻘보다 내 좋은 코가 다쳤소.

우리 통성명<sup>525)</sup>이나 합시다.

그대는 뉘라 하시오?”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sup>526)</sup> 사대손 별주부<sup>527)</sup> 별나리<sup>528)</sup>라 하오.

그대는 뉘라 하시오?”

“예. 나는 세상에서 이음양순사시<sup>529)</sup>하던 예부상서<sup>530)</sup> 월톨러니,<sup>531)</sup>

도약주<sup>532)</sup> 대취하야<sup>533)</sup>

장생약<sup>534)</sup> 그릇 짓고

적하중산<sup>535)</sup>하야 머무른지 오렐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왈, 날다려<sup>536)</sup> 퇴생원이라 한답니다.”

이때에 별주부 퇴명<sup>537)</sup> 말 반기<sup>538)</sup> 듣고 함소왈,<sup>539)</sup>

“퇴생원 높은 이름 들은지 오렐러니,

Who is looking for me?

I am in deep mountains covered with clouds, so I am not expecting anybody.

Who is looking for me?

Who is looking for me?

Is the widow hare from the neighboring mountain proposing a date?"

Is someone looking for me to go and see an ancient girl together who was good at all sorts of music and dance?"

Hare jumps here and there

He comes unsteadily down.

**[Aniri]** Hare comes frivolously to Terrapin.

They collide with each other hard.

Terrapin is surprised.

"Ouch! My forehead hurts!"

Hare responds,

"Hello, sir. What is injured is not your forehead but my nose.

Let's exchange names.

Who are you?"

"I am Mr. Terrapin, the fourth descendent of a loyal official in the sea world.

Who are you?"

"I am Hare on the moon. I was a ceremonial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mooth change of seasons.

I was drunk by a medicinal wine.

I made an elixir incorrectly.

I have been relegated to the earth for long time.

People on the earth call me Mr. Hare."

Pleased to know he is a hare, Terrapin smiles and speaks.

"I heard of your name long time ago.

오늘날 상봉키는 하상견지만만무고불측<sup>540</sup>)이로소이다.”

퇴끼란 놈이 별주부 문자<sup>541</sup>) 쓴 것을 가만히 듣더니,

‘아, 저 놈이 큰 포재<sup>542</sup>)가 있는 놈이로고나.

무식허고야 저렇게 문자를 잘 쓸까?

아라,<sup>543</sup>) 내가 문자 한 마디라도 잘못 썼다가는, 이 세상에 있는 문  
장<sup>544</sup>)들이 나로 하여금 망신을 당할 터이니,

내 전에 배웠던 문자나 한 번 베풀밖에 수가 없구나.’

“여보시오, 별주부. 내 문자통<sup>545</sup>) 궁굴어나가요.<sup>546</sup>)

범안홍안<sup>547</sup>)이요,

홍안백발<sup>548</sup>)이요,

홍불감장<sup>549</sup>)이요,

아가사창<sup>550</sup>)이요,

당구삼년<sup>551</sup>)이요,

이불가독식<sup>552</sup>)이요,

탄탄대로,

어동육서,<sup>553</sup>)

좌포우혜,<sup>554</sup>)

홍동백서,<sup>555</sup>)

분향재배<sup>556</sup>)요,

명기위적은 전라감영이요!”<sup>557</sup>)

이놈이 문자를 이리 썼다, 저리 썼다 생방정<sup>558</sup>)을 떨 적에,

이 때여 별주부는 퇴끼를 피어가지고 데리고 갈 마음으로 퇴끼를 추  
는디,<sup>559</sup>)

“아, 퇴선생 문자를 듣고 보니, 글도 문장이오그려.

잘났소, 잘났어!

참 그야말로 얼굴을 보니 기가 맥히게 잘났소.



I didn't expect it would take so long to meet you today."  
 Hare hears Terrapin speak a profound sentence.  
 He murmurs, "That villain is knowledgeable.  
 If he were uneducated, how would he speak a profound  
 sentence?  
 If I speak a profound sentence incorrectly, I will bring disgrace  
 to the famous writers of the world.  
 I can't help unfolding profound sentences to this villain that I  
 previously learned."  
 "Hello, Terrapin. Let me speak profound sentences to you.  
 Eyes can penetrate things through principles.  
 A face is healthy, and hair is gray.  
 You can't suppress your vigor.  
 Your criticism against me can be directed to you.  
 If a dog lives in a school for three years, it can read and write.  
 You can't take all the benefits for yourself.  
 The road is broad and flat.  
 Fish to the east, and meat to the west.  
 Dried meat to the left, and a sweet rice drink to the right.  
 Red fruit to the east, and white fruit to the west.  
 We burn incense and bow twice.  
 The confession of a theft should be done at the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Hare utters profound sentences in a senseless and disorganized  
 manner.  
 Terrapin praises Hare with the view to fool him and take him  
 to the sea palace.  
 "Your profound sentences indicate you are knowledgeable.  
 How great you are!  
 Your face signifies you are truly great.

이 세상에서 몰라 그렇게,  
 우리 수궁 들어가면 오위영문<sup>560</sup> 도대장<sup>561</sup>은 꼭 살아먹겠소.  
 잘났소, 잘났어!”  
 추어노니<sup>562</sup> 퇴끼란 놈 좋아라고,  
 이리 짜웃,<sup>563</sup> 저리 짜웃히고 있다가,  
 “아니, 별주부. 이 세상 뭐하러 나오셨소?”  
 “예, 내가 수궁에서 듣자하니 세상 풍경 좋다고 허길래 완경차로<sup>564</sup>  
 왔나이다.”  
 “그러시오? 내 그 세상 풍경 내력 대강 일러줄 터이니 들어보실라요?”  
 “어디 한 번 일러보시오.”<sup>565</sup>

## 20. (녹수청산) 토끼가 자신의 생활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중모리] “임자 없는 녹수청산<sup>566</sup>  
 일모황혼<sup>567</sup> 저문 날의 월출동령<sup>568</sup> 잠을 깨어,  
 청림벽계<sup>569</sup> 집을 삼고,  
 값이 없는 산과목실<sup>570</sup> 양식을 삼아서 감식하고,<sup>571</sup>  
 신여부운<sup>572</sup> 일이 없어 명산 찾아서 완경혈 제,  
 여산 동남 오로봉<sup>573</sup>과,  
 진국명산<sup>574</sup> 만장봉<sup>575</sup>과  
 봉래, 방장, 영주 삼산<sup>576</sup>이며,  
 태산 숭산 형산 화산<sup>577</sup> 만학천봉,<sup>578</sup>  
 구월산과 삼각, 계룡, 금강산 아미산<sup>579</sup> 수양산<sup>580</sup>을 아니 본 곳 없이  
 모두 놓고,  
 곤륜산<sup>581</sup> 높은 봉을 은은히<sup>582</sup> 올라가서,  
 흑운<sup>583</sup>을 박차고, 백운을 무릅쓰고,

This world doesn't recognize you.  
If you co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surely become a high official.  
How great you are!"  
Hare is happy because Terrapin praised him.  
Hare looks at Terrapin in different directions.  
"Terrapin, what brought you to this land?"  
"I heard in the sea palace that the landscape is great here, so I came here for sightseeing."  
"Is that so? Do you want to listen to my story about the landscape here?"  
"Please tell me about it."

## **20. (Blue River and Green Mountain) Hare brags about his life.**

[Jungmori] "A blue river and a green mountain are ownerless.  
I get up at twilight, when the moon rises over a peak in the east.  
I take green forests and streams as my home.  
I take the delicious fruits in the mountains as my food and eat them for free.  
I visited famous mountains leisurely like clouds.  
I visited Five Peaks which looks like old men,  
the high peak on which the future of a country depends,  
the three divine mountains.  
and numerous valleys and other peaks.  
There is not a famous mountain in Korea or China that I didn't visit.  
I climbed a high divine mountain furtively.  
I kicked away a black cloud and faced a white cloud.

여산의 낙조경<sup>584</sup>)과 위수<sup>585</sup>)의 일출경<sup>586</sup>)을 안하<sup>587</sup>)에 삼렬<sup>588</sup>)할 제,  
 등태산소천하<sup>589</sup>)의 공부자의 대관<sup>590</sup>)인들 이에서 더하드란 말이냐?  
 밤이면 완월<sup>591</sup>) 구경,  
 낮이 되면 유산<sup>592</sup>)혈 제,  
 강산풍경 흥미간의 지상선인<sup>593</sup>)이 나뿐이라.  
 적송자<sup>594</sup>) 안기생<sup>595</sup>)을 나의 제자로 삼아두고,  
 이따끔 심심하면 종아리 때려 가면서 노나니다<sup>596</sup>).  
 이러한 좋은 경치를 다 일러주려 하면 몇 날이 될 줄을 모르겠구나.”

## 21. (토끼의 험난한 생활) 별주부가 토끼의 험난한 생활을 말하며 집을 준다.

[아니리] 이때에 별주부가 가만히 듣더니,  
 “대채<sup>597</sup>) 이 세상 풍경 기가막히게 좋소그려.  
 세상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소그려.  
 그러나 퇴생원 얼굴을 가만히 보니,  
 코가 유자코<sup>598</sup>)요,  
 발땀시가 오입쟁이<sup>599</sup>)라,  
 이 세상에서 몰라 그렇게  
 우리 수궁 나를 따라 들어가면 틀림없는 도대장<sup>600</sup>)은 살아먹겠소.  
 참 잘났소, 잘났어.”  
 이렇게 추어노니,  
 퇴끼란 놈이 이리 짜웃,<sup>601</sup>) 저리 짜웃할 적에,  
 “그러나 퇴생원. 나를 따라서 우리 수궁 들어가면 모르되,  
 이 세상에 있고 보면, 미간<sup>602</sup>)에 화망살<sup>603</sup>)이 비쳐,<sup>604</sup>)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을 당하겠소.”

I watched the sunset over a mountain and the sunrise over a river below me.  
I felt better than Confucius who said the world looked small from the top of Tai Shan(泰山).  
I watch the moon at night.  
I visit mountains by day.  
I am the only living god on land, enjoying the beautiful scenery.  
I treat two legendary gods as my students.  
When bored, I kill time by lashing their calves.  
I am afraid it will take days to talk about the all great scenery.”

## **21. (Hare’s Hard Life) Terrapin threatens Hare, telling him about Hare’s hard life.**

[Aniri] Terrapin has been listening to Hare.  
“Indeed, the landscape is fantastic here.  
I didn’t know the world of the land is that great.  
But I took a close look at your face.  
Your nose is rugged and red.  
Your feet are virile.  
They don’t recognize you in this world.  
But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become a high official without fail.  
How great you are!”  
Terrapin praises Hare as said above.  
Hare is suspicious of Terrapin.  
“Mr. Hare, that’s what will happen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But if you stay here on land, you will go through eight crises because of your ominous fire energy between your eyebrows.”

퇴끼란 놈 깜짝 놀래며,

“아, 여보시오. 초면에<sup>605</sup> 무신 거 재미 없는 소리를 허시오?”

“거 꼭 그렇지요.”

“거 어찌 그렇단 말이요?”

“내 그런 내력을 이를 테니 한번 들어 보실랴요?”

“어디 한번 일러 보시오.

거 참 재미 없이 께적지근헌<sup>606</sup> 말을 허니 큰일 났네.”

이 별주부가 퇴끼란 놈 이상하게 생긴대로 쫓아다니면서 말을 허는디,

**[자진모리]** “일개 한퇴<sup>607</sup> 그대 신세

삼춘구추<sup>608</sup> 다 지내고,

대한<sup>609</sup> 엄동<sup>610</sup> 설한풍<sup>611</sup>에 만학에<sup>612</sup> 눈 쌓이고,<sup>613</sup>

천봉에<sup>614</sup> 바람이 칠 제,

화초목실<sup>615</sup>이 바이없어<sup>616</sup>

앵무 원앙이 꿇쳤다.

어둑한 바위 밑에 새우등 꼬부리고, 발바닥만 할짝할짝 더진 듯이<sup>617</sup>

앉아서,

채운<sup>618</sup> 편월<sup>619</sup>의 무관수<sup>620</sup> 초희왕<sup>621</sup>의 원혼이요,

일월고초 북해상 소중량<sup>622</sup> 고생이로다.<sup>623</sup>

거의 주려 죽을 퇴끼 엄동설한<sup>624</sup>을 겨우 지내고,

벽도홍행<sup>625</sup> 춘이월에<sup>626</sup> 주린 구복<sup>627</sup>을 채우려고, 심산궁곡<sup>628</sup>을

찾고찾어 이리 저리 다닐 적에,

골골이 묻은 것은 목달개<sup>629</sup> 엄착귀<sup>630</sup>요,

봉봉이<sup>631</sup> 섰는 건 매 받은<sup>632</sup> 응주<sup>633</sup>라.

목다래<sup>634</sup> 채거드면<sup>635</sup> 결항치사<sup>636</sup>가 대량대량<sup>637</sup> 채수<sup>638</sup> 고기가

될 것이요,

Startled, Hare says,  
 "We just met. How dare you make such an impolite remark?"  
 "But that's true."  
 "What makes you think so?"  
 "Do you want to listen to my explanation?"  
 "I am ready to listen.  
 I am worried you might offend me with unkind words."  
 Terrapin follows Hare to strange places, as he speaks.  
**[Jajinmori]** "You are just a hare with a trivial fate.  
 Spring and autumn go.  
 In cold winter, snow piles up on numerous valleys.  
 A wind blows hard on numerous peaks.  
 Flowers, grass, and fruit are gone.  
 All birds disappear.  
 In a dark place under a rock, you bend your backbone and lick  
 the bottom of your feet, as if you were deserted.  
 Your fate is the same as that of the ancient king who died in  
 prison below radiant clouds and the crescent moon.  
 Your life is as hard as that of the ancient diplomat who lived  
 in a hut near the Caspian Sea.  
 You almost starve to death and manage to hang on in winter.  
 When peach and apricot blossoms bloom in spring, you wander  
 around deep mountains and valleys to fill your empty stomach.  
 Snares and traps are hidden in every valley.  
 Hunters stand up, holding up hawks on every peak.  
 If you are caught in a snare, you will be strangled to death and  
 be served on a ritual food table.

청천에<sup>639</sup> 뗏난 건, 퇴끼 대구리<sup>640</sup> 덮치려고 우그리고<sup>641</sup> 드는<sup>642</sup>  
 수리<sup>643</sup> 지슘으로<sup>644</sup> 휘어들고,  
 물이꾼 사냥개 반송잎<sup>645</sup> 떡갈 사이로 선뜻 뛰어갈 적,  
 퇴끼 놀래 호도독,<sup>646</sup>  
 ‘수알치<sup>647</sup> 매 놓아라.’  
 해동청<sup>648</sup> 보라매<sup>649</sup> 짓두루미<sup>650</sup> 빼지시<sup>651</sup> 공작이<sup>652</sup> 마루<sup>653</sup> 도  
 리당사 저 끝치 방울 떨쳐,<sup>654</sup>  
 쭉지를 치고,<sup>655</sup> 주먹을 박차고 수루루 펄펄 달려들어,  
 그대 귓전 양 발로 땅그랑게<sup>656</sup> 추켜들고  
 꼬부랑헌 주둥이로 양미간<sup>657</sup>의 골치대목<sup>658</sup>을 그저 팍 팍,  
 퇴끼 때그르르르.”  
 “어, 그 분이 방정맞은 소리를 내 앞에 점점 더 하는데.  
 그러기에 뉘 게 있가디?<sup>659</sup>  
 산 중둥<sup>660</sup>으로 다니제.”  
 “중둥으로 다니는 퇴끼,  
 송하<sup>661</sup>에 숨은 포수 오는 퇴끼를 놓으라고<sup>662</sup> 불 잘 놓는<sup>663</sup> 저 포수,  
 풀감투<sup>664</sup> 풀삼<sup>665</sup> 입고,  
 방패 췌미<sup>666</sup>를 앞세워 기척 없이 샅샅을 때,  
 그대 몸이 얼른하면<sup>667</sup> 상사밤<sup>668</sup>을 왜물 조총<sup>669</sup> 화약 덮사실<sup>670</sup>을  
 얼른 넣어,  
 반달같은 방아쇠  
 고추같이 불을 얹어,  
 한 눈 채그리고<sup>671</sup> 반만 일어서,  
 가는 퇴끼 쩡그려 보고 그저, 꾸루루루루 당!  
 아이구, 데그르르르르.”  
 “어! 그 분이 방정맞은 소리를 말래도 내 앞에 점점 더 하는데.



From the high sky, an eagle intending to grab your head swoops down on the foot of a mountain.

Hunters and hunting dogs run through small and flat pine and oak trees.

Petrified, you move fast.

‘Hunter, release a hawk.’

The young hawk has a tag of a crane’s feather, a decoration of a peacock’s feather, and a leather cord on its leg.

It moves its wings and flies vigorously at you.

It catches you around your ears with two legs.

With the curved beak it punches the bone between your two eyebrows.”

You roll over.”

“My goodness. You continue the rude talk in front of me.

If so, who would stay there?

I would run to the middle of a mountain.”

“You run to the middle of the mountain.

A hunter hiding under a pine tree is ready to fire a rifle at you.

He wears a hat and clothing made of grass.

He holds a string and sits behind a shield without making a sound.

If you pass by, he loads a Japanese rifle with powder and a bullet right away.

The trigger looks like the half moon.

He kindles fire as red as pepper.

He squints his eye and stands half way up.

You run, but he frowns at you. Bang!

You roll over.”

“Gosh, I told you to cut out this unpleasant talk!

그러기에 뉘 개 있가디?  
 시원한 들로 내리지요.”<sup>672)</sup>  
 “들로 닫는 퇴끼 초동목동<sup>673)</sup> 아이들 몽둥이 들어메고,  
 ‘들퇴끼 잡으러 가자!’ 없는 개 호구리니,<sup>674)</sup>  
 허둥지둥 도망할 제 선술<sup>675)</sup> 먹은 초군<sup>676)</sup>이요,  
 그대 간장 생각하면 백등 칠일 곤궁하던 한 태조 간장,<sup>677)</sup>  
 적벽강 추야월에<sup>678)</sup> 조맹덕 정신이라.<sup>679)</sup>  
 짜룬<sup>680)</sup> 꼬리를 살<sup>681)</sup>에다 찌고<sup>682)</sup>  
 충암절벽<sup>683)</sup> 석산<sup>684)</sup> 틈에 정신없이 도망갈 제,  
 무슨 정으로 유산?  
 무슨 정으로 완월?  
 아까 안기생<sup>685)</sup> 적송자<sup>686)</sup> 종아리 때렸단  
 그런 거짓뿌렁이<sup>687)</sup>를 뉘 앞에다가 내어 씹나?”<sup>688)</sup>

## 22. (수궁 흥미) 별주부가 수궁의 삶을 자랑하며 토끼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아니리] 이때에 퇴끼가 별주부 하는 말을 가만히 듣더니,  
 “아, 참 꼭 다 들어맞았소그려.  
 아, 세상에 어찌 내 팔자를 그렇게 꼭 다 들어 잘 알아맞히시오?  
 내 팔자는 그렇거니와,  
 수궁 흥미나 좀 들었으면 좋겠소.”  
 “아, 우리 수궁 흥미야 말로 말할 수 없이 좋지요.  
 우리 수궁 흥미 이야기 듣고, 좋으면 따라갈라고 그러시오?”  
 “아, 좋으면 따라가고 말고요.”

If so, who would stay there?  
I would run to the open field.”  
“If you go down to the field, young woodcutters and cow-herds  
carry sticks on their shoulders.  
They speak as if they have a dog. “Let’s catch a hare!”  
Confused, you run like a drunken woodcutter.  
You feel like the ancient king surrounded by an enemy for seven  
days.  
You feel like the ancient premier, Cao Cao(曹操), defeated by  
a fire attack in Chibi River(赤壁江).  
Your short tail is attached to your groin.  
You flee hurriedly, climbing a rugged cliff.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visit mountains for fun?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enjoy the moon?  
A few minutes ago, you said you lashed the calves of gods.  
How can you tell such a blatant lie to me?”

**22. (Good Things about Sea Palace) Terrapin boasts of  
the sea palace, proposing to Hare that he go with  
him.**

[Aniri] Hare has been listening to Terrapin.  
“What you said is all true.  
How did you make a correct guess about my fate?  
You know about my fate.  
I want to hear about the great life in the sea palace.”  
“The life in the sea palace is so great that it is beyond  
description.  
I suppose you intend to follow me to the sea palace after you  
hear about it.”  
“Of course, I will follow you if it is good.”

“그러면 내 이를 테니 들어보시오.”

[진양조] “우리 수궁 별천지라.

천양지간<sup>689</sup>)에 해위최대<sup>690</sup>)허고,

만물지중<sup>691</sup>)에 신위최령<sup>692</sup>)이라.

무변대해<sup>693</sup>)에 천여 간<sup>694</sup>)의 집을 짓되,

유리 기둥, 호박 주초,<sup>695</sup>) 주란화각<sup>696</sup>)이 좌우로 벌였난디,

우리 용왕 즉위하사 만족<sup>697</sup>)이 귀시허고,<sup>698</sup>) 백성이 앙덕<sup>699</sup>)이라.

왕모 금병의 천일주<sup>700</sup>)와

천빈옥반<sup>701</sup>) 담은 안주

불로초<sup>702</sup>) 불사약<sup>703</sup>)을 싫도록 먹은 후에,

일등미색<sup>704</sup>) 갓은 풍악을 대홍선<sup>705</sup>)에다 가득 싣고 자연거수승거  
산<sup>706</sup>)이라.

요지<sup>707</sup>)로 돌아들 적,

칠백리 군산<sup>708</sup>)들은 물 속에 벌여 있고,

삼천 사장<sup>709</sup>) 해당화는 약수<sup>710</sup>)에 붉었난디,

해내태평 월청명

추강상<sup>711</sup>)에 어적<sup>712</sup>) 소리로 화답<sup>713</sup>)을 허고,

경수<sup>714</sup>) 위수<sup>715</sup>) 낙수<sup>716</sup>) 회수<sup>717</sup>) 양진<sup>718</sup>) 포진<sup>719</sup>) 흑거흑래,<sup>720</sup>)

이런 재미를 알았으면 이 세상에가 있을쏜가?

원컨대 퇴서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수궁 들어가면,

훨씬 좋은 저 풍골<sup>721</sup>)에 미인미색을 밤낮으로 데리고 만세동락<sup>722</sup>)을  
헐 것이니,

염려 말고 같이 가세.

원일견지수궁<sup>723</sup>)이니

두말 말고 같이 가세”

[아니리] 퇴끼란 놈이 가만히 듣더니,

“If so, let me talk about it.”

**[Jinyangjo]** “My sea palace is a paradise.

The sea is the largest thing between heaven and earth.

God is the most sacred thing in the world.

My palace is wide in the limitlessly large sea.

Glass pillars, jade cornerstones, and multicolored towers are on the left and right.

When my king came to the throne, all the people treasured him and looked up to him.

A thousand-day-old wine brewed by a goddess is in a golden bottle.

A food that can be served to a thousand valuable guests is on a jade tray.

We help ourselves to the elixir of youth and elixir of no death.

We enjoy ourselves with beautiful girls on a shiny pleasure boat, thinking the water is better place to live in than a mountain.

The boat arrives at a divine pond.

Many mountains are reflected on the pond.

Wild roses are red on a long sandy field of a divine river.

The sea is peaceful, and the moon is bright.

We respond to a fisherman’s flute on an autumn river.

We travel to and come back from famous rivers, their tributaries, and ports.

You wouldn’t stay on land if you know about the pleasures of the sea life.

I wish you follow me to the sea country.

Given that you look good, you will be happy with beautiful girls day and night forever.

Don’t worry. Let’s go together.

The sea palace is a great place.

Let’s go there together.”

**[Aniri]** The has been listening to Terrapin.

“대처<sup>724</sup>) 별주부 말을 듣고 보니, 수궁 참, 그야말로 참 좋겠소.  
 여보, 별주부. 나 따라갈 테니 데리고 가실라요?”  
 “아, 퇴생원이 꼭 가실 양이면 같이 가고말고요.”  
 “그러면 같이 갑시다.  
 가기는 가는데, 거 물이 시퍼래<sup>725</sup>) 무서울 텐디 어떻게 갈까요?”  
 “그건 염려 마시오. 내가 알아서 잘 모시고 갈 테니 같이 갑시다.”  
 이 퇴끼란 놈이 자래한테 돌려서<sup>726</sup>) 수궁을 따라 들어가는디,  
 [중모레] 자래는 앞에서 앙금앙금,<sup>727</sup>)  
 퇴끼는 뒤에서 깡충깡충  
 원로수변<sup>728</sup>)을 내려갈 적에,  
 건넌산 바위 틈에서 여우 한 마리가 썩 나서며,  
 “저기 가는 퇴끼야!”  
 “오야.”<sup>729</sup>)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 간다.”  
 “너 수궁은 무엇허로 가느냐?”  
 “오냐, 대장 살러<sup>730</sup>) 간다.”  
 “어따, 그 자식 실없는<sup>731</sup>) 놈.  
 수국인지 위방<sup>732</sup>)이다.  
 위방불입<sup>733</sup>)을 하지 마라.  
 녹녹한<sup>734</sup>) 네 놈 마음 말려 무엇하랴마는,  
 고인<sup>735</sup>)이 이르기를 토사호비<sup>736</sup>)라 하였으니,  
 너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sup>737</sup>)에 길들이고,<sup>738</sup>)  
 임천<sup>739</sup>)에 같이 늙어,  
 안개 낀 날 자취로 서로 쫓아  
 동성<sup>740</sup>) 삼아 동기상통<sup>741</sup>) 일시 이별 마잖더니,<sup>742</sup>)

"After listening to your story, I realize the sea palace is a great place.

Mr. Terrapin. I will follow you. Would you take me there?"

"If you want to go, I will certainly take you there."

"Then, let's go together.

I am going, but I am afraid of the blue water. How can I go?"

"Don't worry about that. I will safely take you there. Let's go."

Hare is taken in by Terrapin, following Terrapin to the sea palace.

**[Jungmori]** Terrapin toddles ahead of Hare.

Hare scampers behind Terrapin.

They take the long journey to the shore.

A neighboring fox comes out from the lair between rocks.

"Hi, there. Hare!"

"Yes."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the sea palace."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I am going there to serve as an officer."

"My goodness. You are a fool.

The sea country is a dangerous country.

A dangerous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You are worthless, so it is of no use to try to stop you,

A proverb says, however, that if a hare dies, a fox mourns.

We lived together in a burrow under a rock in this mountain.

We grew up together.

We looked for each other on foggy days.

We were good friends and promised not to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even temporarily.

자래놈의 말을 듣고

망망창해<sup>743)</sup> 먼먼 바다 뉘기를<sup>744)</sup> 보려고 간단 말이나?

가지 마라, 퇴끼야. 가지 말어라.

위방불입<sup>745)</sup>이니 가지 마라.”

[아니레] 퇴끼란 놈이 가다가 껍 돌아서며,

“아, 우리 여시<sup>746)</sup> 형님 아니었으면 꿈쩍 못허고 죽을 뻔 봤소그려.<sup>747)</sup>

나 안 갈라요.

혼자 가시오.”

깡깡깡깡 뛰어 올라가니,

별주부 기가맥혀 가는 퇴끼를 물그리미 바라보더니,

“아, 여보, 퇴공! 이왕 가실 양이면, 내 이 얘거나 좀 듣고 가시오.

여시 저 녀석이 우리 수궁 들어왔을 적에,

우리 용왕님께서 타국<sup>748)</sup> 짐승이라고 귀히 알았더니,

호조<sup>749)</sup> 돈 삼만 냥을 내서 갑자꼬리<sup>750)</sup>에 다 잃고

우리 수궁에서 쫓겨난 놈이요.

퇴생원이 우리 수궁 들어가면 제 행실이 탄로날까 싶어 부득불<sup>751)</sup>

말린 것이니,

여시 저 녀석 따라가지 마시오.

저 자식이 우멍허기가<sup>752)</sup> 한정이 없고,

심술이 보통 놈이 아니오.

저 녀석 따라갔다가는 먹을 데는 제가 가고,

재 너머 김포수<sup>753)</sup> 목<sup>754)</sup> 잡고 있는 데는 퇴생원을 보낼 터이니,

‘꾸루루루루 탕!’ 하면 퇴생원 영낙없이 그 자리에서 죽을 터이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퇴끼란 놈 ‘탕’ 소리에 깜짝 놀래며,

“아, 여보시오. 거 ‘탕’ 소리 좀 빼고 말하십시오.



You are persuaded by Terrapin.  
Who do you think you can meet in the vast sea?  
Hare, don't go there. Don't go.  
A dangerous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Aniri] While going, Hare turns around fast.  
"Gee, but for my cousin, the fox, I got on the course to death."  
I will not go there.  
You go alone."  
The runs back up.  
Dumfounded, Terrapin vacantly looks at Hare.  
"Hello, Mr. Hare. Please listen to me before you go back.  
That fox was in my sea palace before.  
My dragon king liked him because he was a foreign animal.  
He lost a lot of our government money in a gamble.  
He was kicked out of the sea palace.  
He stopped you because he was afraid his bad behavior would  
be reveal to you in the sea palace.  
Don't follow that fox.  
That fox is wicked without limit.  
His perversity is abnormal.  
He goes ahead of you when the destination is food.  
He goes behind you when a hunter waits for you and him in  
a trail with a rifle.  
"Bang!" If he fires the rifle, you will surely die on the spot.  
Watch out for him."  
Hare is surprised at the sound "Bang."  
"You can speak, but please take out the word 'Bang.'

‘탕’ 소리만 나면, 내 새끼발가락이 간질간질해서<sup>755)</sup> 못 살겠소.  
아, 여보시오. 수궁은 총 없소?”  
“아, 여보시오. 우리 수궁같이 좋은 데가 무슨 총이 있겠소?”  
“대체<sup>756)</sup> 별주부 말을 듣고 보니,  
여시 저 녀석이 심술이 보통 놈이 아니란 말여.  
내 여시 저 녀석 따라댕기다가 죽을 지정 여러 번 당했소.  
아, 저 녀석이 꼭 나 몫쓸 데만 보낸당개.<sup>757)</sup>  
내 다시는 안 변힐 테니 같이 잡시다.  
그러나 여기서 수궁이 몇 만 리나 되요?”

### 23. (토끼와 별주부 강가 당도) 별주부가 토끼를 달래어 산에서 내려와 강가에 당도한다.

[중모리] “수궁 천리 머다 마소.  
맹자도 불원천리<sup>758)</sup> 양혜왕<sup>759)</sup>을 가 보았고,  
위수 어부 강태공<sup>760)</sup>도 문왕 따라서 입주하고,<sup>761)</sup>  
한기도창촉도난의 황면장군 한신이<sup>762)</sup>도 소하<sup>763)</sup> 따라 한중<sup>764)</sup> 가서  
대장단<sup>765)</sup>에 올랐으니,  
원컨대 퇴서방도 나를 따라 수궁 가면, 미인미색을 밤낮으로 데리고  
만세동락<sup>766)</sup>을 할 것이니,  
염려를 말고 같이 가세.  
“그러하면 같이 잡세.”<sup>767)</sup>  
강가를 당도하니,  
강상에 등실 뒹는 배는 한가한 추강<sup>768)</sup> 어부 풍월<sup>769)</sup> 실러 가는 뱃가?  
양양강수<sup>770)</sup> 맑은 물에 고기 낚던 어선 뱃지,

If I hear 'Bang,' I feel uncomfortable in my little toe.  
 Hello, is there a rifle in the sea palace?"  
 "Look, how can there be a rifle in a great place like the sea palace?"  
 "I think you are right, terrapin.  
 That fox is more perverse than we think.  
 I followed that fox, and went through several crises.  
 That villain sends me only to bad places.  
 I don't change my mind. Let's go.  
 But how far is the sea palace from here?"

**23.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Riverside) Terrapin  
 persuades Hare, and they come down from a  
 mountain and arrive at a riverside.**

**[Jungmori]** "Don't say the sea palace is far.  
 Mencius visited his king, taking a long journey.  
 An ancient fisherman followed his king and became his premier.  
 An ancient military officer who led his soldiers to a muddy road  
 followed a politician and became a general.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be happy with  
 beautiful girls day and night forever.  
 Don't worry. Let's go together.  
 "If so, let's go together."  
 Terrapin and Hare arrive at a riverside.  
 Is the boat on the surface of the quiet autumn river going to  
 load a fisherman's poems?  
 Is it a fishing boat picking up fish from the clear river?

십리 장강<sup>771</sup>) 벽파상<sup>772</sup>)의 왕래하던 거룻배지?<sup>773</sup>)  
 오호창과 연월 속의 범상궁 노든 배지?<sup>774</sup>)  
 쌍쌍백구<sup>775</sup>)는 흘리 뗏네.<sup>776</sup>)  
 “소소추풍송안군<sup>777</sup>)의 슬피 우는 저 기력아,  
 계<sup>778</sup>) 잠깐 머물러 나의 한 말<sup>779</sup>)을 전해 다오.  
 백운청산<sup>780</sup>) 놀던 퇴끼가 벽해 용궁<sup>781</sup>)에 가더라고  
 우리 벗님 앵무전에<sup>782</sup>) 그 말 한 마디나 전하여라.”  
 잔말<sup>783</sup>)을 하면서 내려갈 적,  
 그 날사 말고<sup>784</sup>) 풍랑이 일어,  
 물결이 워르르르 출렁 출렁거려, 뒤둥그러<sup>785</sup>) 떠나가니,

#### 24. (범피중류)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소상팔경을 구경하 며 수궁으로 들어간다.

[아니리] 퇴끼가 보고 깜짝 놀래며,  
 “아이구, 여보시오. 내 저 물 무서워 못 가겠소.  
 나 안 갈라요. 혼자 가시오.”  
 짱짱 뛰어 따똥헌<sup>786</sup>) 양지쪽에 나앉아서  
 낮짝을<sup>787</sup>) 그저 좋은 고기 토막 놀리듯<sup>788</sup>) 되작되작하며,<sup>789</sup>)  
 “나 안 갈라요.  
 내 수궁 들어가서 용왕님이 되어도 나 안 갈 테니  
 혼자 가시오.”  
 별주부가 가만히 보더니,  
 “아, 여보시오!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시오.  
 왜 그렇게 뻔뻔소?”<sup>790</sup>)

Is it the barge that crossed a wide blue river back and forth?  
Is it the boat in which an ancient retired politician enjoyed  
himself on at a foggy moonlit night?  
Sea gulls move in pairs on the surface of river.  
“Wild geese, you sing sadly in a lonely autumn wind.  
Don’t go. Stay there for a moment and deliver my message.  
A hare who lived in a mountain and a cloud is going to the  
sea palace to get a government position.  
Please tell my friend, a parrot, about that.”  
Hare whines as he walks along.  
Of all days, it is a windy day.  
Strong waves of water move away, twisted and crushed.

**24. (On the Sea). Terrapin goes to the sea palace with  
Hare on his back as they see the eight beautiful  
sites.**

[Aniri] Hare is astonished.  
“Hello. I can’t go because water over there is scary.  
I won’t go. You go alone.”  
Hare jumps to a warm and shiny place.  
He brushes his face with his fore legs as if he played with a  
lump of meat.  
“I won’t go there.  
I won’t go to the sea country even if I become a dragon king.  
You go there alone.”  
Terrapin has been watching Hare.  
“Hello! You can come with me or stay there.  
Why do you hesitate?”

물에 풍덩 빠져 출렁출렁<sup>791)</sup>하고 댕기며,<sup>792)</sup>  
 “아, 여보시오. 아, 내 등도 안 덮이는 물이 뭐가 무섭다고 그러시오?”  
 이 실없는<sup>793)</sup> 놈이 가만히 보더니,  
 “대체 그 물이 보기보다는 실없소그려.”<sup>794)</sup>  
 아라,<sup>795)</sup> 내 시험을 한번 해봐야지.  
 여보시오, 별주부. 내 시험을 해봐서 발목물<sup>796)</sup>만 넘으면 나 안 갈라요.”  
 “아, 알아서 하시오.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시오.”  
 이 실없는 놈이 잔디 뿌리를 앞니로 물고, 뒷발을 실게미<sup>797)</sup> 넣어서  
 출랑출랑하며,  
 “자! 내 발 들어가요!”  
 이때에 별주부는 편전살이라,<sup>798)</sup> 물에는 아주 번개 이상이었다.  
 수루루루루 들어가서 퇴끼 뒷발을 꼭 물고,  
 울렁울렁<sup>799)</sup>하고 들어가니,  
 퇴끼란 놈 기가 맥혀,  
 “나 숨 맥혀 죽는다!”  
 “야, 이 자식아. 입 벌리지 말어라.  
 찌물 들어가면 간 녹는다. 이 저석아.”<sup>800)</sup>  
 “아이고, 이 저석아! 나 밖에다가 똥 좀 누고 가자!”  
 “아. 이 저석아. 거기서 누어라.”  
 “똥은 눈다 허고 뒤지<sup>801)</sup>는 뭇로 허게야?”  
 “야, 이 저석아. 내 뒷발로 훨렁훨렁<sup>802)</sup>하면 똥물<sup>803)</sup> 삼아 좋느니라.  
 거기 엎드려서 소상팔경<sup>804)</sup> 구경이나 하여라.”  
**[진양조]** 범피중류<sup>805)</sup> 둥덩<sup>806)</sup> 둥덩 떠나간다.  
 망망<sup>807)</sup>헌 창해<sup>808)</sup>이며,  
 당당<sup>809)</sup>헌 물결이로고나.  
 백빈주<sup>810)</sup> 갈매기는 흥요안<sup>811)</sup>으로 날아들고,

Terrapin jumps into water and moves around, creating waves.  
 “Look, Water doesn’t even cover my back. Why are you scared of it?”  
 The foolish hare has been watching Terrapin.  
 “That water is less scary than it looks.  
 Let me put myself in water.  
 Hello, terrapin. I will put myself in water. If it reaches above ankles, I won’t go.”  
 “Suit yourself. You can come or stay there.”  
 The foolish hare holds grass with his front teeth, puts his hind legs, and moves them.  
 “Here go my feet!”  
 Terrapin is faster in water than lightning.  
 He goes in water and bites Hare’s hind legs.  
 He pulls Hare into water.  
 Hare is frightened.  
 “I am suffocating!”  
 “You villain. Don’t open your mouth.  
 If salty water get into your mouth, your liver will melt down.  
 You fool.”  
 “You bastard! Let me go out of the water, take a shit, and leave!”  
 “You villain. Take a shit here.”  
 “If I take a shit, how can I wash myself?”  
 “You fool. Flutter your hind legs. You will become clean.  
 You lie on your face there and watch the eight beautiful sites.”  
**[Jinyangjo]** Terrapin and Hare go slowly in the wide sea.  
 The sea is endlessly wide.  
 The large waves are strong.  
 Sea gulls fly from the island of white flowers to the hill of red reeds.

삼강<sup>812</sup>의 기러기는 한수<sup>813</sup>로 돌아든다.  
 요량한<sup>814</sup> 남은 소리 어적<sup>815</sup>이 기언마는<sup>816</sup>,  
 곡중인불견<sup>817</sup>의 수봉<sup>818</sup>만 푸르렸다.  
 애내성중만고수난<sup>819</sup> 날로 두고 이름인가.  
 장사<sup>820</sup>로 지내갈 적, 가태부<sup>821</sup>는 간 곳이 없고,  
 먹라수<sup>822</sup>를 바라보니 굴삼려<sup>823</sup> 어복충훈<sup>824</sup> 무량<sup>825</sup>도 하시던가.  
 황학루<sup>826</sup>를 돌아드니, 일모향관하치시오?  
 연파강상사인수<sup>827</sup>난 최호의 유적<sup>828</sup>인가?  
 봉황대<sup>829</sup>를 당도허니 삼산은 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sup>830</sup>는 이태백 씨가 노든 데요,  
 심양강<sup>831</sup>을 돌아드니, 백낙천<sup>832</sup> 일거 후의<sup>833</sup> 비파성<sup>834</sup>이 끊어졌다.  
 적벽강<sup>835</sup>을 당도허니,  
 소동파<sup>836</sup> 노든 풍월<sup>837</sup> 의구<sup>838</sup> 하여서 있다마는,  
 조맹덕<sup>839</sup> 일세지웅<sup>840</sup> 이금은 안재재오,<sup>841</sup>  
 월락오제 깊은 밤에 고소성으다 배를 매니,  
 한산사 쇄북 소리는 객선의 텡텡 떨어진다.<sup>842</sup>  
 진회수를 건너가니,  
 격강의 상녀들은 망국한 모르고,  
 연룡한수월룡사의 후정화만 부르는구나.<sup>843</sup>  
 소상강<sup>844</sup>을 돌아드니 악양루<sup>845</sup> 높은 집은 호상에<sup>846</sup> 높이 솟아 있고,  
 오산<sup>847</sup>은 첩첩, 초수<sup>848</sup>는 만중이요,<sup>849</sup>



Wild geese return from three rivers to another river.  
 A far-reaching sound seems to be from a fisherman's flute.  
 When the song is over, only a few green peaks are seen.  
 The oar sounds seem to express anxiety.  
 Terrapin and Hare pass a place where a famous politician and  
 poet lived in ancient times.  
 They watch a river and say hello to a loyal official who became  
 food for fish in the river in ancient times.  
 They arrive at a tower where an ancient poet said "The sun sets.  
 Where is my hometown?  
 A fog rising up from the river intensifies my anxiety."  
 Terrapin and Hare reach another tower and see clouds hanging  
 around the middle of three peaks.  
 A river flows around the island where another ancient poet, Li  
 Bai(李白), enjoyed himself.  
 Terrapin and Hare enter another river where a lute sound  
 stopped after another ancient poet had gone.  
 They arrive at Chibi River(赤壁江).  
 The beautiful site remains the same as when another ancient  
 poet, Su Dong Po(蘇東坡), enjoyed himself.  
 In ancient times Cao Cao(曹操) was here, but he has gone.  
 A boat casts an anchor near a castle at night when the moon  
 sets and a crow cries.  
 A drum sound from a Buddhist temple reaches the boat with  
 a traveler.  
 Terrapin and Hare cross a canal.  
 Bar girls across the river did not know the fall of their country.  
 They only sang a song when thick fog hung over the cold river  
 and the moonlight was shiny on the sandy field.  
 They enter a river and see a high pavilion on a lake.  
 There are many mountains and rivers.

반죽<sup>850</sup>)에 젖은 피눈물은 이비한<sup>851</sup>)만 띠어 있다.  
 무산<sup>852</sup>)의 뜰은 달은 동정호<sup>853</sup>)에 가 비쳤으니, 상하천광<sup>854</sup>)푸르렀다.  
 산협<sup>855</sup>)의 잔나비<sup>856</sup>)는 자식 찾는 슬픈 소리  
 천객<sup>857</sup>) 소인<sup>858</sup>)이 몇몇이나 되는거나.  
 [중모레] 소상팔경<sup>859</sup>)다 본 후에 한 곳을 점점 당도하니,  
 북소리 쿵쿵 나고, 사면의 풍경<sup>860</sup>) 소리는 쟁그랑 쟁그랑.  
 그 곳을 당도하니,  
 호박 주추, 유리 기둥의 백옥 현판<sup>861</sup>)에 황금 대자<sup>862</sup>)로 새겼으며,  
 남해 용궁 수정문이라고 등두렛이<sup>863</sup>) 붙어 있다.

## 25. (토끼 잡아들임) 나졸들이 토끼를 잡아들이려고 하자, 토끼가 자신은 토끼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아니리] 퇴끼가 보고 좋아라고,  
 “대채<sup>864</sup>) 수궁 들어와 보니,  
 참 좋기는 좋소그려.  
 나 이렇게 좋은 데 처음 봤소.  
 여보시오, 별주부. 어서 안에 들어가서, 하관말석<sup>865</sup>)이라도 좀 시켜  
 주오.”  
 “글랑 그리 하시오마는,  
 세상과 수궁이 풍속이 달라서  
 혹시 ‘퇴끼 잡아 들여라’하는 영<sup>866</sup>)이 나드래도 과히 섭섭히 생각지  
 마오.”  
 “그 어찌 그렇단 말이오?”  
 “세상같거든 ‘오위영문<sup>867</sup>) 도총관<sup>868</sup>) 입시<sup>869</sup>)해 들라.’ 이 말이요.”  
 퇴끼란 놈 가만히 듣더니,

Bloody tears on spotty bamboos are indications of two ancient queens' resentment.

The moon above a mountain is reflected on a lake along with the blue sky.

A monkey of a valley looks for its young sadly.

Many poets and scholars were banished.

[Jungmori] After watching the eight beautiful sites, Hare and Terrapin approach a certain place.

The sounds of a drum and a wind bell are heard.

They are now at the place.

A glass pillar on amber foundation has a white jade board with clear and large golden letters 'The Main Gate to the Sea Palace.'

## **25. (The Arrest of Hare) Guards try to arrest Hare, and Hare denies he is a hare.**

[Aniri] Hare is exuberant.

"I am in the sea palace for the first time.

It looks great.

This is the first time to be in such a great place.

Hello, Terrapin. If we go into the palace, I would be happy with even a low government position."

"Don't worry about that.

The custom of the land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sea palace. Don't be disappointed even if you hear an order to arrest a hare."

"What on earth are you saying?"

"The order means 'Ask the military general to come in' in the language of the land."

Hare responds,

“그 법 못 쓰겠소. 내 오위영문 도대장 하거드면, 그 법 좀 뜯어 고칠  
라요.”

“아, 그는 알아서 하시오.”

별주부 앙금앙금 들어가 용왕님전 현신<sup>870</sup>)하되,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이만허고<sup>871</sup>) 보더니,

“수로 육로 이만 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대관절 퇴끼를 어찌하였는고?”

“예, 퇴끼를 생금<sup>872</sup>)하야 궐문<sup>873</sup>) 밖에 대령<sup>874</sup>)하였나이다.”

“충성이 지극하군.

그러하면, 퇴끼 어서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청령<sup>875</sup>)이 으근으근하니<sup>876</sup>) 좌우 나줄<sup>877</sup>)들이 나오면서,

“예. 이!”

[자진모리] 좌우 나줄이 금군<sup>878</sup>) 모조리,<sup>879</sup>) 순령수<sup>880</sup>) 수십 명이 일  
시에 내달아<sup>881</sup>)

퇴끼를 에워쌀 적

진황<sup>882</sup>) 만리장성 쌓듯,

산양 싸움에 마초 싸듯,<sup>883</sup>)

영문 출사 도적 잡듯<sup>884</sup>) 첩첩이 둘러싸고,

퇴끼 들입다<sup>885</sup>) 잡는 모양, 퇴끼 두 귀를 꼭 잡고,

“어따, 이 놈, 네가 무엇이냐?”

퇴끼 깜짝 놀래 사지를 벌벌 떨며,

“아니, 내가 퇴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강아지요!”

“개같으면은 더욱 좋다.

“That’s a bad law. If I become a military general, I will change the law.”

“Suit yourself on that matter.”

Terrapin crawls to the dragon king and bows to him.

“Your Majesty, this is Terrapin from the land!”

The dragon king sees Terrapin, whiling leaning backward.

“How was your long trip in the sea?

Did you bring a hare?”

“I brought a hare alive. He is waiting outside.”

“Your loyalty is great.

Bring Hare here immediately!”

With the grim order, guards and soldiers come out.

“No problem!”

**[Jajinmori]** A dozen of soldiers and royal guards on the left and right run forcefully.

They surround Hare,

as if an ancient emperor constructed the Great Wall,

and as if soldiers surrounded an ancient warrior in a battle.

They arrest Hare in many rows as if they arrested a bandit.

They grab Hare by his ears tightly.

“You scoundrel. What are you?”

Startled, Hare shakes his four limbs.

“No, I am not a hare!”

“Then, what are you?”

“I am a puppy!”

“A dog is even better.

삼복달음<sup>886)</sup>에 너를 잡아 약개장<sup>887)</sup>도 좋거니와,  
 네 간을 내어 오계탕<sup>888)</sup> 달여 먹고,<sup>889)</sup>  
 네 껍질은 벗겨내어 잘랑 무어서<sup>890)</sup> 깔고 자면,  
 어혈<sup>891)</sup> 혈담<sup>892)</sup> 명약이니,  
 이 강아지 몰아가자.”  
 우, 달려드니,  
 “아니, 내가 강아지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나?”  
 “송아지요!”  
 “소같으면은 더욱 좋다.  
 도탄<sup>893)</sup>에 너를 잡아  
 두피,<sup>894)</sup> 족,<sup>895)</sup> 살진 다리,  
 양,<sup>896)</sup> 회간,<sup>897)</sup> 처넙,<sup>898)</sup> 콩팥  
 후박없이<sup>899)</sup> 나눠 먹고,  
 네 껍질은 벗겨내어 북도 매고,<sup>900)</sup>  
 네 뿔 빼어 활도 짓고,  
 똥 오줌은 거름허고,  
 네 속에 든 우황<sup>901)</sup> 값중한<sup>902)</sup> 약이 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를 몰아가자!”  
 우, 달려드니,  
 “어따! 거 제기를 붙을<sup>903)</sup>!”  
 언제 내가 송아지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나?”  
 “가, 가만히 있으시오, 생각해 보고.  
 오, 내가 땅아지요!”

A dog is a good material for a tonic soup in hot summer.  
Your liver will be boiled down with a black chicken.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as a mat.  
It is effective for slow blood flow and bloody phlegm.  
Let's take this puppy to the king."  
They run at Hare.  
"No, I am not a puppy either!"  
"Then, what are you?"  
"I am a calf!"  
"A calf is far better.  
We will paste you with mud and put you in a charcoal fire.  
Your head, skin, feet, plump legs,  
stomach flesh, liver, fourth stomach, and kidney,  
will be evenly distributed among us.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to make drums.  
Your horn will be used to make a bow.  
Your dung and urine will be used for manure.  
The bile in your gall bladder is a precious medicine.  
No part of your body will be useless.  
Let's take this calf to the king!"  
They run at Hare.  
"My goodness!  
When did I say I am a calf?"  
"Then, what are you?"  
"Leave me alone. Let me think.  
"I am a colt!"

“말같으면은 더욱 좋다.

요단향장천리마로다.<sup>904)</sup>

선간목후간죽이라,<sup>905)</sup>

연인도 오백금으로 네 뼈를 사갔으니,<sup>906)</sup>

너를 산 채 몰아다가 대왕전 바치거드면<sup>907)</sup> 천금상<sup>908)</sup>을 아니 주랴?

우, 들거라.”

별그런 주장대로<sup>909)</sup> 퇴끼를 결박하야<sup>910)</sup> 들어메니,

퇴끼란 놈 칠장대<sup>911)</sup>에 꿰여 대랑대랑 매달리며,

“어따, 이놈 별주부야!”

“오야!”

“어따. 이 놈아. 나 탄 게 이게 무엇이냐?”

“오, 수궁 남여<sup>912)</sup>라 하는 것이다.”

“어따, 거 난장<sup>913)</sup>을 맞을 놈의 남여 두 번만 타거드면, 웅두리뼈<sup>914)</sup>

도 안 남겼구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영덕전<sup>915)</sup> 너른<sup>916)</sup> 곳에, “예끼.” 퇴끼 후려쳐,

## 26. (토끼의 피) 토끼가 피를 내어 뱃속에 간이 없다고 둘러댄다.

[아니리] 한 두서너 번<sup>917)</sup> 궁그려노니<sup>918)</sup>

퇴끼란 놈이 정신 못 채리고,

이 놈이 눈만 깜작깜작하고, 있을 적에,

용왕이 가만히 보니 눈이 별그런 것이 간 많이 들었게 생겼었다.

“에, 그 놈 눈 보니 간 많이 들었졌구나.

네 여봐라, 저 놈 배 따서<sup>919)</sup> 간 내어 더운 김에<sup>920)</sup> 소금 찍어 올려라.”



“A horse is much better.  
You must be a fine horse.  
You have good eyes and legs.  
An ancient king paid a lot of money to buy the bones of a dead horse.  
Since you are alive, the king will give us more money if we take you to him.  
Let’s get inside.”  
They tie Hare with a red stick and carry him on their shoulders.  
Hare is tied on the stick and hangs on it.  
“Terrapin, you scoundrel!”  
“Yes!”  
“You villain. What is this thing I am on?”  
“Oh, that is a carriage in this sea palace.”  
“Oh! If I ride this darn carriage twice, my body will be completely destroyed.”  
“Let’s go. Let’s hurry.”  
Hare is thrown down on the wide yard of the sea palace.

## **26. (Hare’s Trick) Hare thinks up a trick and tells a lie that there is no liver in his belly.**

[Aniri] Hare is rolled over a few times.  
Confused, he cannot think clearly.  
He feels dark in front of his eyes.  
Taking a close look at Hare’s red eyes, the dragon king thinks there must be a big liver in Hare’s belly.  
“That villain’s red eyes indicate he has a big liver.  
Guards, open that villain’s belly, take his liver out, put it on salt, and bring it to me while it is warm.”

퇴끼란 놈이 이 말을 듣더니, ‘너 용케 죽을 데 잘 찾아왔구나.’  
 이 놈이 눈을 돌려서 사면을 둘러보니,  
 무수한 어병제졸<sup>921)</sup>이 첩첩히 둘러싸,  
 용궁지하에 필사당되라.<sup>922)</sup>  
 꿈쩍 못하게 되었겠다.  
 꿈쩍 못 허고 죽게 되었는데,  
 이 놈이 그 통에<sup>923)</sup> 피를 얼른 생각하여,  
 “자, 두 말 할 것도 없이 배 좀 따 보시오!”  
 배를 훔썬<sup>924)</sup> 내밀며, 그저 용왕님 앞으로 뿌적뿌적<sup>925)</sup> 들어가면서,  
 “자, 어서 따보시오!”  
 용왕이 의심 나서,  
 “너 이놈! 네가 배를 안 때일라고<sup>926)</sup> 방색<sup>927)</sup>을 헐 터인데,  
 네가 내 앞으로 뿌적뿌적 내밀면서 배를 따 보라고 하니,  
 너 필유곡절<sup>928)</sup>이 있는 놈이로구나.  
 너 이놈, 무슨 곡절<sup>929)</sup>이 있는가 말하여라.”  
 “말할 것도 없으니 배만 착<sup>930)</sup> 따 보면, 속을 알 것이오.”  
 “네 퇴끼 듣거라.  
 내 우연히 병이 들어서,  
 명의한테 문의한즉,  
 네 간이 좋다더라.  
 그래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한을 말고,  
 또 내가 네 간을 먹고 나으면, 너를 이 수국에다가 목비<sup>931)</sup>라도 하나  
 세워놓을 터이니  
 걱정 말고, 죽노라 한을 마라.”  
 “아, 죽든지 살든지 말할 것도 없이 배나 좀 착 따 보시오.”

Hearing the dragon king's words, Hare mutters, "I am brought here to be killed."

He looks around by turning around his eyes.

He is surrounded by numerous soldier fish in rows.

Hare is bound to die in the sea palace.

He can't move at all.

He cannot help dying.

Just then, he hits upon a good idea.

"You don't have to hesitate. Just open my belly!"

He sticks out his belly and moves slowly to the dragon king.

"Open my belly right away!"

The dragon king is puzzled.

"You villain! You should go wild, refusing to have your belly opened.

But you move forward, sticking out your belly to be opened.

There must be some reason for your behavior.

You rat! Tell me what it is."

"I don't have you say a word. Just open my belly, and you will know."

"Listen to me, hare.

I happened to catch a disease.

I consulted a renowned doctor.

He said your liver is a good medicine.

That's why we brought you here.

Don't resent your death.

If your liver cures me, I will erect at least a wood monument in memory of you in this sea palace.

So don't worry. Don't resent your death."

"I don't care whether I die or live. Just open my belly now."

용왕이 의심이 나가지고,  
 만약 배 따서 몹쓸 것이 나오면 큰 일이 날까 싶어서,  
 다시 또 말을 허는디, “너, 이놈! 무슨 곡절<sup>932</sup>이 있는고 말하여라!”  
**[중모리]** “말을 허라니 허오리다. 말을 허라니 허오리다.  
 태산이 봉퇴허고<sup>933</sup> 오성<sup>934</sup>이 음음한데,<sup>935</sup>  
 시일갈상<sup>936</sup> 노래 불러 억조창생<sup>937</sup> 원망 중에,  
 탐학한<sup>938</sup> 상주임금<sup>939</sup> 성현<sup>940</sup>의 뱃속에 가 칠구무<sup>941</sup>가 있다 허고,  
 비간<sup>942</sup>의 배를 갈라 무고히<sup>943</sup> 죽였으나 일곱 궁기<sup>944</sup>가 있더이까?  
 소퇴의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헌 퇴명<sup>945</sup>만 굶사웁지,  
 뉘를<sup>946</sup> 데려다 간을 달라하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서 보옵소서.”  
 용왕이 호령을 하되,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당치<sup>947</sup> 않은 말이로구나.  
 의서<sup>948</sup>에 이르기를 비수병즉구불능식<sup>949</sup>하고,  
 신수병즉이불능창<sup>950</sup>하고,  
 담수병즉설불능언<sup>951</sup>하고,  
 간수병즉목불능시<sup>952</sup>라.  
 간이 없고야 어찌 눈을 떠서 세상 만물을 보느냐?”  
 토끼가 당돌히 여짜오되,  
 “소토의 간은 월륜정기<sup>953</sup>로 삼겹삼기로,<sup>954</sup>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믐이면 간을 들입니다.  
 세상의 병객<sup>955</sup>들이 소퇴 곧 얼른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다가 파초 앞에다가 꼭 꼭 싸,

The dragon king is puzzled.  
He is afraid that something bad might come out of Hare's belly.  
He speaks again, "You villain. Tell me why you act like that!"  
[Jungmori] "Let me say what I want to say, Your Majesty.  
A mountain collapsed, and Five Stars became dark.  
The people sang a song, wishing for the death of their king.  
An atrocious king believed there were seven holes in a wise man's belly.  
He opened his good official's belly only to learn there were not seven holes.  
It would be nice if you open my belly and find a liver.  
If you open my belly but can't find a liver, you will only kill a poor hare.  
Whom would you ask to give you a liver?  
How would you get a liver?  
Open my belly right away."  
The dragon king yells at Hare.  
"You rat! What you said is nonsense.  
A medical book says if your spleen is ill, you can't eat.  
If your kidneys are ill, you can't hear.  
If your gall bladder is ill, you can't speak.  
If your liver is ill, you can't see.  
If you don't have a liver, how can you see things?"  
Hare audaciously responds,  
My liver was created by the energy from the moon.  
On the full moon, I take it out.  
On the end of the month, I put it back in.  
Sick people of the world pester me for my liver if I don't take great care.  
I wrap my liver in a plantain leaf.

칩노<sup>956</sup>)로 칭칭 동여,  
 영주<sup>957</sup>) 석상<sup>958</sup>) 계수나무 늘어진 상상가지<sup>959</sup>) 끝끝터리<sup>960</sup>)에다가  
 달아 매놓고,  
 도화유수<sup>961</sup>) 옥계변<sup>962</sup>)으로 탁족하러<sup>963</sup>)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서  
 수궁 흥미가 좋다기로  
 완경차로<sup>964</sup>) 왔나니다.”<sup>965</sup>)  
 용왕이 화를 내며,  
 “이 놈! 네 말이 당치않은 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내장<sup>966</sup>)은 다를 바가 없는데,  
 출입치<sup>967</sup>) 못하는 간을 어찌 내고 딜이고<sup>968</sup>) 임의로 출입현단 말아냐?”  
 퇴끼가 당돌히 여짜오되,  
 “대왕이 지기일이요, 미지기이로소이다.”<sup>969</sup>)  
 복희씨<sup>970</sup>)는 어찌하여 사신인수<sup>971</sup>)가 되었으며,  
 신농씨<sup>972</sup>) 어쩐 일로 인신우수<sup>973</sup>)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두상<sup>974</sup>)에 뿔이 쫘긋쫘긋,  
 소퇴는 무삼<sup>975</sup>) 일로 두 귀만 있사옵고,  
 대왕의 몸둥이<sup>976</sup>)는 어찌하여 비늘이 저리 번쩍번쩍,  
 꼬리가 저리 지드란<sup>977</sup>) 하옵고,  
 소토의 몸뚱이는 털이 요리 송살송살,<sup>978</sup>)  
 꼬리가 요리 묘뚝<sup>979</sup>) 하오리까?  
 가마구<sup>980</sup>)로 일러도,  
 오전 까마구 썰개<sup>981</sup>) 있고, 오후 까마구 썰개 없기로,  
 인생 만물 비금주수<sup>982</sup>)가 한 가지라 뻑뻑 우기니 답답지 아니 하오리까?  
 통촉<sup>983</sup>)을 하여 주옵소서.”  
 용왕이 그제야 토끼한테 돌리느라고,<sup>984</sup>)  
 “그러하면 네 간을 내는 표<sup>985</sup>)가 있느냐?”

I tie it tightly with a vine.  
 I hang it at the end of the top branch of a cinnamon tree in  
 a divine rocky mountain.  
 I came down to wash my feet in a clear stream carrying peach  
 blossoms.  
 I met Terrapin by chance.  
 I heard there is a lot of fun in the sea palace.  
 I am here for sightseeing.”  
 The dragon king is angry.  
 “You bastard! What you said is nonsense.  
 For humans and beasts, a liver is an internal organ.  
 How can you take your liver in and out at your will?”  
 Hare dares to say as follows.  
 “Your Majesty, your knowledge is incomplete.  
 Why did a legendary king have a snake’s body and a man’s  
 head?  
 Why did another legendary king have a man’s body and a cow’s  
 head?  
 Why does Your Majesty have horns on the head?  
 Why do I have two ears?  
 Why does Your Majesty have shiny scales?  
 Why does Your Majesty have a long tail?  
 Why is my body covered with soft hair?  
 What made my tail this short?  
 Let’s talk about a crow.  
 It has a gall bladder before noon, and not after noon.  
 Isn’t it frustrating you insist flying and walking animals are of  
 the same kind?  
 Please accept my story.”  
 The dragon is now convinced of Hare’s story.  
 “If so, do you have a hole for taking your liver in and out?”

“있기를 이를 말씀이오?”

“어디 보자.”

“보시오.”

별그런 궁기<sup>986</sup>가 서이<sup>987</sup> 뚜렷이 있기로,

“저 궁기는 다 어찌한 내력이냐?”

“예, 소퇴가 아뢰리다.

예, 소퇴가 아뢰리다.

한 궁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 궁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궁기로는 간 내는 궁기요.”

“그러하면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나?”

“입으로 넣고, 밑 궁기로 나오되

만물시생<sup>988</sup>의

동방삼팔목,<sup>989</sup>

남방이칠화,<sup>990</sup>

서방사구금,<sup>991</sup>

북방일육수,<sup>992</sup>

중앙오십토,<sup>993</sup>

천지음양,<sup>994</sup> 사시정기,<sup>995</sup> 아침 안개 저녁 이슬이 화하야<sup>996</sup>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나오되,

만병회춘<sup>997</sup>의 으뜸 명약이 되오.

미련허더라, 저 주부야.

세상에서 날다려<sup>998</sup> 이런 말을 하였으면,

내 간 아니드래도 우리 사돈네 간이 일만칠천여 봉<sup>999</sup>이 계수나무에  
걸렸으니,

한 보<sup>1000</sup>만 내려다가 대왕에게 바쳤으면 너도 충성이 나타나고, 나  
도 공이 될 것인디,

만시지탄<sup>1001</sup>이 쓸 데가 없다.”



“Of course, I have.”

“Let me take a look.”

“Here you are!”

There are three red holes in a row.

“What do you have the three holes for?”

“Let me tell you in detail.

Let me tell you in detail.

I use one to take a shit and another to take a pee.

I use the other one to take my liver in and out.”

“Which holes do you use to take your liver in and out?”

“I swallow my liver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When things were first created,

Wood was in the east,

Fire was in the south,

Gold was in the west,

Water was in the north,

and Earth was in the middle.

I harmonized with the negative energy and positive energy of the earth and the sky, the five brilliant colors, the morning fog, and the evening dew.

I put my liver in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My liver is the best panacea.

Terrapin, how stupid you were!

You should have told me the truth.

In addition to my liver, about 180,000 livers of my relatives by marriage are hanging on cinnamon trees.

If we brought a liver to the king, your loyalty would be proven, and I would be praised.

It is of no use to regret the opportunity you missed.”

## 27. (수궁 풍류) 용왕은 토끼의 말에 속아 토끼를 살려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즐기도록 한다.

[아니리] 이 놈이 어떻게 꼬여왔던지 용왕이 획 돌려가지고,<sup>1002)</sup>  
“에, 하마트면 아까운 인물 죽일 뻔했구나.  
네 여봐라! 퇴끼 해박<sup>1003)</sup>하여라.”  
퇴끼를 해박하야 성당<sup>1004)</sup>에 앉히고,  
용왕이 개유<sup>1005)</sup>허는 말이었다.  
“여보, 퇴공. 내가 아까 퇴공한테 불쾌히 한 것은, 그 장차 지혜 보느  
라고 그랬으니,  
과히 섭섭히 생각지 마오.”  
이 때여 퇴끼는 용왕을 그저 배 딸<sup>1006)</sup> 마음이 있으나,  
“아, 무슨 그럴 리가 있겠소?”  
퇴끼를 성당에 앉히고,  
자하주<sup>1007)</sup> 천일주<sup>1008)</sup> 기린포<sup>1009)</sup>로 안주 놓고,  
앵무잔<sup>1010)</sup> 호리병<sup>1011)</sup>에 천일주 가뜰 부어 두 손으로 올리며,  
“여 토생원,<sup>1012)</sup> 이 술 한 잔 들어 보세.”  
퇴끼가 가만히 보더니,  
“아, 용왕님! 아, 용왕이 주인인개<sup>1013)</sup> 먼저 잡수셔야지요.”  
“어, 허허. 내 잘못했구만. 네 여봐라. 술잔 이리 도라.”<sup>1014)</sup>  
용왕이 먼저 주인지도리<sup>1015)</sup>로 몬자<sup>1016)</sup> 한 잔 먹고, 퇴끼를 권해논  
것이,  
이 잡것이 떡 맛을 보니, 달보드래허니<sup>1017)</sup> 쓸만허겠다.  
이 놈이 그저 먹어보느라고 열댓 잔 먹고,  
그저 몽땅 그냥 사오십배<sup>1018)</sup> 들어논 것이,  
제 손수 술이 취해가지고, 용왕의 이름을 지가<sup>1019)</sup> 지어  
“여보, 용칠이!” 하고 불러논 것이,

## 27. (Having Fun in the Sea Palace) Fooled by Hare, the dragon king throws a big party for him.

[Aniri] Hare was so eloquent that the dragon king was taken in.

“Hey, we almost killed an innocent person here.

Guards, set Hare free.”

Set free, Hare sits down on a high place.

The dragon king consoles Hare.

“Hello, Mr. Hare. I treated you unkindly before because I was testing your fortitude.

Please don’t be angry with me.”

Hare wishes to cut the dragon king’s belly open, but he says,  
How can I be angry with you?”

Hare sits on a high place.

A wine of purple cloud, a thousand-day-old wine, and a giraffe meat are prepared.

The dragon king pours a thousand-day-old wine into a shell glass up to the brim, and offers it to Hare.

“Mr. Hare. Drink this wine.”

Hare responds,

“Your Majesty. You are the host. Please drink it first.”

“Oh, yes. That’s my fault. Servant, give me a glass of wine.”

The king drinks a glass of wine as a host and offers wine to Hare.

Hare drinks it. It tastes soft and sweet.

He gradually drinks a dozen glasses.

In total, he drinks forty or fifty glasses of wine.

Drunk in his own accord, Hare talks to the dragon king in an informal manner.

He says, “Hey Dragonie!”

용왕이 기가 각 맥혀,  
 “하하하하, 아, 거 퇴공이 뿔헐라고 부르는가?”  
 “나 전일에 동의보감<sup>1020</sup>)을 보았으나  
 퇴끼 간 약 된다는 말은 금시초문<sup>1021</sup>)이요.”  
 ‘아차차, 춘치자명<sup>1022</sup>)이로군.  
 이거 큰 일 났는디.  
 그러나 저러나 얼른 말을 허고 나가야지.’  
 “여보시오, 용왕님. 나 세상에서 듣자허니 수궁풍류<sup>1023</sup>)가 좋다허니,  
 수궁풍류나 좀 들었으면 좋겟소.”  
 “글랑 그리하시오.”  
 한 쪽에서 수궁풍류가 낭자<sup>1024</sup>)허는디,  
**[옛모레]** 왕자 진<sup>1025</sup>)의 봉피리,<sup>1026</sup>  
 성연자<sup>1027</sup>) 거문고, 장량의 옥통소,<sup>1028</sup> 혜강<sup>1029</sup>)의 해금이며,  
 완적<sup>1030</sup>)의 휘파람,  
 영타 북을 치고,<sup>1031</sup>  
 광처사<sup>1032</sup>) 질장구<sup>1033</sup>)는 정저꽁<sup>1034</sup>) 치고, 격타고 취용적<sup>1035</sup>)  
 능파사<sup>1036</sup>) 보허사<sup>1037</sup>) 우의곡<sup>1038</sup>) 채련곡<sup>1039</sup>) 섞갈어서<sup>1040</sup>) 노래허니,  
 낭자한 풍악 소리 수궁이 진동헌다.  
 퇴끼가 신명내어,  
 “얼씨구나, 졸씨구. 지화자자 좋네.  
 약일레라,<sup>1041</sup>) 약이여.  
 내 간이 약이여.  
 위수 어부 강태공<sup>1042</sup>)도 고기 낚으러 내려왔다,  
 내 간의 씻은 물을,  
 찻던 표주박 선뜻<sup>1043</sup>) 끌러 그 물 조금 떠 마시고,  
 궁팔십 달팔십<sup>1044</sup>) 일백육십 세 살으시고,<sup>1045</sup>)

The dragon king is struck dumb.  
 “Hahaha. Hey Mr. Harie, what do you need?”  
 “I read a classic medical book the other day.  
 I’ve never heard a hare’s liver is a medicine.”  
 He murmurs, “I’ve asked for my own death.  
 I am in trouble.  
 Let me change the topics and escape here.”  
 “Hello, Your Majesty. I heard on the land that the music of the  
 sea palace is great.  
 I wish I listen to the music of the sea palace.”  
 “No problem.”  
 Suddenly, music shakes the sea palace.  
**[Eonmori]** They play a phoenix-shaped pipe,  
 a six-stringed zither, a jade flute, and a Korean fiddle.  
 A whistle is blown.  
 They play a divine drum,  
 a bowl-shaped drum, a drum made of alligator skin, and a  
 dragon pipe.  
 They sing a pond song and a divine song along with two ancient  
 songs.  
 The music spreads and shakes the sea palace.  
 Hare is exuberant.  
 “What a pleasure! What a pleasure!  
 Medicine, medicine!  
 My liver is a medicine.  
 An ancient politician fished in a river.  
 I washed my liver in the river.  
 He drank the water with a gourd dipper he was carrying.  
 He lived poorly for eighty years and happily for another eighty  
 years.

삼천갑자<sup>1046</sup> 동방삭<sup>1047</sup>)이 간 조금 주었더니 삼천갑자 살았으니,  
대왕의 성덕으로 간 보채<sup>1048</sup>) 자셨으면, 환골탈태<sup>1049</sup>) 연년익수<sup>1050</sup>)  
태평으로 누리시니,  
어찌 아니 좋을쏘냐?”

[중중모리] 앞내 여울은 초록장<sup>1051</sup>) 두르고,  
뒷내 버들은 청포장<sup>1052</sup>) 두리쳐,<sup>1053</sup>)  
한 가지 늘어지고, 한 가지는 평퍼져,<sup>1054</sup>)  
춘비춘흥<sup>1055</sup>)을 못 이기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흔들흔들 흔들흔들 노닐 적의,  
어머니는 동우<sup>1056</sup>)를 이고,  
아버지는 노구<sup>1057</sup>)를 지어,  
노고지리 노고지리,  
앞발을 뻗적 추켜들고<sup>1058</sup>) 출랑출랑<sup>1059</sup>) 노는구나.

## 28. (별주부 애원) 별주부가 토끼의 배를 가르자고 용왕에게 애원하니, 토끼가 배를 가르라고 큰소리친다.

[아니리] 한참 출랑거리고 놀 적에,  
대장 범치<sup>1060</sup>)란 놈이 토끼 뒤를 쫓쫓 따라댕기더니,  
퇴끼 뱃속에서 무엇이 출랑거리니까  
간이 들어서 출랑거린 줄 알고,  
이 놈이 그저 냅다<sup>1061</sup>) 한번 질러보는다,<sup>1062</sup>)  
“옛다.<sup>1063</sup>) 토끼 뱃속에 간 들었다!”  
해는 것이, 퇴끼란 놈 술이 확 깨갓고 팍 주 으며,  
“야, 이 저석아.<sup>1064</sup>) 아, 빈 속에 술잔간<sup>1065</sup>) 먹었더니

An ancient man ate a little bit of my liver and lived for 180,000 years.

If Your Majesty eats my entire liver, you will be transformed, will live longer, and live happily.

Isn't my liver great?"

**[Jungjungmori]** Green willows are along the front stream.

Green willows are along the back stream.

A branch hangs down, and another extends in parallel to the ground.

I can't resist this spring beauty.

I let myself move by the wind and by the water waves, and enjoy myself.

My mother carries a water jar on her head.

My father carries an iron pot on his back.

A skylark sings a song.

Hare holds up his fore legs and dances flippantly.

**28. (Terrapin's Entreaty) Terrapin entreats the dragon king to open Hare's belly. Hare boldly tells them to open his belly.**

**[Aniri]** Hare plays, dancing and singing.

A goby has been following Hare.

He hears sounds from Hare's belly.

He thinks a liver in the belly made the sounds.

He shouts in a loud voice.

"Look! There is a liver in Hare's belly!"

Because of the goby's shout, Hare sobers up and slumps down.

"You fool. My stomach was empty when I drank wine.

똥덩이 떠 노는 것 보고 그러느냐?”

퇴끼란 놈이 말은 그렇게 했으나, 딱 질렸것다.

‘아라,<sup>1066</sup> 내가 속인 김에 내뺄밖에 수<sup>1067</sup>)가 없구나.’

“여보시오, 용왕님. 제가 세상을 빨리 나가, 약을 빨리 구해다가, 용왕의 병을 구하겠나이다.”

“어, 참 고마운 말이로구나.

네 여봐라, 별주부 계<sup>1068</sup>) 있느냐?

이 퇴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서, 간을 빨리 들여오도록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들어오지말고

이 퇴공을 꼭 모시고 들여오도록 하여라.”

용왕이 영을 내려노니,

별주부가 하릴없이<sup>1069</sup>) 죽을 차례로<sup>1070</sup>) 그냥 용왕한테 고해 보는데,

**[중중모리]**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퇴끼란 놈 본시 간사하와,<sup>1071</sup>)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내면, 초목금수<sup>1072</sup>)라도 비소할<sup>1073</sup>) 일  
이요,

맹획을 칠종칠금하던 제갈량의 재주 아니어든,<sup>1074</sup>)

한번 놓아 보낸 퇴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거드면 소신<sup>1075</sup>)의 구족<sup>1076</sup>)을 멸하여<sup>1077</sup>) 주웁고,

소신을 능지처참<sup>1078</sup>)하드래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에 배를 따 보옵소서.”

토끼란 놈 기가맥혀 강짱 뛰어 나았으며,

“너 이놈, 별주부야! 네 말이 모두 다 당찬은 말이다.

왕명이 지중커든<sup>1079</sup>) 내가 어찌 기망<sup>1080</sup>)하랴?



Some dung floats in my belly, making sounds.”

Hare said so, but he is shocked.

He murmurs, “I fooled them. Let me now flee as quickly as I can.”

“Hello, Your Majesty. I will go out to the land, bring the medicine, and cure you as fast as I can.”

“Thanks a lot.

Hello, terrapin. Are you there?

Take Mr. Hare to the land and bring his liver here quickly.

Don’t come back alone from the land.

Be sure to come back with Mr. Hare.”

The dragon king gives the order to Terrapin.

Terrapin speaks to the dragon king at the risk of his life.

**[Jungjungmori]** Terrapin speaks in tears.

He speaks in tears.

“A hare is originally a wicked animal!

If we don’t take the liver out of Hare’s belly now, grasses, trees, and animals will laugh at us.

I am not th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who captured and released his enemy king seven times.

How will I be able to get Hare once we set him free?

Cut his belly open now. It would be good if a liver is in it.

If there is no liver, you can kill all of my family and relatives.

I will not resent you even if you chop my body into pieces.

Please cut Hare’s belly open immediately.”

Struck dumb, Hare steps forward.

“Terrapin, you villain! What you said is all false.

The king’s order is to be respected. How can I deceive him?

옛 말을 못들었나?

하걸<sup>1081</sup>)이 학정<sup>1082</sup>)으로 용봉<sup>1083</sup>)을 살해해 미구에<sup>1084</sup>) 망국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서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간이 없거드면,

불쌍한 나의 목숨 너의 나라의 사<sup>1085</sup>)가 되야,

너그<sup>1086</sup>) 용왕 십 년 살 데 하루도 못 살 터이요,

느그<sup>1087</sup>) 수국 만조백관<sup>1088</sup>) 한 날 한 시에 모다 몰살시키리다.

아나,<sup>1089</sup>) 였다,<sup>1090</sup>) 배 갈러라!

아나 였다, 배 갈러라!

똥밖에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 네 보아.”

**[아니레]** 이 때에 용왕이 가만히 듣더니,

“네 여봐라. 퇴끼를 다시 해치는 자 있으면은 축출정배<sup>1091</sup>)를 하리라.”

용왕이 영을 내려노니,

별주부 하릴없이 퇴끼란 놈 속을 번연히<sup>1092</sup>) 알면서도,

용왕의 영을 어기지 못하여

퇴끼를 등에 업고 세상을 나오느니,

“야, 이 자석아.<sup>1093</sup>) 잔말 말고 어서 나가자.”

“그렇게 해. 이 자석아.

그러니까 너를 내가 데리고 올 적에, 네 구변<sup>1094</sup>)이 하도 좋길래 도로

살아 나갈 줄 알고 내가 데리고 왔으니,

그 과히 섭섭해 하지 말고 같이 가자.”

Don't you know the old saying?  
 An atrocious king in ancient China killed his good official, and  
 his country collapsed before long.  
 It would be nice if you open my belly and find a liver in it.  
 If there is no liver in it,  
 my poor soul will become an evil spirit of this country,  
 your dragon king will die in a day, instead of living for ten years,  
 and my evil spirit will massacre all the officials in the sea palace  
 at one time.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Only shit is in my belly.  
 Open my belly and look inside."  
**[Aniri]** The dragon king has been listening to Hare.  
 "Listen, everyone. If anybody attempts to hurt the here, he will  
 be banished."  
 The dragon king gives the order.  
 Terrapin has no choice, although he knows what Hare is  
 thinking.  
 Terrapin can't disobey the dragon king's order.  
 He comes out to the land with Hare on his back.  
 "Hey terrapin. Cut the noise out. Let's go."  
 "Okay, you bastard.  
 When I was taking you from the land to the sea palace, you  
 were so eloquent that I knew you would go back alive.  
 Don't be disappointed. Let's go."

## 29. (토끼 생환) 토끼가 별주부 등에 업혀 세상으로 나온다.

[진양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sup>1095</sup>)를 지내어 백로주<sup>1096</sup>)를 어서 가자.

삼산<sup>1097</sup>)을 바라보니 구름 밖에 멀어 있고,

일락장사추색원허니

부지하처조상군고?<sup>1098</sup>)

소무,<sup>1099</sup>) 유수씨<sup>1100</sup>)가 이에서<sup>1101</sup>) 더할쏘냐?

한 곳을 돌아드니 한 군자<sup>1102</sup>) 서 있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관을 쓰고

문왈,<sup>1103</sup>) “퇴공은 하이지차하오?”<sup>1104</sup>)

토끼가 좋아라고, “회족청산하니

관불과제관이요,

탁족무임하니

태불과봉황이라.

소무지식하여

유매평생이라.<sup>1105</sup>)

적벽강을 당도하니,

오호창과연월야<sup>1106</sup>)의 돛대 치는 저 사공은 월범려<sup>1107</sup>) 이 아니란

말인가?

함외장강공자류<sup>1108</sup>)라, 등왕각<sup>1109</sup>)이 여기로구나.”

[중중모리] 백로주<sup>1110</sup>) 바빠 지내어 적벽강<sup>1111</sup>)을 당도하니,

삼국사적파고루<sup>1112</sup>)

소자첨 범주유로다.<sup>1113</sup>)

동산상 달 떠나

두우간에 배회하야

## 29. (Hare Returns Alive) Hare comes back to the land on Terrapin's back.

[Jinyangjo] Let's go. Hurry.

Let's hurry up to the sandy island in a river.

Three Peaks are below distant clouds.

The sun sets on the long sandy field, and a mountain with the  
autumn color is far from here.

It is not clear where a tribute should be paid to the ancient  
queens.

An ancient diplomat and an ancient king of China didn't enjoy  
this landscape more than we.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place where a scholar stands.

He wears blue clothing and a black hat.

He asks, "Mr. Hare, what brought you here?"

Hare joyfully says, "I came back to the green mountains.

I can't just pass by them because I missed them so much.

They were not trodden upon by dirty feet.

It is so peaceful that even a phoenix will not just go by them.

I was not knowledgeable.

I almost became a wandering ghost.

Hare and Terrapin reach a river.

The boatman setting up a sail on a foggy lake in the moonlight  
must be an ancient politician.

A river flows incessantly below a tower."

[Jungjungmori] Hare and Terrapin hurriedly pass by a sandy  
island and get to a river.

A high collapsed tower is a trace of three ancient kingdoms.

An ancient poet amused himself on a boat in the river.

The moon rises over a mountain in the east.

The moon moves between Ursa Major and the Herdsman.

백로횡강을 함께 가.<sup>1114)</sup>  
 소지노화월일선<sup>1115)</sup> 추강<sup>1116)</sup> 어부가 빈 배요,  
 기경선자<sup>1117)</sup> 간 연후에 공추월지단단<sup>1118)</sup>이라.  
 자래 등에다 저 달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  
 환산농명월<sup>1119)</sup>  
 원해근산<sup>1120)</sup>이 여기라.  
 벽해수변<sup>1121)</sup>을 당도하야,  
 깡짱 뛰어내려 모르는 체하고 가는구나.

### 30. (토끼 별주부 조롱)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별주부를 욕하며 산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래] 깡짱깡짱 뛰어 올라가니,  
 별주부 기가맥혀 가는 퇴끼를 물끄러미 보더니마는,  
 “아 여보, 퇴공! 수만 리를 죽겼다 살겼다 실어다노니까  
 잘 가란 말도 없이 간단 말시오?  
 에이, 여씨요!”<sup>1122)</sup>  
 가는 토끼가 썩 돌아다보더니 육을 냅다<sup>1123)</sup> 퍼붓고 올라가는데,  
 [중모래] “에이 천하<sup>1124)</sup> 발기를 갈 녀석.<sup>1125)</sup>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들인단 말이나?  
 미련허드라. 미련허드라. 너의 용왕이 미련허드라.  
 너그 용왕 실겹기<sup>1126)</sup> 날깁고,<sup>1127)</sup> 내 미련이 너의 용왕 같거든  
 면<sup>1128)</sup> 영락없이 죽을 걸.  
 내 밑궁기<sup>1129)</sup> 서이<sup>1130)</sup> 아니드면, 내 목숨이 어찌 살아날거나?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청산으로 나는 간다.”

A white heron crosses a river.  
With a smile, the heron points to a boat loaded with white reed  
flowers and moonlight.  
After a god flew up on a whale, there is nothing but the full  
moon in the sky.  
Put that half moon on Terrapin's back.  
Let's hurry to our hometown.  
Let's enjoy watching the bright moon in mountains.  
Mountains are close and the sea is far.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blue beach.  
Hare jumps down and goes off without saying anything.

### **30. (Hare Mocks Terrapin,) After arriving in the land, Hare curses Terrapin and goes to mountains.**

[Aniri] Hare runs up to a mountain.  
Stunned, Hare vacantly looks at Terrapin.  
“Hello, Mr. Terrapin! I took a lot of pains to take you here from  
the sea.  
How can you leave without saying anything to me?  
Hello, mister!”  
While going, Hare turns around and speaks curse words at  
Terrapin.  
[Jungmori] “You are a villain to be quartered to death.  
How can I take my liver in and out of my belly?  
How stupid! How stupid! Your dragon king was stupid.  
I would surely be dead now if your dragon king was as smart  
as I, and if I was as foolish as your dragon king.  
How would I come back alive if I didn't have three holes in  
my body?  
I am going back to a green mountain covered with white cloud.”

31. (토끼 그물에 걸림) 그물에 걸려 죽게 된 토끼가 쉬파리  
들에게 쉬를 슬어달라고 부탁하자, 쉬파리가 사람의 내  
력을 이르며 사람의 손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리] 짹짹 짹 짹 뛰어 올라가니,  
별주부 기가 맥혀 가는 퇴끼를 물그리며 보더니,  
“아이구, 허망<sup>1131</sup>)하여라!  
저 놈 배를 따 간을 내어 우리 용왕님께 드렸으면 당장에 병이 나을  
것인디,  
아이구, 허망하여라!  
아, 여보, 퇴공! 편히 들어 가서. 나 들어갈라요.”  
가는 퇴끼 획 돌아보며,  
“너 이놈, 별주부야!  
내가 수궁에 들어갔을 적에 네가 나를 적일라고 딱 꺾어들인 그 죄를  
생각하면,  
너를 그저 냇물 돌팍<sup>1132</sup>)에다가 옹구짐<sup>1133</sup>) 부수듯 그 복판<sup>1134</sup>)을  
팍 부수거<sup>1135</sup>) 보낼 일이로되,  
내가 느그<sup>1136</sup>) 용왕님께 충성이 지극하더구나.  
글로<sup>1137</sup>) 해서 살려 보내는 것이니,  
다시는 그런 보초때기 없는<sup>1138</sup>) 버르장머리<sup>1139</sup>) 말으렸다.  
만약 한 번만 더 했다가는 너를 당장 여기서 죽여버릴 테니까  
부대<sup>1140</sup>) 조심해 들어가거라.  
나 갈란다.”  
별주부 하릴없이 물 위에 둥둥 떠 수궁으로 들어가고,  
퇴끼란 놈이 세상에 나와 살았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생방정<sup>1141</sup>)을 떨다가



31. (Hare Gets Caught in a Net.) Caught in a net, Hare asks flesh flies to lay eggs on him. The flesh flies talk about the background of human beings and say that Hare cannot defeat them.

[Aniri] Hare runs up to a mountain.

Stunned, Terrapin looks at Hare vacantly.

“Everything was futile!

If my dragon king took villain’s liver out and ate it, he would be cured.

Alas, Everything was futile!

Hello, Mr. Hare! Take care of yourself. I am leaving.”

Hare turns around swiftly.

“Terrapin, you scoundrel!

Thinking about your guilt that you lured me to the sea palace and tried to kill me,

I wish to put you on the stone of the stream and break your chest into pieces as if I broke a pottery into pieces.

But you were admirably loyal to your dragon king.

So I am letting you go alive.

Don’t act stupid like that again.

If you do it again to me, I will kill you here without hesitation.

Have a safe trip to the sea palace.

I am leaving.”

Terrapin cannot but swim on the surface of the water, going back to the sea palace.

Hare came back to the land alive.

He acts flippantly, jumping around joyfully.

평 잡을라고 그물 쳐놓은 데가 뒷밭이 걸리어,  
 대랑대랑 매달려 또 죽게 되었겠다.  
 퇴끼란 놈 기가 맥혀,  
 “아이고, 이게 땡땡쿨<sup>1142)</sup>인 줄 알고 탁 찼더니,  
 다리를 짹 잡아매, 내가 이거 그물에 걸려 인자<sup>1143)</sup> 또 죽네! 아이구,  
 인제 내가 죽네!  
 아이고, 내가 수궁에서 죽었드라면 정조<sup>1144)</sup> 한식<sup>1145)</sup> 단오<sup>1146)</sup> 추석  
 제사나 착실히 받아먹고,  
 목비<sup>1147)</sup>라도 하나 세워놓을 터인디,  
 속절없이 내가 죽었구나.”  
 이놈이 빠질라고 어찌 내들러왔던지 허리가 쭉 늘어져서  
 죽은 듯이 대랑대랑 있을 적에,  
 난데없이 쉬파리떼<sup>1148)</sup>가 ‘앵’하고 날아오제.  
 이 놈이 어찌 반가웠던지, “아이고, 쉬낭청<sup>1149)</sup> 사돈네,<sup>1150)</sup> 어디 갔  
 다 오시오?”  
 “아, 이놈 보소.  
 여,<sup>1151)</sup> 죽은 줄 알고 쉬<sup>1152)</sup> 실러<sup>1153)</sup> 왔는데,  
 살았네. 너 이놈! 너 어떻게 된 일이나? 말 좀 하여라.”  
 “아, 이리 좀 오시오. 내 말 험 터이니.  
 이번에 내가 수국을 들어가서 꼭 죽게 되었는디,  
 내 피로 용왕을 돌려버리고<sup>1154)</sup> 세상을 살아 나오다가,  
 그물에 걸려 또 죽게 되었소.  
 죽고 살기는 내 피에 매였으니,  
 내 몸뚱이에다 그저 쉬나 다뽕<sup>1155)</sup> 실어주고<sup>1156)</sup> 날아가시오.”  
 “너 이놈. 네가 아무리 피가 용타허나<sup>1157)</sup> 사람의 손은 못 당한다.”  
 “사람의 손이라 허는 것이 어떤 것이요?”

His hind legs are caught on a net set up to catch a pheasant.  
Hanging on the net, he fell into a crisis again.  
He is dumfounded.  
“I thought this is a vine, so I stepped on it.  
But it was a net. My legs are caught in the net. I am dying  
again! I am dying!  
If I died in the sea palace, a ritual will be performed for me  
every big holiday, and  
at least a wood monument would be erected for me.  
I am bound to die now.”  
He moves his body so much to escape from the net that he is  
out of strength.  
He hangs on the net as if he were dead.  
All of a sudden, a group of flesh flies come to Hare.  
Hare is so glad that he says, “Flesh flies! My relatives by  
marriage! Where have you been?”  
“Look at this villain.  
We are here to lay eggs on you because we thought you were  
dead.  
But you are alive. You bastard! Tell me what happened.”  
“Come here. I will tell you in detail.  
I went to the sea palace and almost died there.  
I outsmarted the dragon king and came back alive.  
Caught in this net, I am in trouble again.  
My life depends on whether I am smart or not.  
Please lay eggs on my body generously before you fly away.”  
“You rat! However smart you may be, you can’t defeat a human  
hand.”  
“What is great about a human hand?”

“오냐, 사람의 손 내력<sup>1158</sup>)이라 하는 것은 천지음양의 이치<sup>1159</sup>)가 있느니라.

손 내력을 내 일러줄 터이니 들어봐라.”

[자진모리]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하는 건 엮어노면 하늘이요,

뒤췌노면<sup>1160</sup>) 땅인디,

요리저리 금<sup>1161</sup>)이 있기는 일월<sup>1162</sup>) 다니는 길이요,

엄지손가락이 두 마디기는 천지인 삼재요,<sup>1163</sup>)

집가락<sup>1164</sup>)이 장가락<sup>1165</sup>)만 못허기는<sup>1166</sup>) 정월, 이월, 삼월,

장가락이 그 중에 제일 길기는<sup>1167</sup>) 사월, 오월, 유월이요,

무명지가락<sup>1168</sup>)이 장가락만 못허기는 칠월, 팔월, 구월이요,

소지<sup>1169</sup>)가 저롭고<sup>1170</sup>) 저롭기는 시월, 동지, 섣달인디,

자오묘유<sup>1171</sup>)가 여기 있고,

건감간진손이곤태<sup>1172</sup>) 선천팔괘<sup>1173</sup>)가 여기 있고,

불도<sup>1174</sup>)로 두고 일러도 감중연,<sup>1175</sup>) 간상연,<sup>1176</sup>) 여기 있고,

육도기문<sup>1177</sup>)에 대장경<sup>1178</sup>)이라. 천지가 모도<sup>1179</sup>) 일장중이라.<sup>1180</sup>)

네 아무리 껴를 껴도<sup>1181</sup>) 사람 손 하나 못 당허리라.

두 말 말고 네 죽어.”

### 32. (초동목수 신세타령) 토끼가 죽은 채하고 있을 때, 풀 베는 아이들이 신세타령을 하며 올라온다.

[아니레] 퇴끼란 놈이 가만히 듣더니,

“대처<sup>1182</sup>) 사람의 손이라 허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오그려.

“There are principles of nature in a human hand.  
Listen to my story about the background of a human hand.”  
[Jajin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the background of humans.  
The principles of heaven can be seen on the palm.  
The principles of earth can be seen on the back of the hand.  
The lines of the palm are the paths of the sun and the moon.  
The two knuckles in the thumb stand for heaven, earth, and humans.  
The index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signifies January, February, and March.  
The middle finger is the longest because it denotes April, May, and June.  
The ring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indicates July, August, and September.  
The little finger is short because it means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The four directions are in the palm.  
The eight direction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Buddhist principle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some Buddhist teachings about the world are in the palm.  
However clever you might be, you can’t beat a human hand.  
Shut up and accept your death.”

**32.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Bewail their Lot)**  
**While Hare pretends to be dead,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approach him as they bewail their**  
**lot.**

[Aniri] Hare has been listening to the flesh flies.  
“I now understand a human hand is a formidable thing.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 저 쉬나 좀 다뺏 실어주고 날아가시오.  
사람 한번 돌려보겠소.”<sup>1183)</sup>

“오냐, 글랑 그리 하여라. 아, 쉬가 다뺏 차서 무거워 못 살겠다.”  
우 달려들어서 퇴끼 몸뚱이에다 쉬를 다뺏 실어놓고 날아가버렸제.  
퇴끼란 놈 쉬 한 짐 실코<sup>1184)</sup> 죽을 차례로 대랑대랑 있을 적에,  
이때에 초동목수<sup>1185)</sup> 아이들이 낮 갈아서 짊어지고, 메나리제<sup>1186)</sup>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오ندي,

[중모리] “어이 가리 너, 어리 가리 넘자. 어디 가리 넘자 너화로고나.  
하나님이 사람을 낼 적 별로 구별이 없지마는,  
우리놈의 팔자는 무슨너르<sup>1187)</sup> 팔자간디,<sup>1188)</sup> 날만 새면은 지게 갈  
퀴<sup>1189)</sup> 짊어지고 심산궁곡<sup>1190)</sup>이 웬일이냐?

여보아라, 친구들아.

너는 저 꼴을 베고,

나는 요<sup>1191)</sup> 꼴을 베어,

부러진 잡목, 떨어진 낙엽을 굶고,

베고, 엄똥그려<sup>1192)</sup> 힘끗대로<sup>1193)</sup> 허여다가<sup>1194)</sup>

위부모처자<sup>1195)</sup>를 극진궁대<sup>1196)</sup> 허여 보자.

어이 가리 넘자 너화로구나.

어이 가리 넘자 너화로고나.”

### 33. (토끼 살아남) 토끼가 기지로 살아나서, 잘난 체하며 좋아한다.

[아니리] 한참 올라가다가 한 놈이 떡 보더니,

“예끼! 여기 퇴끼 걸렸다!

야, 오늘 우리 잔치 잘 되었다.

In any event, please lay eggs generously on my body before you leave.

And I will outsmart humans.”

“No problem. I have so many eggs in my body that I feel heavy.”

The flesh flies lay a lot of eggs on Hare’s body together and fly away.

With a lot of eggs on the back, Hare remains still as if he were dead.

Just in time,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come up to the mountain with sharpened sickles on their backs, as they sing a folk song.

**[Jungmori]**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When God created humans, there was no inequality.

But our fate is bad to wander around in deep valleys with A-frame carrier and rakes on our backs when the day breaks. Hello, my friends.

You work in that valley.

I will work in this valley.

Let’s rake broken scrubs and fallen leaves.

Let’s cut trees down and wrap them up as much as we can.

Let’s support our parents, wives, and children as best as we can.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 **33. (Hare Survives) Wits save Hare, and he dances arrogantly and joyfully.**

**[Aniri]** While climbing the mountain, a boy spots Hare.

“Look! A hare is caught in the net!

Let’s have a party today.

이놈 우리 모닥불 놓아서 실컷 구워 먹고 올라가자.”  
 한 놈이 썩 달려들어 퇴끼 다리를 쏙 빼어 들더니,  
 “예끼! 재수 더럽게 없다.  
 아, 걸린 지가 오래 됐는 모양이여.  
 쉬가 다뺨 실어졌으니<sup>1197)</sup>  
 내버려라, 이거.”  
 아, 그 중에 밍살맞은 놈이 썩 달려들더니,  
 “야, 이 자석아! 썩었는가 말아나 봐라.”  
 아, 이놈이 냄새를 맡아볼라면은<sup>1198)</sup> 퇴끼 몸뚱이에 가 이렇게 맡아  
 보는 것이 아니라,  
 퇴끼 궁뎡이다<sup>1199)</sup> 맡아냈단 말여.  
 이 피 많은 퇴끼가 삼년 몽구려놓았던<sup>1200)</sup> 방구를 실게미<sup>1201)</sup> 내노니  
 내장 썩는 내가 나고, 코 난간을 무너뜨리고 나가제.  
 “아이구, 이거 썩은 지 오래 되었구나.  
 아, 사람의 코를 게<sup>1202)</sup> 베려버렸으니<sup>1203)</sup> 내버리자.”  
 쏙 빼어 내던지니,  
 저 건네 가서 깡짱 뛰어, 탈탈 털고 나왔으며,  
 “야. 이 자석들아. 내가 이번에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님도 돌리고<sup>1204)</sup>  
 살아나왔는디,  
 너그한테<sup>1205)</sup> 죽을 성부르냐?<sup>1206)</sup>  
 야, 이 놈들. 내 노는 피타령이나 좀 보아라.”  
**[중중모리]** “관대장자<sup>1207)</sup> 한고조<sup>1208)</sup> 국량<sup>1209)</sup> 많기가 날만혀?<sup>1210)</sup>  
 난세간웅 조맹덕<sup>1211)</sup>이가 피만허기가<sup>1212)</sup> 날만혀?  
 신출귀몰<sup>1213)</sup> 제갈량이 조화 많기가 날만혀?  
 운주결승<sup>1214)</sup> 장자방<sup>1215)</sup>이 의사<sup>1216)</sup> 많기가 날 만혀?  
 예 들던 청산 두견,



Let's roast Hare, eat it, and go up to the mountain."  
 One of the boys come to Hare and get Hare's legs off the net.  
 "My goodness. We are unlucky.  
 This hare must be caught in the net for a long time.  
 It is teeming with fly eggs.  
 Throw it away."  
 An ugly boy of them jumps in.  
 "You fool! Take a smell at it and check whether it is rotten or not."  
 The ugly boy should take a smell at the middle of Hare's body.  
 But he takes a smell at Hare's ass.  
 The cunning hare slowly releases a fart he held back for three years.  
 Hare stinks like a rotten intestine, breaking the ugly boy's nose.  
 "Alas. It was rotten for a long time.  
 It destroyed a human nose. Let's throw it away."  
 They throw Hare away.  
 Hare runs away from the boys, dusts his body, and sits down.  
 "Hey bastards! I deceived even the dragon king and came back alive from the sea palace.  
 Do you think I will die in your hands?"  
 You fools. Watch me sing a wit song."  
**[Jungjungmori]** "I am more broad-minded than a virtuous ancient king.  
 I am smarter than an ancient wicked hero of China, Cao Cao (曹操).  
 I can work out more miracles than an elusiv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Zhu Ge Kong Ming(諸葛孔明).  
 I have more ideas than an ancient military planner.  
 Green mountains and the cry of a cuckoo sound familiar to me.

자주 운다, 저 새 소리.

타향 수궁에 왔던 퇴끼가 고국산천을 돌아오니, 어찌 이리도 반갑냐?  
요리도 깡쫓, 저리도 깡쫓, 깡쫓깡쫓 노는구나.

### 34.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토끼가 독수리에게 잡혔으나, 독수리를 속이고 살아난다.

[아니레] 이 놈이 한참 재미있게 놀 적에,

난데없이 독수리란 놈이 ‘위’허더니

퇴끼 대그뻥<sup>1217</sup>)을 후닥딱 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

퇴끼란 놈 기가맥혀,

“아이고야, 나 들고 가는 게 누구요?”

“오냐, 독수리다.”

퇴끼란 놈 독수리 말을 듣더니, ‘아이고, 이 욕심 많은 독수리란 놈한  
테 걸렸으니 인자<sup>1218</sup>) 내가 죽네!’

[중모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아이고, 이이고,  
내 팔자야.

내가 평생에 원허든 보물 상자를 얻어다가

무주공산<sup>1219</sup>)에다가 갖다 두고,

임자 없이 내가 죽거든 이런 보물을 어느 뉘가 간직할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레] “아이고, 장군님! 어드로<sup>1220</sup>) 가실라요?”

“오냐, 물 좋고, 경개<sup>1221</sup>) 좋은 데로 가제야.”<sup>1222)</sup>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아, 이 녀석아. 물어볼 거 뭐 있냐?

Birds chirp repeatedly.

I have been to the sea palace and am glad to see my country again.”

Hare jumps around joyfully.

**34. (Hare is Caught by an Eagle and Escapes.) Hare is caught by an eagle, but deceives the eagle and escapes from him.**

[Aniri] Hare dances and sings joyously as said above.

All of a sudden, an eagle comes fast from somewhere.

He swiftly grabs Hare’s head and flies up to the sky.

Hare is astonished.

“Alas. Who is carrying me up here?”

“I am an eagle.”

Hearing the eagle, Hare mutters, “Alas. I am caught by this greedy eagle. I am dying now!”

[Jungmori] “Alas. How miserable my fate is! How bad my fate is!

I managed to get a treasure box that I wanted all my life.

I left it in an empty mountain.

Who will keep the treasure box if I die?

Alas! How sad this is!”

[Aniri] “General, where are you headed?”

“Let’s go to a place where a stream is clean and the landscape is great.”

“General, which part of my body will you eat first?”

“You fool. Do you have to ask that question?”

맛 좋은 양미간부텨<sup>1223</sup>) 먹지야.

그런디 너 금방 죽을 놈이 울기는 왜 울었으며,

거 보물 상자란 것이 무엇이나?”

“예, 보물 상자를 내가 이야기를 갈쳐<sup>1224</sup>) 드릴 터이니,

들어보시고 나 살려줄라요?”

“아, 이놈아! 좋으면 살려주고말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중모레] “예, 예. 아로리다. 소퇴가 아로리다. 보물 상자라하는 것을  
들어보시오.

이번에 내가 수궁을 가서,

용왕님께서 타국 짐승이라고 나를 귀히<sup>1225</sup>) 알아

보물 상자를 하나 주셨는디,

보물 상자를 착<sup>1226</sup>) 퍼놓으면 구먹이<sup>1227</sup>) 서이<sup>1228</sup>) 뚜렷이 나 있지요.

한 궁기<sup>1229</sup>)를 툭 텅기면서<sup>1230</sup>) ‘뽕아리새끼<sup>1231</sup>) 나오너라.’ 하면은

뽕아리새끼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툭 텅기면서 ‘개창사<sup>1232</sup>) 나오너라’ 하면은 개창사가

꾸역꾸역 나오는

보물을 무주공산에다가 더져놓고<sup>1233</sup>)

장군님전에<sup>1234</sup>) 내가 죽거든<sup>1235</sup>) 이런 보물을 어느 놈이 간직할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레] 이때에 독수리란 놈이 퇴끼 말을 듣더니,

퇴끼란 놈이 어찌 피가 많던지 독수리 톱 맛있는 것만 딱 말했든 모양  
이제.

아, 이놈이 입맛을 짹짹 들engi면서,<sup>1236</sup>)

“야, 퇴끼야. 내 너 살려줄 터이니, 그 보물 날 줄래?”

“하, 장군님. 날 살려주면 내가 이 보물 주고말고요.”

I will eat the part between your two eyebrows first.  
 You will soon die. Why are you crying?  
 What is the treasure box you talked about?"  
 "Okay. I will tell you about the treasure box in detail.  
 Will you set me free after listening to my story?"  
 "You fool. That depends."  
 "Then, I will tell you about it."  
**[Jungmori]** "Okay. Let me tell you about the treasure box.  
 I went to the sea palace.  
 The dragon king liked me because I was a foreign animal.  
 He gave me a treasure box.  
 If you open the treasure box, you will see three holes clearly.  
 If you hit one of the holes and say "Come out, chicks," chicks  
 come out continuously.  
 If you hit another hole and say "Come out, dog intestines," dog  
 intestines come out continuously.  
 I kept the treasure box in the empty mountain.  
 If you kill me, to whom will the treasure box go?  
 Alas. How bad my fate is!"  
**[Aniri]** The eagle has been listening to Hare.  
 Hare is so cunning that he talked only about the food that the  
 eagle likes.  
 The eagle smacks his lips.  
 "Hey Hare. I will set you free. Will you give me treasure?"  
 "General, if you release me, I will certainly give you the  
 treasure."

“그러면 그 보물 날 도라.<sup>1237)</sup> 어디 있느냐?”  
 “저 꼭대기 바위틈<sup>1238)</sup> 새이에다<sup>1239)</sup> 여놓았습니다.”<sup>1240)</sup>  
 “그래. 아, 이놈아. 언제 거까장<sup>1241)</sup> 갈 것이냐?”  
 “아니, 장군님 발심<sup>1242)</sup> 좋으니까  
 나를 그저 병주탱이<sup>1243)</sup> 들듯 들고, 속히 훨훨 올라가시지요.”  
 “음, 그렇게 하여라.”  
 다시 퇴끼 대그뺨<sup>1244)</sup>을 들고 훨훨 날아가서,  
 “어따<sup>1245)</sup> 두었느냐?”  
 “요 바위 틈 속에 들었습니다.”  
 “음, 그러면 내가 가서 내오끄냐?”<sup>1246)</sup>  
 “장군님은 바위틈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따<sup>1247)</sup> 두었는지도 모르니,  
 내가 가서 가지고 나올 테니 그렇게 아십시오.”  
 “너 이놈! 들어가서 안 가지고 나올라고?”  
 “아니, 장군님. 무신<sup>1248)</sup> 말이오?  
 아, 장군님 발심 좋으니까 내 뒷발을 꼭 잡고,  
 내가 들어가서 갖고 나올 터이니,  
 그저 뒷발만 꼭 잡으시오.”  
 “음, 그러면 그리 하여라.”  
 이 실없는<sup>1249)</sup> 놈이 퇴끼 뒷발을 꼭 잡고,  
 “어서 들어가서 갖고 나오느라.”  
 퇴끼란 놈 들어가서  
 “아이고, 장군님! 앞발이 달라말라허요.<sup>1250)</sup>  
 보물 옆에 달라말라하니 조금만 뉘주시오.”  
 “어, 글랑 그리하여라.”  
 조금 뉘주고,

"Then, give me the treasure. Where is it?"

"I left it between rocks on the top of the mountain."

"Okay. Hey bastard. When will we arrive there?"

"General, your legs are strong.

Please fly up to the top as if you are carrying a bottle."

"No problem."

The eagle grabs Hare's head and flies up.

"Where did you put the treasure?"

"I put it between these rocks."

"Do you want me to take it out?"

"General, you can't get between the rocks.

Besides, you don't know where it is.

I will go in and bring it out."

"You rat! Don't you intend to go in and stay there?"

"General,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r legs are strong. Hold my hind leg with them.

I will go in and bring it here.

Hold my hind leg tight."

"Okay. Suit yourself."

The foolish eagle holds Hare's hind leg tight.

"Get in and bring the treasure out quickly."

Hare gets in.

"General, my fore legs almost reached the treasure.

Release me a little more. I almost reached it."

"No problem."

The eagle release Hare a little more.

“아이, 손이 달라말라허요.

쫄쫄만 봐주시오, 봐주시오, 봐주시오. 그저 쫄쫄만, 쫄쫄만.”

툑 차고 들어가버렸겠다. 들어가서,

[시조창] “세월이 여류하여…….”<sup>1251)</sup>

독수리란 놈이 바깥에서 딱 듣더니,

“야, 이 자석아. 아, 노래 부르지 말고 빨리 갖고 나와!”

“야, 이 미친 놈아. 보물 상자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 구멍이, 나 살려주는 것이 보물 상자여,

이 저석아. 잔말 하지 말고 날아가거라.”

독수리란 놈 부애<sup>1252)</sup>가 확 나갔고,

“너, 이놈! 얼른 쏙 못 나와?

내가, 내 발만 들어갈 것같은 지경이면, 너를 당장에 잡아내려올 것이니

썩 못 나와?”

“오냐, 발만 넣어봐라.”<sup>1253)</sup>

너를 그저, 발톱을 그냥 전부 확 빼버릴 텅개.<sup>1254)</sup>

아무것도 못 잡아먹게.”<sup>1255)</sup>

“내가 생전 안 나올 것이냐?”

“야, 이 저석아. 들어봐라.

나 나이도 많고, 여기 우리 손자가 우글히여.”<sup>1256)</sup>

그러니 이 손자나 봐주고,

내 어찌다가 밤이면 나가서 달바람 구경이나 하고 그러제,

아, 뿔허로<sup>1257)</sup> 나간다냐?”

“야, 이놈아. 내가 여그 지켜갖고 있을 터이니, 쏙 나와, 이놈아.”

이때에 독수리는 밤눈<sup>1258)</sup>을 못 보겠다.

밤만 딱 되면은 병신이 되니까.



“My hand almost reached it,  
 Release me a little more. Release me a little more.”  
 Hare kicks the eagle and goes deep inside.  
**[Poetic Mode]** “Time flies like an arrow.”  
 The eagle heard Hare outside.  
 “You scoundrel. Don’t sing a song. Come out quickly!”  
 “You crazy bastard. Where do you think the treasure box is?  
 This hole which saved me is the treasure box.  
 You bastard. Cut the noise out and fly away.”  
 The eagle is infuriated.  
 “You rat! Don’t you come out quickly?  
 Only if my legs can get in, I will pull you out immediately.  
 Come out quickly.”  
 “Okay. Pull your legs in.  
 I will pull all of your claws out.  
 You won’t be able to hunt at all.  
 “Won’t you come out for good?”  
 “You fool. Listen to me.  
 I am old, and I have a lot of grandchildren here.  
 I’ll take care of them here.  
 I’ll occasionally go out to watch the moon at night.  
 What would I go out for?”  
 “You rat! I’ll wait for you here outside. Come out quickly. You  
 scoundrel!”  
 The eagle can’t see things at night.  
 He becomes blind at night.

35. (후일담) 독수리는 날아가고, 용왕은 병이 낫고, 토끼는  
산중에서 늙도록 살아간다.

[옛중모리] 독수리 하릴없이<sup>1259)</sup> 훨훨 날아가고,  
용왕은 병이 낫어 태평으로 누리시고,  
토끼는 그제부터<sup>1260)</sup> 죽을 화망<sup>1261)</sup>을 면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쏘냐?  
거드렁거리고<sup>1262)</sup> 놀아보자.

35. (Subsequent Story) The eagle flies away. The dragon king gets cured. Hare grows old in mountain.

[Eotjungmori] The eagle can't help fling away.

The eagle recovers and lives happily.

From that on, Hare lives happily, having avoided the fate to die by fire.

Let's enjoy ourselves wildly.

- 
- 1) 仙衣 道士. 신선의 옷차림을 한 도사.
  - 2) 兔肝(兎肝). 토끼의 간.
  - 3) 然하다. 그렇다.
  - 4) 雖然이나. 비록 그러하지만.
  - 5) 蒼茫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 6) 塵世間. 이 세상.
  - 7) 碧海. 푸른 바다.
  - 8) 萬頃. 만 이랑이나 되게 넓은 푸른 바다 밖에.
  - 9) 白雲이 九萬里요. 흰 구름이 구만 리나 되게 멀리까지 끼어 있고.
  - 10) 驪山 松栢.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중국 섬서성에 있는 여산의 소나무와 잣나무.
  - 11) 鬱鬱蒼蒼. 나무가 뻗뻗이 들어서 무성하여 푸른 모양.
  - 12) 三千古墳 皇帝墓인데. 삼천 개나 되는 옛 무덤이 황제의 묘인데. 황제도 다 죽어 무덤이 그렇게 많다는 뜻.
  - 13) 짐승.
  - 14) 海外. 바다 밖. 곧, 육지.
  - 15) 日月. 해와 달. 여기서는 '해와 달이 뜨는'이라는 의미.
  - 16) 白雲靑山. 흰 구름이 깎인 푸른 산.
  - 17) 無定處로. 정처 없이.
  - 18) 是非 없이. 본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이 없'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가리지 않고'라는 의미 정도로 쓰였음.
  - 19) 聖德. 임금의 덕을 높여 이르는 말.
  - 20) 成功之臣. 성공할 신하.
  - 21)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보이지 않음.
  - 22) 水府朝廷. 물을 다스리는 조정.
  - 23)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신하.
  - 24) 승. 명령.
  - 25) 같으면. ~이라면.
  - 26) 一品. 옛날 벼슬아치의 최고 급수인데, 무관과 문관의 구별이 있고, 종일품과 정일품이 있다.
  - 27) 宰相님네. 재상님들. '재상'은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 28) 테지만. 것인데.
  - 29) 等物들. 여러 사물들이.
  - 30) 얻어가지고.
  - 31) 모두.
  - 32) 丞相. 옛날 중국의 벼슬인데, 우리나라의 정승에 해당한다.
  - 33) 承旨.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던 정3품의 벼슬아치.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관.

- 34) 注書.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려 역사 자료를 기록하던 정7품 벼슬.
- 35) 翰林. 한림학사. 조선시대 예문관에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보던 정9품 벼슬.
- 36) '박죽상어'인 듯. '박죽상어'는 중간 크기의 상어를 말함.
- 37) 大司成. 고려와 조선시대 성균관의 으뜸 벼슬로 정3품.
- 38) 도루묵. 바닷물고기로, 몸길이 15~26cm에 입이 큼.
- 39) 蚌僉使. 내시부의 종3품 벼슬인 첨사 벼슬의 조개라는 뜻으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 40) 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41) 兵使. 병마절도사.
- 42) 海狗. 물개.
- 43) 曹部將. 부장 벼슬의 조기. '조기'의 '조'자를 성으로 하여 만든 말임. 부장은 조선시대 종6품의 무관 벼슬.
- 44) 조기.
- 45) 備邊郎. 낭청(郎聽)이라고도 하는, 나라 안팎의 군사 기밀을 다루던 종육품 벼슬.
- 46) '달강어'의 방언. 몸이 가늘고 길며, 머리는 크고 검은데, 등은 고운 주홍빛을 띤 바닷물고기.
- 47) 성대. 몸길이 40cm 안팎으로 가늘고 길며, 주둥이가 빠죽하고 몸빛이 붉은 바닷물고기.
- 48) 청가오리. '청분'이라고도 함. 가오리의 한 종류로, 꼬리에 가시가 있음.
- 49) 가오리과에 딸린 물고기의 총칭. 노랑가오리·홍어·살홍어·전기가오리·나비가오리 등이 있음.
- 50) 左右 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에 딸린 하급 병졸. 나졸은 말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 체포를 담당했음.
- 51) 禁軍. 조선시대 근군청이나 용호영(龍虎營)에 딸려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던 말탄 군사.
- 52) '숭어'의 방언인 듯.
- 53) 물고기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54) 누치.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잉어와 비슷하며, 몸길이는 20~30cm이나 큰 것은 50cm에 이름.
- 55) 가재.
- 56) 빠가각빠가각. 개구리 따위가 자꾸 우는 소리.
- 57) 入侍하여. 땅에 앞드려.
- 58) 몸을 뒤로 조금 젖히고 멀찍이서.
- 59) 生鮮塵. 생선을 파는 가게.
- 60) 都物主. 물건 파는 곳의 주인 중의 우두머리.
- 61) 경들. '네'는 복수를 나타내는 접사. '경'은 임금이 이품 이상의 신하를 가리키던 말.
- 62) 左右魚頭鬼面之卒. 좌우에 있는 물고기 머리에 귀신얼굴을 한 병졸. 곧 어중이떠중이, 지지리 못한 이들.
- 63) 面面相顧. 서로 얼굴만 쳐다봄.

- 64) 默默不答. 잠자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음.
- 65) '돌돌'의 강한 말. '돌돌'은 괴이하게 여겨서 놀라는 모양.
- 66) 割股事君.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여 임금을 섬김. 춘추시대 진(晉)의 개자추는 문공(文公)이 조나라 망명시에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었다고 함.
- 67) 介子推. 춘추시대 진(晉)의 선비로 문공(文公)이 망명시에 19년을 모셨으나, 문공이 귀국 후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면산(綿山)에 숨어버렸는데, 후에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자, 불을 질러 나오도록 했으나, 끝내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함. 한식(寒食)날은 개자추가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음.
- 68) 誕楚亡身 紀信이. 초나라를 속이고 죽은 기신이. '기신'은 한나라 고조 때 충신. 한 고조 유방이 하남성에서 초나라의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여자들에게 갑옷을 입혀 뒤를 따르게 한 뒤, 유방의 수레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유방을 피신토록 하고 대신 죽었음.
- 69) 누가.
- 70) 正言.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에 딸린 벼슬. 정원은 2명이고 품계는 정6품이었음.
- 71) 몸뚱이의 한 가운데. 여기서는 등의 곁테기를 말함.
- 72) 대모(玳瑁)인고로. 대모이기 때문에.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을 말하는데, 공예품이나 장식품의 고급 재료로 쓰임.
- 73) 玳瑁粧刀. 대모로 손잡이와 칼집을 만든 장도. '장도'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로, 주머니나 옷고름 따위에 차고 다니면서 주머니칼처럼 썼음.
- 74) 살쩍밀이. 망건을 쓸 때 살쩍을 망건 밑으로 밀어 넣는데 쓰는 도구. '살쩍'은 귀 밑에 난 털.
- 75) 宕巾. 갓 아래 받쳐 쓰는 관의 하나. 말총을 잘게 세워서 뜨는데,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턱이 졌음. 집안에서는 이것만 쓰기도 했음.
- 76) 탕건에 붙이는 장식물인 듯하나 불명.
- 77) 담배를 넣어서 옷소매나 호주머니에 넣게 된 싹지의 하나. 장방형(長方形)의 형질으로 한 쪽에만 넣을 자리가 있는데,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음. 혹, 끈을 달아 묶기도 함.
- 78) 守門將. 각 궁궐이나 성을 지키던 무관 벼슬.
- 79) 민물에 사는 메기.
- 80) 어떠하느냐?
- 81) 메기는.
- 82) 長鬚口大. 수염이 길고 입이 큼.
- 83) 好風身. 풍채가 좋음.
- 84) '입'을 낮추어 일컬은 말.
- 85)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들기 때문에'의 뜻.
- 86) 시장기를 면할 재료.
- 87)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 88) 蓑笠. 도롱이나 삿갓.
- 89) 漁翁. 고기 잡는 늙은이. 어부.

- 90) 미끼.
- 91) 飮食. 먹을 것을 탐냄.
- 92) 斷不饒貸.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단숨에 꼼짝없이’라는 뜻.
- 93) 죽는다면.
- 94) 배를 앓는 병.
- 95) 배앓이.
- 96) 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97) 靑林碧溪. 푸른 숲 속 푸른 시내.
- 98)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 99) 潛身하여. 몸을 잠그고.
- 100)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골짜기.
- 101) 山中兔. 산 속의 토끼.
- 102) 畵中兔. 그림 속의 토끼.
- 103) 顔面. 서로 얼굴이나 알만한 친분.
- 104) 小臣.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05) 계의 집게발을 가리킴.
- 106) 단단하고 질기거나 반드러운 물건을 되게 문지를 때 나는 소리.
- 107) 大王前에. 대왕 앞에.
- 108) 교만한 태도. 잘난 체하는 태도.
- 109) 蚌僉使. 내시부의 종3품 벼슬인 첨사 벼슬을 가진 조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 110) 鐵甲. 쇠붙이를 겹에 붙여 만든 갑옷.
- 111) 防身制度는. 제 몸을 지키는 방법은.
- 112) 觀蚌鷸之勢하고 坐收漁人之公이라. 홀조(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물고 놓지 않으며 싸우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어부가 둘 다 손쉽게 잡는다는 뜻으로, 둘이서 다투다가 마침내는 엉뚱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말함.
- 113) 鷸鳥. 도요새.
- 114) 일반의 공통된 의견.
- 115) 未決할 제. 아직 결정하지 못할 때.
- 116) 靈德殿. 남해 용왕인 광리왕(廣利王)이 지었다는 궁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편에 나옴.
- 117) 隱目短足. 눈이 작고 다리가 짧음.
- 118) 長頸鳥喙. 목이 길고, 주둥이가 까마귀의 부리와 같음.
- 119) 虎胸背에. 호랑이를 수놓아 무관의 관복의 배와 등에 붙이던 천 조각.
- 120) 자라의 등껍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121) 鞠躬再拜. 몸을 굽혀 두 번 절함.
- 122) 鼈主簿. 주부 벼슬의 자라.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 123) 넷이기 때문에.

- 124) 江上. 강물 위.
- 125) 逢敗. 낭패를 당함.
- 126) 바다 속에서 태어남.
- 127) 그것일랑은. 그것은.
- 128) 洞庭琉璃青紅硯. 동정호의 유리창(琉璃廠)에서 나는 푸른 색과 붉은 색이 나는 고운 베틀.
- 129) 錦水秋波.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여기서는 ‘금수추파를 담은’의 뜻.
- 130) 거북 硯滴. 거북 모양을 한 베틀물을 담은 그릇.
- 131) 兩頭畫筆. 양 쪽에 화필이 달린 붓.
- 132) 덩석. 무엇을 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 133) 丹青 彩色. 붉고 푸른 여러 가지 빛갈.
- 134) 白綾蓮花箋紙上. 연꽃 무늬가 있는 하얀 비단으로 된 화선지 위.
- 135) 勝地. 경치가 좋은 곳.
- 136) 景概. 경치.
- 137) 지저귀어.
- 138) 蓬萊山. 중국에서 상상하던 삼신산(三神山. 신선이 산다는 세 산으로,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산)의 하나.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139) 方丈山. 삼신산의 하나.
- 140) 雲霧. 구름과 안개.
- 141) 냄새.
- 142) 芝草. 지치. 쌍떡잎 식물 갈래꽃류에 속하는 한 과(科)로, 염료나 약재용으로 쓰임.
- 143) 香草. 향기나는 풀.
- 144) 萬化方暢花林中. 봄이 되어 온갖 사물이 한창 피어나는 꽃수풀 속.
- 145) 白雪江山. 흰 눈이 내린 강산.
- 146) 추운.
- 147) 禦寒하던. 추위를 막던.
- 148) 萬化方暢. 봄이 되어 온갖 사물이 한창 피어남.
- 149) 花林. 꽃나무 수풀.
- 150) (입술이나 귀 따위를) 뽀뽀하게 치켜세우거나 뽀족이 내미는 모양.
- 151) 둥글둥글함.
- 152) 늘씬. 가늘고 길어 맵시가 있음.
- 153) 꼬리.
- 154)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155) 綠水青山. 푸른 물과 푸른 산.
- 156) 조금 휘어져 굽은.
- 157) 楊柳. 버드나무.
- 158) 들락날락. 연거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 159) 엉거주춤.



- 160) 峨眉山月の半輪兎. 아미산 위에 뜬 반달 속에 보이는 토끼. ‘아미산’은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산으로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임. 이 구절은 이백의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의 첫 구절인 ‘아미산월반륜추(峨眉山月半輪秋)’의 변형임.
- 161) 이보다.
- 162) ‘여기 있다’는 뜻으로 쓰는 말.
- 163) ‘여기 있다’의 준말. ‘해라’ 할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 164) 곰곰. 여러 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 165) 목의 뒷부분.
- 166) 막창자. 맹장.
- 167) 별주부가 목덜미에 화상을 넣고 오므려 놓으니, 화상이 있는 곳이 마치 가죽으로 만든 펄갑(뱃을 넣어두는 갑)처럼 되었다는 말.
- 168) 本宅. 본집. 자기 집.
- 169) 늙으신 부모.
- 170) 挽留次로. 말리려고.
- 171) 三代獨子. 3대에 걸쳐서 형제가 없는 외아들.
- 172) 長歎息.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함.
- 173) 救患하며. 어려움에서 구하며
- 174) 烏鳶. 까마귀와 솔개.
- 175) 두드리며.
- 176) ‘후여’하고 소리를 질러서. 여기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와 솔개를 소리를 질러 내쫓는 것을 말함.
- 177) 너희.
- 178) 十里沙場. 길이가 십 리나 되는 긴 모래밭.
- 179) 藏身하여. 몸을 숨겨.
- 180) 쇠꼬챙이.
- 181) 可憐早死. 불쌍하게 일찍 죽음.
- 182) 水中之物. 물속에 사는 생물.
- 183) 재빨리 조금 보이면
- 184)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아니함.
- 185) 患候. 어른의 병을 높여서 일컫는 말.
- 186) 계서서. 있어서.
- 187) 奉命. 명을 받들.
- 188) 事勢不得. 일의 돌아가는 형편이 어찌할 수 없음.
- 189) 마누라.
- 190) 一色. 아주 뛰어난 미인. 여기서는 ‘아주 멋있는’ 정도의 의미.
- 191) 渭水波光. 위수의 물빛. ‘위수’는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로 강태공이 낚시질을 하던 곳.
- 192)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193) 萬里靑山. 만 리나 떨어진 먼 곳에 있는 푸른 산(육지).

- 194) 堂上. 부모님이 거처하는 곳
- 195) 鶴髮. 학처럼 허영게 센 머리.
- 196) 朝夕恭待. 아침 저녁으로 늘 공손히 잘 받들어 모심.
- 197) 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오륜의 하나.
- 198) 社稷.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나라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199) 閨中.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 200) 節行之事. 절개 있는 행동을 하는 일.
- 201) '키 큰 풀이 많이 난 곳'이라는 뜻인 듯함.
- 202)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203) 음흉하기가.
- 204) 사이에.
- 205) 누린내. 짐승의 고기에서 나는 기름기의 냄새.
- 206) 부디.
- 207) 處處이. 곳곳마다.
- 208) 景概. 좋은 경치.
- 209) 杲杲天邊一輪紅. 동틀 무렵 하늘가에 떠 있는 붉은 해.
- 210) 扶桑. 해가 돋는 곳, 혹은 그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211) 暘谷. 해가 돋는 골짜기.
- 212) 자옥하게 긴.
- 213) 月峰. '달이 뜨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 214) 豫章村. 중국 회남과 강북의 경계에 있는 마을.
- 215) 回雁峯. 중국 호남성에 있는 형산의 으뜸가는 봉우리. 기러기가 겨울에 이곳까지 왔다가, 봄이 되면 북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216) 蘆花. 갈대꽃.
- 217) 浮萍. 개구리밥과에 딸린 물풀.
- 218) 魚龍. 물고기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
- 219) 차고. 평과에 딸린 새. 메추라기와 비슷하나 조금 큼. 다른 창자들은 여기를 '잘새(잠자리를 찾아가는 새)'로 많이 부름.
- 220) 洞庭如天波始秋. 하늘처럼 맑고 넓은 동정호의 물결이 비로소 가을을 알리다.
- 221) 錦水秋波.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여기서는 '금수추파를 담은'으로 해야 함.
- 222) 여기라.
- 223) 碧波. 푸른 물결.
- 224) 滄浪. 맑은 물결.
- 225) 작은 동작으로 느리게 걷거나 가는 모양.
- 226) 地廣. 땅 넓이.
- 227) 波光. 물 빛갈.
- 228) 天一色인데. 하늘과 같은 색깔인데.

- 229) 天外巫山の 十二峯.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230) 海外 瀟湘. 바다 멀리까지 뻗은 소상강.
- 231) 吳楚는 어이하여 東南으로 벌여 있고, 乾坤은 어이하여 日夜에 등실 떠. (동정호를 중심으로) 오나라는 동쪽으로, 초나라는 남쪽으로 넓게 자리잡았고, (호수에는) 이 세상이 밤낮 없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두보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의 한 구절로, 원문은 ‘오초동남파(吳楚東南坼) 건곤일야부(乾坤日夜浮)’이다.
- 232) 南薰殿. 순임금이 짓고 살았다는 궁전.
- 233) 五絃琴. 줄이 다섯 개가 있는 옛날 중국의 현악기로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함.
- 234) 洛浦. 낙수 강가에 있는 포구. 낙수의 북쪽에 낙양이 있는데, 낙양에서 무관은 하루나 이틀 걸리는 거리임.
- 235) 武關四.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 갔음.
- 236) 楚 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굴원이 벼슬을 하다가 참소를 입은 것이 이때임.
- 237) 冤魂.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 238) 藏身하여. 몸을 감추고서.
- 239)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240) 萬鏡臺.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불명.
- 241) 鶴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 242) 七寶山. 중국 안휘성 무위현에 있는 산.
- 243) 毘蘆峯. 산봉우리 이름.
- 244) 稽山罷霧鬱嵯峨. 안개가 걷히니 계산이 더욱 높아 보인다. 당나라 시인 하지장의 <채련곡(採蓮曲)>의 한 구절.
- 245) 층층층(層層層). 층층으로.
- 246) 鏡水無風也自波. 거울같이 맑은 물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물결이 일다.
- 247) 萬山. 수많은 산. 모든 산.
- 248) ‘울울(鬱鬱)’을 표현한 말인 듯. ‘울울’은 나무가 뻗뻗이 우거진 모양.
- 249) 落花. 떨어진 꽃.
- 250) 가볍게 물 위에 떠내려가는 모양.
- 251) 落落. 가지가 늘어진 모양.
- 252) (가로 퍼진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넓적한.
- 253) 몽뚝한 다래 나무.
- 254) 칙덩굴.
- 255) 으름덩굴.
- 256) 뽕나무.

- 257) 온갖.  
 258) 果木. 과일나무.  
 259) 굽이져.  
 260) 奔飛. 이리저리 날아다님.  
 261) 해오라비. 백로.  
 262) 새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263) 江上. 강물 위의.  
 264) 때로 다니는 고니.  
 265) 少昊天子 紀官하던. ‘소호천자가 벼슬의 이름에 새의 이름을 붙이던 때와 같은 태평성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소호천자는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소호 금천씨(金天氏). ‘소호 금천씨’는 중국 고대의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의 아들로, 황제의 위에 오르자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으므로, 관직 이름에 새의 이름을 붙였다고 함.  
 266) 萬壽門前의. 만수문 앞의.  
 267) 洋洋滄波點點動. 넓고 넓은 바다 물결에 점점이 떠서 움직이다.  
 268) 사랑스럽다고.  
 269) 烏鵲이. 까마귀와 까치.  
 270) 녀새. 기러기와 비슷하나 몸이 크고 부리가 짧음.  
 271) 물수리라고도 하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272) 새울음소리를 흉내낸 말.  
 273) 이리저리.  
 274) 쳐다보니.  
 275) 白沙地라. 흰 모래땅이라. 혹은 ‘백사지장(白沙之場)이라’ 부르기도 함.  
 276) 약간 휘우듬하게 구부러진.  
 277) 狂風. 사나운 바람.  
 278) 千里 시내. 천 리나 되는 긴 강.  
 279) 물줄기 따위가 끊이지 않고 강하게 흐르는 소리.  
 280) 한 곳으로. 한 군데로.  
 281) 合水져. 물이 합쳐져.  
 282) 천방저 지방저 언덕저 굽이쳐.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굽이쳐.  
 283) 거품이 일어.  
 284) 屏風石. 병풍처럼 생긴 바위.  
 285) 때려.  
 286) 여기로구나.  
 287) 두려운 마음  
 288) 景概 疊疊 無窮이라. 좋은 경치가 첩첩하여 끝이 없다.  
 289) 上座다툼.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  
 290) 根本. 자라온 환경과 경력.  
 291) 舜임금.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  
 292) 南薰殿. 순임금이 정사를 보던 궁전.

- 293) 순임금이 댄다는 줄이 다섯인 비파.  
 294) 蕭蕭鬼聲. 쓸쓸한 귀신 소리.  
 295) 岐山.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 고공단보가 도읍을 삼은 곳.  
 296) 鬱鬱하여. 매우 융성하여.  
 297) 周文武. 주나라 문왕과 무왕. 문왕은 무왕의 아버지이며, 무왕은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고, 천하를 통일하여 주나라를 세웠음.  
 298) 萬古大聖. 세상에 다시 그 유례가 없는 대 성인.  
 299)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300) 여기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라는 의미임.  
 301) 자기 키만큼의 길이.  
 302) 飢不啄粟. 배가 고파도 곡식을 먹지 않음.  
 303) 瀛洲山. 신선이 산다는 중국의 삼신산의 하나.  
 304) 石上 梧桐. 바위 위에 난 오동나무.  
 305) 느릿느릿 기어가는 모양.  
 306) 瀟湘斑竹. 중국 소상강 가에서 나는 얼룩무늬가 있는 대.  
 307) 내 것을.  
 308) 눈알의 검은 부분.  
 309) 편편하거나 얇으면서 넓고.  
 310) 대가리. 머리를 상스럽게 일컫는 말.  
 311) 越王 句踐. 중국 춘추시대 말기의 월나라의 임금인 구천. 오나라의 부차(夫差)에게 패하여 회계산(會稽山)에서 항복을 했음. 그 후 명신 범려와 와신상담(臥薪嘗膽) 20년에 마침내 부차를 죽여 회계의 치욕을 씻고, 패자(霸者)가 되었음.  
 312) 彷彿하고. 비슷하고.  
 313) 山陰땅. 중국의 지명.  
 314) 王羲之. 중국 동진(東晉)의 서예가(307-365). 자는 일소(逸少). 그의 전아하고 힘차며 품위 있는 서풍은 일찍부터 안팎의 존경을 받았음.  
 315) 洗硯池에. 벼루를 씻은 연못에  
 316) 생길.  
 317) 船遊. 배를 타고 놀.  
 318) 南飛. 남쪽으로 날아감.  
 319) 三國興亡. 위·오·촉 세 나라의 흥망.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가 지은 시 <단가행(短歌行)>의 “月明星稀 烏鵲南飛 遶樹三匝 無枝可依(달은 맑고 별은 희미한 밤,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다)”를 두고 한 말임. <단가행>은 패하여 도망칠 유비를 조롱하여 지은 것임.  
 320) 反哺恩. 까마귀의 새끼가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잡아다 주어, 길러준 은혜를 갚는 일.  
 321)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322) 心性.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  
 323) 마음씨가 흉악함.

- 324) 나무에.  
 325) 動할. 동요케 할.  
 326) 守節寡婦.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 절개는 지키는 여자.  
 327) 滿座中에. 좌석에 꽉 늘어앉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328) 類萬不同. 모두 서로 같지 않고 다름. 여기서는 '정도가 있지'정도의 의미로 쓰임.  
 329) 孔夫子. 공자를 높여서 이르는 말.  
 330) 作春秋에. 춘추를 지을 적에. <춘추>는 공자가 지은 노나라 역사.  
 331) 絶筆. 붓을 놓고 글쓰기를 그만둠.  
 332) 공자가 <춘추>를 엮을 적에, "노나라 애공이 사냥을 가서 ..... 기린을 잡다(획린獲麟)" 라는 구절로 끝을 낸 데서 나온 말임. '획린'은 절필, 혹은 임종의 뜻으로 쓰임.  
 333) 三軍三營. '삼군'은 군대의 좌익, 우익, 중군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삼영'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통틀어 일컫는 말.  
 334) 舉動時. 움직일 때에.  
 335) 天子玉輦. 임금이 타고 다니는 수레.  
 336) 玉京 仙官. 신선이 사는 하늘나라의 벼슬아치. '옥경'은 도교에서 옥황상제가 있는 곳.  
 337) 乘匹. 타고 다님.  
 338) 西伯. 주나라의 문왕.  
 339)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340) 非熊非豹.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기에 앞서 점을 쳤는데,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임금을 모실 훌륭한 신하를 만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는데, 이 점괘대로 문왕은 위수 북쪽에서 강태공을 만났음.  
 341) 滄海 博浪沙의 狙擊始皇. 장량(張良)이 창해군을 만나 박랑사에서 진시황을 습격함. '박랑사'는 하남성 양무현(陽武縣)에 있는 지명. 다른 본에는 '저복시황'이 '저복하던'(낮게 엎드려 있던)으로 되어 있음.  
 342) 江水東流猿夜聲. 강물은 하염없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원숭이만 밤에 구슬피 운다. 이태백의 시 <양양가(襄陽歌)>의 한 구절.  
 343) 원숭이.  
 344) 멧돼지.  
 345) 等物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346) 獐都監. '도감 벼슬을 하는 노루'라는 뜻으로, 노루를 의인화한 표현.  
 347) 騎鯨上天.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이태백이 신선이 되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함.  
 348) 李太白. 이백(李白). 태백(太白)은 자(字)이고 호(號)는 청련(青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받았다. 신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 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349) 나와.  
 350) 同伴하여. 함께 짝이 되어.  
 351) 匡山 十年 이태백이 중국 사천성에 있는 광산에서 십 년 동안 공부를 했던 일을 가리킴.

- 352) 玉京. 신선세계의 서울.
- 353) 年甲. 나이가 같음.
- 354) 撻把撻. ‘파총 벼슬을 하는 너구리’라는 뜻으로, 너구리를 의인화한 표현임.
- 355) 獐都監. ‘도감 벼슬을 하는 노루’라는 뜻으로, 노루를 의인화한 표현.
- 356) 銅雀臺. 조조가 위나라 수도 업도에 세운 누대. 구리로 만든 봉황새를 옥상에 안치하였음.
- 357) 二喬. 중국 삼국시대에 강동에 살던 교공의 두 딸인 대교와 소교를 가리키는데, 매우 예뻐했다고 한다. 오나라 주유가 손권의 형인 손책을 따라 완성을 칠 때 포로로 잡아 대교는 손책이, 소교는 주유가 차지했다. 본래 <동작대부>의 마지막 구절에 ‘연이교어 동서혜(連二橋於東西兮)여 약장공지체동(若長空之蟉螭)’(동서로 다리를 이어놓으니, 마치 하늘에 뜬 무지개인 듯하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공명이 ‘攬二喬於東南兮 樂朝夕之與共(대교와 소교를 동남에서 데려와 밤낮으로 함께 즐기며 지내리라)’으로 슬쩍 바꾸어 주유를 격노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이용한 것임.
- 358) 曹子建. 이름은 식(植). 조조의 아들로서 글재주가 뛰어나, 조조가 <동작대부>를 짓게 했음.
- 359) 銅雀臺賦 韻하던. <동작대부>를 읊던. <동작대부>는 조조의 셋째 아들인 조자건(曹子建)이 지은 시.
- 360)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 361) 멧돼지.
- 362) 나팔같이 생긴.
- 363) 거스름이 눈. ‘거스름’은 나무의 결 같은 것이 얇게 터져서 일어난, 가시처럼 된 부분. ‘거스름이 눈’은 멧돼지의 눈썹이 가시처럼 거칠게 생겼기 때문에 이를 일컫는 말임.
- 364) 猪郎廳. 낭청 벼슬의 돼지. 돼지의 의인화 표현.
- 365) 낳았기에.
- 366) 壽字. 나이 글자. 곧 나이.
- 367) 匈奴國. 흉노족이 세운 나라. ‘흉노’는 기원 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 368) 주린 忠節. 굶주리면서도 충절을 지켰던.
- 369) 首髮. 머리털.
- 370) 盡白하여. 다 세어져서. 모두 하얘져서.
- 371) 허우적허우적. (벗어나거나 헤어나려고)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 372) 蘇中郎. 한나라 무제 때 사람으로, 이름은 무, 벼슬은 중랑장.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불참해,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나라에 대한 충절을 지키고 19년만에 백발노인으로 돌아왔음.
- 373) 고손자.
- 374) 나이만밖에. 나이 정도밖에.
- 375) 손뺌을 치며 크게 웃음.
- 376) 兔生員. 토끼를 의인화한 표현. ‘생원’은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는 뜻으로 그 성 밑에

붙여 쓰는 말.

- 377) 漢 光武. 한나라 광무제. 후한을 세운 유수(劉秀).
- 378) 諫議大夫. 임금에게 간하고, 정치의 득실을 논하던 벼슬아치.
- 379) 浮雲으로 遮日 삼고, 뜬 구름으로 차일을 삼고. '차일'은 주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 380) 桐江 어울 七里灘. 중국 절강성 동로현에 있는 동강의 어울. 한나라 때 엄광(嚴光)이 여기서 낚시질을 하였다고 함.
- 381) 嚴子陵. 이름은 광(光)이고, '자릉'은 그의 자(字)임. 후한을 세운 유수와 어려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후에 유수가 광무제가 되어 간의대부 벼슬을 내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숨어 살았음.
- 382) 아무 이유 없이 떠는 공연한 방정.
- 383) 돌아다녀도.
- 384) 여우.
- 385) 작은 것들이 한 군데 많이 모여 움직이는 모양. 오물오물하게.
- 386) 매우 흡족하게.
- 387) 여기예가. 여기에.
- 388) 몹시 빠르고 세찬 모양.
- 389) 몸을 조금 뒤로 젖히고 멀찍이서.
- 390) 너희.
- 391) 이 산 속.
- 392) 부아. 화.
- 393) 먹어치우리라. '식후다'는 '어떤 것을 먹어치우거나, 혼내다.'는 뜻의 사투리.
- 394) 사슴과에 딸린 짐승. 노루의 일종으로 몸이 작으며, 뿔이 나지 않고, 송곳니가 길게 자라 입 밖으로 나옴.
- 395)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조금 큰 동작으로 게으르게 행동하는 모양.
- 396) 상여.
- 397) 쪼그리고.
- 398) 주먹만한.
- 399) 만 리나 되는 먼 바다.
- 400) 줄기차게 말하는 힘.
- 401) 얼룩덜룩하고.
- 402) 虎生員. 호랑이를 의인화한 표현. '생원'은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는 뜻으로 그 성 밑에 붙여 쓰는 말.
- 403) 나더러. 나를.
- 404) '그만두어라'라는 뜻으로 쓰는 감탄사.
- 405) 松林. 소나무숲.
- 406) 골짜기로.
- 407) 잠두(蠶頭). 보통 산의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특 불거진 모양을 가리킴.
- 408) 얼룩덜룩.



- 409) 두 팔을 벌려서 편 거리.  
 410) 한 발 하고도 남고. 한 발이 넘고.  
 411)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메는 기구.  
 412) 箭筒. 화살을 넣는 통.  
 413) 석로 만든 냇.  
 414) 嚴冬雪寒. 눈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  
 415) 白雪格으로. 흰 눈처럼.  
 416) 뒤집혀 넘어지고.  
 417) 움츠리고.  
 418) 엮여져있다.  
 419) 만들었을까.  
 420) 골짜기.  
 421) 들러니까.  
 422) 동그란.  
 423) 기왕에.  
 424) 보았으니까.  
 425) 단단하게. 분명하게.  
 426) 동그란.  
 427) 서로 성과 아름을 알려줌.  
 428) 어떠한 부류에 넣어 부르는 이름.  
 429) 가르쳐 주는데.  
 430) 감옥 일을 맡아 보는 벼슬아치.  
 431) 주부 벼슬의 자라.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432)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433) 맛있는.  
 434) 珍味. 아주 좋은 맛이 나는 음식.  
 435) '자라탕'을 가리키는 뜻함.  
 436) 불을 붙여 태워.  
 437) 萬病回春. 모든 병으로부터 회복함.  
 438) 남생이의 한 종류인 듯. 남생이는 작은 거북처럼 생긴 민물에 사는 파충류.  
 439) 濕氣. 한의학에서 습한 기운을 이르는 말.  
 440) 急煞. 갑자기 닥쳐오는 재액.  
 441) 東醫寶鑑.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한 데 모아 편찬한 조선조 때의 으뜸가는 의서. 조선조 선조 30년(1597) 허준이 왕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됨.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 정연한 책으로 총 4권 2책, 활자본.  
 442) 砒霜. 비석(砒石)에 열을 가하여 승화시켜 얻은 결정체로 독성이 아주 강하다. 거담제와 학질 치료제로 쓰였으나 독성 때문에 현재는 쓰지 않는다.  
 443) 悖術. 사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술수.

- 444)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조금 큰 동작으로 게으르게 행동하는 모양.
- 445) 頽落하여. 무너지고 낡아서.
- 446) 靈德殿.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447) 넓은.
- 448) 間. 건축물에서 사방 일곱 자(약 210cm) 내지 아홉 자(약 270cm) 평방의 넓이를 이르는 단위.
- 449)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 450) 名醫. 이름난 의원.
- 451) 間醫한즉. 의원에게 병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 452) 도랑귀신. 도랑은 '작은 개울'이므로, '작은 개울에 있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쓴 듯. 자라는 민물 물고기이므로 도랑과 연관을 지은 것임.
- 453) 匕首劍. 썩 잘 드는 작은 칼.
- 454) 부(瞻). 내장 중 쓸개,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의 여섯 가지를 가리킴.
- 455) 훔쩍.
- 456) 성기(性器)를 가리킴.
- 457) 왼 쪽으로.
- 458) 뒹굴고.
- 459) 限定. 수량이나 범위를 제한 하여 정하는 정도.
- 460)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비길 데가 없음.
- 461) 주먹만한.
- 462) 틈 사이에서.
- 463) 살아 있는 남생이.
- 464) 빠죽이.
- 465) 여기까지.
- 466) 세수랑고개까지. '세수랑고개는 '쇠스랑고개'로, 쇠스랑처럼 세 봉우리가 있는 고개라는 뜻인데, 곳곳에 흔하다.
- 467) 터무니없이 무리하게.
- 468) 방법이나 수단.
- 469) 山神祭. 산신에게 드리는 제사.
- 470) 溪邊楊柳. 시냇가 수양버들.
- 471) 盤松가지. 키가 짧고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자란 소나무 가지.
- 472) 작고 단단한 쇠붙이나 나무 등이 가볍게 부러지는 소리.
- 473) 塵土. 먼지와 흙.
- 474) 巖床. 상처럼 생긴 바위.
- 475) 祭板. 제물을 차려놓는 상.
- 476) 面紙. 제사 때 제사상 위에 까는 종이.
- 477)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478) 魚東肉西 紅東白西. 제사상을 차리는 원칙으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붉은색 과일

- 은 동쪽, 흰 것은 서쪽에 놓는다는 것.
- 479) 維歲次. (연호를 쓰지 않고) 다만 해의 차례를 말하건대, 축문의 맨 앞에 쓰는 문구.
- 480) 敢昭告于. 감히 산령님께 밝히 아뢰나이다. 축문에서 쓰는 관용구.
- 481) 日月星辰. 해와 달과 별.
- 482) 后土地神. 토지의 신.
- 483) 偶然得病. 우연히 병을 얻음.
- 484) 仙醫道士. 신선 복장의 도사.
- 485) 重山. 깊은 산.
- 486) 生擒. 산 채로 잡음.
- 487) 祝手. 두 손 모아 빌.
- 488) 然後에. 그러한 뒤에.
- 489) 동글동글.
- 490) 늘씬. 가늘고 길어 맵시가 있음.
- 491) 꼬리
- 492) 뭉뚝.
- 493) 綠水. 푸른 물.
- 494) 綠水青山. 푸른 물이 흐르는 푸른 산.
- 495) 조금 휘어져 굽은.
- 496) 楊柳. 버드나무.
- 497) 엉거주춤.
- 498) 괴이(怪異)하여.
- 499) 누가.
- 500) 箕山. 중국 하남성에 있는 산. 요임금 때에 소부와 허유가 숨어 산 곳.
- 501) 潁水. 영천. 중국 하남성에 있는 강. 요임금이 허유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자, 못들을 말을 들었다 하여 귀를 씻은 곳.
- 502) 巢父. 중국 요임금 때의 고사(高士). 속세를 떠나서 산의 나무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함.
- 503) 許由. 중국 요임금 때의 은사(隱士).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고, 도리어 못 들을 말을 들어 귀가 더러워졌다고 하여 영수에서 귀를 씻었다고 함.
- 504) 避世가자고. 세상을 피해 숨자고.
- 505) 首陽山. 중국 산서성에 있는 산.
- 506) 伯夷叔齊 중국 은나라 때 고죽군의 두 아들인데, 제후인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치려하자 이를 말렸으나, 끝내 듣지 않고 은나라를 쳐 주나라를 세우며,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다 굶어 죽었음 .
- 507) 採薇. 고사리를 캐.
- 508) 玩月長醉. 달을 즐기며 늘 술에 취해 있음.
- 509) 江南 太白. 강남 땅에 살던 이태백..
- 510) 騎鯨上天.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이태백이 물에 빠져 죽은 후 신선이 되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 데서 유래한 말.

- 511) 桃花流水. 흐르는 물 위에 떠오른 복숭아꽃. 이백의 시 〈산중문답(山中問答)〉에 나오는 말.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園記)〉에서 복숭아꽃이 떠오르는 곳을 따라 들어가 별천지에 이르렀다고 함.
- 512) 武陵.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이 세상이 아닌 별천지라는 뜻으로 쓰임.
- 513) 舉酒屬客. 술을 들어 손님들에게 권함.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에 나오는 말.
- 514) 百花深處一僧歸.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핀 곳으로 중 한 사람이 돌아오다. 김만중이 쓴 〈구운몽〉에서 주인공 양소유가 하늘에 있을 때, 스승의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온갖 꽃이 흐드러진 둘다리 위에서 8선녀를 만난 일은 가리킴. 양소유가 하늘에 있을 때 이름이 성진인데, 이 때 8선녀와 희롱한 죄로 인간으로 귀양 와서 양소유로 태어남.
- 515) 春風石橋花林中. 봄날 꽃나무 수풀 속 둘다리. 〈구운몽〉의 주인공 양소유가 하늘에 있을 때, 8선녀를 만나 희롱한 곳을 표현한 말임.
- 516) 性眞和尚. 성진은 〈구운몽〉의 주인공 양소유가 하늘에 있을 때의 이름. 화상은 중을 높여 부르는 말.
- 517) 此山中 雲深한 데, 不知處. 이 산속 구름이 깊어 그곳을 알지 못함. 당나라 때 시인 가도(賈島)의 시 〈尋隱者不遇(심은자불우)〉에 나오는 ‘지재차산중(只在此山中) 운심부지처(雲甚不知處)’이 산 속에 있기는 하지만, 구름이 깊어서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의 변형임.
- 518) 緣分. 부부가 될 수 있는 인연.
- 519) 中靈山. 현행 〈영산회상(靈山會相)〉의 둘째 곡.
- 520) 온갖.
- 521) 風流. 전통음악에서 대풍류, 줄풍류 따위의 관악 합주나 소편성의 관현악을 이르는 말.
- 522) 舞仙이. 기생 이름인데, 춤을 잘 춘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
- 523) 기우뚱거리고.
- 524) ‘이마’의 속된 말.
- 525) 通姓名. 성과 이름을 서로 주고받음. 서로 인사함.
- 526) 감옥 일을 맡아 보는 벼슬아치.
- 527) 주부 벼슬의 자라.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 528)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 529) 理陰陽順四時. 음양을 맡아서 사계절의 변화를 순조롭게 함.
- 530)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531) 月兔일러니. 달 속의 토끼이더니(토끼인데).
- 532) 搗藥酒. 약초를 넣어 빻은 술.
- 533) 大醉하여. 크게 취하여.
- 534) 長生藥. 먹으면 오래 산다는 약.
- 535) 謫下中山. (하늘에서) 산으로 귀양을 음.
- 536) 나더러. 나를.
- 537) 토명(兔名). 토끼 이름.
- 538) 반갑게.

- 539) 含笑曰. 웃음을 머금고 말하기를.
- 540) 何相見之晚晚無故不測. 이렇게 늦게서야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지 못했음.
- 541) 文字.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자로 된 숙어나, 문장.
- 542) 抱才. 재주가 있음. 품고 있는 재주.
- 543) ‘그만두어라’라는 뜻으로 쓰는 감탄사.
- 544) 文章. 문장가. 글을 뛰어난게 잘 짓는 사람.
- 545) 문자통. ‘통’은 정통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문자를 잘 아는 사람으로 쓰임. 여기서는 ‘문자꾸러미’ 정도의 의미.
- 546) 똥굴어나가요.
- 547) 法眼弘眼. 눈은 도를 통해 무엇이나 널리 꿰뚫어볼 수가 있음.
- 548) 紅顏白髮. 머리는 하얀해도 얼굴은 붉어 혈기가 있음.
- 549) 紅不敢藏. 혈기는 감히 감출 수 없음.
- 550) 我歌查唱.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는 뜻으로,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한다는 말.
- 551) 堂狗三年에 吠風月.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 552) 利不可獨食. 이익은 혼자 차지해서는 안 됨.
- 553) 魚東肉西,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는 것으로, 제상을 차리는 원칙의 하나.
- 554) 左脯右醢. 양념하여 말린 고기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놓는다는 것으로, 제상을 차리는 원칙의 하나.
- 555) 紅東白西. 붉은 과일을 동쪽에, 흰 것은 서쪽에 놓는다는 것으로, 제상을 차리는 원칙의 하나.
- 556) 焚香再拜. 향불을 피우고 두 번 절함.
- 557) 明其爲賊은 全羅監營이요. 도적임을 밝히는 것은 전라감영에서 할 일이요.
- 558) 아무 이유 없이 떠는 공연한 방정.
- 559) 일부러 칭찬하는데.
- 560) 五衛營門. 오위의 군문(軍門). 오위는 조선시대 군대 편제의 이름.
- 561) 도총관(都總管)을 이름인 듯. 도총관은 조선조 때 오위를 통솔 지휘 감독하던 관아인 오위도총부의 책임 장관.
- 562) 일부러 칭찬하여 놓으니.
- 563) 기웃. 무엇을 보려고 자주 고개를 기울이는 모양.
- 564) 玩景次로. 좋은 경치를 구경하려고.
- 565) 말해보시오.
- 566) 綠水青山. 푸른 물과 푸른 산. 곧, 자연.
- 567) 日暮黃昏. 해가 저물어 황혼일 때.
- 568) 月出東嶺. 동쪽 산봉우리 위로 달이 뜬.
- 569) 靑林碧溪. 푸른 숲 속 푸른 시내.
- 570)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571) 甘食하고. 맛있게 먹음.
- 572) 身如浮雲. 몸이 뜬구름처럼 한가함.

- 573) 廬山東南五老峯. 중국 강서성 북부의 여산의 동남쪽에 있는 봉우리인데, 모양이 다섯 노인이 서 있는 것과 같다 해서 붙은 이름임. .
- 574) 鎮國名山. 줄여서 진산(眞山)이라고도 함. 나라의 서울이나 동쪽에 자리잡은, 나라의 운수가 매였다는 산.
- 575) 萬丈峰.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높은 산.
- 576) 三山. 신선이 산다는 전설 상의 세 산. 삼신산(三神山).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말함.
- 577) 泰山 嵩山 衡山 華山. 중국에서 높은 산으로 일컬어지는 다섯 산인 오악(五嶽)중의 넷을 가리킴. '오악'은 동악(東嶽) 태산(泰山. 산동성에 있음), 서악 화산(華山. 섬서성에 있음), 남악 형산(衡山. 호남성에 있음), 북악 향산(恆山. 산서성에 있음), 중악 숭산(嵩山. 직례성에 있음)을 이룸. 따라서 오악 중 향산이 빠졌음.
- 578) 萬壑千峰.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 579) 蛾眉山.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산.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임.
- 580) 首陽山. 중국 산서성의 남서쪽에 있는 산. 옛날 백이와 숙제가 여기서 굶어 죽었다 함.
- 581) 崑崙山. 중국 전설에 나오는 신성한 산. 중국 서쪽에 있다고 하며, 처음에는 하늘에 이르는 높은 산, 또는 아름다운 옥이 나는 산이라 했으나, 전국시대 말기부터는 서왕모(西王母)가 살며, 불사의 물이 흐르는 신선경이라고 믿어졌음.
- 582) 隱隱히. 알 듯 모를 듯하게.
- 583) 黑雲. 먹구름
- 584) 落照景. 해가 지는 광경.
- 585)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586) 日出景. 해 뜨는 경치.
- 587) 眼下. 눈 아래.
- 588) 森列. 뾰뾰이 늘어섬.
- 589) 登泰山小天下.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아 보인다'는 공자의 말로, 맹자에 나옴.
- 590) 大觀. 천하를 한 눈에 훑어 봄.
- 591) 玩月. 달을 바라보며 구경함.
- 592) 遊山. 산으로 놀러 다님.
- 593) 地上仙人. 지상에 사는 신선.
- 594) 赤松子.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 595)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 함.
- 596) 놓니다.
- 597) 아닌 게 아니라.
- 598) 유자처럼 울퉁불퉁하고 붉은 코.
- 599) 아내가 아닌 여자와 놀아나는 사람.
- 600) 도총관(都摠管)을 이룬인 듯.
- 601)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으로 슬금슬금 넘겨다보는 모양.
- 602) 眉間. 두 눈썹 사이.
- 603) 火亡煞. 불에 의해 죽게 될 독하고 모진 운수.

- 604)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여.  
 605) 초면(初面)에. 처음 만나는 처지에.  
 606) 뭔가가 수상하거나 탐탁치 못한.  
 607) 한 마리의 보잘 것 없는 토끼.  
 608) 三春九秋. 봄 석 달과 가을 석 달. ‘구추’는 가을철 90일을 가리키는 말.  
 609) 大寒. 24절기 중의 마지막 절후. 양력 1월 21일 경으로 일년 중 가장 추운 때임.  
 610) 嚴冬. 아주 추운 겨울.  
 611) 雪寒風.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추위.  
 612) 萬壑에. 수많은 골짜기에.  
 613) 쌓이고.  
 614) 千峰에. 수많은 산봉우리에.  
 615) 花草木實. 꽃, 풀, 나무열매.  
 616) 전혀 없어.  
 617) 던진 듯이. 내던져진 듯이.  
 618) 彩雲. 빛깔이 찬란한 구름.  
 619) 片月. 조각달.  
 620) 武關囚.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 회왕을 가리킴.  
 621) 楚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622) 日月苦楚 北海上 蘇中郎. 흉노 땅의 북해(카스피해)에서 날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한나라의 소무(蘇武). 소무는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갇은 고생 끝에 19년 만에 늘어 돌아옴. ‘중량’은 벼슬.  
 623) 고생이로다.  
 624) 嚴冬雪寒.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  
 625) 碧桃紅杏. 복숭아꽃과 붉은 살구꽃.  
 626) 春二月에. 봄 이월달에.  
 627) 口腹. 뱃속.  
 628) 深山窮谷. 깊은 산 속 깊은 골짜기.  
 629) 올라가미.  
 630)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  
 631) 峰峰이. 산봉우리마다.  
 632) 매를 받쳐 들고 있는.  
 633) 鷹主. 매 주인. 혹 ‘웅사’라고도 함. ‘웅사’는 고려, 조선 시대에 매사냥을 위해 웅방이라는 기관을 두었는데, 그곳에 소속된 매사냥꾼을 웅사라고 하였음.  
 634) 올라가미.  
 635) 채이거드면. 채이면. 걸리면.  
 636) 結項致死. 목이 졸려 죽음.

- 637) 대랑대랑.  
 638) 祭需. 제사에 쓰는 여러 물건이나 음식.  
 639) 青天에. 푸른 하늘에.  
 640) 대가리. ‘머리’의 속된 표현.  
 641) 웅크리고. 몸을 우그러 작게 하고.  
 642) 들어오는. 달려드는.  
 643) 독수리.  
 644) 기슭으로. 산기슭으로.  
 645) 盤松잎. 키가 작고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자란 소나무 잎.  
 646) 짐승들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소리.  
 647) 매사냥에서 매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수왓치 혹은 수할치라고도 한다.  
 648) 海東靑. 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색깔이 푸른 매.  
 649) 그 해에 갓 새끼 매로, 길이 잘 든 매. 가슴의 깃이 보라색임.  
 650) 불명. ‘빼깃’은 가벼운 새의 깃털로 만들기 때문에, ‘두루미의 깃털’을 가리킬 수도 있음.  
 651) 빼깃. 빼깃. 닭이나 기러기 깃에다가 각을 붙인 것. ‘각’은 ‘시치미’라고도 하는데, 매가 날아가 버렸을 때 매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매의 꼬리에다 주인의 주소와 이름, 매의 이름을 적어 달아두는 꼬리표.  
 652) ‘공작우(孔雀羽)’인 듯. 공작의 깃털. 공작의 깃털로 장식을 만들어 매의 꼬리에 단다.  
 653) 불명.  
 654) ‘도래 장스치 바까치 떨쳐’여야 할 듯. ‘바까치’는 매의 발목을 맨 가죽끈. ‘도래’는 매의 발목을 묶은 바까치와 장스치를 연결하는 쇠고리. 회전이 자유스러워 줄이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음. ‘장스치’는 도래에 매연결된 가죽 줄.  
 655) 죽지(새의 날개에 몸에 붙은 부분)를 펴려 날갯짓을 하고.  
 656) 높이 솟아 당당하게.  
 657) 兩眉間. 두 눈썹 사이.  
 658) 머릿골이 있는 부분.  
 659) 있나?  
 660) 중턱.  
 661) 松下. 소나무 아래.  
 662) 불을 놓으려고. 총을 쏘려고.  
 663) 총을 잘 쏘는.  
 664)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풀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  
 665)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입는 풀을 꿇은 적삼.  
 666) 짐승이나 새, 물고기 등을 잡아 떼어 매는 노끈.  
 667) 재빨리 지나가거나, 보이면.  
 668) 相思 밤. ‘토끼만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밤’인 듯하나 분명치 않음.  
 669) 倭物鳥銃. 일본에서 들어온 화승총.  
 670) 덮사슬. 이중 탄환.  
 671) 쩡그리고.



- 672) 내려가지요.
- 673) 樵童牧童. 나무하는 아이와 목동.
- 674) ‘서로 부르니’의 뜻인 듯하나 분명치 않음.
- 675) 술청 앞에 서서 마시는 술.
- 676) 樵軍. 나무꾼.
- 677) 白登 七日 窮困하던 漢太祖 肝腸. 백등이라는 곳에서 흉노에게 포위당해 7일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라 태조의 간장.
- 678) 赤壁江 秋夜月에. 적벽강 가을 달밤에.
- 679) 曹孟德 精神이라. 적벽강에서 촉(蜀)과 오(吳)의 연합군에게 불로 공격을 당하여 대패하던 조조의 정신이라.
- 680) 짧은.
- 681) 사타구니.
- 682) 끼고.
- 683) 層巖絶壁. 바위가 층층이 쌓인 절벽.
- 684) 石山. 돌산.
- 685)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함.
- 686) 赤松子.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 687) 거짓말.
- 688) 내어 말을 하는가? ‘썰다’는 ‘말하다’의 비어.
- 689) 天壤之間. 하늘과 땅 사이.
- 690) 海乃最大. 바다가 가장 큼.
- 691) 萬物之中. 세상의 온갖 사물 가운데.
- 692) 神爲最靈. 신(伸)이 가장 신령스러움.
- 693) 無邊大海. 끝이 없는 큰 바다.
- 694) 間. 집에서 넓이를 재는 단위로, 대개 일곱 자(210cm) 평방, 또는 여덟 자(240cm) 평방, 아홉 자(270cm) 평방을 이룸.
- 695) 주춧돌. 원주형으로 다듬어 만든 주춧돌. 둥근 기둥 밑에 받침.
- 696) 朱欄畫閣. 단청을 곱게 입히고 화려하게 꾸민 누각.
- 697) 萬族. 모든 백성.
- 698) 貴示하고. 귀하게 여기고.
- 699) 仰德. 덕을 우러러 받들.
- 700) 王母 金瓶의 千日酒. 서왕모(西王母)가 금병에 담아 보낸 천일주. ‘서왕모’는 중국에서 받들던 선녀로, 곤륜산의 요지(瑤池) 연못에 산다고 함. ‘천일주’는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좋은 술.
- 701) 千賓玉盤. 천 명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넓은 옥쟁반.
- 702) 不老草.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약초.
- 703) 不死藥.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약.
- 704) 一等美色. 세상에서 제일가는 아름다운 여자.

- 705) 大紅船. 고운 색을 칠한 큰 놀잇배.  
 706) 自言居水勝居山. 스스로 물에서 사는 것이 산에서 사는 것보다 좋다고 말함.  
 707) 瑤池. 서왕모가 산다는 전설의 연못.  
 708) 群山. 산의 무리.  
 709) 三千沙場. 삼천리나 되는 긴 모랫벌.  
 710) 弱水.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흐르는 물. 부력(浮力)이 약해 기러기 털마저 가라앉는다고 함.  
 711) 海內太平 月清明 秋江上. 바다 안이 태평하고, 달이 맑고 밝은 가을 강물 위.  
 712) 漁笛. 어부가 부는 피리.  
 713)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714) 涇水. 중국 감숙성 화평현과 고원현의 두 곳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에서 위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 중국에서는 경수(涇水) · 위수(渭水) · 이수(伊水) · 낙수(洛水) · 한수(漢水) · 소수(灊水) · 상수(湘水) · 장수(章水) · 공수(貢水)를 구류(九流)라고 하고, 황하(黃河) · 양자강(楊子江) · 회수(淮水) · 제수(濟水)를 사독(四瀆)이라고 하고, 절강(浙江)과 양자강을 이강(二江)이라 하고, 동정(洞庭) · 청초(青草) · 단양(丹陽) · 팽려(彭蠡) · 태호(太湖)를 오호(五湖)라고 한다.  
 715)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716) 洛水. 섬서성 정변현에서 비롯하여 위수와 합쳐져 황하로 들어가는 강.  
 717) 淮水. 중국 대별산맥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양자강으로 들어가는 강.  
 718) 漾津. 섬서성 반충산에서 비롯하여 흐르는 한수의 상류.  
 719) 蒲津. 산서성에서 비롯하여 황하로 흘러가는 포수(蒲水)에 있는 나무인 듯하다.  
 720) 惑去惑來. 오락가락함.  
 721) 風骨. 풍채와 골격.  
 722) 萬歲同樂. 오래오래 같이 즐겁.  
 723) 願一見之水宮. 수궁을 한 번 보기를 원함.  
 724) 아닌 게 아니라.  
 725) 시퍼렇게 생겨서.  
 726) 속아서.  
 727) 앙금앙금.  
 728) 遠路水邊. 물가 까지의 먼 길.  
 729) 오냐.  
 730) 어떤 직책을 받아 활동하러.  
 731) 참되지 않아 미덥지 못한.  
 732) 危邦. 위험한 나라.  
 733)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음.  
 734) 碌碌한. 보잘 것 없는.  
 735) 古人. 옛 사람.  
 736) 兔死狐悲.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  
 737) 巖穴. 바윗굴.

- 738) 보금자리를 꾸미고 살고.
- 739) 林泉. 숲 속에 있는 샘. 변하여 자연을 뜻하기도 함.
- 740) 同性. '동성'은 '같은 성'을 뜻한다. '같은 부류'의 의미로 쓰임.
- 741) 同氣相通. 같은 종류끼리 서로 통함.
- 742) 말하고 했더니.
- 743) 茫茫滄海. 넓고 아득한 큰 바다.
- 744) 누구를.
- 745)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음.
- 746) 여우.
- 747) 죽을 뻔했소그려.
- 748) 他國. 다른 나라.
- 749) 戶曹. 조선시대 호구, 부역, 세금 등 국가 재정을 맡아보던 기구.
- 750) 갑잡골. 골짜기를 하는 가로잡기 노름. 가보는 낫수 9를 가리킴.
- 751) 不得不. 어찌할 수 없이.
- 752) 음흉하기가.
- 753) 金砲手. 김씨 성을 가진 포수(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 754) 길의 긴요한 곳. 여기서는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목'이라는 뜻
- 755)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 756) 아닌 게 아니라.
- 757) 보낸다니까.
- 758) 不遠千里. 천리를 멀다고 하지 않음.
- 759) 梁惠王. 중국 전국시대에 위(魏)나라의 제후 앵(鶯)은 서울을 대량으로 옮기고 왕이 되었는데, 이가 혜왕이다.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천하의 인재를 불러들였는데, 맹자도 그를 찾아간 적이 있다.
- 760) 渭水 漁父 姜太公. 문왕을 만나 등용되기 이전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강태공을 가리킴.
- 761) 29) 入周하고, 주나라에 들어가고. 문왕이 강태공을 모셔간 것을 말함.
- 762) 漢既渡倉 蜀道難의 黃面將軍 韓信이. '한기도창'은 '한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진장을 이미 건너'라는 뜻. 한신이 진나라와 싸울 때 수령이 많은 진창 지방으로 군대를 끌고 나온 일을 말함. '촉도난'은 '험한 촉나라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후에는 '험한 길'을 뜻하게 되었다. '황면장군'은 한나라 유방의 장수인 한신을 가리키는데, 한신의 얼굴이 누렇다하여 붙인 이름.
- 763) 蕭何. 한 고조 유방의 참모로, 한신을 천거하여 도원수로 삼게 했다.
- 764) 漢中. 중국 섬서성 남서쪽 한강(漢江) 북쪽의 땅으로, 사천·호북에 이르는 요충인데, 한 고조 유방이 항우로부터 한왕(漢王)에 책봉된 곳임.
- 765) 大將壇. 장수가 지휘를 위해 위치하는 단.
- 766) 萬歲同樂. 오래 세월을 함께 즐김.
- 767) 갑시다.
- 768) 秋江. 가을 강.

- 769) 風月, 청풍(淸風)과 명월(明月), 곧 자연의 아름다움. 혹은 바람과 달에 부쳐 시를 읊음. 또는 그 지은 시.
- 770) 洋洋江水, 넓고 넓은 강물.
- 771) 十里 長江, 넓이가 10리나 되는 양자강.
- 772) 碧波上, 푸른 물결 위.
- 773) 거룻배인가. '거룻배'는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 774) 五湖滄波 煙月 속에 范相公 놀던 배인가. 오호의 푸른 물결에 안개 자욱한 달밤 범상공이 타고 놀던 배인가. '오호'는 동정호, 또는 태호라고도 하고, 공호, 서호, 매량호, 금정호, 유호의 다섯 호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범상공'은 오호에 배를 띄우고 여생을 한가하게 보냈던 범려(范蠡). '범려'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월나라의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재상이 되었으나, 후에 이를 버리고 미인 서시를 데리고 도 지방에 가서 부자가 되어 살았다고 함. 후에 그 재물마저 나누어주고 강호에서 노닐었다고 함.
- 775) 雙雙白鷗, 짝을 지어 노는 갈매기.
- 776) 물 위에 흐르며 떠 있다.
- 777) 蕭蕭秋風送雁群, 쓸쓸한 가을바람이 기러기떼를 날려보내다. 당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의 시 〈추풍인(秋風引)〉의 '何處秋風送雁群(어디서 오는 가을 바람이 쓸쓸한 기러기떼를 보내는가)'에서 따온 구절.
- 778) 거기.
- 779) 한 마디 말을.
- 780) 白雲青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781) 碧海龍宮, 푸른 바다 속 용궁.
- 782) 鸚鵡前에, 앵무새에게.
- 783) 잔소리.
- 784) 그날에야말로. 하필이면 그날에.
- 785) 마구 뒤틀리고 우그러져서.
- 786) 따뜻한.
- 787) 얼굴을. '낯짝'은. '얼굴'의 속된 말.
- 788) 움직이듯.
- 789) 이리 젖히고 저리 젖히며.
- 790) 자꾸 행동이나 태도를 꾸미시오?
- 791) 물 따위가 큰 물결을 이루며 자꾸 흔들리는 모양.
- 792) 훌렁훌렁하고 다니며.
- 793) 참되지 않아 미덥지 못한.
- 794) 실속이 없소그려. 별 것 아니오그려.
- 795) '그만두어라'라는 뜻으로 쓰는 감탄사.
- 796) 발목까지 닿은 깊이 물.
- 797) 슬그머니.
- 798) 片箭살이라, 축이 날카롭고 짧은 화살이라. 곧 그렇게 빠르다는 말.

- 799) 물결이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  
 800) 녀석아.  
 801) 밀 닦는 휴지.  
 802) 여럿이 다 또는 잇따라 속의 것이 시원스럽게 드나들도록 완전히 벗어지거나 뒤집히는 모양.  
 803) 남녀의 국부를 씻는 물.  
 804) 瀟湘八景. 중국의 소수와 상강이 모이는 지방의 뛰어난 여덟 경치로, 평사낙안(平沙落雁), 원포귀범(遠浦歸帆), 산시청람(山市晴嵐), 강천모설(江天暮雪), 동정추월(洞庭秋月), 소상야우(瀟湘夜雨), 연사만종(煙寺晚鍾), 어촌석조(漁村夕照).  
 805)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806) 물건이 공중이나 바다에 떠 있는 모양.  
 807) 茫茫. 넓고 아득함.  
 808) 滄海. 넓고 큰 바다.  
 809) 蕩蕩. 넓고 큰. 물살이 힘찬.  
 810)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811)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812) 三江. 오나라의 송강, 전당강, 포양강의 세 강.  
 813)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814)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815)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 혹은 그 소리.  
 816) 그것이건마는.  
 817) 曲終人不見. 노래가 끝나고 사람은 보이지 않음.  
 818) 數峯. 몇몇 산봉우리.  
 819) 欸及聲中萬古愁는.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있다고 한 것.  
 820) 長沙. 중국 호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821)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사람으로,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장사왕(長沙王)과 양(梁) 나라 회왕(懷王)의 태부가 됨. 굴원의 넋을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822)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湘江)으로 들어감.  
 823)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을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경>을 짓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824)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825) 무양(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인사말로 쓰임.  
 826)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장현의 서쪽의 황학산에 있는 누각.  
 827) 81) 日暮鄉關何處是요 煙波江上使人愁.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시름만 더해 준다. 당나라 때 시인 최효의 <황학루>의 끝 구절.  
 828) 崔灝의 遺蹟인가? 당나라 때 시인 최호가 남긴 자취인가. 최호가 쓴 <황학루>의 끝 구절. 최호는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 829)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 830) 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白鷺洲라.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의 한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 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양자강이 휘감고 흐르는 산.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이수(淮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 831)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늪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832)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 833) 一去後에 한번 가버린(죽은)후에.
- 834) 琵琶聲 비파 소리. 백거이가 늪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을 지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 835) 赤壁江.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을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836) 蘇東坡. 송나라 시인으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 이름은 식(軾), 동파(東坡)는 호임. <적벽부(赤壁賦)>로 유명함.
- 837) 風月. 청풍명월. 자연 경치. 또는 그것을 노래한 시.
- 838) 依舊. 옛과 같음.
- 839)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호임.
- 840) 一世之雄. 한 때의 영웅.
- 841) 而今에 安在哉요. 지금에 어디에 있는가.
- 842) 당나라 때 시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에서 딴 구절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月落烏啼霜滿天 江楓漁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달은 지고 까마귀 울고, 서리는 하늘에 가득하다. 강가의 단풍나무, 고기잡이 불 시름에 줄며 바라본다. 한밤중 고소성 밖 한산사의 종소리가 나그네가 탄 배까지 들린다). 고소성은 중국 감소성 오현의 소주(蘇州).
- 843)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라는 시를 그대로 딴 것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목으려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파는 여인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진회수는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망국한은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陳) 나라의 임금인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즐기던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후정화>는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844)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함께 이르는 말. 강가에서 난다는 얼룩 무늬가 있는 소상반죽으로 유명함.

- 845) 岳陽樓. 중국 동정호에 있는 누대인데, 두보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로 유명함.
- 846) 湖上에. 호수 위에. 여기서 호수는 동정호임.
- 847) 吳山. 오나라의 산.
- 848) 楚水. 초나라의 강.
- 849) 萬重이요. 여러 겹으로 쌓여 있고.
- 850) 班竹. 소상강 가에서 난다는 얼룩무늬가 있는 대. 순임금이 청오산에서 죽자 그의 두 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슬피 울며 흘린 피눈물이 상강의 대를 물들여 생겼다는 전설이 있음.
- 851) 二妃恨. 요임금의 두 딸이며, 순임금의 두 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의 슬픔.
- 852) 巫山. 중국 사천성 무산현 동쪽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
- 853) 洞庭湖.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민물 호수. 양자강의 중류에 있음
- 854) 上下天光. 하늘과 물에 비친 하늘 빛.
- 855) 山峽. 산속의 골짜기.
- 856) 원승이.
- 857) 遷客.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귀양 간 사람.
- 858) 騷人. 시인, 또는 문사.
- 859) 瀟湘八景. 중국의 소수와 상강이 합치는 곳의 여덟 가지 아름다운 경치.
- 860) 風磬. 처마 끝에 달아서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나게 하는 작은 종처럼 생긴 물건.
- 861) 白玉 懸板. 백옥으로 만들어 달아놓은 현판. 현판은 글씨나 그림을 새겨 문 위에 걸어놓은 널조각.
- 862) 黃金大字. 황금 빛깔의 큰 글자.
- 863) 뚜렷하게.
- 864) 아닌 게 아니라.
- 865) 下官末席. 지위가 낮은 보잘 것 없는 벼슬아치 또는 그 직위.
- 866) 令. 명령.
- 867) 五衛營門. 오위의 군문. 오위는 조선조 때의 군대 편제.
- 868) 都總管. 도총관은 오위를 관장하는 오위도총부의 책임 장관.
- 869) 入侍. 대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870) 現身.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처음으로 뵈.
- 871) 몸을 뒤로 조금 젖히고 멀찍이서.
- 872) 生擒. 사로잡음.
- 873) 闕門. 대궐의 문.
- 874) 待令. 윗사람의 명령이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
- 875) 廳令. 관청에서 내리는 명령.
- 876) 우끈우끈하니. ‘우끈우끈’은 어떤 기운이 한꺼번에 세차게 잇달아 일어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임.
- 877) 左右 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에 딸린 하급 병졸. 나졸은 말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 체포를 담당했음.
- 878) 禁軍. 조선시대 금군청이나 용호영(龍虎營)에 딸려,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던

말탄 군사.

- 879) ‘승어’의 방언인 듯.  
880) 巡令手. 대장의 전령. 호위를 맡거나,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881) 내달려. 갑자기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  
882) 秦皇. 진시황을 가리킴.  
883) 山陽 싸움에 馬超 싸듯. 마초는 서량태수 마동의 아들로, 아버지가 조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자, 군사를 일으켜 장안성을 열흘 동안 포위했다가 함락시키는 등 조조의 군사를 크게 무찔렀음.  
884) 營門出師 盜賊 잡듯. 명령을 받은 포졸이 병영을 나서서 도적을 잡듯.  
885) 막 무리하게.  
886) 三伏달임. 복날에 그 해의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고기불이로 국을 끓여 먹는 일.  
887) 약을 넣어 끓인 개장국.  
888) 烏鷄湯. 검고 작은 닭인 오계를 푹 삶아 고은 탕.  
889) ‘오계탕 달여 먹고’는 ‘오계탕을 달여 먹듯이 달여 먹고’의 뜻.  
890) 잘랑 만들어. ‘잘랑’은 ‘개잘랑’의 준말. 개잘랑은 방석처럼 깔려고 털이 붙어 있는 채로 가공한 개가죽.  
891) 瘀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맺혀 있는 증세, 또는 그 피. 흔히 무엇에 부딪혔을 때 생김.  
892) 血痰에는. 혈담은 피 섞인 가래.  
893) 塗炭. 진흙과 숯.  
894) 頭皮. 잡은 소의 머리와 가죽.  
895) 잡은 소의 네 다리.  
896) 소의 밥통의 고기.  
897) 회쳐 먹는 간.  
898) 되새김질하는 위의 세 번째 위로, 많은 잎 모양의 얇은 조각이 있음.  
899) 厚薄없이.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공평하게.  
900) 꾸며 만들고.  
901)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는 노란색깔의 단단한 물체, 한약재로 쓰임.  
902) 값중한. 값비싼.  
903) 제길혈.  
904) 腰短項長千里馬. 허리가 짧고 목이 긴 천리마.  
905) 先看目後看足이라. 먼저 눈을 보고, 뒤에 발을 본다는 말로, 말을 고르는 방법.  
906) 燕人也 五百金으로 네 뼈를 사갔으니. 중국 전국시대에 연나라 광외가 소왕에게 여진 신하를 얻는 방법을 말할 때 해 준 이야기로, 천리마를 구해오라는 명을 받은 신하가 오백금을 주고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오자, 살아 있는 준마라면 엄청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천리마를 구할 수 있었다는 내용.  
907) 바친다면.  
908) 千金賞. 천금이나 되는 많은 상.  
909) 朱杖대로. ‘주장대’는 주릿대나 무기로 쓰이는 붉은 칠을 한 몽둥이.



- 910) 結縛하야. 꼭꼭 묶어서.  
 911) 鐵杖대. 쇠몽둥이.  
 912) 藍輿. 위를 덮지 않은 작은 가마.  
 913) 亂杖. 마구 때리는 매.  
 914) 짐승의 정강이에 튀어나온 뼈.  
 915) 靈德殿. 남해 광리왕(廣利王)이 새로 지었다는 궁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수궁경 회록〉에 나옴.  
 916) 넓은.  
 917) 둘 셋 혹은 네 번.  
 918) 덩굴려 놓으니.  
 919) 틈을 내어 터뜨려. 갈라서.  
 920) 더울 때에.  
 921) 魚兵諸卒. 수많은 물고기 병졸들.  
 922) 龍宮地下에 必死當罷라. 용궁에서는 토끼가 죽을 수밖에 없다.  
 923)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중에.  
 924) 쭉. 불쭉.  
 925) 몽그적몽그적. 나아가는 시늉을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느리게 비비대며 움직이는 모양.  
 926) 배 가르는 일을 안 당하려고.  
 927) 防塞. 남의 청을 완강하게 거절함.  
 928) 必有曲折. 반드시 까닭이 있음.  
 929) 曲折. 까닭.  
 930) 서슴지 않고 선뜻 행동하는 모양.  
 931) 木碑. 나무로 만든 비.  
 932) 曲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933) 泰山이 崩頽하고. 태산이 무너져서. 태산이 무너지면 임금에게 재앙이 있다 함.  
 934) 五星. 풍수지리설에서 하늘의 형체를 이룬다는 다섯 별인 火·金·水·木·土.  
 935) 陰陰한데. 어두운데.  
 936) 時日曷喪. 해가 언제 사라질까. 《서경(書經)》에 나오는 말인데, 폭군인 곽(桀)이 자기를 해라고 했으므로, 폭정을 못 이긴 백성들이 빨리 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함.  
 937)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  
 938) 貪虐한. 욕심이 많고 포악한.  
 939) 商紂임금. 상나라, 곧 은(殷)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紂)를 말함.  
 940) 聖賢. 성인과 현인.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  
 941) 일곱 개의 구멍.  
 942) 比干. 은나라 때의 충신. 주(紂)의 잘못을 깨우쳐주려다 죽임을 당했음.  
 943) 無故히. 까닭없이.  
 944) 구멍.  
 945) 兎命. 토끼의 목숨.

- 946) 누구를.
- 947) 當치. 마땅하지. 옳지.
- 948) 醫書. 의학책.
- 949) 脾受病則口不能食. 지라에 병이 나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함.
- 950) 腎受病則耳不能聽. 신장(콩팥)에 병이 나면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함.
- 951) 膽受病則舌不能言. 쓸개에 병이 나면 혀로 말을 하지 못함.
- 952) 肝受病則目不能視. 간에 병이 나면 눈으로 보지 못함.
- 953) 月輪精氣. 달의 정기.
- 954) 생겼기 때문에.
- 955) 病客. 아픈 사람.
- 956) 칠녕쿨로 꼬아 만든 노끈.
- 957) 瀛州. 산 이름으로,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 958) 石上. 바위 위.
- 959) 맨 위의 가지.
- 960) 맨 끄트머리.
- 961) 桃花流水. 복숭아꽃이 떠오르는 시내.
- 962) 玉溪邊. 맑은 시냇가.
- 963) 濯足하러. 발 씻으러.
- 964) 玩景次로. 구경하러.
- 965) 왔습니다.
- 966) 一身之內臟. 한 몸 속의 한 내장.
- 967) 出入치. 들어가고 나가지. 넣고 꺼내지.
- 968) 들이고.
- 969) 知其日이요, 未知其二로소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십니다.
- 970) 伏羲氏.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3황5제의 수위를 차지하며,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은 뱀이고, 얼굴은 사람으로, 소의 머리와 범의 꼬리를 가졌다고 함.
- 971) 蛇身人首. 몸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의 형상.
- 972) 神農氏.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며, 성은 강(姜)임. 화덕(火德)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와 악사(樂師)의 신. 8괘를 겹쳐 64괘를 만들어 역자(易者)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 973) 人身牛首.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형상.
- 974) 頭上. 머리 위.
- 975) 무슨.
- 976) 몸뚱이.
- 977) 기다란. 생각보다 긴.
- 978) 털이 보드랍게 복실복실 난 상태를 이르는 말.

- 979) 뭉뚝.  
 980) 까마귀.  
 981) 쓸개.  
 982)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983) 洞燭. 헤아려 살핌.  
 984) 속임을 당하느라고, 속느라고.  
 985) 標. 표시.  
 986) 구멍.  
 987) 셋이. 세 개가.  
 988) 萬物始生. 만물이 처음 생김(생겼을 때에).  
 989) 東方三八木. 풍수지리설에서 오행의 하나인 목(木)은 천수(天數) 3과 지수(地數) 8이 모여서 생겼으며, 동쪽을 가리킨다.  
 990) 南方二七火. 오행의 하나인 화(火)는 천수(天數) 2와 지수(地數) 7이 모여서 생겼으며, 남쪽을 가리킨다.  
 991) 西方四九金. 오행의 하나인 금(金)은 천수(天數) 4와 지수(地數) 9가 모여서 생겼으며, 서쪽을 가리킨다.  
 992) 北方一六水. 오행의 하나인 수(水)는 천수(天數) 1과 지수(地數) 6이 모여서 생겼으며, 북쪽을 가리킨다.  
 993) 中央五十土. 오행의 하나인 토(土)는 천수(天數) 5와 지수(地數) 10이 모여서 생겼으며, 중앙을 가리킨다.  
 994) 天地陰陽. 온 세상의 음과 양.  
 995) 四時精氣. 네 계절을 생성하는 원기.  
 996) 化하여. 변화하여.  
 997) 萬病回春. 모든 병으로부터 낫고, 다시 건강을 찾음.  
 998) 나더러. 나에게.  
 999) 부(腑). 내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내장의 수효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였음.  
 1000) 부(腑).  
 1001) 晚時之歎이. 기회를 놓쳐 뒤늦었음이 안타까와하는 탄식.  
 1002) 속임을 당해 가지고, 속아서.  
 1003) 解縛. 묶인 것을 풀어줌.  
 1004) 聖堂. 거룩한 집. 여기서는 궁전을 가리킴.  
 1005) 開諭. 타일러 가르침.  
 1006) 상처를 내어 터뜨릴. 가를.  
 1007) 紫霞酒. 신선이 사는 곳에 떠도는 자줏빛 구름으로 담은 술. 좋은 술.  
 1008) 天日酒. 담은 지 천 일만에 먹는 술.  
 1009) 麒麟脯. 상상의 동물인 기린의 고기를 얇게 썰어내어 양념하여 말린 포. 좋은 안주.  
 1010) 鸚鵡羹. 앵무조개의 껍데기를 가공하여 만든 술잔. 좋은 술잔.  
 1011) 호로병. 호로병박 모양으로 만든 병. 여기서는 ‘유리병(琉璃瓶)’으로 해야 할 듯함.  
 1012) 兎生具. 토끼를 의인화한 표현. ‘생원’은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는 뜻으로 그 성

- 밑에 붙여 쓰는 말.
- 1013) 주인이니까.
- 1014) 달라. 다오.
- 1015) 主人之道理. 주인으로서의 도리.
- 1016) 먼저.
- 1017)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 1018)盞. 잔.
- 1019) 제가.
- 1020) 東醫寶鑑.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한 데 모아 편찬한 조선조 때의 으뜸가는 의서. 조선조 선조 30년(1597) 허준이 왕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됨.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 정연한 책으로 총 4권 2책, 활자본.
- 1021) 今時初聞. 이제야 비로소 처음 들음.
- 1022) 春雉自鳴. 봄에 꿩이 제 울음 때문에 들켜 죽는다는 뜻으로, 제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
- 1023) 水宮風流. 수궁의 음악.
- 1024)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함부로 흩어져 있음.
- 1025) 王子 賸.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한다. 뒤에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날아갔다고 전함.
- 1026) 왕자 진이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냈기 때문에 붙인 듯한.
- 1027) 成蓮子.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인.
- 1028) 張良의 玉塼소. 장량은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였는데, 해하 싸움에서 달밤에 옥통소를 구슬프게 불어 초나라 항우의 군사들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겼는데, 여기서는 이를 두고 한 말임.
- 1029) 嵇康.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숙야(叔夜)이며,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임.
- 1030) 阮籍.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으로 죽림칠현의 중심인물. 자(字)는 사종(嗣宗)이며, 하남(河南) 사람이다.
- 1031) 靈鼈 북을 치고. 신령스러운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고, 《전등신화》의 〈수궁경 회록〉에 있는 ‘격령타지고(擊靈鼈之鼓 吹玉龍之笛. 신령스런 악어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고, 용의 울음소리를 내는 옥으로 만든 피리를 분다.)’에서 따온 말.
- 1032) 郭處士. 당나라 무종 때의 악도원을 가리키는데, 악도원은 격구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033)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나라 질장구와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죽장구라고 한 듯하다. ‘죽장구’는 ‘질장구’가 변하여 된 말.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담은 큰 놋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034) 질장구 소리를 흥내낸 말.
- 1035) 擊鼈鼓 吹龍笛.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고, 용의 울음 소리를 내는 피리를 불다. 당나라 때 시인 이하(李賀)의 시 〈장진주(將進酒)〉에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는 ‘취용

- 적 격타고'로 되어 있다.
- 1036) 凌波詞. 당나라 현종이 꿈속에서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을 깬 뒤에 지었다는 노래.
- 1037)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038) 羽衣曲. 당나라 현종이 지은 노래.
- 1039) 採蓮曲. 중국 양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당나라 24악곡 중의 하나인 〈강남롱(江南弄)〉 속에 들어 있는 악곡.
- 1040)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 1041) 약이로구나.
- 1042) 渭水 漁父 姜太公. 강태공이 주나라 문왕을 만나 등용되기 전에 위수에서 낚시를 하면서 지낸 일을 말함.
- 1043) 동작이 가볍고 시원스럽게 빠른 모양.
- 1044) 窮八十 達八十.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기 전 80년은 곤궁하게 살고, 그 후 80년은 호사를 하며 살았는데, 전자를 궁핍십, 후자를 달팔십이라고 함.
- 1045) 살으시고.
- 1046) 三千 甲子. 삼천 번의 갑자. '갑자'는 육십 간지 중 첫 번째로 60년을 뜻하기도 함. 삼천갑자는 180,000년임.
- 1047) 東方朔. 한나라 무제 때 사람으로 자(字)는 만청(曼靑). 벼슬이 금마문시중(金馬門侍中)에 이르고,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음. 속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 하였다 하는데, 삼천 갑자를 살았다고 하여 '삼천갑자 동방삭'이라 일컫는다.
- 1048) 부(臍)째. 내장의 장기 통째.
- 1049) 換骨奪胎. 용모가 트여 전혀 딴 사람이 됨.
- 1050) 延年益壽. 나이를 늘여 더욱 오래 살게 됨.
- 1051) 草綠帳. 초록의 장막.
- 1052) 靑布帳. 푸른색의 포장. 버들가지가 포장을 친 듯이 우거진 것을 말함.
- 1053) 둘러쳐.
- 1054) 둥그스름하게 넓적해지거나, 평평하게 널찍해져.
- 1055) 春悲春興. 봄날에 느끼는 비애와 흥취.
- 1056) 동이.
- 1057) 아무데나 옮겨서 걸고 쓸 수 있는 술.
- 1058) 치켜들고.
- 1059) 출랑출랑하면서. 체신없이 까불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면서.
- 1060) 망둥이.
- 1061) 몹시 빠르고 세찬 모양.
- 1062) 미리 기세를 꺾어보는데.
- 1063) 여기 있다. '해라' 할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 1064) 녀석아.
- 1065) 술잔이나.
- 1066) '그만두어라'라는 뜻으로 쓰는 감탄사.

- 1067) 방법이나 수단.  
 1068) 거기에.  
 1069) 할 수 없이.  
 1070) 차(次)로. ~하려고. 여기서는 ‘~을 무릅쓰고.’  
 1071)奸邪하여. 간교하고 바르지 않아서.  
 1072)草木禽獸. 초목이나 짐승들.  
 1073)誹笑할. 비웃을.  
 1074)孟獲을 七縱七擒하던 諸葛亮의 재주 아니라면. 제갈량이 남중에서 남쪽 오랑캐의 우두머리 맹획을 일곱 번이나 잡았다가 놓아주어 복종시킨 일을 말함.  
 1075)小臣.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1076)九族. 고조, 증조, 조부, 부친, 본인, 아들, 손자, 증손, 현손 및 형제, 사촌형제, 육촌형제, 팔촌형제를 아울러 일컫는 말.  
 1077)滅하여. 죽여.  
 1078)陵遲處斬. 죄인을 머리, 손, 발, 몸뚱이 따위로 토막을 내는 극형.  
 1079)至重커든. 매우 중하거든. 매우 무거운데.  
 1080)欺罔. 남을 그럴 듯하게 속여 넘김.  
 1081)夏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겐(桀). 폭정을 일삼았음.  
 1082)虐政. 포악한 정치.  
 1083)龍逢. 하나라 겐 임금 때의 충신. 옳은 일을 간하다 죽임을 당함.  
 1084)未久에. 오래지 않아.  
 1085)邪. 요사스럽고 나쁜 기운.  
 1086)너희.  
 1087)너희.  
 1088)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관리.  
 1089)‘여기 있다’는 뜻으로 쓰는 말.  
 1090)옛다. 여기 있다.  
 1091)逐出定配. 쫓아내어 유배를 보냄.  
 1092)뻔히.  
 1093)너석아.  
 1094)口辯. 말 솜씨.  
 1095)二水. 양자강의 지류인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키는 말.  
 1096)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1097)三山. 남경 서남쪽에 있는 세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임.  
 1098)日落長沙秋色遠하니 不知何處弔湘君고. 해는 긴 모래밭에 떨어지고 가을 산빛은 아득한데, 어디서 상군을 조문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태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의 시구.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1099)蘇武. 벼슬이 중랑장이었기 때문에 흔히 소중랑이라 부른다. 한나라 무제 때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19년 만에 백발 노인이 되어 돌아왔다.  
 1100)劉秀氏. 중국에서 왕망을 무찌르고 후한을 세운 광무제(光武帝).

- 1101) 이에서. 이보다.
- 1102) 君子.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 1103) 問曰. 물어 말하기를. 묻기를.
- 1104) 何以至此하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십니까.
- 1105) 回足青山하니 觀不過諸觀이요, 濯足無臨하니 殆不過鳳凰이라. 素無知識하여 流魅平生이라. 청산으로 발길을 돌려 돌아오니 경치마다 정겨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고, 더러운 발이 이르지 않아, 봉황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세상이라. 본디 아는 게 없어 (별주부에게 속아 용궁에 갔다가) 도깨비가 되어 평생을 떠돌 뻔했다.
- 1106) 五湖滄波燃月夜. 5호의 푸른 물결 위에 안개가 자욱한 달밤. 5호는 동정호 또는 태호라고 하기도 하고, 공호, 유호, 서호, 매량호, 금정호의 다섯 호수라 하기도 한다.
- 1107) 越范蠡. 춘추시대 월나라의 장군 범려. 월나라 임금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후에 상장군이 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제나라 도(陶)지방으로 가서 스스로 도주공(陶朱公)이라 일컬으며 부자로 살았음.
- 1108) 檻外長江空自流. 왕발(王勃)의 시 <등왕각(藤王閣)>의 마지막 구절. '난간 밖의 강물만이 부질없이 흐른다'는 뜻.
- 1109) 藤王閣. 중국 강서성 남창현에 있는 누대로, 당 고조의 아들 이원영(李元嬰)이 홍주도독(洪州都督)으로 있을 때 세웠는데, 그가 등왕에 봉해졌으므로 등왕각이라고 부른다.
- 1110)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 1111)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112) 三國史蹟破高樓. 삼국의 사적은 무너진 높은 누대로만 남아 있다.
- 1113) 蘇子瞻 泛舟遊羅다. 소자첨이 배를 띄우고 노는구나. 소자첨은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며 송나라 때 문인인 소동파.
- 1114) 東山上 달 떠나 斗牛間에 徘徊하야 白鷺橫江을 함께 가. 소동파의 <적벽부> 중에서 '월출어동산지상(月出於東山之上) 배회어두우지간(徘徊於斗牛之間) 백로횡강(白鷺橫江)(동산 위에 달이 떠올라,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를 배회하는데, 백로는 강을 가로질러 간다.)'를 변형시킨 것임.
- 1115) 笑指蘆花月溢船. 웃으며 손가락으로 흰 갈대꽃과 달빛이 가득찬 배를 가리킴.
- 1116) 秋江. 가을 강.
- 1117) 騎鯨仙子. 고래를 탄 신선, 곧 이태백을 가리킴. 이태백은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고 함.
- 1118) 空秋月之團圓. (달을 노래하던 이태백의 풍류는 간 곳이 없고) 빈 하늘엔 가을 달만 등글다.
- 1119) 還山弄明月. 산중으로 돌아와 밝은 달을 보며 즐김.
- 1120) 遠海近山. 바다는 멀고, 산이 가까움.
- 1121) 碧海水邊. 푸른 바닷가.
- 1122) 여보시오.
- 1123) 몹시 빠르고 세찬 모양.

- 1124)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 1125) '발기다(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헤쳐 발리다)에서 나온 옥으로, '꺾어죽일 녀석'이라는 뜻.
- 1126) 슬기롭기.
- 1127) 나와 같고.
- 1128) 너희 용왕 슬기가 나와 같고, 내 미련이 너의 용왕 같았다면.
- 1129) 밀구멍.
- 1130) 셋이. 세 개가.
- 1131) 虛妄. 어이없고 공허함.
- 1132) 돌멩이. 돌.
- 1133) 웅기그릇을 짚어진 짐.
- 1134) 동물이나 곤충의 가슴 부분.
- 1135) 부쉬.
- 1136) 너의. 네.
- 1137) 그것으로.
- 1138) 보추때기 없는. '보추'는 진취성이나, 활발하며 시원한 성질. 여기서는 '버릇이나 짝수가 없는' 의 의미로 쓰였음.
- 1139) 버르장머리. '버릇'을 속되고 강하게 일컫는 말.
- 1140) 부디.
- 1141) 아무 이유 없이 떠는 공연한 방정.
- 1142) 땡땡이덩굴. 여러해살이 덩굴풀의 일종. 산기슭 양지나 들에 절로 나는데, 즐기는 목질에 가깝고, 다른 물체를 감고 있음.
- 1143) 이제.
- 1144) 正朝. 설날 아침.
- 1145) 寒食.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이 날은 자손들이 저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 높고 큰 은덕을 추모하며 제사를 지내고, 묘지에 손질을 하는 날임.
- 1146) 端午. 음력 오월 오일.
- 1147) 木碑. 나무 비.
- 1148) 쉬파리의 떼. '쉬파리'는 파리의 일종.
- 1149) 쉬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쉬파리. 쉬파리를 의인화한 표현.
- 1150) 사돈들. '네'는 '집안'. '가족의 전체', '편'의 뜻을 지님.
- 1151) 여기.
- 1152) 파리의 알. 혹은 애벌레.
- 1153) 슬러. '슬다'는 '알을 깔기다.'
- 1154) 속여버리고.
- 1155) 듬뿍, 가득하게 많이.
- 1156) 슬어주고.
- 1157) 용하다고는 하나. '용하다'는 '(재주가) 뛰어나게 좋다'는 뜻.
- 1158) 來歷. 지금까지 지내온 경로나 경력.



- 1159) 天地陰陽의 理致. 은 세상과 우주 만물의 이치.
- 1160) 뒤집어놓으면.
- 1161) (줄을) 긋거나 접거나 한 자리.
- 1162) 日月. 해와 달.
- 1163) 엄지손가락이 두 마디인 것은 천지인 삼재요(삼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는 세계의 근본이 되는 하늘, 땅, 사람을 가리킴.
- 1164) 집게손가락.
- 1165) 가운데손가락.
- 1166) 못하기는. 짧은 것은.
- 1167) 긴 것은.
- 1168) 약지손가락.
- 1169) 새끼손가락.
- 1170) 짧고.
- 1171) 子午卯酉.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네 요소. 곧, 네 방향. 자는 북쪽,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유는 서쪽.
- 1172) 乾坎艮震巽離坤兌. 《주역》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쳐서 나타내는 팔괘의 상(象).
- 1173) 先天八卦. 주나라 문왕이 만든 후천팔괘와 함께 주역의 근본이 되는, 복희씨가 만든 팔괘.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 1174) 佛道. 불교의 이치.
- 1175) 坎中連. 팔괘의 하나인 감의 상형.
- 1176) 艮上連. 팔괘의 하나인 간의 상형.
- 1177) 六道記文. 불교에서 중생이 지은 죄에 따라서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여섯 세계, 곧 지옥, 마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 대해 적은 글.
- 1178) 大藏經. 일체의 불경을 모두 모아놓은 것.
- 1179) 모두.
- 1180) 一掌中이라. 손바닥 하나 속에 있다.
- 1181) 내어도. 궁리를 해도.
- 1182) 대체. 아닌 게 아니라.
- 1183) 속여보겠소.
- 1184) 신고.
- 1185) 樵童牧豎. 나무하는 아이들과 목동.
- 1186) 경상도 민요의 선율의 특성을 일컫는 말.
- 1187) 무슨 놈의.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 1188) 팔자이기에.
- 1189) 갈퀴.
- 1190) 深山窮谷. 깊은 산과 골짜기.
- 1191) 이.

- 1192) 뭉뚱그려. 되는 대로 뭉치어 써서.  
 1193) 힘껏대로. 힘 닿는 대로.  
 1194) 해다가.  
 1195) 爲父母妻子. 부모를 위하고 아내 자식을 보살피는 일.  
 1196) 極盡恭待. 정성을 다하여 공손하게 잘 대접함.  
 1197) 슬어졌으니. ‘슬다’는 ‘알을 까다.’  
 1198) (냄새를) 맡아보려면.  
 1199) 궁둥이에다.  
 1200) 모아놓았던.  
 1201) 슬그머니.  
 1202) 그것이.  
 1203) 버려버렸으니.  
 1204) 속이고.  
 1205) 너희들에게.  
 1206) 성싶냐?  
 1207) 寬大長者. 성품이 너그럽고 집값은 사람.  
 1208)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1209) 局量. 도량이나 궁리.  
 1210) 나만한가?  
 1211) 亂世奸雄 曹孟德. 어지러운 시대의 간사한 영웅 조조(曹操).  
 1212) 많기가.  
 1213) 神出鬼沒.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뜻으로) 자유자재로 출몰하여 쉽사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음의 비유.  
 1214) 運籌決勝.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만든 쟁가지로 주역의 괘를 뽑아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함.  
 1215) 張子房. 한 고조를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모사. 이름은 량(良). 자방은 그의 자(字).  
 1216) 意思. 생각.  
 1217) ‘머리’의 비어.  
 1218) 이제.  
 1219) 無主空山. 주인 없는 빈 산.  
 1220) 어디로.  
 1221) 景概. 경치.  
 1222) 가지.  
 1223) 兩眉間부터. 두 눈썹 사이에서부터.  
 1224) 가르쳐.  
 1225) 貴히. 귀하게.  
 1226) 서슴지 않고 선뜻 행동하는 모양.  
 1227) 구멍이.

- 1228) 셋이. 세 개가.  
 1229) 구멍.  
 1230) 통기면서.  
 1231) 병아리새끼.  
 1232) 개의 창자.  
 1233) 던져놓고.  
 1234) 將軍님前에. 장군님 앞에.  
 1235) 죽는다면.  
 1236) 다시면서.  
 1237) 다오.  
 1238) 바위틈.  
 1239) 사이에다.  
 1240) 넣어놓았습니다.  
 1241) 거기까지.  
 1242) 발 힘.  
 1243) 병주등이.  
 1244) ‘머리’의 비어.  
 1245) 어디에다.  
 1246) 내올거냐?  
 1247) 어디에다.  
 1248) 무슨.  
 1249) 착실하거나 미덥지 않은.  
 1250) 달까말까합니다.  
 1251) 歲月이 如流하여.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1252) 부아. 화.  
 1253) 넣어보아라.  
 1254) 빼버릴 테니까.  
 1255) 먹게.  
 1256) 우글우글해. 많이 모여 있어.  
 1257) 무엇하러.  
 1258) 밤에 보는 시력.  
 1259) 할 수 없이.  
 1260) 그때부터.  
 1261) 火亡. 화망살(火亡煞). 불에 의해 죽게 될 독하고도 모진 운수.  
 1262) 거들먹거리고. 신이 나서 버릇없이 굴면서.